

국립국어원 2006-1-07 충남(2)

# 2006년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 ◆ 연구 책임자 : 한영목
- ◆ 연구 보조원 : 유세진
- ◆ 조 사 지 역 : 충청남도 논산시

국 립 국 어 원

2  
0  
0  
6  
년

충  
남  
지  
역  
어  
조  
사  
보  
고  
서

국  
립  
국  
어  
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6년도 충남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  
서를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20일

연구책임자 : 한영목

## 목 차

1. 조사 과정 .....	3
2. 전사 원칙 .....	7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발화 .....	11
제 2 편   어   휘 .....	173
제 3 편   음   운 .....	228
제 4 편   문   법 .....	260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디지털 녹음테이프	
3) 보존용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4) 조사된 질문지	
5)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6) 제보자 조사표	
7)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 1. 조사 과정

## 1.1. 조사 지점 개관

2006년도 지역어 조사지로 선정된 충남 논산시는 충남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쪽으로는 금산군, 유성구(대전광역시)와 접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부여군, 남쪽으로는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북으로는 공주시, 계룡시와 인접하고 있다. 1996년에 郡에서 市로 승격되었으며 행정구역은 2읍 11면 2동이다.

주제보자의 거주지인 부창동은 과거에 은진면에 속해 있었고, 보조제보자의 거주지인 연무읍은 구자곡면에 포함되었던 곳이다.

논산시의 전반적인 지형은 100m 내외의 낮은 구릉지와 넓은 평야로 이루어져 있어 대부분 평탄한 지형이며 남동부와 북동부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토양은 대부분 하천에 의해 퇴적된 충적토이며, 하천 유역에는 넓고 기름진 논산평야가 자리잡고 있어서 대부분 지역민들이 농업에 종사한다. 현재 이곳에서는 특수작물로 대추, 방울 토마토, 배, 포도 등을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논산딸기와 강경 것갈이 유명하다. 또한 연무읍에는 논산훈련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외지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편이다.

## 1.2. 조사 기간

2006년 6월 29일~9월 30일

## 1.3. 제보자

### (1) 주제보자

이름 : 양

나이 : 77세(1930년생)

출생지 : 충남 논산시 부창동

거주지 : 충남 논산시 부창동

선대거주지 : 충남 논산시 부창동 (5대 이상 거주)

직업 : 농업 및 주부

경력 : 목수인 남편을 도와 목수일을 한 적이 있음.

부업으로 시장에 나가 나물과 채소를 팔았음.

마을에서 한복 바느질일을 하였음.

학력 : 천주교 학교(4학년)

병역 : 해당 없음.

제보자 소개 과정 : 보조 연구원                      의 아버지로부터 소개 받음.

제보자의 특기 사항 : 없음.

제보자의 음성 특징 :

음성이 크고 발음이 정확하나 감정에 따라 말소리의 크기나 길이가 달라지며 빠른 편임.  
구술발화나 어휘, 문법에서는 조사 내용을 쉽게 이해하였으나 음운에서는 음절 하나하나를  
의도적으로 정확히 발음하려고 하여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음.

## (2) 보조제보자

이름 : 박

나이 : 70세(1937년생)(실제나이 72세)

출생지 : 충남 논산시 연무읍

거주지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선대거주지 : 충남 논산시 연무읍                      (5대 이상 거주)

직업 : 농업

경력 : 마을에서 염습을 하거나 지관을 본 경험이 있음.

학력 : 무학

병역 : 없음.

보조제보자 소개 과정 : 주제보자로부터 소개 받음.

보조제보자의 특기 사항 : 없음.

보조제보자의 음성 특징 :

발음이 정확하며 말이 느려 음성 전사에 용이하였음.

질문을 잘 이해하였고 조사에 진지하게 응해주었으나, 비교적 말이 없는 편이고 바쁜 관계  
로 보조제보자로 하였음

주제보자가 잘 모르는 항목에 한하여 구술발화(약 2시간)의 일부와 어휘(40분)를 맡았음.

## 1.4. 조사자

(1) 이름 : 한영목(충남대학교 교수)/유세진(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생)

(2) 조사 일시 : 2006. 6. 29~9. 30

(3) 조사 장소 : 제보자의 집

(4) 조사내용 : 총 19일 조사

2006년 6월 29일~6월 30일 - 예비 조사

2006년 7월 1일 - 구술 1, 어휘 1

2006년 7월 7일 - 구술 2, 구술 3, 어휘 1

2006년 7월 8일 - 구술 3, 어휘 2

2006년 7월 14일 - 어휘 3

2006년 7월 15일 - 어휘 3, 어휘 4

2006년 7월 21일 - 어휘 4

2006년 7월 22일 - 어휘 5

2006년 7월 28일 - 구술 4, 구술 5  
 2006년 7월 29일 - 구술 5, 어휘 5, 어휘 6  
 2006년 8월 4일 - 구술 6, 어휘 7  
 2006년 8월 5일 - 문법 1, 문법 2  
 2006년 8월 11일 - 구술 6  
 2006년 8월 12일 - 구술 7, 음운 1  
 2006년 8월 18일 - 구술 7, 음운 2  
 2006년 8월 19일 - 구술 8, 구술 9  
 2006년 8월 26일 - 구술 10  
 2006년 9월 30일 - 보충 조사 : 어휘 7

① 구술발화

녹음시간(전사량)	1차 전사 시간	2차 전사 시간	3차 전사 시간
구술 1 - 0:56:17(56분)	12시간	10시간	9시간
구술 2 - 1:04:29(64분)	12시간	10시간	9시간
구술 3 - 1:53:41(60분)	12시간	10시간	9시간
구술 4 - 1:00:00(60분)	12시간	10시간	9시간
구술 5 - 1:28:25			
구술 6 - 1:57:33(30분)	6시간	5시간	4시간
구술 7 - 1:18:50			
구술 8 - 1:54:00			
구술 9 - 1:26:44			
구술10 - 1:35:11			

② 어휘

녹음시간	1차 전사 시간	2차 전사 시간	3차 전사 시간
어휘1 - 2:01:59	14시간	12시간	10시간
어휘2 - 2:01:56	14시간	12시간	10시간
어휘3 - 2:01:25	14시간	12시간	10시간
어휘4 - 2:01:31	14시간	12시간	10시간
어휘5 - 2:01:59	14시간	12시간	10시간
어휘6 - 2:02:06	14시간	12시간	10시간
어휘7 - 1:43:01	12시간	10시간	8시간

③ 음운

녹음시간	1차 전사 시간	2차 전사 시간	3차 전사 시간
음운1 - 2:01:12	14시간	12시간	10시간
음운2 - 2:00:01	14시간	12시간	10시간

④ 문법

녹음시간	1차 전사 시간	2차 전사 시간	3차 전사 시간
------	----------	----------	----------


문법1 - 2:01:39	14시간	12시간	10시간
문법2 - 0:25:34	5시간	4시간	3시간

⑤ 총 녹음시간 : 34:57:33

## 1.5. 전사

- |            |                       |
|------------|-----------------------|
| (1) 전사자    | 한영목/유세진               |
| 전사 일시      | 2006년 8월 1일~10월 10일   |
| 소요 시간      | 197시간                 |
| (2) 1차 점검자 | 한영목/유세진               |
| 1차 점검 일시   | 2006년 8월 15일~11월 3일   |
| 소요 시간      | 167시간                 |
| (3) 2차 점검자 | 한영목                   |
| 2차 점검 일시   | 2006년 9월 1일~11월 21일   |
| 소요 시간      | 141시간                 |
| (4) 3차 점검자 | 한영목                   |
| 2차 점검 일시   | 2006년 11월 21일~12월 10일 |
| 소요 시간      | 60시간                  |





## 2. 전사 원칙

###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30분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주제보자 대화 발화 15분, 보조제보자 구술 발화 15분을 추가하였음).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친구형은 응답형 뒤에 (+ 신), (+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 다), (+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 노), (+ 유)로 표시하였다.

##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④ 장음 표시는 단어의 음절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긴 음절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⑤ 음절 하나하나를 정확히 발음하였기 때문에 음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예를 들면 ‘땃지’를 [땃찌]로 전사하였다.

##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e]와 [ɛ]로 실현되면 ‘에’와 ‘애’로 전사하였다.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wɛ]로 실현되면 ‘왜’로 전사하였다.
- ③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④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 ⑤ 단어에서 음성 [ㅎ]이 나타날 때에는 앞에 띄어쓰기를 두어 실현 환경을 밝혔다.



2006년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 3. 전사 자료



## 제1편 구술 발화

###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 1.1.1. 마을 들여다보기

10101 @ 할머니 이제 시자카꺼여 마으레 대해서 여쭙보게요 마을.{할머니 이제 시작할게요, 마을에 대해서 여쭙볼게요 마을.}

10101 @ 이 마으른 언제 만드러져쎄요? 언제? 할머니 아시는 걸로.{이 마을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언제? 할머니 아시는 걸로.}

10101 # 나 생겨나두 아내서부텀 이 마으리 이썬썬 몰르지.{내가 생기지도 안했을 때부터 이 마을이 있었으니 모르지.}

10101 # 그거른 언제적부터미썬나.{그것은 언제적부터 있었나.}

10101 # 뱅:년두 너머꺼따 이 마으리.{백년도 넘었겠다, 이 마을이 [x생긴 지x].}

10101 @ 잘 모르쎄요?{잘 모르쎄요?}

10101 # 몰라 언제 생겼나.{몰라, 언제 생겼나.}

10101 @ 그러면 어뜨케 만드러전는지 왜 마으리 여기에 만드러전는지는 아쎄요?{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마을이 여기에 만들어졌는지는 아쎄요?}

10101 # 몰라 그저니 아부지 고향잉게 이 터가.{몰라, 그전에 아부지 고향이니까 이 터가.}

10101 # 여기서 나쓰니께 내가 그냥 자랑거 뿌니지 머 큼거 뿌니지.{여기에서 났으니까 그냥 자랑 것뿐이지 뭐 큰 것뿐이지.}

10101 @ 금 이 여기 이 동네 주민드른 주로 어떤 성씨드리 모여 사라요?{그럼 이 여기 이 동네 주민들은 어떤 성씨들이 모여 살아요?}

10101 # 우리 양씨가 쥬: 마내씨 양씨가 양씨 대미 백씨 그랜는디 지끄른.{우리 양씨가 제일 많았어, 양씨가, 양씨 다음에 백씨 그랬는데 지금은.}

10101 # 양씨도 마니 인자.{양씨도 많이 인제.}

10101 # 가야 객씨로 나간 사람두 이꾸.{그거야 객지로 나간 사람도 있고.}

10101 # 주군 사람두 이꾸 허니께 백씨두 자꾸.{죽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백씨도 자꾸.}

10101 # 백씨도 한 시집 니찌빙가 이꾸 양씨두 대접빠께 읍씨.{백씨도 한 세 집 네 집인가 있고 양씨도 다섯 집밖에 없어.}

10101 # 근디 나는 내가 양가지 우리 으—ㅇ감니른 김씨야.{근데 나는 내가 양가지 우리 영감님은 김씨야.}

10101 # 김씨니께 김씨 지바년 읍씨 한 부녀: 시: 두집 시집 살다가 이사가구.{김씨니까 김씨 집안은 없어, 한 분이야, 시, 두 집 세 집 살다가 이사가고.}

10102 @ 그르면 인제 이 마을 이르미 머져?{그러면 인제 이 마을 이름이 뭐지요?}

10102 # 향:고개.{황고개.}

10102 @ 한:고개?{한고개?}

10102 # 잉 황고개.{응, 황고개.}

10102 @ 황고개, 왜 그런 이르미 저저씨요?{황고개, 왜 그런 이름이 지어졌어요?}

10102 # 잉.{응.}

10102 # 여기가 오는 고개가 고개 하나를 넘어서 와씨.{여기가 오는 고개가 고개 하나를 넘어서 왔어.}

10102 # 이 이기 산 고개가 이씨꺼든.{이, 여기 산고개가 있었거든.}

10102 # 그래 한:고개를 넘어서 온다구 황고개랴 여기가.{그래, 한 고개를 넘어서 온다고 한 고개래, 여기가.}

10102 @ 황, 황?{황, 황?}

10102 # 황고개.{황고개.}

10102 @ 한 고개요?(한 고개요?)

10102 # 환, 황황 황:고개.{황, 황황 황고개.}

10102 @ 황고개.{황고개.}

10102 @ 그리고 또 이 주위에 사나 강 가튼 머 이르민나요?{그리고 또 이 주위에 산이나 강 같은, 뭐 이름 있나요?}

10102 # 읍씨 강은 읍씨.{없어 강은 없어.}

10102 @ 사는 산?{산은, 산?}

10102 # 사는 고 요기 넘어서 인는디 그거 인자 이르게 발매를 해서 야산시켜서 이 지를 맨 드려 버리고 압싸니꾸.{산은 고 요기 넘어서 있는데 그거 인제 이렇게 발매를 해서 야산시켜서 이 길을 만들어 버리고 앞산 있고.}

10102 @ 그사는 발매한 사는 이르미 머예요?{그 산은 발매한 산은 이름이 뭐예요?}

10102 # 잉.{응.}

10102 # 고기가 아 고 사는 머 배랑 이름두 읍는 사니어씨.{거기가 아, 그 산은 뭐 별 이름도 없는 산이었어.}

10102 # 그냥 고개 하나 넘어서 한다구 여 한:고개라구 해찌.{그냥 고개 하나 넘어서 한다구 여 한고개라고 했지.}

10102 # 이 압싸는 이거 천마사니라구 여 천마사니라구 이꾸.{이 앞산은 이것 천마산이라고, 여 천마산이라고 있고.}

10102 # 고거는 조기는 구리미썬 그거 지그른 체우퐁원.{고거는 저기는 구름밀산, 그거 지금은 체육공원.}

10102 @ 구리미썬 왜 이르미 그래요?{구름밀산 왜 이름이 그래요?}

10102 # 엔나리 구리미썬는 나 왜 구리미사니라구 헨나 몰라 나두 그냥 노인네더란티 구리미썬 구름산 드른 뽕위리지.{옛날에 구름밀산은, 나 왜 구름밀산이라고 했나 몰라 나도 그냥 노인들한테 구름밀산, 구름산 들은 풍월이지.}

10102 # 역사저근 얘기는 잘 모르거씨.{역사적인 얘기는 잘 모르겠어.}

10102 # 고그서 싸워파테 그 왜정시대.{거기서 싸웠다고 하데, 그 왜정시대에.}

10102 # 왜정시대가 아녀 엔::나리 고 백제하고 고려하고 싸울 때.{왜정시대가 아냐, 옛날에 백제하고 고려하고 싸울 때.}

10102 # 이 산하구 그 구리미썬나구 저기 저 봉오재 봉오재 산나구 고기서 싸워파 총 막.{이 산하고 그 구름밀산하고 저기 저 봉화재, 봉화재산하고 거기서 싸웠대, 총 막.}

10102 # 백제 실라가 그 썸터 짜리라구 그라더라구.{백제 신라가 그 싸움터 자리라고 그러

더라고.}

10102 @ 여기 봉오재도 이썬요?{여기 봉화재도 있어요?}

10102 # 봉오재는 거 압싸니기여 여기 여기서 보이능거 저거.{보우재는 그 앞산이 맞아 여기 여기서 보이는 거, 저거.}

10102 @ 이건 왜 봉오재예요?{이건 왜 봉호재예요?}

10102 # 몰라 왜 봉오재라구 헨나 나두.{몰라 왜 봉오재라고 했나, 나도.}

10102 @ 머 거기서 봉화 가튼 불 피웠나요?{뭘 거기서 봉화 같은 불 피웠나요?}

10102 # 이~ 봉화부릴 올려따 그 싸우면서 그리서 봉오재라 그라데.{응, 봉화불을 올렸대, 그 싸우면서, 그래서 봉화재라 그러데.}

10102 @ 그리고 첨마?{그리고 천마?}

10102 # 첨:마산.{천마산}

10102 @ 첨마사는 왜 첨마산?{천마산은 왜 천마산?}

10102 # 몰라 천마사를 왜 천마사니라구 헨나.{몰라 천마산을 왜 천마산으리고 했나.}

10102 @ 그러면 또 저수지 가튼 거 이썬요?{그러면 또 저수지 같은 거 있어요?}

10102 # 저수지는 여기 우꾸 저::기가 이썬.{저수지는 여기 없고 저기가 있지.}

10102 # 은진 저저.{은진 저 저.}

10102 # 거 은진씨 저짜기루 더 가야지 거기가.{그 은진에서 저쪽으로 더 가야지 거기가.}

10102 @ 그 머 들파이나 골짜기 이르른 인나요?{그 뭐 들판이나 골짜기 이름은 있나요?}

10102 # 들판 골짜기 머 베리르른 음네.{들판 골짜기 머 별 이름은 없네.}

10102 @ 그럼 머 이런 사나나 여기 머 유명한 바위가튼거나 이런.{그럼 뭐 이런 산이나 여기 뭐 유명한 바위 같은 거나 이런.}

10102 @ 이야기 옛날 거기에 얼킨 이야기 인나요? 전설?{이야기 옛날 거기에 얹힌 이야기 있나요?}

10102 # 바오는 저기여 저기 이 지금 거시기 저 운동하러 땡기는디 구리미썬 거기는 바오가.{바위는 저기야 저기 이 지금 거시기 저 운동하러 다니는 데 구리밀산 거기는 바위가.}

10102 # 왕이 거기서 썬 자리가 이따데 싸운 거 발짜꾸두 이꾸 고기서 소변 본.{왕이 거기서 썬 자리가 있다데 싸운, 그 발자국도 있고 거기서 소변을 본.}

10102 # 소변 자꾸두 이꾸 그리타고 어려서 우리 거가 귀경두 하러가구 그래썬 거기서 밤머꾸.{소변 자국도 있고 그렇다고 어려서 우리는 거기 가서 구경도 하러가고 그랬어, 거기서 밥 먹고.}

10102 # 싸운 썬터라구.{싸운 싸움터라고.}

10102 @ 그 이르른녀? 그 오쭈눈 데 그런 이름?{그 이름은요? 그 오쭈눈 데 그런 이름?}

10102 # 그 썬금 고기가 그거뽕고 이 당선바우.{그 지금 거기가 그것보고 당산바위.}

10102 # 당선바오라고랴.{당산바위라고 그래.}

10102 @ 발자국 인는 그런 바위요?{발자국 있는 그런 바위요?}

10102 # 응 이.{응, 잉.}

10102 @ 또 다름 거에 얼킨 이야기 업나요? 여기 자연에 얼킨 이야기? 사나나 호수 나무 이렇거.{또 다른 것에 얹힌 이야기 업나요? 여기 자연에 얹힌 이야기? 산이나 호수, 나무 이런 거.}

10102 # 몰라 그릉 건.{몰라 그런 건.}

10103 @ 그리고 이제 이 마을 사람드른 주로 무슨닐 하고 사세요?{그리고 이제 이 마을 사

람들은 주로 무슨 일하고 사세요?}

10103 # 아 여기 순:: 그냥 농사 조금씩 저서 그냥 쌀랑성만나 벨 다른 거또 아냐.{아 여기 순 그냥 농사 조금씩 저서 그냥 쌀 양식만 해, 별 다른 것도 안해.}

10103 # 다른 디는 머 특수장물두 마니 한다구 하느디 여기는 아나구.{다른 데는 뭐 특수장 물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하고.}

10103 # 이 뒤찌비 여기여기 절문 나이 한 사썽때 데는 사라미 그거 표고 표고버섯을 경장 히 마니야 그 사라미.{이 뒷집에 여기여기 젊은 나이 한 사십대 되는 사람이 그거 표고, 표 고버섯을 주로 굉장히 많이 해, 그 사람이.}

[5초]

10103 @ 그러면 그냥 농촌 에서?{그러면 그냥 농촌에서?}

10103 # 이~ 농사두 농사두 마니 진는 사람 읍써 그냥.{응, 농사도 농사도 많이 짓는 사람이 없어 그냥.}

10103 # 한 열 마지기.{한 열 마지기.}

10103 # 한 스물만 마지기 진는 사래미 켈 마난게벼 농촌두 읍써 여기.{한 스물다섯 마지기 짓는 사람이 제일 많은가 봐, 농촌도 없어 여기.}

10103 # 그냥 바둑빠둑빠둑 머꾸 사라.{그냥 바둑바둑바둑 먹고 살아.}

10104 @ 그러면 이 마으리 여페 염마으라고 이움마으라고 다른 저미따면?{그러면 이 마을 이 옆에 옆 마을하고 이웃 마을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10104 @ 우리 마으른 어떠타 특짱이 머가 이따.{우리 마을은 어떻게 특짱이 뭐가 있다.}

10104 # 미은 마을 저 저 건너 저 저 대꼴똥네아구 강살리 여기 항고개아구 여기는 항고개 구 저기는 대꼬리구.{이웃 마을 저 저 건너 저 저 땃골동네하고 강산리 여기 황고개하고 여 기는 황고개고 저기는 땃골이고.}

10104 # 저기 구리미썩 너머 인는디는 그거 안터거든.{저기 구름밀산 넘어 있는 데는 그거 안터거든.}

10104 # 그저니는 엔나리는 그 동네아구 한 부라기 대이썩는디 그짜기는 이장이 따루 나:끼 때메네.{그전에는 옛날에는 그 동네하고 한 부락이 돼 있었는데 그쪽에는 이장이 따로 났기 때문에.}

10104 # 인자 그쪽하구 우리아구 갈려썩 인자.{인제 그쪽하고 우리하고 갈렸지 인제.}

10104 # 그리서 저부라가구 여기아구 대꼬라구 한티로 한부라기루 데인는디 이버니 또 갈려 가꾸.{그래서 저 부락하고 여기하고 땃골하고 한 데로 한 부락으로 돼있는데 이번에 또 갈 려썩고.}

10104 # 저기는 삼동이루 우리가 이따가 지금 팔똥이루 데이꾸.{저기는 삼동으로 우리가 있 다가 지금 팔똥으로 돼있고.}

10104 # 저기는 거기대로 지금 부라기 따루 이썩.{저기는 거기대로 지금 부락이 따로 있어.}

10104 # 그란디 다나비 자란대.{그런데 단합이 잘 안돼.}

10104 # 그래가꾸 갈려썩 저기 여기는 지금 팔똥은 저기 부영아파트 이짜나? {그래썩고 갈 려썩어, 저기, 여기는 지금 팔 똥은 저기 부영아파트 있잖아.}

10104 # 그 그짜기서 이썩 건너루 신장노루 지리 이르케 나 난디는 세무소 아피서버터몬 이 르케는 팔똥.{그 그쪽에서 이쪽 건너로 신작로로 길이 이렇게 나, 난 데는 세무소 앞에서부 터는 이렇게는 팔 똥.}

10104 # 저쪽 건너는 저 거시기 하더라 추암동 그르케 따르더라구.{저쪽 건너는 저 거시기 하더라 취암동 그렇게 따르더라고.}

10104 @ 여기는 바닐퐁?{여기는 반월동?}

10104 # 아녀 여기는 부창동이루 데:이씨.{아냐, 여기는 부창동으로 돼있어.}

10104 @ 부창동이에요?{부창동이에요?}

10104 # 이 부창동이루 데이더라구.{응 부창동으로 돼있더라고.}

=1 @ 근데 할머니 여기 주민등록증에는 바닐퐁이라구 되이짜나요?{근데 할머니 여기 주민등록증에는 반월동이라고 돼있잖아요.}

=1 # 바닐퐁이루 되이씨?{반월동으로 돼있어?}

=1 @ 네.{네.}

=1 # 이거는 그때 아덜래 지비루 내가 테거를 해써썬.{이거는 그때 아들네 집으로 내가 퇴거를 했었어.}

=1 # 크나덜래 바닐퐁 이쓸 때 그게 거기서 내서 바닐퐁이라구 데인는디 지금 여기는 추암동이여.{큰아들네 반월동 있을 때 그게 거기서 내서 반월동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여기는 취암동이야.}

=1 # 아녀 부창동.{아녀 부창동.}

=1 @ 부창동?{부창동?}

=1 # 응 부창동.{응, 부창동.}

10104 @ 그럼 여기 이 마으른 머 특:싼물 가통거?{그럼 여기 이 마을은 뭐 특산물 같은 거?}

10104 # 특싼물 벨거 암거뚜 아낭당게 제우 이 집 한 지비 그 버서다는 사라미 특쌍물 제일 마니 하는 사람.{특산물 별 것 아무 것도 안한다니까 겨우 이집 한 집이 그 버섯하는 사람이 특산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10104 @ 머 감나무 말쓰마써짜나요?{뭐 감나무 말씀하셨잖아요?}

10104 # 잉: 감나무 가통건 마니 하.{응, 감나무 같은 것은 많이 해.}

10104 @ 그거쯤 얘기해주세요.{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10104 # 알개떠 이.{알겠어, 응}

10104 # 감나무는 서너찌비 하는디 마니 잘 해.{감나무는 서너 집이 하는데 많이 잘해.}

10104 # 모 모 그르케 부어따가 하니년 키워가꾸 적뿌처가꾸 파는디.{모, 모 그렇게 부엌다가 한 이년 키워갖고 접붙여갖고 파는데.}

10104 # 제법 수이비 갠차낭게 비더라구 하는 사라만 하 그거뚜.{제법 수입이 꽤찮은가 보더라고 하는 사람만 해 그것도.}

10104 @ 그럼 다른 감나무보다 여기가 어트게 조아요? 이 감나무가? 이 동네 감나무가?{그럼 다른 감나무보다 여기가 어떻게 좋아요? 이 감나무가? 이 동네 감나무가?}

10104 # 사다 시머보든 아내찌만서두.{사다 심어보지는 안했지만서도.}

10104 # 마니 사가는 사람더리 잘 길르고.{많이 사가는 사람들이 잘 기르고.}

10104 # 단가물 마니 하더라구 단가마구 빼주르감 이르케 큼거 잘 텐다 잘 연다.{단감을 많이 하더라고 단감하고 빼죽한 감 이렇게 큰 거, 잘 된대, 잘 연대.}

10104 @ 음 잘자라는 나무구나.{응, 잘 자라는 나무구나.}

10104 # 이~ 잘 사라.{응, 잘 살아.}



10104 # 그러 우리도 이버니 아더리 아 삼백개를 마쳐따더냐 머 메쭈릴 마쳐따더냐 해놔따구 하더라구 바티다 시물라구.{그래 우리도 이번에 아들이 아, 삼백 개를 맞췄다더냐 뭐 몇 줄을 맞췄다더냐 해놔다고 하더라고 밭에다 심을라고.}

10105 @ 그러민제 이 마을 할머니께서 보실때 어려쓸 때하고 머가 이케 달라전나요? 마니 달라저쩌?{그럼 인제 이 마을 할머니께서 보실 때 어렸을 때하고 뭐가 이렇게 달라졌나요? 많이 달라졌지요?}

10105 # 마니 달라징건 아피루 지리 읍편질 질 뜰리고 조기.{많이 달라진 것은 앞으로 길이 없던 길, 길 뜰리고 저기.}

10105 # 질 뜰려서 머 참: 살기 조케 해지 엔나리는 머 상골짜기여써 산골짜 그냥.{길 뜰려서 뭐 참 살기 좋게 했지 옛날에는 뭐 산골짜기였어, 산골짜 그냥.}

10105 # 차두 안맹기지 여기서 나갈라면 그냥 시내까장 갈라면 한:창 거러가야지 그라는디 지그른 이 압뜨리 여가 뜰려나가꾸.{차도 안 다니지 여기서 나가려면 그냥 시내까지 갈라면 한참 걸어 나가야지 그러는데 지금은 이 앞뜰이 여기가 뜰려나갔고.}

10105 # 뽕쓰는 아놔도 택씨릴 다 자바 탈래두 조아.{버스는 안 와도 택시를 다 잡아 타려도 좋아.}

10105 # 저 거시기까장 나가문 머 뽕쓰도 걸루 다니구 항게.{저 거시기까지 나가면 뭐 버스도 그리로 다니구 하니까.}

10105 # 차타구 시내 나가기가 불편치 아냐.{차타고 시내 나가기가 불편하지 않아.}

10105 @ 기리 달라저꾸나.{길이 달라졌구나.}

10105 # 조아저써 잉 기리 기리 확 뜰려나가꾸.{좋아졌어, 응 길이 길이 확 뜰려나갔고.}

10105 # 근디 뽕스를 언제가따 세올려나 몰르거써 여까장만 오머는 얼마나 조커써 타구 나가구.{근데 버스를 언제 갖다 세올려나 모르겠어 여기까지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 타고 나가고.}

10105 # 아치미 하루에 너대뽕쌍만 이써두 조아.{아침에 하루에 네다섯 번씩만 있어도 좋아.}

10105 # 시간 마취서 나가서 타기.{시간 맞춰서 나가서 타기.}

10105 @ 또 다릉거 달라징 거는너?{또 다른 것 달라진 것은요?}

10105 # 다릉걸 머 달라지기는 머 농사징는 건 내내 항가지지 달라징 거뚜 벼랑 읍써.{다른 것 뭘 달라지기는 뭐 농사짓는 건 내내 한가지지 달라진 것도 별로 없어.}

10105 # 트기 특쑤:장물두 별랑 하지두 안나고.{특이 특수작물도 별로 하지도 안하고.}

10105 # 애더리 커가꾸 대하꼬 나와와가꾸.{애들이 커 가지고 대학교 나와갔고.}

10105 # 출썰한 사람두 우꼬 우리 부라기.{출세한 사람도 없고, 우리 부락에.}

10105 # 마니 배운 사람두 읍써 그래가꾸 즈 나름대루 다: 헤사 가튼 디 어디 드르가서 공장생활루 이르게 버러.{많이 배운 사람도 없어 그래갓고 자기 나름대로 다 회사 같은 데 어디 들어가서 공장생활로 이렇게 벌어.}

10105 # 애 우리 아덜덜 또래드리 지금 야 막뎡이 또래가.{애 우리 아들들 또래들이 지금 야 막뎡이 또래가.}

10105 # 야는 나아구 산다구 안나가쩌만.{애는 나하고 산다고 안 나갔지만.}

10105 # 그 또래가 마니 나가서 사려.{그 또래가 많이 나가서 살아.}

## 1.2. 일생 의례

### 1.2.1. 제보자의 태생과 성장

=1 @ 그러쿠나 할머니 할머니께 여쭙보게여 할머니.{할머니 할머니께 여쭙볼게요, 할머니.}

10201 @ 지금까지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사라 오싱거를 짧게 한번 태어 언제 어디서 무슨 띠에 태어나서 이러케.{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을 짧게 한번 언제, 어디서, 무슨 띠에 태어나서 이렇게.}

10201 @ 어트게 자라셔꼬 머 어트게 어떤 공부하셔꼬 어떤 지갑 가지셔꼬 짧게짧게 겨로는 어떠케 하셔꼬 머 이런거.{어떻게 자라셨고 뭐, 어떻게 어떤 공부하셨고, 어떤 직업 가지셨고, 짧게 짧게 결혼은 어떻게 하셨고 뭐 이런 것.}

10201 # 어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커파고 아내씨 그냥 이 지비서 그랜는다.{응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컸다고 안했어? 그냥 이 집에서 그렸는데.}

10201 # 어머니가 나 하나뿐뻘끼 안나쓰니께 내가 출가를 아나고.{어머니가 나 하나밖에 안 낳으니까 내가 출가를 안하고.}

10201 # 하라부지가 우리 지비루 오셔가꾸 사르셔찌이: 그래가꾸서는.{할아버지가 우리집으로 오셔갖고 사셨지 그래갖고는.}

10201 # 아 자그마니 엄마가 나 하나뻘끼 안나쫘게 무청 예루워씨 나두 예루우꾸 나 그냥. {아, 자그마치 엄마가 나 하나밖에 안 낳으니까 무척 외로웠어 나도 외로웠고 나 그냥.}

10201 # 언니 오빠 그르케 불러보닝 거시 소원니더라구 그래서.{언니 오빠 그렇게 불러보는 것이 소원이더라고 그래서.}

10201 # 애자전 내가 난는대루 그냥 내 새끼는 내가 나는대로 다 나서 길러보야거파 하구서 나.{에이, 잡것 내가 낳는대로 그냥 내 자식은 내가 낳는대로 다 낳아서 길러봐야겠다 하고 서는.}

10201 # 팔람매를 길러씨 그르디 너무 심들더라구 마니낭게 시먼 시먼드러두 조키는 하 마 내서.{팔남매를 길렀어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고 많이 낳으니까, 힘은 힘은 들어도 좋기는 해 많아서.}

10201 # 지크른 조아 다: 장성해서 다 가서 즈 나름대루 다: 가서 자라구 사러 다 잘 사러 애덜더리.{지금은 좋아 다 장성해서 다 가서 자기 나름대로 다 가서 잘하고 살아 다 잘살아 애들들이.}

10201 # 잘 커 커씨.{잘 키워, 잘 컸어.}

10201 @ 힘드셔쨌네.{힘드셨겠네.}

10201 # 잉 바루 커:씨 나쁜놈 하나두 읍씨.{응, 바로 컸어 나쁜놈 하나도 없어.}

10201 # 그라구 이 막뻘이는 그때 운동선수루 한다구 뿔차꺼든 그랜는다.{그리고 이 막둥이는 그때 운동선수를 한다고 볼 찻거든 그랬는데.}

10201 # 강상 드르 간는디 아 운동선수더리 애릴 가파가 교육 시킬라면 그때는 막 자버놔:: 잉:: 막 때리고 그랑게.{강상(+강경상업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아, 운동선수들이 애를 갖다가 교육시키려면 그때는 막 잡아놔 응: 막 때리고 그러니까.}

10201 # 이놈 자시기 이르케 즈 아들뻘 크자나 우리 야두 갱장이 크구 우다마게 잘 커씨 이

뿌게.{이놈 자식이 이렇게 자기 아들도 크잖아 우리 애도 굉장히 크고 우담하게 잘 컸어 이 뿌게.}

10201 # 그르게 지가 강상씨 데려가씨 저 기민중해꼬 땡겨쓸 때기 강상 고동하꼬로 뽀바가 버려씨.{그렇게 자기가 강상에서 데려갔어 저 기민중학교 다녔을 적에 강상고등학교로 뽀아가 버렸어.}

10201 # 그래 축꾸를 드러 간느디 내가 축꾸를 모다게 해씨 하지마라 하지마라 그냥 공부해라 그래뜨니.{그래서 축구[x선수x]로 들어갔는데 내가 축꾸를 못하게 했어 하지마라 하지마라 그냥 공부해라 그랬더니.}

10201 # 아 추꾸선생이 안놔주구 그냥 주거라구 부뜰구 이썬느디.{아, 축구 선생이 안 놔주고 그냥 죽어라하고 붙들고 있었는데.}

10201 # 아 그 비러머글 놔더리 인자 애가 그냥 크구 거식 하닝까.{아 빌어먹을 놈들이 인제 애가 그냥 크고 거시기하니까.}

10201 # 즈보덤 다 우짖루 크구 자 모던 자랑게.{저희보다 더 윗길로 크고, 재가 모두 잘하니까.}

10201 # 망 때로 조저서 방맹이루 막 투두려 패가꾸 애가 쭉 빼드러져 버련나 무서워가꾸. {막 때로 때려서 방망이로 막 두들겨 패서 애가 쭉 뺏어버렸나 무서워서.}

10201 # 주거두 양간다:: 주거두 양간다 핵꼬를 막.{죽어도 안간대 죽어도 안간대 학교를 막.}

10201 # 아퍼가꾸 와:떠라구 그래서 내가 이 씨글로무디 운동이구 지랄이구 축꾸구 그롱거시기다는 애잡꺼따.{아파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썩을놈의 데, 운동이고 지랄이고 축꾸고 그런 것 시키다가는 애 잡겠다.}

10201 # 내가 하꼬를 가씨 가서.{내가 학교를 갔어 가서.}

10201 # 나 여기 애기가 안 땡길라구랑게 몬느커따구 그랑게.{나 여기, 애가 안 다니려고 그러니까 못넣겠다고 그러니까.}

10201 # 아 선생니미 깜짝 놀래내 우리는 전부라 서류를 이르게 다해서.{아! 선생님이 깜짝 놀라네, 우리는 전부 서류를 이렇게 다 해서.}

10201 # 거시기두 안바꾸 수험뉴두 안바꾸 잉 이 장학꼬미루다가 다 서류를 다 해놔따능겨 그람서.{거시기도 안 받고 수험료도 안 받고 응, 이 장학금으로 다 서류를 다 해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10201 # 도늘 내씨씨 내가 그래떠니 그 차즈러 와따 그랑게 안 땡길팅게 달라구래씨 그래떠니.{돈을 냈었지 내가 그래떠니 그것 찾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안 다닐테니까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10201 # 아휴 자 어머니 축꾸대해서 지금 타겨글 바더도 우리가 얘기할탱게.{아휴, 자! 어머니 축구대회에서 지금 타격을 받아도 우리가 얘기할 테니까.}

10201 # 그냥 내버려 두시구 모르는 척 하가꾸냥 놔두시라구 그러면 다:: 아라서 자기네가 한다는디.{그냥 내버려 두시고 모르는 척 해갖고 그냥 놔두시라고 그러면 다 알아서 자기네가 한다는데.}

10201 # 와가꾸 가라그랑게 무서:가꾸 양가 양간다 주거두 양간다.{와서 가라고 하니까, 무서워 갖고 안가, 안간대 죽어도 안간대.}

10201 # 그리서 강상 땡기 드러 가따가 상개워링가 대서 그냥 나와 버려씨 안땡겨씨.{그래서 강상 다니, 들어갔다가 삼 개월인가 돼서 그냥 나와 버렸어 안 다녔어.}

10201 # 그라구선 대저니루 지가 띠올라가서 대전까지 배워써 대전고등학교 나와써.{그리고 서 대전으로 자기가 뛰어 올라가서 대전에 가서 배웠어 대전고등학교 나왔어.}

10201 @ 잘 하셨네요.{잘 하셨네요.}

10201 # 양간다 양간다구 양가드라구 그래서 축구를 아내씨 모대씨.{안 간다 안 간다고 안 가더라고 그래서 축구를 안했어 못했어.}

=1 @ 아드님이 되게 머씨쓰신데여 보니까 머씨세요.{아드님이 되게 멋있으신데요, 보니까 멋지세요.}

=1 # 머씨 머쪼디 재대루만 잘 갈켜서 다 배워쓰문 이룬디서 이쓰레가 아니지.{멋져, 멋진데 제대로만 잘 가르쳐서 다 배웠으면 이런 데서 있을 애가 아니지.}

=1 @ 되게 잘생기셨네요.{되게 잘 생기셨네요.}

=1 # 응. {응.}

=1 # 칭구도 만하구 그라구 애가 성시라.{친구도 많고, 그리고 애가 성실해.}

=1 # 참:: 기가 매키게 돈도 이망크미나 주선는디 차저줘써 학교다 노코 그래서.{참 기가 막히게 돈도 이만큼 주웠는데 찾아줬어 학교에다 놓고 그래서.}

=1 # 교장 선생님이 교다니다 내노코 김병시기가 이~: 이러버린 도늘 그르케 주서가꼬 그사 라멀 학교 무납피까장 쪼차와가꼬.{교장 선생님이 교단에다 내놓고 김병식이가 잉, 잃어버린 돈을 그렇게 주워갖고 그 사람을 학교 문앞에까지 쫓아와갖고.}

=1 # 내오가니 거러가는디 여꾸리다가 이 가방을 노코가다가 술술 빠절뜨랴.{내외간에 걸어 가는데 옆구리에다가 이 가방을 넣고 가다가 술술 빠졌더래.}

=1 # 빠져서 주서가꾸 부창해꼬까장 거러가 그때는 거러맹겨찌.{빠져서 주워갖고 부창학교 까지 걸어가, 그때는 걸어다녔지.}

=1 # 떠서 웅게 그거뚜 몰르구 거러가드라 거께 논 논중학교 아피 그래서.{뛰어서 오니까, 그것도 모르고 걸어가더래 거기께 논, 논[X산X]중학교 앞에 그래서.}

=1 # 막:: 아줌마를 불릉게 디도라보더랴 그래서 왜 그라냐 그래서.{막, 아줌마를 부르니까 뒤돌아보더래, 그래서 왜 그라냐 그래서.}

=1 # 이 가방을 주서들구 이 아줌마 가방 아니냐게 히잉:: 그때서 누니 번쩍 하더니 그냥 환장하구 그냥.{이 가방을 주워들고 이 아줌마 가방 아니냐니까, 히, 그때서 눈이 번쩍 하더니 그냥 환장하고 그냥.}

=1 # 고맙따구 막 그냥 그라드라 그라더니.{고맙다고 막 그냥 그러더래 그러더니.}

=1 # 데리구 가서 과자줍 사주구서는 그냥 보내따구라데.{네리고 가서 과자 줍 사주고서는 그냥 보냈다고 그러데.}

=1 # 그릉게 우리 손자노미 한살 들 머거씨 요 저티.{그러니까 우리 손자놈이 한 살 덜 먹었어, 요 곁에.}

=1 # 뽕태치름 오삼추는 가 돈찌깅 주서가꾸 되가따 쥐따고.{뽕태처럼 외삼촌은 가다 돈지깅 주워갖고 되 갖다 줬다고.}

=1 # 아 그라자 지아부지가 그때 아피씨꺼든.{아, 그러자 제 아버지가 그때 아팠었거든.}

=1 # 야 이노무새끼야 그놈 가따 병원비 하게 가주구 오지 왜 쥘냐구 내가 그래씨 그래떠 니.{야 이놈의 새끼야 그놈 갖다가 병원비하게 갖고 오지 왜 줬냐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1 # 아버지가 그걸루 병원비 주문 아버지 주거유.{아버지가 그걸로 병원비주면 아버지 죽어요.}

=1 # 잉 아버지 중는다 공짜돈 가꾸 병원비 수술 양바더 중는다.{아버지 죽는데, 공짜돈 가

지고 병원비 수술 안 받아 죽는대.)

=1 # 그래가꾸 교다니 올라가서 히~: 온 학상드리 아치미 조레스가니 데려다노쿠 그러케 칭차늘 해줘서.{그래갖고 교단에 올라가서 응 온 학생들이 아침에 조레스간에 데려다 놓고 그렇게 칭찬을 해줘서.}

=1 # 박수가 비 오드대따고 하드라구 그래서 학교서두 대잉:끼여써.{박수가 비 오듯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대인기였어.}

=1 # 그야 나쁘고 나 잉.{그래 나쁘고, 나[x뿐x], 응.}

=1 # 나쁜 마물 이만큼두 암머거 지금도 너미 공꺼시라고는 그르케.{나쁜 마음을 이만큼도 안 먹어 지금도 남의 공 것이라고는 그렇게.}

=1 # 애는 애는 참말로 미들마난 노미여 내 자시기래두.{애는, 애는 참말로 믿을 만한 놈이야, 내 자식이라도.}

10201 @ 그르케 인제 그림 파령제를 어트게 키우서써요?{그렇게 인제 그림 팔 형제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10201 # 아 그렇게 어떨따구 내가 안그래 접때두 공동묘지 구:시는 다 무하나.{아, 그러니까 어떻다고 내가 안그래 저번에도 공동묘지 귀신은 다 뭐하나.}

10201 # 하나씩 자버가래두 안자버간다구 오지게 한번 그래쓰까 부애나서 그냥.{하나씩 잡아가래도 안 잡아간다고 오지게 한번 그랬을까 부화나서 그냥.}

10201 # 심들때는 심드러 너무 심드러써.{힘들 때는 힘들어 너무 힘들었어.}

10201 # 키우닌 할머니가 보신다구 해두.{키우긴 할머니가 보신다고 해도.}

10201 # 할머니가 이야 우리 막둥이 네살머거서 도라가션네.{할머니가 이 애 우리 막둥이네 살 먹어서 돌아가셨네.}

10201 # 지 우인드문 여서쌀 먹꾸 이누문 네살 먹꾸.{제 윗놈은 여섯 살 먹고, 이놈은 네 살 먹고.}

=1 # 지우이 형은 지금 수원씨 배울만치 배워가꾸 연구소리서 이따가.{제 위 형은 지금 수원에서 배울 만큼 배워갖고 연구소에서 있다가.}

=1 # 중국간다구 지금 납띠구 지랄하구 땡기머서 어트게 대능건지 모르건네 잘디야 할텐디.{중국간다고 지금 날뛰고 지랄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잘되어야 할텐데.}

10201 @ 금 할머니 여기서 태어나셔서 이 지베서 태어나셔서 이 지베서 거론 하션꼬.{그러면 할머니 여기에서 태어나셔서, 이 집에서 태어나셔서 이 집에서 결혼하셨고.}

10201 # 하라부지가 오서썰게 기냥 여기서 이 동네 말: 그릉게.{할아버지가 오셨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 동네 말 그러니까.}

10201 # 내가 시집 와쓰문 잘 몰라 그런디.{내가 시집왔으면 잘 몰라 그런데.}

10201 # 여기서 태어나서 한 칠십넝똥아니나 여기서 사러쓰니께.{여기서 태어나서 한 칠십넝 동안이나 여기서 살았으니까.}

10201 #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자나 다:.{그래도 어느정도는 알잖아 다.}

10201 @ 그럼 할머니 아까 머 공부하시는 애기 그거썰 해주세요.{그럼 할머니 아까 공부하시던 애기 그것 썰 해주세요.}

10201 # 공부?{공부?}

10201 @ 예 아까 공부를 어트게 하션나?{예, 아까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

10201 # 공부? 궁미내꼬 머 유강넝 조립두 채 안마터찌 인자.{공부 국민학교 뭐 육학넝 썰

업도 채 안 마쳤지 인제.}

10201 # 학:교 거기서 잉 그게 그때는 그 하교더르.{학교 거기서 잉, 그게 그때는 그 학교더르.}

10201 # 부창 여기는 부창 궁미나교구 우리는.{부창 여기는 부창국민학교고 우리는.}

10201 # 그 하교더르 그게 머냐 이르미.{그 학교더르 그게 뭐냐 이름이.}

10201 # 승당 핵:교라 구래써 성당 성당에서 팔리하는 해교라 성당 해교라구.{성당학교라고 그랬어, 성당, 성당에서 관리하는 학교라 성당학교라고.}

10201 # 성당 핵:교서 올라온 학생드른 조립씨키라구 그랑게나.{성당학교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졸업시키라고 그러니까는.}

10201 # 아이 비러머글 놔드리 유카년 조립시켜 준다더니.{아, 이 빌어먹을 놈들이 육 학년 졸업시켜 준다더니.}

10201 # 사항너니 전부라 조려불 시켜빠리고 마네.{사학년이 전부라 졸업을 시켜버리고 마네.}

10201 # 그래서 공부는 더 하고 시퐁디 거기서는 안바더주지.{그래서 공부는 더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안 받아주지.}

10201 # 그래가꾸 강경 강경이란디 나 학:교릴 간다구.{그래갖고 강경, 강경이란 데 나 학교를 간다고.}

10201 # 세시 닐 우리 동 친구가 닐: 다서시 아주 친해써.{셋이 넷, 우리 동, 친구가 넷 다섯이 아주 친했어.}

10201 # 강경까장 가써 강경 궁미나교까장 가떠니 너머 머러서 몰: 땡긴다고 그라더라고.{강경까지 갔어, 강경국민학교까지 갔더니 너무 멀어서 못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10201 # 친구는 그저니는 여는 궁민내교도 양 갈켜써 여자더릴.{친구는 그전에는 여기는 국민학교도 안 가르쳤어 여자들을.}

10201 # 우리 아버지는 나 하나라구 그러케 갈켜찌만 아:무도 양 갈켜가꾸.{우리 아버지는 나 하나라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아무도 안 가르쳐갖고.}

10201 # 나 혼자 다닐겨써 혼자 여서 학교를.{나 혼자 다녔어 혼자 여기서 학교를.}

10201 # 읍씨 궁민 해교 학생도 초등 핵교 학[x생x] 읍:씨씨 그래 혼자 다녀써 혼자.{없어 국민학교 학생도 초등학교 학[x생x] 없었어, 그래 혼자 다녔어 혼자.}

10201 # 그라구선 저 너머 가서 우리 조카따리 하나 이썸는디.{그러고서는 저 넘어가서 우리 조카딸이 하나 있었는데.}

10201 # 조카따라구 두리 응 선배.{조카딸하고 둘이 응 선배.}

10201 # 이짜기서 살던 나보담 네살 더 머근 언니가 인는디 그 그 언니아고 두리.{이 쪽에서 살던 나보다 네 살 더 먹은 언니가 있는데 그, 그 언니하고 둘이.}

10201 # 그 사라믄 아:제 부창 해계루 드리가구.{그 사람은 애초에 부창학교로 들어가고.}

10201 # 올래 우리는 천주교 신자라 우리 아버지가 부창애교릴 안너써.{원래 우리는 천주교 신자라서 우리 아버지가 부창학교로 안 넣었어.}

10201 # 승당 학교를 가야 신부님 말 잘 드꼬 도리 배우고 그란다구 거기다 느쿠.{성당학교를 가야 신부님 말 잘 듣고 도리 배우고 그러한다고 거기다 넣고.}

[5초]

10201 @ 그래서 사항년까지 조립하시교?{그래서 사학년까지 졸업하시교?}

10201 # 응 하고.{응, 하고.}

10201 # 그래서 하꼬 공부를 더하고 시퍼서 강:경을 가서 강:경.{그래서 학교 공부를 더하고 싶어서 강경을 가서 강경.}

10201 # 지금 부창궁미나꼬 부창 강경 부창애꼬두.{지금 부창국민학교, 부창, 강경 부창학교도.}

10201 # 거기털 가 부창애꼬 다녀 초등 하꼬 강경 초등 하꼬 고기가서.{거기를 가서 부창학교 다녀 초등학교 강경 초등학교 거기 가서.}

10201 # 우리가 여기 이 해교 땡길라고 와따 그랑게나.{우리가 여기 이 학교 다니려고 왔다 그러니까.}

10201 # 어디 사냐 그래서 인자 이른 얘기를 항게.{어디 사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10201 # 여기털 여까장 왜 완냐.{여기를 여기까지 왜 왔냐.}

10201 # 그래서 사실대로 그 말 다하고 공부를 더하고 시푼디 고기서 암바더줘서.{그래서 사실대로 그 말을 다하고 공부를 더하고 싶은데 거기서 안 받아줘서.}

10201 # 이 여 강경까장 땡기라그랑게 야 이노무 자식뜨라 강경 여기를 어디라고 여기를 땡기냐고 모땡기게 하드라고.{이 여기 강경까지 다니려고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아 강경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를 다니냐고 못 다니게 하더라고.}

10201 #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꾸 저:: 절라도 망승며니라고 이떼.{그래도 거기서 나와갖고 저 전라도 망승면이라고 있데.}

10201 # 거: 얼마를 가야야:: 그란디 거기 니:시 거까장 가씨씨 망승며늘 차저서.{거기 얼마를 가야해, 그런데 거기 넷이 거까지 갔었어 망승면을 찾아서.}

10201 # 그래뜨니 거그 선생드리 꺾::작 놀라 야: 아 이노무 잉 사람더라 아가 이~ 여까장 그거 학교 공부 더한다구 완냐 그래뜨니.{그랬더니 거기 선생들이 꺾작 놀래, 야, 아 이놈의 사람들아 아가 잉, 여기까지 그거 학교 공부 더 한다고 왔냐 그랬더니.}

10201 # 한 지비를 드러강 게 선상 사태기 인는디 조옥 사는 양바더리 인는디.{한 집예를 들어가니까 선생 사택이 있는데 죽 사는 양반들이 있는데.}

10201 # 그 양바니 천주교 신자더라구 그래서 가서 예기예기 하닝게.{그 양반이 천주교 신자더라고 그래서 가서 얘기얘기하니까.}

10201 # 아버지 기시냐 그래서 아버지 계시다 그래떠니 이르물 다 적꼬 아버지를 함번 모시고 오라구라더라구.{아버지 계시냐 그래서 아버지 계신다 그랬더니 이름을 다 적고 아버지를 한 번 모시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10201 #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데리구 고까장 가씨따 내가 인자 이~?{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거기까지 갔었다 내가 인제, 응?}

10201 # 히~:: 그래떠니 딸래미 또또가게 뒤편고 말도 자라구 그란다고.{히, 그랬더니 딸을 똑똑하게 뒀다고 말도 잘하고 그런다고.}

10201 # 아이고 그냥 저를 미꼬 보내시라고 그래서.{아이고, 그냥 저를 믿고 보내시라고, 그래서.}

10201 # 거기를 갈라무는 아 여그서 논산서 역전 가서 차를 타고 강경까서 네린다 이~?{거기를 가라면 아, 여기서 논산에서 역전 가서 차를 타고 강경 가서 내린다 잉?}

10201 # 강경역편서 내려가꾸 망승며늘 갈라문 심니스도냐.{강경 역전에서 내려갖고 망승면을 가려면 십 리는 돼.}

10201 # 거기를 차도 모타고 나 거리가씨 거리가 망승 핵꼬를.{거기를 차도 못타고 나 걸어갔어 걸어가, 망승학교를.}

10201 # 거러가머는 한 시간 할 때두 이써 한 시간 끝나고 어떤 때는 한 시간도 더할 때두 이꾸.{걸어가머는 한 시간 할 때도 있어, 한 시간 끝나고 어떤 때는 한 시간도 더할 때도 있고.}

10201 # 그르케 가서 땡견는디 주거도 모땡기겨써.{그렇게 가서 다녔는데 죽어도 못 다니겠어.}

10201 # 그래서 그냥 마러써 거그서 이 일런 땡기다가.{그래서 그냥 말았어 거기서 일, 일년 다니다가.}

10201 # 육강년 조립 모대써 거기서두 심드러 심드러서.{육학년 졸업 못했어, 거기서도 힘들어 힘들어서.}

=1 @ 그걸 일본사람드리 그 성당학교에서 나가라고 항 거예요?{그걸 일본사람들이 그 성당학교에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1 # 응 그 이 그때는 해방도 안되고.{응, 그, 이, 그 때는 해방도 안되고.}

=1 # 인자 일본사람드리 자기네 이~? 하교에서 그냥 부창궁미나교가 인자.{인제 일본사람들이 자기네, 이? 학교에서 그냥 부창국민학교가 인제.}

=1 # 일본사람드리 취그바고 인자 그래찌.{일본사람들이 취급하고 인제 그랬지.}

=1 # 그렇게 인자 성당에서 승탱 해교서 올라온 사람더른 내보내라구.{그러니까 인제 성당에서 성당 학교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내보내라고.}

=1 # 그래가꾸 아 모따너써.{그래갖고 아, 못 다녔어.}

[6초]

##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0202 @ 그러쿠나! 이제 할머니 겨론 이제 말씀 좀 쯔 자세하게 해주세요.{그렇구나! 이제 할머니 결혼 이제 말씀 좀, 쯔 자세하게 해주세요.}

10202 @ 할머니 하라버지는 어디 출씨니세요?{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출신이세요?}

=1 # 하라부지? 하라부지도 공부 모대따.{할아버지? 할아버지도 공부 못했대.}

10202 @ 지방 어디에서 태어나셔 나씨요?{지방, 어디에서 태어나셔, 났어요?}

10202 # 지방에?{지방에?}

10202 # 에 하라부지는 태어나기는 절라도서 태어나따 절라도 저 김제라는 디서 거그서 태어나가꾸.{에, 할아버지는 태어나기는 전라도에서 태어났대, 전라도 저 김제라는 데서 거기서 태어나갖고.}

10202 # 세:살 네:살 떼기 여그 논사늘 올라와따고 하드라구 그릉게.{세 살 네 살 적에 여기 논산을 올라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10202 # 여 충남 싸라미나 항가지여 어려서 이르게 와따 그래 그랜는디.{여기 충남 사람이나 한가지야, 어려서 이렇게 왔대, 그래 그랬는데.}

10202 # 단: 삼 남매빼끼 읍씨 딸 하나 아덜 성제.{단 삼 남매밖에 없어 딸 하나 아들 형제.}

[5초]

10202 @ 음 그럼 여기서 이제 계속 자라싱거예요 하라버지?{음, 그럼 여기에서 인제 계속 자라신 거예요 할아버지?}

10202 # 하라부지는 인자 자기네 지비서 자라찌만 아 우리 아버지 하구 가치 승당이를 잘



맹강께 우리 아버지가 천주교 참:: 아주 신자여씨 아주 열씨미 미더씨.{할아버지는 인제 자기네 집에서 자랐지만 아,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성당에를 잘 다니니까, 우리 아버지가 천주교 참 아주 신자였어, 아주 열심히 믿었어.}

10202 # 그래서 우리 으-ㅇ감 그렇게 마라자문 시아버지니지.{그래서 우리 영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아버지지.}

10202 # 그 양반두 하::두 천주교 신자 열씨미라 두 양반더리 하두 친하다 보니까.{그 양반도 하도 천주교 신자 열심이라 두 양반들이 하도 친하다 보니까.}

10202 # 인자 딸 아덜 예기가 나가꾸 나는 따리 하나 인는다: 아까워서 누구 모쭈다 잉?(인제 딸 아들 예기가 나와 갖고 나 딸이 하나 있는데 아까워서 누구 못 준다, 응?)

10202 # 내가 아덜두 하나두 읍꾸 따리 하난디 누구를 주건냐.{내가 아들도 하나고 없고 딸이 하난데 누구를 주겠냐.}

10202 # 아 친구가 아덜 성제결랑 나아나 달라구래따 그랑게.{아, 친구가 아들 형제거든 나 하나 달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10202 # 아 그람 그라 내가 아더를 내 아더덜 나는 살기가 시미 좀 대가낭게.{아, 그럼 그래, 내가 아들을, 내 아들을 나는 살기가 힘이 좀 대간하니까.}

10202 # 그럼 아더를 데려가라고 그래가구 데릴싸우치름 이르게 와서 겨로늘 해땅게 노인네들찌리 만나가꾸 나는 어트게 생긴도 몰라 실랑 얼굴두 암봐찌.{그럼 아들을 데려 가라고 그래가지고 데릴사위처럼 이렇게 와서 결혼을 했다니까, 노인네들이 만나서 나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신랑 얼굴도 안봤지.}

10202 # 그랜는다 인자 당신네들찌리 인자 예기해가꾸 겨로늘 하구 그르게 사러찌 엔나리는 부모네더리 정해주문 사러씨 그냥.{그랬는데 인제 당신네들끼리 인제 예기해갖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았지, 옛날에는 부모네들이 정해주면 살았어 그냥.}

10202 # 가라 시집가서 사러라고하면 꿈작뚜 모다구 사러찌 머.{가라 시집가서 살아라 하면 꿈작도 못하고 살았지 뭐.}

10202 # 어뜨게 생긴 얼굴도 몰르고 그냥 으등 기여.{어떻게 생긴 얼굴도 몰르고 그냥 얻은 거야.}

10202 # 그른디 은 으꾸 보니까 아자씨가 차카지 차카고 이빠 차카고 똑또가구.{그랬는데 얻고 보니까 아저씨가 착하지 착하고 이빠, 착하고 똑똑하고.}

10202 # 궁 그야 그 양반도 가나나게 사러서 궁미나쵸도 안 나오고 학교도 모뎡겨따.{궁, 그 [x양반x], 그 양반도 가난하게 살아서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학교도 못 다녔대.}

10202 # 나처럼 성당해쵸 조금 뎡기는디 이항년 뎡길랑게 당신 엄니가 아파가쵸.{나처럼 성당학교 조금 다니는데 이학년 다니려니까 당신 어머니가 아파서.}

10202 # 야 이너마 느어매는 아파 주글라그라는디 그까진 공부하면 무하냐구 아버지가 모까게 하드랴 우리 샤:버니가.{야, 이놈아 네 엄마는 아파 죽으려고 하는데 그까짓 공부하면 뭐 하냐고 아버지가 못가게 하더라, 우리 시아버지가.}

10202 # 그래서 이항년 사망년 올라갈라다 마러따 그래따는디.{그래서 이학년 삼학년 올라가려다 말았대 그랬다는데.}

10202 # 재조가 조하가꼬 나보덤 더 자라러.{재주가 좋아갖고 나보다 더 잘 알아.}니

10202 # 군대가서 마이 배워따 자기는 함문두 더 자랄구.{군대가서 많이 배웠대 자기는 한문도 더 잘 알고.}

10202 # 천자채글 군대가니까 그냥 너머 답다배서 저:녕마두 천자릴 떴:따 그냥.{천자문 책

을 군대가니까 그냥 너무 답답해서 저녁마다 천자를 뺏대 그냥.}

10202 # 천자무늘 떼는디 한 달머니 암보고 쓰구 다: 안다는디.{천자문은 떼는데 한 달 만에 암보고 쓰고 다 안다는데.}

10202 # 함문두 잘 쓰드라고 자랄고.{한문도 잘 쓰더라고 잘 알고.}

10202 # 아주 기냥 열::씨미 기냥 아주 노력케가꾸 배워가꾸 자랄더라구.{아주 그냥 열심히 그냥 아주 노력해갖고 배워갖고 잘 알더라고.}

10204 @ 그림 뭐 인제 겨론 예무래 대해서 무러보라고 하네요?{그림 뭐 이제 결혼 예물에 대해서 물어 보라고 하네요?}

10204 # 예물 머 엔나리는 머 예물 이씨.{예물, 뭐 옛날에는 뭐 예물있어.}

10204 @ 머 어떻 거 주고 바드서씨요?{뭐 어떤 것 주고 받으셨어요?}

10204 # 아 엔나리는 머 주고 바등 거나 머 이씨 나 어디 가따옹게 사주라구 완나 어쨌나 보니까 오설 중::거가따와떼.{아, 옛날에는 뭐 주고 받은 거나 뭐 있어, 나 어디 갔다오니까 사주라고 왔나 어쨌나 보니까 옷을 좋은 것 갖다놔데.}

10204 # 유통치마 그렇거 중::거 가따와씨 데게 중거 바더씨.{유통치마 그런 거 좋은 것 갖다놔어, 되게 좋은 거 받았어.}

10204 # 에이 그래서 그저니는 오뚜 귀헛는디 왜정시대라 잉?{에이, 그래서 그전에는 옷도 귀헛는데 왜정시대라 응?}

10204 # 그때 왜정시대 겨로내\*.{그때 왜정시대 결혼해[x서x].}

10204 # 아 오또 데게 조웅거 가따와서.{아, 옷도 되게 좋은 것 갖다와서.}

10204 # 실랑은 보도 아나고 온옥시미 기냥 오시 환장해가꾸.{신랑은 보지도 않고 옷 욕심에 그냥 옷에 환장해갖고.}

10204 # 오시 탐나가꼬 그냥 시집가씨 나.{옷이 탐나갖고 그냥 시집갔어, 나.}

10204 # 오슬 데게 존놈 가따 와떠랑게.{옷을 되게 좋은 놈 갖다 뵈더라니까.}

10204 # 치매저고리 유통치마 양단저고리 호박만저고리.{치마저고리, 윗동치마, 양단저고리, 호박단저고리.}

10204 # 시머머머여 무슨 치마여 데게 이뽕 거 가따 와씨.{시, 머, 머, 뭐야 무슨 치마야, 되게 이뽕 것 갖다 뵈어.}

10204 # 살 유통 사똥 그릉거 가따와서 날::마도 어린 옥씨미로.{사, 윗동, 샷동 그런 것 갖다 와서 날마다 어린 욕심으로.}

10204 # 나 예레서싸리 겨로내쓰니게 뭐 아나 지금 그때두 키가.{나 열여섯 살에 결혼했으니까 뭐 아나, 지금 그때도 키가.}

10204 # 이 사람마니나 켜네 나도 그때 키가 여레서싸리래두 겹나게 켜:씨 잉.{이 사람만큼이나 켜네 나도 그때 키가 열여섯 살이라도 겹나게 켜어 잉.}

10204 # 그래서 그노무 엄니도 읍쓰머는 머 엄마 어디 씨\*.{그래서 그놈의 엄마가 없으면은 뭐 엄마가 어디 [x시장x].}

10204 # 인자 바티 나가구 오디는 시장이 나가구 하이면.{인제 밭에 나가고 언제는 시장에 나가고 하면.}

10204 # 그 노무 보따리를 내가꾸 치마두 이르케 막::필무기루 인능 거 이르케 막 가머보구 이르케 거리보구 막 이래따 하두 조아가꾸 이빠서.{그놈의 보따리를 내갖고 치마도 이렇게 막 필목으로 있는 것 이렇게 막 감아보고 이렇게 걸어보고 막 이랬다 하도 좋아갖고 이빠서.}

10204 # 그래서 가따 잘 바더써 그르케 해와떠라구.{그래서 갖다 잘 받았어 그렇게 해왔더라고.}

10204 @ 머 이불가통 거는너 배개가통 거?(뭘, 이불같은 것은요, 배개같은 것?)

10204 # 비개 그릉 건 인자 지비서 맨드러찌 머.{배개 그런 것은 인제 집에서 만들었지 뭘.}

10204 # 나도 바느질 솜씨가 존 사라미여 내가 바느질 자라.{나도 바느질 솜씨가 좋은 사람이야, 내가 바느질 잘해.}

10204 # 그릉게 내가 다 맨드러써 어려서두.{그러니까 내가 다 만들었어 어려서도.}

10204 @ 그래서 시대게 드러써요?(그래서 시택에 드렸어요?)

10204 # 에 그저니는 시대기 그릉거 주능 거 읍써찌.{에, 그전에는 시택에 그런 것 주는 것 없었어.}

10204 @ 그래요?(그래요?)

10204 # 그럼 저만 저만 가져찌 지끄밍게 시대기 주구 어짜구 하지.{그럼, 저만 저만 가졌지 지금이니까, 시택에 주고 어찌고 하지.}

10204 @ 그럼 그냥 그릉 거는 인제 해갈 때 그냥 가주구 가시능 거예요? 거기 안주고?(그럼 그냥 그런 것은 이제 해갈 때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 안주고?)

10204 # 아 나 우리는 아자씨가 오 와썅게.{아, 나 우리는 아저씨가 오, 왔으니까.}

10204 # 해가꾸 가두 아내찌 그냥 여기서 사러찌 그냥 엄마가 해주시능 거.{해 갖고 가지도 안했지, 그냥 여기서 살았지 그냥 엄마가 해주시는 것.}

10204 # 엔나리는 왜정시대 그때 그때 마내두 해방 저니라.{옛날에는 왜정시대 그때 그때 만해도 해방 전이라.}

10204 # 거 귀해써 오푸 일변사람 왜정시대.{그거 귀했어, 옷도 일본사람 왜정시대.}

10204 # 그래서 이제 겨로늘 하구 나니께 인자 팔리로 해방되니께 인자 오푸 마나구 머 이~?{그래서 인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인제 팔일오 해방되니까 옷도 많고 뭘, 응?.}

10204 # 혼전만전해:찌.{혼청망청했지.}

### 1.2.3. 전통적 결혼식

10205 @ 지금 이 전통 겨론식 쭈 알려주세요.{지금 이 전통 결혼식 쭈 알려주세요.}

10205 @ 엔나레 홀레 풍습 어트케 행는지.{옛날에 혼례 풍습 어떻게 했는지.}

10205 # 홀레풍습?(혼례풍습?)

10205 @ 어트케 머 청실홍실 머 이렇 거?(어떻게 뭘, 청실홍실 이런 것?)

10205 # 으:: 청실홍실 거리노코 마당이다가 이 겨론식 시킬라면 실랑하구 심부하구 마당 노코서는 머 이케 청실홍실 걸:고 암:탁 장:닥 머 그냥 가따노코 이르케 하느다.{응, 청실홍실 걸어놓고 마당에다가 이 결혼식 시킬려면 신랑하고 신부하고 마당 놓고서는 뭘 이렇게 청실홍실 걸고 암담 장담 뭘 그냥 갖다 이렇게 하는데.}

10205 # 우리는 그릉 거 안내써 왜냐른 승당이서 심분니미 혼배미사를 디려써.{우리는 그런 것 안했어 왜냐하면 성당에서 신부님의 혼배미사를 드렸어.}

10205 # 그래서 거기서 해써 승당이서 해써.{그래서 거기서 했어 성당에서 했어.}

10205 @ 치마 저고리 이렇거 입꼬.{치마 저고리 이런 거 입고.}

10205 # 이~ 입꼬.{응, 입고.}

10205 @ 쪽뚜리도 쓰시고요?{쪽뚜리도 쓰시고요?}

10205 # 쪽뚜리는 안 쓰고 원삼 쪽뚜리 그릉 걸 안 쓰고서는.{쪽뚜리는 안 쓰고 원삼 쪽뚜리 그런 걸 안 쓰고서는.}

10205 # 드레스치름 이케 하얀 치마 저고리 입꾸 다 화관쓰구 해써 이르게 하::야케.{드레스처럼 이렇게 하얀 치마 저고리 입고 다 화관쓰고 했어 이렇게 하얇게.}

10205 @ 신시그루 하선내요?{신식으로 하셨네요?}

10205 # 응응.{응, 응.}

10205 @ 그럼 엔나레는 그럼 누에고치 가통 건 언제 피료 해요? 겨론알 때?{그럼 옛날에는 그럼 누에고치 같은 것은 언제 필요해요? 결혼할 때?}

=1 # 누에꼬추? 그릉 거슨 이 이 오감 짜가꾸 이불도 맨들고 머 오또 해입꾸 머 그래써 여기서 뉘여 매긴 사람 인는디 우리는 뉘여를 암메견는디 우리집 여짜기 사는 양바네는.{누에고치? 그런 것은 이, 이 옷감 짜갓고 이불도 만들고 뭐 옷도 해입고 뭐 그랬어, 여기서 누에 먹인 사람 있는데 우리는 누에를 안 먹였는데 우리집 이쪽에 사는 양반네는.}

=1 # 시꾸가 마네가꾸 뉘여를 미기는디.{식구가 많아 갓고 누에를 먹이는데.}

=1 # 뉘여 한:: 잠 자서.{누에 한 잠 자서.}

=1 # 메:짬 자면 메:짬 자나 몰라라는 그 뉘여를 암매겨서 그러면.{몇 잠 자면 몇 잠 자나 몰라 나는 그 누에를 안 먹여봐서 그러면.}

=1 # 이 뉘여가 다 잠자고 지불 지터라고 인자 잉?{이 누에가 다 잠자고 집을 짓더라고 인제 잉?}

=1 # 지벌 지머는 똥::고모라케 뉘여꼬추를 맨드러 노꾸 그 소:기 드르가서 잠자구 주거 버리데 뉘여가.{집을 지면은 동그랗게 누에고치를 만들어 놓고 그속 에 들어가서 잠자고 죽어 버리데 누에가.}

=1 # 이~ 뉘여가 주거 인자 다 그거 똥그릴 툇글 똥::그라케 집져노꾸 주구머는.{잉, 누에가 죽어 인제 다 그거 동글 동글 동그랗게 집 지어놓고 죽으면은.}

=1 # 그 뉘여꼬추를 이 물 씨를 빼더라고.{그 누에고치를 이,물, 실을 빼더라고.}

=1 # 이 쌀머가꾸 마당이서 불 퍼가꾸.{이 삶아서 마당에서 불을 피워갓고.}

=1 # 뉘여꼬추를 실빠 빼는 기술짜 양반더리 이씨 노인네가.{누에고치를 실 빼, 빼는 기술자 양반들이 있어 노인네가.}

=1 # 그럼 그누물 실 빼가꾸 명지럴 이 사머서.{그럼 그 놈을 실 빼갓고 명주를 이, 삼아서.}

=1 # 베를 짜더라고 우리 동네 한사람 두 사람 이씨 지금 뉘여 그거 꼬추해가꾸 짠 사라미.{베를 짜더라고 우리 동네에 한 사람 두 사람 있어, 지금 누에 그것 고치 해갓고 짠 사람이.}

=1 @ 지금도 계세요?{지금도 계세요?}

=1 # 응 짜 짜서 지금도 그른디 그 사람덜또 인자 아낭게 머 하나두.{응, 짜, 짜서 지금도,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인제 안하니까 뭐 하나도.}

=1 @ 그럼 나중에 그 예기 할 때는 할머니 좀.{그럼 나중에 그 얘기할 때는 할머니 좀.}

=1 # 불러오께.{불러올께.}

10205 @ 폐백가통 거는뇨?{폐백 같은 것은요?}

10205 # 폐백? 폐배근 인저 인자 잉: 지끔처럼 디리지.{폐백? 폐백은 인제 인제 잉 지금처럼 드리지.}

10205 @ 엔나레 겨론하셔뎐 모습 할머니는 신시그로 하셔찌만 엔나레 아시능 거 엔나레는  
어떠케도 해따 이거쥌 얘기 해주세요.{옛날에 결혼하셨던 모습 할머니는 신식으로 하셨지만  
옛날에 아시는 것 옛날에는 어떻게도 했다 이것 쥌 얘기해주세요.}

10205 # 엔나리는 머 어트게 하: 그냥 마당이다 잉?{옛날에는 뭘 어떻게 해 그냥 마당에다  
잉?}

10205 # 일 차려노코 우리 큰딸도 내가 그르케 여워서 하나.{잉, 차려놓고 우리 큰 딸도 내  
가 그렇게 여웠어 하나.}

10205 # 큰딸도 여 동네사는 큰딸도 마당이다 호닌 홀레잔치를 칠를 띠끼.{큰딸도 여기 동  
네사는 큰 딸도 마당에다 혼인 혼레잔치를 치를 적에.}

10205 # 고 청실홍실 노코 마당이다.{고 청실홍실 놓고 마당에다.}

10205 # 상 채려노쿠 실랑 각씨 대레 지내찌 인자 그래따가.{상 차려놓고 실랑 각씨 대레  
지냈지 인제 그랬다가.}

10205 @ 천날빠뎐 어트게 해요?{첫날밤은 어떻게 해요?}

10205 # 천날빠:: 인제 머 방에서 머 심부 화장 시켜노코.{첫날밤 인제 뭘 방에서 뭘 신부  
화장시켜 놓고.}

10205 # 실랑이 드르가서 인자 말 무러보능 거지 머 고야 고애니 아려도 쥌 무러보능 거지  
머.{실랑이 들어가서 인제 말 물어보는 거지 뭘, 공연 공연히 알아도 쥌 물어보는 거지 뭘.}

10205 # 그래씨 나는 동네 호닌 해가꾸.{그랬어 나는 동네 혼인해갖고.}

10205 # 딸도 동네다 하나 여워서.{딸도 동네에다 하나 여워서.}

10205 # 그 우리 지비서 겨로늘 해서 마당이서 홀레잔치는 해써도.{그, 우리집에서 결혼을  
해서 마당에서 혼레잔치는 했어도.}

10205 # 천날찌녀기는 즈: 짐씨 자씨 지비서 안 자구 지 즈쩍 가서.{첫날저녁에는 저희 집  
에서 잤어, 집에서 안 자고 제, 저희 집에 가서.}

10206 @ 그러민제 홀레식 때는 어떤 음식 준비하세요? 주로 여기?{그럼 인제 혼레식 때는  
어떤 음식 준비하세요? 주로 여기?}

=1 # 여기?{여기?}

=1 @ 언 아니.{어, 아니.}

10206 @ 어떤 음식 만드세요? 어른드리 엔날 홀레식게서?{어떤 음식 만드세요? 어른들이  
옛날 혼레식에서?}

10206 # 내내 지끄미나 항 가지여.{내내 지금이나 한 가지야.}

10206 @ 그래도 어떻 거?{그래도 어떤 것?}

10206 # 그거 부침개아구 머 그롱거 내::내 또까터 떠가구 부침개아구 머.{그거 부침개하고  
뭘 그런 거 내내 똑같아 떡하고 부침개하고 뭘.}

10206 # 떡:꾸끄리구 잔치가 그거지 머 엔나리는.{떡국 끓이고 잔치가 그거지 뭘 옛날에는.}

10206 # 떡국잔치 하구 인는 지비나 떡국잔치 해써 그라구.{떡국 잔치하고 있는 집이나 떡  
국잔치 했어 그리고.}

10206 # 그::냥 엔나리 잔치 함번 할라면 뭉맨틀라면 왜 이르케 심드나 묵:.{그냥 옛날에 잔  
치 한 번 하려면 묵 만들려면 왜 이렇게 힘드나 묵.}

10206 @ 묵?{묵?}

10206 # 이~ 메물묵 그롱거 머머 빠다가 그거 썬서 맨들라면 참::말로 그여겨 지끄른 참 딸:  
여리래두 여우기 시웁뜨라.{응, 메밀묵 그런 거 뭘뭘 빵아다가 그거 썬워서 만들려면 참말로

고역이여 지금은 참 딸 열명이라도 여우기 쉽더라.}

10206 # 머 하가꾸 가?(뭘 해갖고 가?)

10206 # 아 돈만 가꾸가문 다 먹찌.{아 돈만 갖고 가면 다 먹지.}

10206 # 엔나리는 나도 다:: 잔치 지비서 마::니 해써 다 음식 해서.{옛날에는 나도 다 잔치 집에서 많이 했어, 다 음식해서.}

10206 @ 어떻 거 어떻 거 하세요 그럼?(어떤 것 어떤 것 하세요, 그럼?)

10206 # 떡:또아고 약씩또 하고.{떡도 하고 약식도 하고.}

10206 # 심::드러 떡빠다 떡 떡꾸 끄려서 잔치 할라면 막 사لامي 얼마나 마나야 하.{힘들어 떡 빠다가 떡, 떡국 끓여서 잔치하려면 막 사람이 얼마나 많아야 해.}

10206 # 그거 떡꾸 끄려내는 잔치가 보통 심드른지 아려?(그 떡국 끓여내는 잔치가 보통 힘든지 알아?)

10206 # 모다:: 지끄른 그르케 하래도 모다.{못해, 지금은 그렇게 하래도 못해.}

10206 @ 반찬 가툼 거?(반찬 같은 것?)

10206 # 그럼 반찬 반찬도 맨틀고 머 히:: 찌마야지 머아야지 하이구 생강마내두 골 고리 패 네 생강만 해두 고리 파.{그럼 반찬, 반찬도 만들고 뭘, 휴, 찜 해야지 뭘 해야지, 아이고 생각만해도 골, 골이 패네 생각만해도 골이 패.}

10206 @ 국쭈잔치 아나서썩요?(국쭈 잔치 안하셨어요?)

10206 # 떡꾸잔치두 하구 국쭈자니에 밥 보미 하머는 국쭈 하느디 떡꾸 국쭈잔치 아내썩 떡꾸기루 다해찌.{떡국 잔치도 하고 국쭈 잔치에 밥, 봄에 하면은 국쭈 하는데, 떡국, 국쭈 잔치 안했어, 떡국으로 다 했지.}

10207 @ 그럼 머 인제 혼례식 하시면서 재미썩떤닐 엔나레 할머니 처녀 때나 머 동네사람 겨론하실 때 재미썩떤 얘기 조매주세요.{그럼 뭘 인제 혼례식 하시면서 재밌었던 일, 옛날에 할머니 처녀 때나 뭘 동네사람 결혼 하실 때 재밌었던 얘기 좀 해주세요.}

10207 # 아 쟈까내서 어려서 이어여여 예려서싸리 시집가서 재미가 인능 건지 읍능 건지 하나두 기억뚜 안 난다야.{아 조그만해서 어려서 이,여여여 열여섯 살에 시집가서 재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나도 기억도 안 난다 야.}

10207 # 조 조아명 건지 나자명 건지 머 안나.{좋, 좋았던 건지 [x좋지 않았던x] 건지 뭘 안나.}

10207 @ 머 실랑 발빠딱 때리고 머 이렇 거 하셔썩요?(뭘 실랑 발바닥 때리고 뭘 이런 것 하셨어요?)

10207 # 어~: 실랑다러 실랑 단다구 우리집 으—ㅇ감탱이 막 불러다가 실랑 단다구 방 방:: 맹이루다가 막 발빠다글 막 때리구 그르데.{응, 실랑 달아, 실랑 단다고 우리집 영감탱이 막 불러다가 실랑 단다고 방, 방망이로 막 발바닥을 막 때리고 그러데.}

10207 @ 동네뿐드리요?(동네분들이요?)

10207 # 와서.{와서.}

10207 # 그거뚜 이체가 이썩서 그르케 때린다.{그것도 이치가 있어서 그렇게 때린대.}

10207 # 그게 머 하나 머 한다구 해서 그 발빠다글 때린다더라?(그게 뭐하나, 뭐한다고 해서 그 발바닥을 때린다더라?)

10207 # 그 부뜨러 꺼꿀루 매다라 노코.{그 붙들어 거꾸로 매달아 놓고.}

10207 @ 아이구 아프게 때려요? 진짜로? 쟈게?(아이고, 아프게 때려요? 진짜로? 쟈게?)

10207 # 아 그럼 머 사정 뭘 광팡 때리구 막 그라지.{아, 그럼 뭘 사정 뭘 광팡 때리고 막

그러지.}

10207 # 그러 각씨가 쪼차가가꾸 우리 우리게 하나는 실랑을 때링게 각씨가 쪼차가가서 막 때리는 막 소들 다 때려따.{그래서 각시가 쫓아가갖고 우리, 우리네 하나는 신랑을 때리니까 각시가 쫓아가서 막 때리는 막 손을 다 때렸대.}

10207 # 왜 때리냐구.{왜 때리냐고.}

10207 # 근디 엔나리는 멍청해서 그라 멍청해서 사람더리 다 미려내서.{근데 옛날에는 멍청해서 그래, 멍청해서 사람들이 다 미련해서.}

## 1.2.4.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10208 @ 인제 거론 하신 후에 시논살리문 어떠케 만드르셔 마련하셔쎄요?{인제 결혼 하신 후에 신혼살림은 어떻게 만드셨, 마련하셨어요?}

10208 # 우리? 어머니 살림사랑게 머 내내 그냥.{우리? 어머니 살림살이니까 뭐 내내 그냥.}

10208 # 아자씨가 오서쫘게 하라부지가 오서쫘게 그냥 그 살리미루 내내 그냥 사라쎄 뵐. {아저씨가 오셨으니까 할아버지가 오셨으니까 그냥 그 살림으로 내내 그냥 살았지 뵐.}

10208 # 머 만들구 하구 머 항 거뚜 읍쎄.{뭐 만들고 하고 뭐 한 것도 없어.}

10208 # 왜 다르디루 거로늘 해서 여 저 시 시대글 가쓰머는.{왜 다른 데로 결혼을 해서 여, 저, 시, 시대글 갔으면은.}

10208 # 내 살리멸 나갈라문 북짜팬는디 우리도 어지가니 잘 사러쎄.{내 살림을 나가려면 복잡했는데 우리도 어지간히 잘 살았어.}

10208 # 잘 사러서 그대로 어머니 세간사리 물러바다가꾸 그냥 내 자식뵐 다 키워가꾸 사르닝게 그르케 북짜파게 안 사러 봐쎄.{잘 살아서 그대로 어머니 세간살이 물러 받아갖고 그냥 내 자식들 다 키워갖고 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안 살아 봤어.}

10208 # 지끄미 오히려 인자 좀 북짜파지 애더리.{지금이 오히려 인제 좀 복잡하지 애들이.}

10208 # 인자 나갈 짜람 다나가구 이 막뵐이아구 살다보니까 살림도 좀: 줄구.{인제 나갈 사람은 다 나가고 이 막뵐이하고 살다보니까 살림도 조금 줄고.}

10209 @ 그럼 철 아이 가지셔쎄 땀 트키 기어게 나며뵐닐 뵐?{그럼 첫 아이 가지셨을 때 특히 기억에 남았던 일 뵐?}

10209 @ 입뵐태뵐 거 삼파 머 모셔와뵐 거, 머 삼도 갈라요? 애기나뵐?{입뵐태뵐 것 산파 뵐 모셔와뵐 것, 뵐 삼도 갈라요? 애기나뵐?}

10209 # 그건 엄마가 해서 몰르지 나는.{그건 엄마가 해서 몰르지 나는.}

10209 # 애기난 사라미 머 사뵐 갈라는지 멀다는디.{애기 난 사람이 뵐 삼을 가르는지 뵐 하는지.}

10209 # 나는 어른내 나코 머 암꺼뚜 몰르고 주거 나자빠저쫘게 머 심드르닝가 처대나쿠 엄마가 해쎄 엄마가.{나는 어린아이 낳고 뵐 아무 것도 몰르고 죽어 나자빠졌으니까 힘드니까 첫애 낳고 엄마가 했어 어마가.}

10209 # 입뵐 가뵐 거는?{입뵐 같은 것은?}

10209 # 입뵐뚜 배랑 그르케 시마게 아내봐쎄.{입뵐도 별로 그렇게 심하게 안해봤어.}

10209 @ 처으미셔쓰니까 임신하셔쎄 땀 기어게 남는닐 업쓰쎄요?{처음이셨으니까 임신하셨을 때 기억에 남는 일 없으쎄요?}

10209 # 처딸 배가꾸 그때 처딸 우리 딸 지금.{첫 딸 배갖고 그 때 첫 딸 우리 딸 지금.}

10209 # 가: 배구 이동네가 여쭙사를 그르케 마니 하더라구.{그애 배고 이 동네가 옛장사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10209 # 이사를 오신 양바니 이썬썬.{이사를 오신 양반이 있었어.}

10209 # 다른 동네 저: 무주 구천동썬 이사온 양바니.{다른 동네 저 무주 구천동에서 이사온 양반이.}

10209 # 여스래서 파러때 그란다구 여쭙사릴 다 같켜서 집썬비 여설 과서 하능 거설 이 같켜 주더라구 그래서 우리두 으—○감니미 그 여설 해가꾸 맨트러가꾸.{옛을 해서 팔았대 그런다고 옛장사를 다 가르쳐서 집집이 옛을 고아서 하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영감님이 그 옛을 해서 만들어갖고.}

10209 # 여설 키는디 이거 다: 자버땡기고 자버땡기고 또 자버땡기고 탁:탁 두리 이르게 하야 얼마를 치야만 여시 누루꾸루마니 나중이는 하야내지드라구.{옛을 키는데 이거 다 잡아당기고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기고 탁탁 둘이 이렇게 해야 얼마를 치야만 옛이 노르스름하니 나중에는 하예지더라고.}

10209 # 한::참 막 자버땡기구.{한참 막 잡아당기고.}

10209 # 아이구 그르므 그르므 연냄새가 그르케 마끼 시리가꾸 그게 애기 시니라구 그래땡게버.{아이고 그 놈의 그 놈의 옛냄새가 그렇게 맡기 싫어 갖고 그게 아기 서느라고 그랬던가봐.}

10209 # 나도 몰라썬.{나도 몰랐어.}

10209 # 나도 몰라 임신닌지도 몰란디 그거시 그르케 아주 징그르케 내끼 냄새마끼 실터니.{나도 몰라 임신인지도 몰랐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주 징그럽게 냄새, 냄새 맡기 싫더니.}

10209 # 나중이는 알고 봉게 인자 아이가 드리 스투라구.{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인제 아이가 들어 서더라고.}

10209 # 그레가꾸 여시라문 아주 징그러썬 징그러 아주 냄새마끼 시러서.{그레갖고 옛이라면 아주 징그러웠어 징그러워 아주 냄새 맡기 싫어서.}

10209 # 나중이 하다가덜 아나데.{나중에 하다가들 안하데.}

10209 # 하다가 한:: 메 딸 해썬 메 딸덜 하다가 아나더라구 그래서 그냥 끝마치구 마라썬덜.{하다가 한 몇달 했어 몇 달들 하다가 안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끝마치고 말았지들.}

=1 @ 금 지금두 열 시러하세요?{그러면 지금도 옛 싫어하세요?}

=1 # 하 잘 조아:덜 아나 먹기는 머거두.{하, 잘 좋아하지는 안해, 먹기는 먹어도.}

10210 @ 그럼 사누 조리는 어뜨케 하썬썬요?{그럼 산후 조리는 어떻게 하썬썬요?}

10210 # 사누 조리는 머 엄마가 해중게 기냥.{산후 조리는 뭐 엄마가 해주니까 그냥.}

10210 # 자르더머거썬 머 친정엄마닝까.{잘 얻어먹었지 뭐 친정엄마니까.}

10210 @ 어떻 거 드세요 그릴 땡?{어떤 것 드세요? 그릴 때는?}

10210 # 지로 머 미역 아 근디 엔나리는 머.{겨우 뭐, 미역, 아 ,근데 옛날에는 뭐.}

10210 # 사누 조리 한다구래두 머 주루 머 멍는기 멀루 이르키 이썬.{산후조리한다고 그래도 뭐 주로 뭐는 게 뭇로 이렇게 있어.}

10210 # 떡:썬 썬려주문 끝 땡이지.{미역국 끓여주면 끝, 땡이지.}

10210 # 그라구 호박 쌀머주데 엄마가 이~ 그래서.{그리고 호박 삶아주데 엄마가, 응, 그래서.}

10210 @ 처썬빠분 머예요?{첫국밥은 뭐예요?}



10210 # 처:꼭빠비 얘기 나코 침::이 처꼭빠비라구 하능거시.{첫국밥이 얘기 넣고 처음에 첫국밥이라고 하는 것이.}

10210 # 양꺼뚜 인제 암머꾸서는 국끄려서 가따주능 기 처꼭빠빈디.{아무것도 인제 안먹고서는 국 끓여서 갖다주는 것이 첫국밥인데.}

10210 # 그때는 나이가 있어서 어려서 그라나.{그때는 나이가 있어서 어려서 그러나.}

10210 # 그거뚜 머 배랑 머 머꾸 십찌뚜 앙쿠 마니 암머거써 국뽕뚜.{그것도 뭐 별로 뭐 먹고 싶지도 않고 많이 안 먹었어 국밥도.}

10210 @ 머 멀로 만드려여 처꼭뽕?(뭐 뽕로 만들어요 첫국밥?)

10201 # 미역꾸카고 바바구빠끼 더해줘 국꾸리구 그럼.{미역국하고 밥하고밖에 더해줘 국끓이고 그럼.}

10211 @ 그러문 애들 배기리나 돌잔치는 어뜨케 하세요? 어터케 하셔써요 엔나레?(그러면 아이들 백일이나 돌잔치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

10211 # 우리 자래줘찌, 우리 딸덜 아덜덜 다 자래줘찌 돌 때.{우리 잘해줬지, 우리 딸들 아들들 다 잘해줬지 돌 때.}

10211 # 쥔 미티인은 애더른 아내줘써도 둘 신 그 애더른 자래써 엄니가 계셔가꾸.{제일 밑에 있는 애들은 안해줬어도 둘, 셋 그 애들은 잘했어 엄마가 계셔갖고.}

10211 # 돌 때 우리 따른 유월 수무나리여 음녀그로 그른디.{돌 때 우리 딸은 유월 스무날이야, 음력으로 그른데.}

10211 # 찰: 따리라 그때 그냥 음서글 을마나 마니 그냥 여르밍게.{첫 딸이라 그때 그냥 음식을 얼마나 많이 그냥 여름이니까.}

10211 # 궁게 그냥 췌 쉬니까 지그른 냉장고나 이써? 엔나리는? 냉장고두 읍쭈닝게 그냥.{그러니까 그냥 쉬, 쉬니까 지금은 냉장고나 있어?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으니까 그냥.}

10211 # 새보기 이러나서 그냥 떡 하고 바바고 국꾸리고 해서 동네잔치 하다시피하고 그래찌 해찌.{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떡하고 밥하고 국끓이고 해서 동네잔치하다시피 하고 그랬지, 했지.}

10211 # 자래써 우리는 찰: 처따른 처따리랑은 찰 둘 아덜 두번채 아덜란는디 가:도 그르케 자라고.{잘했어 우리는 첫, 첫딸은, 첫딸이랑은 첫, 두, 아들 두번째 아들 났는데 그애도 그렇게 잘하고.}

10211 # 돌빠끼는 참 흙::쭈가게 자래줘써 크내더런.{돌 받기는 참 흙족하게 잘해줬어 큰애들은.}

10211 # 그래뜨니 미티루 인자 난는 애들레 미티 애더른 모대췌찌 그르케 그르케 아내써 인자 구차내서.{그랬더니 밑으로 인제 났는 애들의, 밑에 애들은 못해줬지 그렇게, 그렇게 안했어 인제 귀찮아서.}

10211 @ 그문 돌잔치 가튼데 상에 머머 논나요?(그러면 돌잔치 같은데 상에 뭐뭐 놓나요?)

10211 # 돌 때 공책 연필 떡씨루 저 이 백설기 찌무는 백설기 시루 한시루 노코.{돌 때 공책, 연필, 떡시루, 저 응 백설기 찌면은 백설기 시루 한 시루 놓고.}

10211 # 은절미 쓰러서 맨드려서 노코 그렇거여 주로 돈 노코.{인절미 썰어서 만들어서 놓고 그런 거야 주로 돈 놓고.}

10211 @ 머 그건 무슨 뜨시예요? 그렇거 논능 거?(뭐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런 거 놓는 거?)

10211 # 아이 나도 몰라 무슨 뜨싱가 애가 머 그 짐는 대로 머.{아이 나도 몰라 무슨 뜻인

가 애가 뭐, 그 집는 대로 뭐.}

10211 # 연필 지부분 공부도 자라구 머 돈지부분 머 지가 출세해서 나중에 돈두 잘 벌고.  
{연필 집으면 공부도 잘하고 뭐 돈 집으면 뭐 자기가 출세해서 나중에 돈도 잘 벌고.}

10211 # 그게 풍서기 내려오는 역싸저기루 노인네드리 향게 하지.{그게 풍속이 내려오는 역사적으로 노인네들이 하니까 하지.}

10211 # 무슨 뜨신지는 몰르거써 나두 왜르케 헨나.{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 나도 왜 그렇게 했나.}

10212 @ 그머 팔래도 이썬나요? 연날뿐들 팔래 어른텐다구 막 이케.{그 뭐 팔래도 있었나요? 옛날 분들 팔래, 어른 된다고 막 이렇게.}

10212 # 잉? 팔래?{응? 팔래?}

10212 # 몰라 그릉 건 나는.{몰라 그런 건 나는.}

10212 @ 그릉건 업써씨요? 성인식 성인 성인텐다고 멩가 이르케.{그런건 없었어요? 성인식, 성인 성인된다고 멩가 이렇게.}

10212 # 그릉 건 몰라.{그런 건 몰라.}

10213 @ 그럼 이제 팔람매 키우시면서 가장 기어게 남는닐 하나만 예기해주세요.{그럼 이제 팔람매 키우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10213 # 팔람매 키우면서 기어기 남는 응.{팔람매 키우면서 기억에 남는, 응.}

10213 # 팔라매 키우면서 우리 막똥이럴 지끔 사느내.{팔람매 키우면서 우리 막둥이를, 지금 사는 애.}

10213 # 애가 운동을 자래 애가 그래서.{애가 운동을 잘해 애가 그래서.}

10213 # 기어기 남넌 이른 애가 소릴 두 마리나 타와써.{기억에 남는 일은 애가 소를 두 마리나 타왔어.}

10213 # 시름해가꾸 씨름대에 나가서 여기 놓고 아피서.{씨름해갖고 씨름대회 나가서 여기 놓고 앞에서.}

10213 # 황소 두 마리를 암소 함번 타구 황소 타구 두 번.{황소 두마리를, 암소 한 번 타고 황소 타고 두 번.}

10213 # 이 일러니 함번씩 타다 타 날러써 그른디.{일 년에 한 번씩 타다, 타 날랐어, 그런 데.}

10213 # 아버지가 사라게서쓰면 그거설 팔리 자래서 메겨서 큰:: 미천 해줘쓸껀디.{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그것을 팔리 잘해서 먹여서 큰 밀천 해줬을 텐데.}

10213 # 그때 아버지가 다리가 아파서 함번 쇼크바더가꾸 씨러저서 풍이루 대써끄든.{그 때 아버지가 다리가 아파서 한 번 쇼크 받아갖고 쓰러져서 풍으로 뒹였거든.}

10213 # 그래가꾸 소를 몸미게 쥐써 그라구서는.{그래갖고 소를 못 먹여 줬어, 그러고서는.}

10213 # 그냥 타다가 하닐쭈일 아 여를마니 가따 팔구팔구 해써.{그냥 타다가 한 일주일 아 열흘만에 갖다 팔고 팔고 했어.}

10213 # 그누물 키워 키워서 성해쓰문.{그놈을 키워서 장성했으면.}

10213 # 밀천 단::다나게 맨트러 쥐써 소도 잘메겨 지 아버지가.{밀천 단단하게 만들어 줬지, 소도 잘 먹여 제 아버지가.}

10213 # 나 일가따 와써 이라루가서 딸기따루 절::루.{나 일 갔다 왔어, 일하러 가서 딸기 따러 저리로.}

10213 # 딸기따러 가서 이를 주::께 하고 웅게.{딸기따러 가서 일을 죽게 하고 오니까.}

10213 # 저::그까장두 마중 나와써 그래 왜 그라냐 그래뜨니.{저기까지도 마중 나왔어, 그래 왜 그러냐[x고x] 그랬더니.}

10213 # 우리 지비 경사나따구라.{우리 집에 경사났다고 그래.}

10213 # 그래서 아 경사는 무슨 경사나나 왜? 그래떠니.{그래서 아 경사는 무슨 경사가 나, 왜? 그랬더니.}

10213 # 정시기가 소릴 타와따 다른 사라미 마중 나와가꾸 정시기가 소타와따.{정식이가 소를 타왔대, 다른 사람이 마중 나와갖고 정식이가 소 타왔대.}

10213 # 소릴 어디가 사와? 내가 그래뜨니 소릴 탈:따 어디가 타냐 그래뜨니.{소를 어디 가 사와? 내가 그랬더니 소를 탔대, 어디에서 탔냐고 그랬더니.}

10213 # 농구 여기여기 여: 하꼬 고기서 그 너머 산너머까장 와서 지끄미 지끄미로 마라문 부영아파트쓰미네 고께 오머서 그래.{농고 여기 여기 여, 학교 거기서 그 너머 산너머까지 와서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부영아파트쯤이네, 거기께 오면서 그래.}:

10213 # 학교 저기서 시름을 헐는디 오늘 시름대회 나가가꾸 일똥애가꾸 소 타다 놔따구. {학교 저기에서 씨름을 했는데 오늘 씨름대회 나가갖고 일등해서 소 타다 났다고.}

10213 # 와봉게 그냥 동네사람드리 여기서 더글더그라구 풍물치구 머 잔치가 버러져떠라. {와보니까 그냥 동네사람들이 여기서 바글바글하고 풍물치고 뭐 잔치가 벌어졌더라.}

10213 # 그런닐 두번 이써따.{그런 일 두 번 있었다.}

=1 @ 아휴 네 진짜 끈내줘요.{아휴! 네 진짜 끝내줘요.}

10213 # 구때 기어기 남는 이른 그거여 가.{그때 기억에 남는 일은 그거야, 개.}

## 1.2.5. 시집살이에 대한 경험담

10214 @ 할머니는 금 시집싸리는 업쓰셔쨌네요?{할머니는 그럼 시집살이는 없으셨쨌네요?}

10214 # 시집싸리는 뭐 내가 지비서 내 지비서 사는디 누가 시집싸리를 시키거써 시부모네 시집싸리는 아내봐짜.{시집살이는 뭐 내가 집에서 내 집에서 사는데 누가 시집살이를 시키겠어, 시부모네 시집살이는 안 해봤지.}

10214 @ 금 머 동 주위사람들 시집싸리 해서 고생한 얘기는 아세요?{그럼 주위사람들 시집살이해서 고생한 얘기는 아세요?}

10214 # 아 몰라 시집싸리 고상은 이~!{아 몰라, 시집살이 고생은, 잉!}

10214 # 이 우:찌비 인는 할머니 하나가 할머니가 너머 극쌩마저가꾸 시집싸리 마니 시켜써.{이 윗집에 있는 할머니 하나가 할머니가 너무 극성맞아갖고 시집살이 많이 시켰어.}

10214 @ 어트케 하셨어요?{어떻게 하셨어요?}

10214 # 아 어뜨게야 빨래두 냥 잘 빠리찌 주거라고.{아, 어떻게 해, 빨래도 그냥 잘 빨았지 죽어라고.}

10214 # 여기 이 동네 삼: 무리 읍써써 우리동네 마으리.{여기 이 동네 샘 물이 없었어 우리 동네 마을에.}

10214 # 무리 읍는디 주::거라구 빨래아다가 다::꾸 잘 해노면 그냥 트집짜버가꾸.{물이 없는데 죽어라고 빨래해다가 자꾸잘 해놓으면 트집잡아갖고.}

10214 # 깨까시 빠리서 다 해논 오설 가따가 저 미라리깡이다 쭈서 방냐?{깨끗이 빨아서 다 해놓은 옷을 갖다가 저 미나리깡에다 쭈서 박냐?}

10214 # 아 글케 하구서 양 그래서 그느므 늘그니 내가 저노무 늘그니 어트게 주굴라나 물르거따 그래떠니.{아 그렇게 하고서 그냥 그래서 그놈의 늙은이 내가 저놈의 늙은이 어떻게 죽으려나 모르겠다[X고X] 그랬더니.}

10214 # 주굴 때 잘 못죽더라구 주굴 때 잘 모쥼거써.{죽을 때 잘 못 죽더라고, 죽을 때 잘 못죽었어.}

10214 # 느다덥찌 저 사니 올라가서 사니루 간다구 우리.{느닷없이 저 산에 올라가서 산으로 간다고 우리.}

10214 # 이 배까티 사니 인는디 고기를 가다가 쓰러져가꾸서 냥.{이 바깥에 산이 있는데 거기를 가다가 쓰러져갔고서 그냥.}

10214 # 느다덥찌 쓰러져서 자빠져가꾸.{느닷없이 쓰러져서 자빠져갔고.}

10214 # 하루마 이트링가마니 주거써 조케를 안 주건써.{하루 반, 이틀인가만에 죽었어 좋게를 안 죽었어.}

10214 # 지금 가트른 자래찌머 쓰러져서 주거써두 아나푸구 주거썰게.{지금 같으면 잘했지 뭐, 쓰러져서 죽었어도 안 아프고 죽었으니까.}

10214 # 그저니는 잘 모대따구 하지만.{그전에는 잘 못했다고 하지만.}

10214 @ 예.{예.}

[12초]

## 1.2.6. 회갑 잔치

10218 @ 인제 회갑 만 육십세 되시면 회갑잔치 하시자나요, 어뜨케 하능거예요?{이제 회갑만 육십 세 되시면 회갑잔치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218 # 회갑잔치 할때기 우리 노인네 자래디려찌 내가 내가.{회갑잔치 할 적에 우리 노인네 잘해드렸지 내가, 내가.}

10218 # 어뜨케 하 인자 자손들 다 모여노코 인자.{어떻게 해, 인제 자손들 다 모여놓고 인제.}

10218 # 저를 절하고 상 채려서 자래찌 잘.{절을, 절하고 상 차려서 잘했어 잘.}

10218 # 상 해서 회갑잔치하문 푸지게 해디려찌.{상 해서 회갑잔치하면 푸짐하게 해드렸어.}

10218 # 삼 당시니 또 이 여기저기 게:드릉 거또 마니 이썸서 게:군냥반덜또 마니 오셔서 자래줘찌.{사무 당신이 또 이 여기저기 게 든 것도 많이 있어서 게원 양반들도 많이 오셔서 잘해줬어.}

10218 @ 막 잔치로 막 노능 거예요 \*\*로 모여서?{막 잔치로 막 노는 거예요, 동네로 모여서?}

10218 # 그럼 이~.{그럼, 응.}

[8초]

10219 @ 그럼 회갑 상:은 어뜨케 차려써썸요?{그럼 화갑 상은 어떻게 차렸었어요?}

10219 # 상 머 큰::상 머 채려서 별걸별거 다해드려찌.{상 뭐 큰 상 뭐 차려서 별거별거 다 해드렸지.}

10219 @ 머머 올라가시는지 좀 얘기해주세요.{뭐뭐 올라가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10219 # 거기? 아 지비서 맨드릉 거 다 가지.{거기? 아, 집에서 만든 것 다 [X올라X]가지.}

10219 # 떤기니 머 부침개 이~ 으녕 잔: 머 그릉거또 고여서 다 노코.{떡이니 뭐 부침개, 잉, 은행, 잣 뭐 그런 것도 꺀어서 다 놓고. }

10219 # 삼사실과 노코 잘래날 자::렐써, 상 잘 채려서 드려써.{삼사실과 놓고 잘해놔, 잘했어, 상 잘 차려서 드렸어.}

10219 @ 뭐 상 특빠리 차리는 방버비 이써요? 따로? 머는 이쪽 머 이렇 거 업써요? 그렇거는?{상 특별히 차리는 방법이 있어요? 따로? 뭐는 이쪽 뭐 이런 거 없어요?}

10219 # 제:사쌍 아니라 그냥 그르케 차려노테 머.{제삿상 아니라 그냥 그렇게 차려 놓테, 뭐.}

10219 # 아피다가 과이털 아피로 종노코.{앞에다가 과일을 앞으로 쭉 놓고.}

10219 # 디로 떡 그런 편 그릉 거 노코 고기 노코 머 산:지사랴 산:지사 항가비.{뒤로 떡 그런 편 그런 것 놓고 고기 놓고 뭐 산 제사래, 산 제사 환갑이.}

10219 # 엔나리는 항갑만 너머가면 한살 더머구문 너무 나이라 그래써 중는 나이라구.{옛날에는 환갑만 넘어가면 한 살 더 먹으면 남의 나이라 그랬어, 죽는 나이라고.}10220 @ 장네 좀 말쓰매주세요.{장례 좀 말씀해주세요.}

10219 @ 아 그래꾸나!{아, 그랬구나!}

10219 # 응.{응.}

[6초]

### 1.2.7.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

10220 @ 금 장네 절차 엔나레 상례 절차 어트케?{그럼 장례 절차, 옛날에 상례 절차 어떻게?}

10220 # 도라가싱 거? 장네?{돌아가신 것? 장례?}

10220 # 도라가실 때에 아들 마나고 딸마나고 해서.{돌아가실 적에 아들 많고 딸 많고 해서.}

10220 # 장얼 이 동네가 들써가게 해드런네 푸지마게.{장을 이 동네가 들썹하게 해드렸네 푸짐하게.}

10220 # 비디오가 다와서 상에 나갈 때 찍:꼬.{비디오가 다 와서 상여 나갈 때 찍고.}

10220 # 참 푸지마게 해서 모이 여기다가 지금도 모셔난는디.{참 푸짐하게 했어 묘 여기다가 지금도 모셔놔는데.}

10220 # 모이도 조아 잘 썬나써.{묘도 좋아 잘 썬냈어.}

10220 # 근디 키울 때기만 대가나지.{근데 키울 적에만 힘들지.}

10220 # 자손 마냥게 거 하나들 가트른 그르케 모다.{자손이 많으니까 그 하나들 같으면 그렇게 못해.}

10220 # 이~: 팔람매나 텡게 그때마내도 어이다 그래도 야 야도 우리 아덜도.{팔남매가 되니까 그때만 해도 어리다 그래도 애, 애도 우리 아들도.}

10220 # 그때 하나씩싸리 거반 땃찌 그랑게 지 칭구두 마나구에서.{그때 한 이십 살 거의 땃지, 그러니까 제 친구도 많고 그래서.}

10220 # 잘: 해써:: 머 여기서 저기서 손님덜 마니 오고.{잘 했어 뭐, 여기저기서 손님들 많이 오고.}

10220 # 그때마내도 술받 이르게 소나무가 그득한디 거그다 뒀을 쓸라는디 그 소나무 비고 사비루 판다구.{그때만 해도 술받, 이렇게 소나무가 가득한 데 거기다 묘를 쓰려는데 그 소나무 베고 삽으로 판다고.}

10220 # 큰:: 동네 싸람드리 모이 쓸사람드리 걱정 헐는디 야 친구더리 딱뜨러타떠니 코크링 하나 딱까꾸 와서 막 코크링이루 다 소나무두 비구 막 파닝께 놀래더라구, 하휴.{큰 동네 사람들이 묘 쓸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애 친구들이 딱 들어 타더니, 포크레인 하나 딱 갖고 와서 막 포크레인으로 다 소나무도 베고 막 파니까 놀래더라고, 아휴.}

10220 # 자소는 여레 두고 볼꺼라구 다른사람 암두 안디, 막땡이 칭구가 저러케 칭구더릴 데리구 와가꾸 그르케 한다구 동네서 쑥쑥쑥쑥 해써 뒤찌니서덜.{자소는 여럿 두고 볼 거라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안[X하는데X], 막둥이 칭구가 저렇게 친구들을 데리고 와갖고 그렇게 한다구 동네에서 속닥 속닥속닥했어 뒷전에서들.}

=1 # 내 자식근 마::나야야.{내 자식은 많아야 해.}

=1 # 그지 칭구두 사구야야 그지두 썬머글 때가 이썬.{거지 친구도 사귀어야 해 거지도 썬 먹을 때가 있어.}

=1 # 에~ 다 머 존사람마 사귀선 안다.{응, 다 뭐 좋은 사람만 사귀어서는 안돼.}

=1 # 사라면 일평상이 사를라면 딱: 한 사람만 사가가꼬는 모썬 모싸리.{사람은 일평생에 살려면 딱 한 사람만 사귀어 갖고는 못썬 못살아.}

=1 # 다 대화두 자라야고 조케 다 장게.{다 대화도 잘해야 하고 좋게 다 잘하니까.}

=1 # 이 칭구가 마나니께 기냥 모던 사람더리 다 와가꾸 다 도와주더라고.{이 친구가 많으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갖고 다 도와주더라고.}

=1 # 그르케 코크링 가꾸 와서 그 어린 나이에 그르케 데리고 와서 할 찌는 꾸미두 생가가 난는디.{그렇게 포크레인 갖고 와서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데리고 와서 할 줄은 꿈에도 생각 안했는데.}

=1 # 그르케 한다구 뒤여서덜 뒤찌니서 수테라수테라 자애비가 그때 장게도 양간찌 그때는.{그렇게 한다구 뒤에서들 뒷전에서 쑥쑥쑥 재 아비가 그때, 장가도 안 갔지 그 때는.}

10220 @ 머 바린 하능 거 머 이렇 거 다 순서대로 이렇 거 다 아세요?{발인 하는 것 뭐 이런 것 다 순서대로 이런 것 다 아세요?}

10220 # 바린? 바리는 나갈때기 상어나갈 때 바리난다구라지.{발인? 발인은 나갈 적에 상어나갈 때 발인한다고 그러지.}

10220 @ 처음부터 초종은 머예요? 초종?{처음부터, 초종은 뭐예요? 초종?}

10220 # 초종? 초종쏘리는 난 잘 모르진네.{초종? 초종 소리는 난 잘 모르겠네.}

10220 @ 습 스븐여 습 스파다 머 이렇거 이렇거 모르세요?{습, 습은요 습, 습한다 뭐 이런 것, 이런 것 모르세요?}

10220 # 그건 몰라.{그건, 몰라.}

10220 # 응 바리는 나갈때기 바리니라 구라더라구.{응, 발인은 나갈 적에 발인이라고 그러더라고.}

10222 @ 뭐 운구할 때 아니면 머 봉분다질 때 하는 노래 가통 거 인나요?{뭐 운구할 때 아니면 뭐 봉분다질 때 하는 노래 같은 것 있나요?}

10222 # 우리는 승당이 땡겨 그롱 거 아나썬.{우리는 성당에 다녀 그런 것 안했어.}

10222 # 아 천주교 신자라.{아, 천주교 신자라.}

10222 # 가서 기도더리고 그냥 바리나구 발썰 바리날 때 기도더리고 나가고 오인드른 이 나

갈라구 할때기 바린 할라구 하머는.{가서 기도 드리고 그냥 발인하고 벌써 발인할 때 기도 드리고 나가고 외인들은 이 나가려고 할 적에 발인하려고 하머는.}

10222 # 상 채려노코 그 한다구려자나? 그릉 거 아내씨 그렇거.{상 차려놓고 그 한다고 그 러잖아? 그런 것 안했어 그런 것.}

10221 @ 금 천주교 시그루 하서씨요?{그럼 천주교식으로 하셔어요?}

10221 # 응. 천주교식.{응, 천주교식.}

10221 @ 그거 그거 얘기해주세요 어트케 장례시글 천주교시그로 어트케 하는지?{그거 그거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장례식을 천주교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10221 # 천주교식 시기로는 장 이에 머 채려노코 머 하능 걸 몰 아나고.{천주교식 식으로는 장, 이제 뭐 차려놓고 뭐 하는 것을 몰, 안하고.}에

10221 # 연도 하고 기도드리고 나가고 다 신부님 오셔서 기도드리고 그래씨.{연도하고 기도드리고 나가고 다 신부님이 오셔서 기도 드리고 그랬어.}

10221 # 무이야 모이 인는디가서도 여기서 승당이까장 상:에로다가 미:고.{뭐야, 묘 있는 데 가서도 여기서 성당에까지 상여로다가 메고.}

10221 # 계구니 마나닝게 그냥 이팀 저팀 막 미:구서는 성당이까장 가따가 성당에서 미사드리고 거기서 또 일루 와가꾸 여기서 여 사니다 모셔씨.{계군이 많으니까 그냥 이팀저팀 막 메고서는 성당에까지 갔다가 성당에서 미사드리고 거기서 또 여기로 와갖고 여기서 여기 산에다 모셨어.}

## 1.2.8. 제사에 대한 이야기

10223 @ 그러쿠나! 그럼 인제 제사 예기 조매주세요.{그렇구나! 그럼 인제 제사 예기 좀 해주세요.}

10223 # 제사::도 아나시젠네요?{제사도 안하시겠네요?}

10223 # 제사는 아 아날라구 항게 안데게 생겨씨.{제사는 아, 안하려고 하니까 안되게 생겨어.}

10223 # 아덜더리 다 안 미꼬.{아들들이 다 안 믿고.}

10223 # 이거또 아니고 저거또 아녀.{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10223 # 그래서 제사를 내가 지 지내씨 지내는다.{그래서 제사를 내가 지, 지냈어 지내는데.}

10223 # 다 채려노코 지금도 제사를 지내지만 그래도 신부님한테 내가 여쭙봐씨.{다 차려놓고 지금도 제사를 지내지만 그래도 신부님한테 내가 여쭙봤어.}

10223 # 이르게 조케 신부님 이르게 단독찌기루 안저서.{이렇게 좋게 신부님 이렇게 단독적으로 앉아서.}

10223 # 신부님 우리는 그저니는 아버지가 하도 열씨미로 땡겨서.{신부님, 우리는 그전에는 아버지가 하도 열심히 다녀서.}

10223 # 이 제사 지내능 걸 그릉 걸 아내서.{이 제사 지내는 것을 그런 것을 안해서.}

10223 # 아버지는 제사를 내가 연도루다 디리구 그냥 마는디.{아버지는 제사를 내가 연도로 드리고 그냥 마는데.}

10223 # 아이 우리 애더런 지금 승당이두 자란::나오고.{아이, 우리 애들은 지금 성당에도 잘 안나오고. }

10223 # 이~ 미찌두 자라나구 애더리 크다봉게 말도 자란득꼬.{민지도 잘 앓고 애들이 크다 보니까 말도 잘 안듣고.}

10223 # 승당이다 그 천주교 그 뭐더러 땡겨요.{성당에다, 그 천주교 그 땡하러 다녀요.}

10223 # 그 양꺼뚜 아닌 느무 거 그랴 우리 두째 아덜뚜 구라구 크나드른 그르케 아나지만.{그 아무 것도 아닌 놈의 것 그래, 우리 둘째 아들도 그러고 큰 아들은 그렇게 안하지만.}

10223 # 그라는데 크나드른 큰따리 마팔리 시집간 느미 지극 쩡성이루 열씨미네.{그러는데 큰아들은 큰딸이 맏딸이 시집간 놈이 지극 정성으로 열심히네.}

10223 # 그래서 성당을 열씨미 땡깁게 그런 도:리를 도:리상두 다 자랄구 아러 그라는데.{그래서 성당을 열심히 다니니까 그런 도리를 도리사항도 다 잘알고 알아 그러는데.}

10223 # 아더른 안 땡기구 메누리는 또 엔나리 지가 삭씨떼기 교해를 다녀따.{아들은 안다니고 며느리는 또 옛날에 자기가 처녀 때 교회를 다녔대.}

10223 # 교해대니다 와가꼬 인자 승당에도 가기 실코 이거또 아나고 저거또 아나고 양꺼또 아나 인자.{교회다니다 와갖고 인제 성당에도 가기 싫고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해 이제.}

10223 # 아나버링게 그냥 나도 맨날 언제는 꺄쩍찌그내서 아 그 성당이 다녀라 인자.{안해버리니까 그냥 나도 만날 언제는 마음이 불편해서 성당에 다녀라 이제.}

10223 # 교해나 승당이나 내내 항가지지 머 그래떠니.{교회나 성당이나 내내 한가지지 뭐 그랬더니.}

10223 # 글쎄요 어머니 하시능 거 하야는디 미끼지를 안네유 그라고 안 땡겨.{글쎄요 어머니 하는 것 해야 하는데 믿기지를 안네요, 그러고 안 다녀.}

10223 # 아 대건 여기여기 그게 어디여?{아 대건 여기여기 그게 어디야?}

10223 # 논산 시내 저 성당은 그 다리 인는디께 거 어디여 대기동.{논산 시내 저 성당은 그 다리 있는 데쯤 그 어디야 대기동.}

10223 # 대기동 인는 디가 성당 이씨짜냐 대기 승당.{대기도 있는 데가 성당 있었잖아 대기동 성당.}

10223 # 그 미티서 성당 저티께서 사란는디도 안 나가더라고.{그 밑에서 성당 곁에 쫘에서 살았는데도 안 나가더라고.}

10223 # 자란땡겨 마미 안키나 안 땡겨 그라는데.{잘 안 다녀, 마음이 안 내키나 안 다녀 그러는데.}

10223 # 지금두 나가자 구래도 안 나가.{지금도 나가자, 그래도 안 나가.}

10223 # 그래서 심부님더러 그란다구 내가 예기를 하면서.{그래서 신부님더러 그러다고, 내가 예기를 하면서.}

10223 # 우리 이~ 말구여 이르미 본명이 승당 이르미 말구씨 즈 남편네는 애덜뚜 다 승당을 잘 다니두 아나구 그래도 그냥.{우리 응, 말구여 이름이 본명이 성당 이름이, 말구씨 제 남편네는 애들도 다 성당을 잘 다니지도 앓고 그래도 그냥.}

10223 # 오인 모이니라구러나 항가지쥬 머 나 혼차만 땡깁게 그랑께.{외인, 모인이라고 그러나 한가지쥬 뭐 나 혼자만 다니니까, 그러니까.}

10223 # 그냥 지사를 지낸다 그래쎄 신부님더러.{그냥 제사를 지낸다 그랬어, 신부님더러.}

10223 # 지사를 지극 쩡성으로 내가 잘 지내는디.{제사를 지극 정성으로 내가 잘 지내는데.}

10223 # 나중에 애더리래도 즈덜 인자 승당을 땡겨서 미드른 안 즈날망정 나중이는.{나중



에 애들이라도 자기들 이제 성당에를 다녀서 믿음을 안 전할망정 나중에는.)

10223 # 지사도 제테로 모더더 먹꾸 이를꺼 가터서 내가 한다고 그래썬 그랑게나 갠찬타 심부니미 그라 제가 아니라 부머 한티 이르케 기도하능 건.{제사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이럴 것 같아서 내가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괜찮데 신부님이 그래, 죄가 아니라 부모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10223 # 기도도 하고 연도도 하구 하면 조치만 제사지내능 거또 제 아니니께 얼마든지 해래 노코.{기도도 하고 연도도 하고 하면 좋지만 제사지내는 것도 죄 아니니까 얼마든지 하래, 놓고.}

10223 # 제사지내라고 하드라구 절:두 하고 다: 하라.{제사 지내라고 하더라고 절도 하고 다 하래.}

10223 # 그래서 잘 지나 으—ㅇ 감 지사.{그래서 잘 지내 영감 제사.}

10223 # 진짜로 자:래디려 애더리.{진짜로 잘 해드려 애들이.}

=1 # 제사지내고 할라머는 돈 십만원씩 다 가줘와 나안티.{제사지내고 하려면 돈 십만원씩 다 가져와 나한테.}

=1 # 이 일곱녀서시 다 가종게 마나지 나며 도니.{이 일곱 여섯이 다 가져오니깐 많지 남아 돈이.}

=1 @ 예, 아이고!{예, 아이고!}

=1 # 다네 딸덜뚜 내구 이버니두 스리 딸덜뚜 십만원씩 주구.{다 내, 딸들도 내고, 이번에도 설날에 딸들도 십만원씩 주고.}

=1 # 손네딸도 오머서 삼두 사가꾸.{손녀딸도 오면서 인삼도 사갖고 [x오고x].}

=1 # 겨로난 느미 인삼도 향::각 쿵 거 이르기 이마 이.{결혼한 놈이 인삼도 한 곱 큰 것, 이렇게 이만[x한x], 이.}

=1 # 향각싸가꼬 오고 돈두 주구 그라더라구.{한 곱 사갖고 오고, 돈도 주고 그러더라고.}

=1 # 돈두 성당에다 이르케 바치라구.{돈도 성당에다 이렇게 바치더라고.}

=1 # 빠::빠던 새 돈 그냥 으녕이서 바껴가꾸 십만원 가따 주더라구.{뽕뽕한 새 돈 그냥 은행에서 바꿔갖고 십만원 갖다 주더라고.}

=1 # 시집간 손자사우가.{시집간 손자사위가.}

=1 @ 응::.{응.}

10225 @ 그러민제 제사 지낼 때 누가 어뜨케 준비하세요? 그러면?{그럼 인제 제사 지낼 때 누가 어떻게 준비하세요? 그러면?}

10225 # 하능 거슨 음스근 여그서 다 하지 크나더리랑 나랑 가서 장보기 사다가 메뉴리더른 바뿌닝까 강 모까 그냥 그라구.{하는 것은 음식은 여기서 다 하지, 큰아들이랑 나랑 가서 장보기 사다가 며느리들은 바뿌니까 강, 못 가 그냥 그러고.}

10225 # 즈더리 하머 엄마 마미 안 든다구 엄마가 다 사오라구 지라라 내가 버러설 잘모깰 켜썬.{자기들이 하면 엄마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가 다 사오라고 지랄해, 내가 버릇을 잘못 가르쳤어.}

10225 # 나 모단다구 자빠저쓰야는디 다 사다 줘떠니 아 인자 암두 아날라구 지라라네 그레가꾸.{나 못한다고 자빠졌어야 했는데 다 사다 줬더니 아, 이제 아무도 안하려고 지랄하네 그레갓고.}

10225 # 아 안직까장은 그레두 내가 땡기머서 할마냥게 크나더리 차로 가닝까 차타고 가서 다 사다가 여기다 노무는 애드리 다 와서 하.{아, 아직까지 그레도 내가 다니면서 할 만하니

까 큰아들이 차로 가니까 차타고 가서 다 사다가 여기다 놓면 애들이 다 와서 해.)  
 10225 # 해서 제사 잘 지내 잘 지나.{해서 제사 잘 지내, 잘 지내.}  
 =1 @ 다오세요?{다 오세요?}  
 =1 # 다 오지 딸덜알라 다와.{다 오지 딸들까지, 다와.}  
 10225 @ 금 제사지낼 때 특히 머 하지 마라야 텔께 인나요? 특별리?{그러면 제사지낼 때  
 특히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나요? 특별히?}  
 10225 # 몰라 하지말꺼슨 머머머 머 아냐?{몰라 하지말아야 할 것은 뭐뭐뭐 뭐 안해?}  
 10225 # 큰소리치지 큰소리 내지 마르야지 지산나른.{큰소리치지, 큰소리내지 말아야지 제삿  
 날은.}  
 10225 # 조케 하차는 음서글 해노코래또 정성시리께.{중게, 하찮은 음식을 해놓고라도 정성  
 스럽게.}  
 =1 # 안지근 애더리 다 차캐서 그냥.{아직은 애들이 다 착해서 그냥.}  
 =1 # 그냥 마란드꾸 하는 사람 읍:써.{그냥 말 안듣고 하는 사람은 없어.}  
 =1 # 그냥 크나덜뚜 지금 시운 시운 예순 육씩비 다되가는디도.{그냥 큰 아들도 지금 원,  
 원, 예순, 육십이 다 되가는데도.}  
 =1 # 지금 아오비네 시운 아웁.{지금 아홉이네, 원 아홉.}  
 =1 # 아오빈디 날 모리는 향갑 도라오자나.{아홉인데 내일 모레는 환갑 돌아오잖아.}  
 =1 # 그래도 으~:대 그냥 내가 여그서 사라오면서 이 관시기여 이르미.{그라도 여태까지  
 그냥 내가 여기에서 살아오면서 이, 관식이야 이름이.}  
 =1 # 야 관시가 뭐쫘 하야거따 하머는.{야 관식아, 뭐 쫘 해야겠다 하머는.}  
 =1 # 두::마라나고 차가꼬 즉써과.{두 말 안하고 차갖고 즉시 와.}  
 =1 # 차카 함말로 착카 크나더리.{착해 참말로 착해 큰아들이.}  
 =1 # 그렇게 성이 그르케 잘 하구 착카닝게.{그렇게 형이 그렇게 잘하고 착하니까.}  
 =1 # 누가 어떤 노미 뒤찌니서 막 그냥 머 큰소리 치는 놈 읍:써 읍:써 모대.{누가 어떤 놈이  
 뒷전에서 막 그냥 뭐 큰소리 치는 놈 없어, 없어 못해.}  
 =1 @ 팔람매?{팔남매?}  
 =1 # 응 팔람매가.{응, 팔남매가.}  
 =1 @ 다나비 잘되네요.{단합이 잘되네요.}  
 =1 # 이~ 잘테: 안지근 안직까장은.{응, 잘돼. 아직은 아직까지는.}  
 =1 @ 조으세요.{좋으세요.}  
 =1 # 나 주근디는 어짖라나 몰라도.{나 죽은 뒤로는 어찌하려나 몰라도.}  
 =1 @ 자라실꺼예요.{잘 하실 거예요.}  
 =1 # 메뉴리덜뚜 너무 시꾸가 다 잘 두와써 나는 우리 아덜보덤두.{머느리들도 남의 식구가  
 다 잘 들어왔어, 나는 우리 아들보다도.}  
 =1 # 큰메누리두 다 교양이꼬 다 이~ 머꾸 살라구 역::척씨리게 노력캐서.{큰머느리도 다 교  
 양있고 다 응? 먹고 살려고 억척스럽게 노력해서.}  
 =1 # 다 즈 아덜딸덜 다 잘 갈켜 노코 다헨는디 두째는 지 지금 두째 딸두 지금 기지배만  
 두런디 인제 이버니 대야꼬 가는디 부틀라나 어짖라나 몰라.{다 제 아들딸들 다 잘 가르쳐  
 놓고 다 했는데 둘째는 지, 지금 둘째 딸도 지금 계집애만 둘인데 이제 이번에 대학교 가는  
 데 붙으려나 어찌려나 몰라.}  
 =1 # 내너니 대야꼬 가니까 오리 쉼뿔 고사미니까.{내년에 대학교 가니까 올해 쉼뿔[x여고

x] 고삼이니까.}

=1 @ 응.{응.}

## 1.3. 생업 활동

### 1.3.1. 논농사

10301 @ 할머니 논농사에 대해서 여쭙보게요.{할머니 논농사에 대해서 여쭙볼게요.}

10301 # 응.{응.}

10301 @ 벼에 품종에는 어떤 거뜨리 이쨌요? 벼에 품종.{벼에 품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벼의 품종.}

10301 # 벼 품종이 여러 가지야 마::나지이.{벼 품종이 여러 가지야, 많지.}

10301 # 우리는 아끼바리두 해보고.{우리는 추청벼도 해보고.}

10301 # 이 저 그게 머여 저.{이, 저 그게 머야, 저.}

10301 # 아끼바리서보통 주남벼도 해보고 또 이 아이구 몬: 벼를 해떠라.{추청벼에서부터 주남벼도 해보고 또 이, 아이고, 무슨 벼를 했더라.}

10301 # 아니여 그릉 건 아내보고.{아니여 그런 것은 안 해보고.}

10301 @ 조생종 머.{조생종 뭐.}

10301 # 아이고 조생종 이 저::기.{아이고, 조생종 이, 저기.}

10301 # 이 이로팔라라나 머 그런 벼도 해봐써 이로팔 벼.{이, 일오팔이라나 뭐 그런 벼도 해봤어 일오팔 벼.}

10301 # 금방네 생각 할랑게 자란데네.{금방 생각할러니까 잘 안되네.}

10301 @ 그 벼드리 궁까 품종이 왜 그케 틀링 거예요 서로서로?{그 벼들이 그러니까 품종이 왜 그렇게 다른 거예요, 서로서로?}

10301 # 그케 또 그저니 아끼바리 싸른 밤마또 조코 그냥 차:저 차지고 존디 다런 이 이로팔라라는 싸른 억::써 쪼끄매.{그것이 또 그전에 추청 쌀은 밥맛도 좋고 그냥 찰저 찰지고 좋은데 다른 이, 일오팔라는 쌀은 억세(+거칠어) 조금.}

10301 # 그란디 또 그 무슨 벵가 몰르거따 우리가 그저니 한 벼는.{그런데 또 그 무슨 벼인가 모르겠다 우리가 그전에 한 벼는.}

10301 # 팔광호 이호라구라덩가 머 머라고 하능가.{팔광호 2호라고 그러던가 뭐라고 하는가.}

10301 # 나 이 벼 이름두 이저 버런네 하도 저기에서.{나 이 벼 이름도 잊어 버렸네, 하도 저기해서.}

10301 # 그런 벼는 밤마시 읍써.{그런 벼는 밥 맛이 없어.}

10301 # 주남베.{주남벼.}

10301 # 지금 지금 우리가 한 벼는 지금 주남벤디 그 벼를 낭게 바비 갠찬터라고 지금 하는 벼는.{지금 지금 우리가 한 벼는 지금 주남벼인데 그 벼를 나니까 밥이 괜찮더라고 지금은 벼는.}

10301 @ 켈 조아요?{제일 좋아요?}

10301 # 응 조아.{응, 좋아.}

10301 # 엔나렌 아끼바리 짜리 켈 조타 그래썬.{옛날에는 추청버 쌀이 제일 좋다고 그랬어.}[7초]

10302 @ 그러민제 벼농사를 진는 그 순서 이짜나요.{그럼 인제 벼농사를 짓는 그 순서 있잖아요.}

10302 @ 처::음부터 인제 끝까지 한번 쭉 예기 좀 해주세요 차례대로.{처음부터 인제 끝까지 한 번 쭉 얘기 좀 해주세요, 차례대로.}

10302 # 츠::미는 벼농사 질라른 몬짜리가 제 중:유지 모짜리판.{처음에는 벼농사를 지려면 못자리가 제[x일x] 중요하지 못자리판.}

10302 # 들파니 가서 가따가 종자 뿌리기 저네 판때기 노코 할.{들판에 가서 갖다가 종자 뿌리기 전에 판에 놓고 할 [x못자리x].}

10302 # 엔나리는 판때기도 안 가져 판꼬를 처가꾸 찢나라글 축:터가꾸 뿌려썬 뿌려 이게 나락 나시로 뿌런는디 지끄른 기계가 나오니까 인자.{옛날에는 판도 안 갖지, 판골을 처갓고 범씨를 싹틔워갓고 뿌렸어 뿌려, 이렇게 나락 날개로 뿌렸는데 지금은 기계가 나오니까 인제.}

10302 # 그르케 뿌리능 거슬 폐지시켜 빠리고 파네다 느서 이마끔 축터각꾸 노니루 내가.{그렇게 뿌리는 것을 폐지시켜 버리고 판에다가 넣어서 이만큼 싹틔워서 논으로 내어 가.}

10302 # 그르케 지 진썬 엔나리는 그릉 게 읍썬서 그냥 땅빠다게 뿌려썬.{그렇게 지, 짓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 그냥 땅바닥에 뿌렸어.}

10302 # 땅이다 뿌려서 모짜리 해서 비니루 씨워가꾸 키워가꾸 뽀바서 시머썬.{땅에다 뿌려서 못자리해서 비닐 씌워갓고 키워갓고 뽀아서 심었지.}

10302 # 소니루 다 전부라 가서 뽀바가꾸 모짜리 파늘 뽀바썬.{손으로 다 전부가 가서 뽀아갓고 못자리 판을 뽀았어.}

10302 # 하기 그:북씨려썬 지끔 농사진능 건 양꺼뚜 아너.{하기 거북스러웠어, 지금 농사짓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야.}

10302 # 게 시미 마니 드러썬.{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었지.}

10302 # 여자드리구 남자드리구 농사일 할라른 마::~이 심드 지끄른.{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농사일 하려면 많이 힘들지 지금은.}

10302 # 일두 읍썬 인자 기계가 마낭게.{일도 없어 이제 기계가 많으니까.}

10302 # 판때기다 가따 느노코 판만 떠가꾸 가른 기계가 다 시머주구.{판에다 갖다 넣어 놓고 판만 떼어갓고 가면 기계가 다 심어주고.}

10302 @ 궁까 인제 범씨를 뿌려서 그거슬 그냥 땅에다 뿌려서 키워가주구.{그러니까 인제 범씨를 뿌려서 그것을 그냥 땅에다 뿌려서 키워가지고.}

10302 # 뽀바썬 으~ 뽀바서 시머썬 뽀바서 소니루 다 시머썬.{뽀았어, 응, 뽀아서 심었어, 뽀아서 손으로 다 심었어.}

10302 # 근디 지끄른 기계루 하니게 판때기다 키워가꾸 판 떠가꾸 가서.{근데 지금은 기계로 하니까 판에다가 키워갓고 판 떠갓고 가서.}

10302 # 기계 파니다 올려노면 자동저기루 시머져 기계가.{기계판에다 올려 놓으면 자동적으로 심어 줘, 기계가.}

10302 @ 농가리 하는 시기느너? 언제 해요?{논口같이 하는 시기는데요? 언제해요?}

10302 # 사월따리.{사월달에.}

10302 # 사월딸서부터 함머는 인자 오월 초에 다 시:무야야.{4월 달부터 하면은 인제 5월 초에 다 심어야 해.}

10302 @ 어떠케 농가리 해썬요 그럼?{어떻게 논같이 했어요, 그럼?}

10302 # 농가리 인자 머 배 논::디다가 물 마니 모여서 바더 놔:따가.{논같이 인제 뭐 벼 심은 데에다가 물 많이 모여 가뉘 났다가.}

10302 # 기계로 갈고 그저니는 우리는 소미겨가꾸 소로 가리썬.{기계로 갈고, 그전에는 우리는 소 먹여갖고 소로 갈았어.}

10302 # 우리 으—○감니미 사::모 논갈러 땡겨서 소루 다 가리썬머.{우리 영감님이 사뭇 논갈러 다녀서 소로 다 갈았지 뭐.}

10302 # 소루 갈구 아시 갈구 두번 갈구 시변체는 쓰리고 그르케 가라따.{소로 갈고 애벌 갈고 이듬 갈고 세번째는 썬리고, 그르케 갈았다.}

10302 # 아이 암 수랑 읊는디는 수랑 인는디는 살살 수랑 표시 해 주야지 소가 모까게 소 빠지니까.{아이 안[xx빠져], 수렁 없는 데는 수렁 있는 데는 살살 수렁 표시해 줘야지 소가 못 가게 소 빠지니까.}

10302 # 심드러썬.{힘들었지.}

=1 # 잘 나와 수랑이 드르가도 소는.{잘 나와 수렁에 들어가도 소는.}

=1 # 잘 나와 우리 소도 보머는 수랑 타두 잘 나와.{잘 나와, 우리 소도 보면은 수렁 타도 잘 나와.}

=1 # 응 소 멍청한지 아려도 소가 얼마나 영리하다구.{응, 소 멍청한 줄 알아도 소가 얼마나 영리하다고.}

=1 # 야야 한나잘 데서 저:: 들파니 가서 이쓰머는.{야야 한나절 돼서 저 들판에 가서 있으면은.}

=1 # 이 소주글 내가 이구 간다 인자 들루 그라믄.{이 소죽을 내가 머리에 이고 간다 인제 들로 그러면.}

=1 # 크:: 먼디서 내 거른자만 봐도 이~ 메:: 하고서 오메::하고 조아서 그냥.{그 먼디서 내 그림자만 봐도 잉, 메 하고서 음메 하고 좋아서 그냥.}

=1 # 우:서 우:서 소가 그 바벌 머글리를 생가양게 조와가꾸.{웃어 웃어 소가 그 밥을 먹을 일을 생각하니까 좋아서.}

=1 # 그람 가따 주머는 수:라구 바바구 인자 하라부지꺼아구 가주 가문 하라부지가 술:두한 잔 따라서 소주 주구.{그럼 갖다 주면은 술하고 밥하고 인제 할아버지 것하고 가지고 가면 할아버지가 술도 한잔 따라서 소도 주고.}

=1 # 소도 잘 머거 술.{소도 잘 먹어 술.}

=1 # 이~ 잘 머거 그라 술.{응, 잘 먹어 그라 술.}

=1 # 하냥제기 따라주문 추:옥 빠러머거.{한 양재기 따라주면 쭉 빨아 먹어.}

10302 @ 금 소 뒤에 뭐 메고 이케 가능 거예요? 머메고?{그럼 소 뒤에 뭐 메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매고?}

10302 # 쟁기.{쟁기.}

10302 @ 그서 한 세버는 메여?{그래서 한 세 번은 매요?}

10302 # 응 세:번 갈지.{응, 세 번 갈지.}

10302 # 아시 가려노코 두벌 가라 노코 인자 시:물떼 데서 그냥 맘물 썬 까러가꾸 쓰:레로

쓰:리야지.{애벌 갈아놓고, 이듬 갈아놓고 인제 심을 때 돼서 그냥 만물, 싹 갈아갖고 씨레로 씨리야 하지.}

10302 # 씨레가꾸 모심 아이구 모심끼 참 힘들러써.{쓰러갖고 모심, 아이고, 모심기 참 힘들었어.}

10302 # 모내기 할라면 상개월 이상 해써.{모내기 하려면 3개월 이상 했어.}

10302 @ 히:: 그르케 오래 해써요?{와, 그렇게 오래 했어요?}

10302 # 이~.{잉.}

10302 # 상개월 이상 해야 다 시머써.{삼개월 이상 해야 다 심었어.}

10302 # 근디 지끄문 머 시머따 하문 기계가 이쓰닝게.{근데 지금은 뭐 심었다 하면 기계가 있으니까.}

10302 # 한:: 시:빌 한 이시빌두 다 양걸리능 거 가터 지금.{한 10일, 한 20일도 다 안 걸리는 것 같아, 지금.}

10302 # 모델 심능 거 장판 시머.{모들 심는 것 잠깐 심어.}

10302 @ 그럼 모 쥘다고 하는데요? 모 모쪼 모를 어트게 쥘나요?{그럼 모 쥘다고 하는데요? 모, 모 쥘, 모를 어떻게 쥘나요?}

10302 # 소니루 소니루 뽀바.{손으로, 손으로 뽀아.}

10302 @ 그게 모 쥘능 거예요?{그게 모쥘는 거예요?}

10302 # 응, 모 쥘능 거.{응, 모 쥘는 것.}

10302 # 모짜리 파니 드르가서 소니루 여자구 남자구 다 뽀바야야.{못자리 판에 들어가서 손으로 여자고 남자고 다 뽀아야 해.}

10302 # 뽀바서 시머.{뽀아서 심어.}

10302 # 우리도 헤:: 하이구 우리두 껍:: 하루 땡겨써 그거.{우리도, 와, 아이고 우리도 껍 하러 다녔어 그것.}

10302 # 아침머꾸 모시물 때 데머는 네: 시만 데면 날: 샤.{아침먹고 모심을 때 되면은 4시만 되면 날 새.}

10302 # 그때 데머는 그라면 네:시에 이러나서 애들 핵꼬가게 밥 다해서 메겨서 퍼서 주구서는 한 술 어트게 떠머꾸, 그담노니 나가쥘.{그때되면 그러면 4시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가게 밥 다 해서 먹여서 퍼서 주고서는 한 술 어떻게 떠먹고, 당장 눈에 나갔지.}

10302 # 나가서 모시무루 모짜리판 뽀부루 남자드리 마니 해쥘 하기는.{나가서 모심으러 못자리판 뽀으러, 남자들이 많이 했지 하기는.}

10302 # 그래서 여자더른 인자 남자드리 줄자버 주문 죽:: 서서 시면 나가야지.{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남자들이 줄 잡아 죽 서서 심어 나가야지.}

10302 # 심드러써 나도 머 껍 마니 심구러 다녀써.{힘들었어, 나도 뭐 껍 많이 심으러 다녔어.}

10302 @ 물데능 건너?{물 대는 것어요?}

10302 # 물 대능 건 엔나리는 비오기만 기다런는디 지끄문 저수지가 이썩게 수리조압 저 무리 이쓰니까 다:: 대 능히 다 델쥘 이쥘.{물 대는 것은 옛날에는 비오기만 기다렸는데 지금은 저수지가 있으니까 수리조합 저 물이 있으니까 다 대, 능히 다 델 수 있지.}

10302 # 저거 심:들게 그르케 어려웁게 안지치.{[x그래서들x]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안짓지.}

10302 # 엔나리는 하:닐만 바라다보고.{옛날에는 하늘만 바라다보고.}

10302 # 호맹이 모 해따 호맹이 읊는 노는 무릅는 노는.{호미모[x심기x] 했다 호미, 없는 노

은, 물없는 논은.}

10302 # 안저서 호맹이루두 시머써 우리 논도.{얕아서 호미로도 심었어 우리 논도.}

10302 # 게 막 반매드끼 호맹이루 파가꾸.{그렇게 막 밭 매듯이 호미로 파갔고.}

10302 @ 그래두 자:라요?{그래도 자:라요?}

10302 # 인자 그르케 시머 노문 베::베 깨도 사람 머꾸 사능 거라.{이제 그렇게 심어 놓으면 배배 피여도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라.}

10302 # 깨나 깨나서 비마니 오면 너 언제 그르케 시머떠냐 하구 잘 커 모가::독까.{깨어나, 깨어 나서 비 많이 오면 너 언제 그렇게 심었더냐 하고 잘 커 모가 독해.}

10302 @ 그러미제 한 얼마 언제 쓰메 인제 베가 누러케 이글 때까지 기다리능 거예요? 계속 그러케?{그럼 이제 한 얼마, 언제 쫄에 인제 벼가 누렇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10302 # 그르케서 시머 노:머는 유 치웁따리 데머는 베:입 다나와 음.{그렇게 심어 놓으면은 6, 7월 달이 되면은 벼있 다 나와, 음.}

10302 # 그때 데머는 이~ 유월 초 보름끼 너무문 베안패는 유워롭따고 유월 한 이시빌 강이가문 여그서 여서 모가지가 나와 하낙씩::둘씨기저니 치뤄리는 다 나오지.{그때 되면은 잉, 6월 초 보름께 넘으면 벼 안 패는 6월 없다고 6월 한 20일 경이 가면 여기서 여기서 모가지가 나와, 하나씩 둘씩, 그전에 7월이면 다 나오지.}

10302 # 게 치웁 이~ 중순기 데머는 짝::패가꾸 밭째 꼬부라져서 이사기가 노를로를 해질라구라 칠파뤄리는.{그렇게 7월 중순 게 되면은 모두 패갔고 벌써 꼬부라져서 이삭이 노릇노릇해지려고 그래, 7, 8월에는.}

10302 # 베만 패문 장판 머거 나라근.{벼만 패면 잠깐 먹어 나락은.}

[4초]

10302 @ 금 언제 베능 거예요?{그럼 언제 베는 거예요?}

10302 # 지금 구월 초에는 다 거더가 다야.{지금 9월 초에는 다 걷어가, 다해.}

10302 # 파웁세고 추수 추수하구 나머는 가:리 파웁따리는 다 이거 거반 늘누르게 다 이거가꾸.{8월 세고 추수, 추수하고 나면은 가을에 8월달에는 다 익어 거의, 노릇노릇하게 다 익어갔고.}

10302 # 구월따리는 다 거더드려 기계가 마나니까 장파니여 시월 초순까장도 느껴 하는 사라미나 하까 구월따리 다 벼.{9월달에는 다 거둬들여, 기계가 많으니까 잠깐이야 10월 초순까지두 늦게 하는 사람이나 할까 9월달에는 다 베어.}

[3초]

10302 @ 타자카능 거는요?{타작하는 거는요?}

10302 # 타자기 베비능 게 타자긴디 머 그게 꼬 들:빠까티서 해가꼬 와빠리면 다 끝나지머 엔나리는 타자갈라문 베릴 벼:서 줄가리 치따가 지게루 지비 가주고 흘때로 흘:꾸 습딸 늑따를 걸린다 베 한번 할라문 동지스팔까장 흘트야야 엔날 농사는 흘:태질.{타작이 벼 베는 게 타작인데 뭐 그게 끝, 들바깥에서 해갔고 와버리면 다 끝나지 뭐, 옛날에는 타작하려면 벼를 베서 줄가리 쳤다가 지게로 집에 가져오고 벼훅이로 훅고 3달 4달을 걸린다, 벼 한 번을 하려면 동지선달까지 훅어야 해, 옛날 농사는 벼훅이질.}

[3초]

10302 @ 그거 좀 자 예기 좀 해주세요 벼 베서 엔나레 어트게 하셔따고?{그것 좀 자[x세히 x] 예기 좀 해주세요, 벼 베서 옛날에 어떻게 하셨다고?}

10302 # 음 음 엔나리 베 버가꼬 나시루 가서 벼:서 또 들파니다 까라따가 그놈 그냥 거더  
울쭈 이썸?(응, 응, 옛날에 벼 베갓고 낫으로 가서 벼서 또 들판에다 깔았다가 그놈 그냥 건  
어올 수 있어?)

10302 # 까른 늑 또 디지부야야.{깐 늑 또 뒤집어야 해.}

10302 # 벼농 거 그라야 말르지 뒤지버따 어퍼따 해서 무꺼가꾸 지:게루 남자들드리 등지매  
서 가주야야 저날러썸 저날러 여기까장.{베어 논 것 그라야 마르지, 뒤집었다 엮었다 해서  
묶어갓고 지게로 남자들이 등짐해서 가지고 와야 해, 저 날랐어, 저 날라 여기까지.}

10302 # 우리두 저:: 동화동 아페 논 이썸라문 그거 등지맘번 할라문 도니 얼마나 드르가는  
지 아러?(우리도 저 동화동 앞에 논, 있으려면 그 등짐 한 번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 가  
는지 알아?)

10302 # 메기능 거뚜 소다리 과노쿠 주야야.{먹이는 것도 소 다리 고아 놓고 줘야 해.}

10302 # 소 물구지 벽따구 사다가 막 과노코.{소 물구지(+등뼈) 뼈다귀 사다가 막 고아 놓  
고.}

10302 # 대가나게 이랑께.{대근하게 일하니까.}

[2초]

10302 @ 그래서 지부루 다 가꾸 \*\*?(그래서 집으로 다 갖고 [x오면x]?)

10302 # 잉, 가꾸 오며 홀터썸 인자 홀태루.{응, 갖고 오면 훔었지 인제, 벼훔이로.}

10302 # 홀태루 여자더리 인자 노브더가꾸 홀터가꾸 하이튼 시비윌딸까장두 홀터:: 엔나리  
는.{벼훔이로 여자들이 인제 논 얻어갓고 훔어갓고, 하여튼 12월달까지도 훔어 옛날에는.}

[4초]

10302 # 참:: 농사지끼 심드러따 아이구.{참 농사짓기 힘들었다, 이이고.}

10302 @ 금 홀통 거 인제 어트게 해요 그담?(그럼 훔은 것 인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10302 # 홀통 거?(훔은 거?)

10302 # 홀통 거 인자 통거리라구래썸 집때.{훔은 거 인제, 통가리라 그랬지 집때.}

10302 # 마당이다가 광이 읍꾸 우리는 광이 이썸게 기냥 가따 퍼 부썸 머.{마당에다가 광이  
없고 우리는 광이 있으니까 그냥 갓다 퍼 부었지 머.}

10302 # 광이 읍는 사람더른 지푸라기루 베 벼통거리를 여:꺼.{광이 없는 사람들은 지푸라기  
로 벼, 벼 통가리를 엮어.}

10302 # 에 조::케 여꺼 여꺼가꾸 고기다 똥::그러케 해노코서는 막 마당이다 노코 퍼번능게  
겨 벼 통거리.{이 좋게 엮어, 엮어갓고 거기다 둥그렇게 해놓고서는 막 마당에다 놓고 퍼 붓  
는 게 그거야, 벼 통가리.}

10302 # 통가리 해노코 도동노미 와서 퍼가 그거또.{통가리 해놓고 도둑놈이 와서 퍼가 그  
것도.}

10302 # 막 자래노문 지비라.{막 잘해 놓으면 짚이라.}

10302 # 허트란 지번 막 난 나시루 통거리를 썸:: 쓰러노코 다머가버려 도둑찌레가가.{허술  
한 집은 막 낫, 낫으로 통가리를 썸 썰어 놓고 담아가버려, 도둑질해서 가.}

10302 # 차 양서기 싱량이 귀항게.{참, 양식이 식량이 귀하니까.}

10302 @ 금 그거를제 그 썸을 아니 그 벼 인제 그거를 홀통 걸 가주구 그 노나따가 머 머  
글 때마다 그케 썸서 밍는 거예요?(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쌀을 아니 그 벼 인제 그것을,  
훔은 것을 가지고 그 넣어왔다가 먹, 먹을 때마다 그렇게 썸어서 먹는 거예요?)

10302 # 그르치.{그렇지.}



10302 # 머 머글때마도 방아까니가 찌:야구 도구때루두 찌:야고 그래찌 머.{뭐 먹을 때마다 방앗간에 가서 찌야 하고 절구로도 찌야 하고 그랬지 뭐.}

10302 @ 금 이 마으레 방아깁 이씨씨요?{그럼 이 마을에 방앗간 있었어요?}

10302 # 읍:씨씨.{없었어.}

10302 @ 금 다 도구때로?{그럼 다 절구로?}

10302 # 아니 지금 조기 가서 찌오지 시내.{아니, 지금 저기 가서 찌오지 시내.}

10302 @ 아 엔나레도?{아, 옛날에도?}

10302 # 엔:나레도 방아까는 이씨씨.{옛날에도 방앗간은 있었어.}

10302 # 저 으~ 으~ 시내에 그래서 방아 방아를 가서 찌:루.{저 응, 응, 시내에 그래서 방아, 방아를 가서 찌러.}

10302 # 소구름마 가고 말꾸름마 가고오고 실:려서 가서 찌:오구.{소달구지로 가고 말달구지로 가고 오고 실어서 가서 찌오고.}

10302 # 우리는 우리 소가 이쓰니께 가 찌:다 머꾸 그래씨.{우리는 우리 소가 있으니까 가서 찌다 먹고 그랬어.}

[4초]

10303 @ 인제 모내기 하는 방법쭈 자세히 쭈 알려주세요.{이제 모내기 하는 방법 쭈 자세히 쭈 알려주세요.}

10303 @ 여기 마니 인네 쟁기, 극쟁이 이렇 거 이르게 해가주구 하는.{여기 많이 있네, 쟁기, 극쟁이 이런 것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x것x].}

10303 # 모 시머 노코 모를 다 일탄 시무면 노를 지시멸 매야자냐 호매 호미루 가서.{모 심어 놓고 모를 다 일탄 심으면 논을 지심을 매야 하잖아 호미 호미로 가지고서.}

10303 # 호미루 가서 아시 함벌 매:구 두:벌 매:고 두번가서 또 매:고 세:번 맘무레서 손질하구 소니루 흡씨려서 풀뽀바 내:구 그라야 인자 베가 요정도 자라서 맘무를 해야 솔차니 커.{호미로 가지고서 애벌 한번 매고 이듬 매고 두 번 가서 또 매고 세 번 만물에서 손질하고 손으로 휩쓸어서 풀 뽑아내고 그래야 이제 벼가 이 정도 자라서 만물해야 어지간히 커.}

10303 # 그때 데머는 잉 한 맘물하구 한 시빌경 이시빌경 이쓰면 모가 베가 빨락빨락빨락 락 하 응?{그 때 되면은 잉 한 만물하고 한 10일경 20일경 있으면 모가 벼가 빨락빨락빨락 빨락 해, 응?}

10303 # 뽕모가지 생길라고 배 불:러 애기 배드끼.{벼의 목이 생기려고 배 불러, 아기 배듯이.}

10303 # 그라면자 모기 나와서 패:는 시가네 상개월 걸려 모 시머 노코 모가지 나올라문.{그러면 이제 목이 나와서 패는 시간에 3개월 걸려 모 심어 놓고 모가지가 나오려면.}

10303 # 한 상개월 더 걸리야 뽕:모가지 보지.{한 3개월 더 걸리야 벼 모가지를 보지.}

[3초]

10303 @ 그럼 머 쇠스랑이랑 고무래 가통 걸로 어트게 해요?{그럼 뭐 쇠스랑이랑 고무래 같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10303 # 호미루 매씨 호미루 호미루.{호미로 땀어, 호미로 호미로.}

10303 # 소시랑이루는 노니나 꾸밀까 모는 몬야.{쇠스랑으로는 논이나 꾸밀까 모는 못 매.}

10303 # 호미루 매지 남자더리.{호미로 매지, 남자들이.}

10303 @ 그리고 줄모 벌모는 머예요?{그리고 줄모, 벌모는 뭐예요?}

10303 # 줄모? 줄모는 모쭈로.{줄모? 줄모는 못쭈로.}

10303 # 모쭼 여짜기서 잡꾸 저짜기서 잡꾸 줄 떠가꾸 줄모.{못줄 이쪽에서 잡고 저쪽에서 잡고 줄 떠워갖고 줄모.}

10303 @ 별모는뇨?{별모는요?}

10303 # 별모는 그냥 죽 서서 강각 자버서 시머 나가능 게 별몬디.{별모는 그냥 죽 서서 각 각 잡아서 심어 나가는 것이 별모인데.}

10303 # 쟤까난 달갱이는 주를 모다자냐 그릉게 별모로 그냥 강각 마쳐가꾸 드러가서 남자 드리 가 다 시머 나와.{작은 다랑이는 줄은 못하잖아 그러니까 별모로 그냥 각각 맞춰갖고 들어가서 남자들이 가 다 심어 나와.}

10303 @ 이양기?{이양기?}

10303 # 이양기? 이양기는 고고지.{이양기? 이양기는 그거지.}

10303 @ 심는 거요?{심는 거요?}

10303 # 응.{응.}

10303 @ 엔나렌 업써찌?{옛날에는 없었지요?}

10303 # 읍:썰찌.{없었지.}

[6초]

10303 # 이양기는.{양기는.}

[20초: 며느리의 보리타작 이야기]

10303 # 마당이다 보리타작 할라면 얼마나 심든지 아냐?{마당에다 보리타작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냐?}

[11초: 며느리의 보리타작 이야기]

10304 @ 금 노네 물 대는 도구드리 이써때요 엔나레는 용두레 마뚜레 차랜물대기 치대기 이렇 거 물대능 건 에서.{그럼 눈에 물 대는 도구들이 있었대요, 옛날에는 용두레, 맞두레, 차례물대기, 치대기 이런 것 물대는 것에서.}

10304 # 물대능 거? 고리바기라구 할 고리박 고루박찌래서 남자가 저짜기 하나 서서 이짜기 하나 서서 고루바기로도 퍼언는 사라미꼬.{물 대는 것? 고루박(+맞두레)이라고 하[x지x], 고루박, 고루박질 해서 남자가 저쪽에 하나 서서 이쪽에 하나 서서 고루박으로도 퍼엿는 사람 있고.}

10304 # 이 밭: 박꼬 올라가서 물꾸루마루다가 품는 사람두 이써.{이 밭 밟고 올라가서 물구루마(+용두레)로다가 품는 사람도 있어.}

10304 # 이게 올라가서 자세 물짜세루 이르기 쩌: 찌서 이게 부짜꾸서는 물 푸무문 글루 따러 올라가 우리두 그거 해 이써썬.{[x이렇게x] 올라가서 자세, 물자새로 이렇게 끼엿어서, 이렇게 붙잡고서는 물 품으면 그리로 따라 올라가, 우리도 그거 [x했어x], 있었어.}

10304 @ 그 보는 머예요? 보 보?{그 보는 머예요? 보, 보?}

10304 # 보?{보?}

10304 @ 물델 때 보가 이써여? 보?{물델 때 보가 있어요? 보?}

10304 # 보는 두더기 보라고라지 두덕 이게 물가순 두덕 보:: 물 다마논.{보는 둔덕이 보라고 하지, 둔덕 이렇게 물 가둔 둔덕 보 물 담아 놓은.}

10304 @ 마뚜레는 머예요 할머니?{맞두레는 뭐예요 할머니?}

10304 # 마뚜레?{맞두레?}

10304 @ 용두레 만뚜레.{용두레, 맞두레.}

10304 # 나는 그 말 잘 몰르건네 만뚜레 용두레는 내가.{나는 그 말 잘 모르겠네 맞두레 용

두레는 내가.}

[6초]

10304 @ 그럼 차렌물대기?{그러면 차례물대기?}

10304 # 차렌물 대따구?{차례물 댄다고?}

10304 @ 그렇 거 이쓰세요? 차례 물대기 이렇 건?{그런 것 있으세요? 차례물대기 이런 것은?}

10304 # 차렌물 대는 거슨.{차례물 대는 것은.}

10304 # 차례차례 대능 거 뽏고 차렌무리라구라지이~.{차례차례 대는 것 보고 차례물이라고 그러지 응.}

10304 # 자 물두 맘:대로 모때썸.{참, 물도 마음대로 못땀어.}

10304 # 한 사례미 대고 나른 차례로 또 하나가 대:고 또 하나가 대:구 그러지.{한사람이 대고 나면 차례로 또 하나가 대고 또 하나가 대고 그러지.}

10304 # 무리 그르케 마니 이썸까디 엔나리?{물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 옛날에?}

[10초: 며느리의 차례물대기 이야기]

10304 @ 치대기는너?{치대기는요?}

10304 # 시댄다구?{시댄다고?}

10304 @ 치대기.{치대기.}

10304 @ 치대기가 이때요 내리대기 치대기.{치대기가 있대요, 내리대기, 치대기.}

10304 # 내려대기는 우이서버텨 내려 명능 거고 내려대기구.{내려대기는 위에서부터 내려 먹는 것이고, 내려대기고.}

10304 # 치대기는 뭐 물로 건네 치대기 마른 뭇뽏고 치대기라고 하나?{치대기는 뭐 모르겠네, 치대기 말은 뭇보고 치대기라고 하나?}

[4초]

10304 # 땅을 누가 치댄다고 하나?{땅을 누가 치댄다고 하나?}

[11초]

10304 # 논뚜덕 두리 두렁 썸능 거? 논뚜덕? 음.{논뚜덕 두덕, 두덕 썸는 거? 논뚜덕? 응.}

10304 @ 보 만들 때 어트게 하셔요? 할머니도 하셔썸여? 그런거또?{보 만들 때 어떻게 하세요? 할머니도 하썸어요? 그런것도?}

10304 # 보는 암만드러썸 이 저기 노 노니 가서 바리테는 부첼썸.{보는 안 만들었어, 이 저기 노, 눈에 가서 바리테는 부첼지.}

10304 # 그거뽏고 바리테로 부치능 거 치대기라 구라능 게 비따.{그것 보고 바리테로 부치는 것 치대기라고 그러는가 보다.}

10304 # 물 머 모빠지게 그냥 논뚜더글 그냥 놔두면.{물 못, 못 빠지게 그냥 논뚜덕을 그냥 놔두면.}

10304 # 짹짹 짹 짹 갈려져서 무리 암 마디덜 아냐.{짹짹 짹 갈려져서 물이 안, 마디지를 안해.}

10304 # 그렇게 고기다가 사비루 이르케 그냥 소시랑이루 글거오서 사비루 짹짹 해노코서는 발루 각각 발버서 사비루 짹짹 문질르구 문질르구 그거뽏고 치대기라고라능 게 비다 바리테 부치능 거.{그러니까 거기다가 삽으로 이렇게 그냥 쇠스랑으로 긁어 와서 삽으로 짹짹 해놓고서는 발로 콕콕 밟아서 삽으로 짹짹 문질르고 문질르고 그것보고 치대기라고 그러는가 보다, 바리테부치는 것.}

[4초]

### 1.3.2. 밭농사

10305 @ 그리제 모내기하고서 노네 푸리나면 아까 머 애벌 아시 매고.{그리고 이제 모내기 하고서 눈에 풀이 나면 아까 뭐 애벌, 애벌 매고.}

10305 # 음, 두벌 매고.{응, 이듬 매고.}

10305 # 두벌 매 아시 아시 매:노코 두벌 매:고 세번째 가서는 맘:무를 해빠리지 인자.{이듬 매, 애벌, 애벌 매 놓고 두벌 매고 세번째 가서는 만물을 해버리지 이제.}

10305 # 소니루 뽀바 그거는 맘무랄 때는 호미질 모대.{손으로 뽑아 그것은, 만물할 때는, 호미질 못해.}

10305 @ 그 아페 두버는 호미질 하시고요?{그 앞에 두 번은 호미질 하시고요?}

10305 # 응.{응.}

10305 # 함벌 두버는 호미질 해도 맘머런 호미질 해따는 벼가 다 주거.{애벌, 이듬은 호미질 해도 만물은 호미질 했다가는 벼가 다 죽어.}

10305 # 뿌리 건디려서 주거 모다 소니루 흠츠야지.{뿌리 건들여서 죽어, 못해 손으로 흠쳐 야지.}

10305 @ 금 풀매능 거 이르게 매능 거 머 한다고 하세요?{그럼 풀매는 것, 이렇게 매는 것, 뭐 한다고 하세요?}

10305 # 호미.{호미.}

10305 @ 김맨다?{김맨다?}

10305 # 응.{응.}

[4초]

10305 @ 지신맨다능 거는너?{김맨다는 것은요?}

10305 # 지심도 그라 지심매러 가자구도 하구 김매로 간다구도 하구 그라는데 요구서는 꿔 줍말로 지심매러 가자 구래찌 우리 동네서.{김도 그래 지심(+김)매러 가자고도 하고 김매러 간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표준말로 지심매러 가자고 그랬지 우리 동네서.}

10305 @ 그르케 마니 쓰셔써여? 그마를?{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그말을?}

10305 # 응 지심매러 간다고 잉.{응, 지심(+김)매러 간다고 응.}

10306 @ 그루제 반농사 여쭙보게요 반농사.{그럼 이제 밭농사 여쭙볼게요 밭농사.}

10306 @ 반농사에는 어떻 거 어떻 거 하세요?{밭농사는 어떤 것 어떤 것 하세요?}

10306 # 반농사 제오 마니야 엔나리는 쿡을 마니 시:머써.{밭농사 겨우 많이 해야 옛날에는 쿡을 많이 심었어,

10306 # 지끄른 꿔두 심꾸 :머 또 하지만 그저니는 쿡바티다가 깨를 뿌려써 그냥.{지금은 깨도 심고 뭐 또 하지만 그전에는 쿡밭에다가 깨를 뿌렸어 그냥.}

10306 # 쿡아고 이~ 서껴서 나라고.{쿡하고, 응, 섞어서 나라고.}

10306 # 그래서 꿔쏘기서 하나씩 나머는 그걸 일썌 정성이루 가편는디 지끄른 엔날 멍청이 드리 그르케 농사털 저찌 노인네드리.{그래서 깨 속에서 하나씩 나머는 그걸 일썌 정성으로 가렸는데, 지금은 옛날 멍청이들이 그렇게 농사를 졌지 노인네들이.}

10306 # 지끄른 그르케 아냐.{지금은 그렇게 안해.}

10306 # 꿔고 두두렁이구 시두렁이구 깨를 딱 그냥 별또로 가려 그래서 키 키워가꾸 그느물 머꼬 쿡은 쿡대루 심찌.{깨고 두 두렁이고 세 두렁이고 깨를 딱 그냥 별또로 갈아, 그래서

키, 키워갖고 그놈을 먹고 콩은 콩대로 심지.}

10306 # 그 께쏘기다가 그걸.{그 깨속에다가 그것을.}

10306 # 콩바쏘기다가 께를 느노면 밤떨라면 얼::마나 대가난지 아려어?{콩밭 속에다가 깨를 넣어 놓으면 밭 매려면 얼마나 대근한지 알아?}

10306 # 우리두 그르케 저 대꼴 바떼기 하나 헐는디 께도 잘도냐 그른디.{우리도 그렇게 저 댓골 밭 하나 했는데 깨도 잘돼 그런데.}

10306 # 아이구 그거 땀라문 주거나 그거 키 키우기가 심:드러.{아이고, 그것 매려면 죽어나 그것 키, 키우기가 힘들어.}

10306 @ 안썰구 그냥 뿌려두 나요?{안심고 그냥 뿌려도 나요?}

10306 # 다나지 여기저기서.{다 나지 여기저기에서.}

[4초]

10306 # 아 그 그냥 던져 그르갈 때.{아, 그 그냥 던져 걸어갈 때.}

10306 # 콩 콩도 뿌리구 께:두 뿌리구.{콩, 콩도 뿌리고 깨도 뿌리고.}

[5초]

10306 @ 그다메 콩 시무셔꼬 께 시무셔꼬 또 어떻 거 하셔썬요?{그 다음에 콩 심으셨고, 깨 심으셨고, 또 어떤 것 하셨어요?}

10306 # 콩 께 지금 멍는 파디짜네 팔:: 엔나리는 파뚜 만테.{콩, 깨, 지금 먹는 팔 있잖아, 팔, 옛날에는 팔도 많데.}

10306 # 무 배추넌 머 가으리 하지만 자 여름처리 하능 거슨 인자 반농사 콩 거 주루 여기는 콩 하고 께 하 께 그릉 거 시머 먹꼬 들껤 심꾸 바티 들껤 심꼬.{무 배추는 뭐 가을에 하지만 인제 여름철에 하는 것은 인제 밭농사 콩, 주로 여기는 콩하고 깨하[X고X] 깨 그런 것 심어 먹고 들껤 심고 밭에 들껤 심고.}

10306 @ 고추도 심꼬요?{고추도 심고요?}

10306 # 잉 꼬추 심:꼬 꼬추는 당여니 심:꼬 우리는 그저니 줍쌀두 시머 머거썬.{응, 고추 심고 고추는 당연히 심고, 우리는 그전에 줍쌀도 심어 먹었어.}

10306 # 줍쌀도 마이 시머썬 하라부 하라부지가.{줍쌀도 많이 심었어 할아버, 할아버지가.}~

10306 # 우리 아버지가 해썬 그거는.{우리 아버지가 했어 그것은.}

10306 @ 금 가으레 나능 거느뇨?{그럼 가을에 나는 것은요?}

10306 # 가으레? 그그그그 가으레 심넌 거슨 보리심:썬.{가을에? 그그그그 가을에 심는 것은 보리 심지.}

10306 # 가으레는 보리여 보리 보리릴 하면 여르미 수와기 되지 인자 가으리 시무문.{가을에는 보리야 보리, 보리를 하면 여름에 수확이 되지 인제 가을에 심으면.}

10306 @ 감자느너?{감자는요?}

10306 # 고구마? 하지감자? 하지감자는 보미 시머.{고구마? 하지감자? 하지감자는 봄에 심어.}

10306 @ 아 그러쿠나.{아, 그렇구나.}

10306 @ 금 보메 심능 거 머머 이쓰셔썬요?{그럼 봄에 심는 것 뭐뭐 있으셨어요?}

10306 # 보미? 보미 심:넌 건 하지감자도 보미 심:꼬.{봄에? 봄에 심는 것은 하지감자도 봄에 심고.}

10306 @ 또 마늘?{또 마늘?}

10306 # 마늘 꼬추도 보미 시무야야.{마늘, 고추도 봄에 심어야 해.}

10306 @ 그리고 여르메는?{여름에는?}

10306 # 여르메는 인자 주루 콩 팔: 들개 그렇 거시 여르미 심찌.{여름에는 인제 주로 콩, 팔, 들개 그런 것이 여름에 심지.}

10306 @ 가으레느녀?{가을에는요?}

10306 # 가:리는 거더 디리지 머 인자 시뭇 거.{가을에는 걷어 들이지 뭐, 인제 심은 것.}

10306 # 가:리는 인자 보리빠끼 안 시머 구월따리 시월따리 보리.{가을에는 인제 보리밖에 안 심어 9월달에 10월달에 보리.}

10307 @ 그러면제 이케 시절 마취서 어터케 심는지 어트케 진는지 바슬 그거쫘 예기 좀 해주세요 처음부터.{그럼 이제 이렇게 시절 맞춰서 어떻게 심는지 어떻게 짓는지 밭을 그것 좀 애기 좀 해주세요 처음부터.}

10307 # 심:능 거?{심는 것?}

10307 @ 봄부터.{봄부터.}

10307 # 보미부툼 심:능 거?{봄부터 심는 것?}

10307 @ 뭐 심꼬 어트게 거두구 또 머심꼬 어트게 거두구 이렇 거.{뭐 심고 어떻게 거두고 또 뭐 심고 어떻게 거두고 이런 것.}

10307 # 쥔 먼저 심녕 거션 보미는 머 바티다 심녕 거시 그거 심찌머.{제일 먼저 심는 것은 봄에는 뭐 밭에다 심는 것이 그것 심지 뭐.}

10307 # 마늘 꼬추 던저노코 그 가꾸구 나중 그 다미.{마늘, 고추 던져 놓고 그거 가꾸고 나중, 그 다음에.}

10307 @ 어트게 어트게 하세요?{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10307 # 알 시머 그냥 뿌려 엔나리는.{아, 심어 그냥 뿌려 옛날에는.}

10307 # 저 지끄밍게 꼬추두 이케 종자를 해서 하지만 엔나리는 씨:루 뿌려써 바티다가 골타구.{저, 지금이니까 고추도 이렇게 종자를 해서 하지만 옛날에는 씨로 뿌렸어 밭에다가 골을 타고.}

10307 # 씨루 주:옥 뿌려가꾸 나면 두문두문두문 가꺼노코 따다먹꼬.{씨로 죽 뿌려갓고 나면 드문드문드문 가꿔놓고 따다 먹고.}

10307 # 보으 콩두 그르카구.{\*\* 콩도 그렇게 하고.}

10307 # 지끄른 콩 씨:두 비싸구 이~? 그르케 마니 아나구선 냥 다 시:머가꾸 명는디 엔나리는 바시 마나니까 다: 뿌려써 우리두 뿌려서 해머겨써.{지금은 콩씨도 비싸고 응? 그렇게 많이 안하고서는 그냥 다 심어갓고 먹는데 옛날에는 밭이 많으니까 다 뿌렸어 우리도, 뿌려서 해먹었어.}

10307 @ 그러면제 풀 나면 풀도 뽑고?{풀나면 풀도 뽑고?}

10307 # 그려 뽑꼬.{그래, 뽑고.}

10307 @ 소느로?{손으로?}

10307 # 거 매:주고 호미가꾸 가서.{그것 매주고 호미 갓고 가서.}

10307 @ 그 다메 부굴 도두 도뒤따고 하는데 북또다따 이게 머예요?{그 다음에 북을 돋우, 돋웠다고 하는데 북돋았다 이게 뭐예요?}

10307 # 부또다따 부또뒤따고 하능 거슨 매머서 인자 도들꺼뚜 이꾸 안 도들꺼꾸 이찌 이~?{북돋았다, 북돋았다고 하는 것은 매면서 인제 북돋을 것도 있고 안 돋울 것도 있지, 응?}

10307 # 곡씩글 매다가 불또꾸 하머는 그 거시기는 부또다주야야 꼬추.{곡식을 매다가 북돋

고 하면은 그 거시기는 북돋워주어야 해, 고추.)

10307 # 꼬추 그릉 거슨 북또다서 잘 키우야 하고.{고추 그런 것은 북돋아서 잘 키워야 하고.}

10307 # 콩은 그냥 그릉 거 안 붙 안 도다도 잘 커.{콩은 그냥 그런 것 안, 북 안 돌아도 잘 커.}

10307 @ 부똥능 게 머하능 거예요?{북돋는 것이 뭐하는 거예요?}

10307 # 이 곡씨기 시:문디 이르게 도다 주능 거여 그게 안 자빠지게.{이 곡식을 심은데 이렇게 돌아 주는 거야, 그게 안 넘어지게.}

10307 @ 흐그로?{흙으로?}

10307 # 응 흐기로.{응, 흙으로.}

10307 @ 사이지끼 사이사이 진는 게 사이지끼저?{사이짓기, 사이사이 짓는 게 사이짓기죠?}

10307 # 음 사이사이 진능 거?{음, 사이사이 짓는 것?}

10307 @ 이렇 거는 어떻거 해요?{이런 것은 어떤 것 해요?}

10307 # 사이지끼가.{사이짓기가.}

10307 @ 콩 여페다 머 심꼬 이러능 거요?{콩 옆에다 뭐 심고 이러는 거요?}

10307 # 콩 여피다 심닝 거?{콩 옆에다 심는 것?}

10307 # 그저니는 그 사이사이 심능 거 들깨두 그냥 이르게 바 거시기 하니께 마니 별또로 룰 이르게 아내씨 지끄른 별또로 그르카지만.{그전에는 그 사이사이 심는 것 들깨도 그냥 이렇게 밭 거시기 하니께 많이 별도로 안했어, 지금은 별도로 그렇게 하지만.}

10307 # 콩 소기다가 사::이사::이 드문::드문:: 시머서 해머겨썬.{콩 속에다가 사이사이 드문 드문 심어서 해 먹었어.}

10307 # 잘테 그 늑도 더 잘테야.{잘돼, 그늑도 더, 잘돼.}

10307 # 그릉게 마니는 모다고.{그러니까 많이는 못하고.}

10307 # 바티 땡겨서 그거 빌라먼 아주 지라리여 아유 메 심니 쪼차 땡이머서.{밭에 다녀서 그것 베려면 아주 지랄이야 아휴, 몇 십 리 쫓아 다니면서.}

[3초]

10307 @ 그러면제 가으레 다 거더드리능 거 방버비 다 틀리자나요 할머니 곡씩마다 그건 쫘 말쓰매주세요.{그러면 이제 가을에 다 걷어들이는 것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할머니 곡씩마다, 그것 쫘 말씀해 주세요.}

10307 # 가:리 거더디리는 방버비 쥔 마니 빨리빨리 잘 잉능 거시 창궐여.{가을에 걷어들이는 방법이, 제일 많이 빨리빨리 잘 익는 것이 참궐야.}

10307 # 창궐 먼저 비:고 고 콩쏘기 드르가서 창궐 다 벼:내고 콩거더디리고 낭거지는 들궐 비:고 메뵤가야야.{참궐 먼저 베고 그 콩속에 들어가서 참궐 다 베어내고 콩 걷어드리고 나머지는 들궐 베고 몇 번 가야해.}

[3초]

10307 @ 그다메 고고마도 캐고.{그 다음에 고구마도 캐고.}

10307 # 그르치 고고마 인자 처:리 오기저니 캐야지 인자 고구마 시머따가.{그렇지, 고구마 인제 서리 오기 전에 캐야지, 고구마 심었다가.}

10307 # 근데 옛날사람더른 여기 그저니 우리 농사질떠기도 고고마 농사 가통 건 마::니덜 자란저썬.{근데 옛날 사람들은 여기 그전에 우리 농사질 적에도 고구마 농사 같은 것은 많이들 잘 안졌어.}

10307 # 우리 우리 바티다가 우리가 마니 저서 막 캐 디리고 그랜는다.{우리 우리 밭에다가 우리가 많이 저서 막 캐 들고 그렸는데.}

10307 # 씨그녕까 고고마를 가따가 시머노먼 팔리하기가 대가냐.{씩으니까, 고구마를 갖다가 심어 놓으면 팔리하기가 대근해.}

10307 # 그 하라부지네가 지금 하라부지가 자랴 고구마 농사를.{그 할아버지네가 지금 할아버지가 잘해, 고구마 농사를.}

10307 @ 그런 감부기는 어트게 해여 감부기?{그런 감부기는 어떻게 해요, 감부기?}

10307 # 감:비기? 보리바티 감:비기지.{감부기? 보리밭에 감부기지.}

10307 # 고고 오트가 머 뽀불쭈두 읍꾸 내비러 두찌 머 그저니.{그것 어떻게 해 뭐 뽑을 수도 없고 내버려 뒀지 뭐, 그전에.}

10307 # 지끄른 다 뽀바 내비러라 그라는다 누가 언제 감비기 뽀부러 땡기냐 바빠 죽겠는데 내비러 뒀어 그냥 이겨나 말거나{지금은 다 뽑아 내버려라 그러는데 누가 언제 감부기 뽑으러 다니냐 바빠 죽겠는데, 내버려 뒀어 그냥, 있거나 말거나.}

10307 # 감:비기 이씨 보리바티 감비기 새:커망 거.{감부기 있어, 보리밭에 감부기 새까만 것.}

[3초]

10307 @ 그럼 맨톨 맨톨로는 머하셔썬요?{그럼 멧돌, 멧돌로는 뭐 하셔요?}

10307 # 매톨? 매톨 가꼬 거시기 헐찌.{멧돌? 멧돌 갖고 거시기했지.}

10307 # 콩도 콩국쭈 콩 저 두부 해머글라른 엔나리 지비서덜 매톨로 일 하구 밀:도 가려서 여 기계가 지대로 저기 하니께 엔나리는 기계두 읍썬가꾸 매:또리다 가려가꾸 거시기두 하데 밀:까루두 맨들데.{콩도 콩국수, 콩, 저 두부해 먹으려면 옛날에 집에서들 멧돌로 일하고 밀도 갈아서 이 기계가 제대로 저기하니까 옛날에는 기계도 없어갖고 멧돌에다 갈아갖고 거시기도 하데, 밀가루도 만들데.}

10307 # 엄미봉게 매톨로 가려가꼬.{어머니 보니까 멧돌로 갈아갖고.}

[3초]

10307 # 근데는 그거는 우리 시대는 매:톨로 그르케 안 가려썬 얼마.{근데 그것은 우리 시대는 멧돌로 그렇게 안 갈았어 얼마.}

10307 # 다 방야가니 땡기머서 해찌.{다 방앗간에 다니면서 했지.}

10307 # 엔::날 노인네드리 우리 훈 썬 노인 우리 엄니 잡썬 나이 마니 잡썬 양반덜 지금 배기살 너문 니더리 매톨로 가려서 그거또 해따.{옛날 노인들이 우리 [X훨씬X] 저, 노인, 우리 어머니 잡수신, 나이 많이 잡수신 양반들 지금 100여살 넘은 이들이 멧돌로 갈아서 그것도 했다.}

10307 # 우리 시저리는 매톨 읍썬썬 요기 이동네두.{우리 시절에는 멧돌 없었어, 여기 이 동네도.}

10308 @ 인제 보리 보리하구 밀 종뉴 어떻 거 어떻 거 인나요?{이제 보리, 보리하고 밀 종류 어떤 것 어떤 것 있나요?}

10308 @ 보리엔 어떤 종뉴?{보리에는 어떤 종류?}

10308 # 쌀보리 꺼뽀리.{쌀보리, 걸보리.}

10308 # 보리는 안질뱅이 보리도 이꼬 키큰 보리두 이꼬 보리도.{보리는 앓은뱅이 보리도 있고 키 큰 보리도 있고 보리도.}

10308 @ 머가 틀려요?{뭐가 달라요?}



10308 # 틀리능 거시 꺼 이 키 큰 보리를 하머는 바티다가 시무머는 바라미 분다던지 비바람 때리고 하머는 어퍼지는 종조가 마나니께 안질뱅이 보리를 하머는 쪼마나니 딱:따랑게 안 자빠지더라구.{다른 것이 꺼, 이 키 큰 보리를 하면은 밭에다가 심으면은 바람이 분다든지 비바람 때리고 하면은 얹어지는 종자가 많으니까 얹은뱅이 보리를 하면은 작고 단단하니까 안 넘어지더라고.}

10308 # 그거시 왜정시대 일본싸라미 나와써 그 안질뱅이 보리가통 거설.{그것이 왜정시대 일본사람이 [x가지고x]나왔어, 그 얹은뱅이 보리같은 것을.}

10308 # 자기네래 나라서 가짖는지 어쨌는지 시:무라구 해서 시:머써.{자기네 나라에서 가져왔는지 어쨌는지 심으라고 해서 심었어.}

10308 # 일본넘더리 일본놈드리 하기는 자랴.{일본놈들이 일본사놈이 하기는 잘해.}

10308 @ 그럼 마또 조아요?{그럼 맛도 좋아요?}

10308 # 응 갠차냐 마뚜.{응, 괜찮아 못도.}

10308 @ 보리쌀? 보리싸른녀?{보리쌀? 보리쌀은요?}

10308 # 보리싸리 보리방아 보리를 쩡: 거시 보리싸리지 머.{보리쌀이 보리방아 보리를 쩡 것이 보리쌀이지 뭐.}

10308 # 방아 쩡 게 쌀보리 쌀보리 꺼뿌리.{방아 쩡 것이 쌀보리, 쌀보리 겉보리.}

10308 @ 쌀보린 꺼뿌리예요?{쌀보리는 겉보리예요?}

10308 # 응 쌀보리가 조코 꺼뿌리는 꺼끄레기 마내가꾸 부시기주 대간햐.{응, 쌀보리가 좋고, 겉보리는 꺼끄레기가 많아갖고 부수기도 대근해.}

10308 @ 밀 밀종뉴는너 할머니?{밀 밀종류는요, 할머니?}

10308 # 밀: 미:런 키 큰 밀도 이꼬 안질뱅이 밀두 이꼬 그거또.{밀, 밀은 키 큰 밀도 있고 얹은뱅이 밀도 있고 그것도.}

10308 # 근디 키 큰 미:리 이 더 쫄긴쫄기다니 더 마시써.{근데 키 큰 밀이, 이 더 쫄깃쫄깃하니 더 맛있어.}

10308 # 안질뱅이 미른 키는 쟈까나니 뿌아::여나니 그르디 밀까루는 그 느미 더 마~이 난다 그리서 마시 드랴.{얹은뱅이 밀은 키는 작고 뿌연하니, 그런데 밀까루는 그놈이 더 많이 난다 그래서 맛이 덜 해.}

10308 # 그릉게 우리 아버지는 그저니 아나더라구.{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전에 안하더라고.}

10309 @ 보리아구 미른 언제 파종 해요?{보리하고 밀은 언제 파종해요?}

10309 # 또까터 파종 하는 시기가.{똑같아 파종하는 시기가.}

10309 @ 언제?{언제?}

10309 # 미리 쪼끔 느저 보리보도.{밀이 조금 늦어 보리보다.}

10309 @ 금 보리는 언제 하세요?{그러면 보리는 언제 하세요?}

10309 # 오월따리 오워리먼 다 보리 하야야 유월팔 오월 초예.{5월달에 5월이면 다 보리[+타작]해야 해, 6월달, 5월 초예.}

10309 # 오월 초에 보리 모가지 유월따래 하지 지내머는 보리는 다 고시라져.{5월 초에 보리 모가지 6월달에 하지 지내면은 보리는 다 바스라져.}

10309 @ 어디에따 파종 해요? 보리?{어디에다 파종해요? 보리?}

10309 # 보리 지비 마당이 벼가 벼다가.{보리, 집에 마당에 베어, 베어다가.}

10309 # 마당이 가꾸와서 홀터서 막 도리깨로 투디려찌 머.{마당에 갖고 와서 훑어서 막 도

리깨로 두드렸지 뭐.}

10309 # 그란디 나중이는 기계가 나와가꾸 바티서 인자 비여만 놔두 기계가 와서 바서전은 디 지끄른 바티르 드르가서 나락 빼:는 기계루다가 보리도 막 비:테 나 저: 놀로가뜨니.{그런데 나중에는 기계가 나와갖고 밭에서 인제 베어만 놔두 기계가 와서 부셔줬는데 지금은 밭에로 들어가서 나락 베는 기계로다가 보리도 막 베테, 나 저 놀러갔더니.}

10309 @ 금 보리를 오월 오월딸뜨메 바테다가 이르게?{그럼 보리를 5월, 5월달쯤에 밭에다가 이렇게?}

10309 # 오월딸.{5월달.}

10309 @ 미른?{밀은?}

10309 # 이~?{응?}

10309 @ 밀.{밀.}

10309 # 미:리나 보리나 항가지여 다 그거떨.{밀이나 보리나 한가지야, 다 그것들.}

10309 @ 그거뚜 바테다 해요?{그것도 밭에다 해요?}

10309 # 잉.{응.}

10309 @ 두개 다 바테다?{두개 다 밭에다?}

10309 # 이~ 바티다 이~ 바티다 하지.{응, 밭에다, 밭에다 하지.}

[6초]

10310 @ 그럼 보리바타고 밀바슨 멀:: 사용 해서 가라요?{그럼 보리밭하고 밀밭은 뭘 이용해서 갈아요?}

10310 # 보리바티 밀바슨 머 엔나리는 그게 머여 비:루가 선차나니께 테비를 마니 해가꾸 사무 테비를 바티다가 내서 가려써 그랜는다.{보리밭에 밀밭은 뭐 옛날에는 그게 뭐야 비료가 시원찮으니까 퇴비를 많이 해갖고 사뭇 퇴비를 밭에다가 내서 갈았어 그랬는데.}

10310 # 나중이는 비루를 마니 왜정시대 일본 싸람드리 마니 주드라고.{나중에는 비료를 많이 왜정시대 일본사람들이 많이 주더라고.}

10310 # 고기 밀 밀밭 보리밭 주라구 그래서 그렇 겐로 사용아구 인자.{거기 밀 밀밭 보리밭 주라고 그래서 그런 겐로 사용하고 이제.}::

10310 # 해방 테쿠는 머 자기 맘대루 머 하는디 지끄른 싱:량이 마냥게 보리를 누가 가리 그역써러서.{해방 되고는 뭐 자기 맘대로 뭐 하는데 지금은 삭량이 많으니까 보리를 누가 갈아 고역스러워서.}

10310 # 하나 양:가리 지밭 가르래도 반: 무거 나자빠저도 양가러.{하나 안갈아, 제밭 갈으라고 해도 밭 묵어 나자빠저도 안 갈아.}

10310 # 반 지금 다 무거찌 머.{밭 지금 다 묵었지 뭐.}

10310 # 양: 양:가리 구차나다고 양갈자네 우리동네 싸람두 이~?{안, 안 갈아 귀찮다고 안 갈잖아, 우리동네 사람도, 응?}

10310 # 보리를 가려가꼬 이~?{보리를 갈어갖고 응?}

10310 # 반미시래두 하고 그거 보리 쪼끔 가르야 세상 구차나자냐 기계 그만 이~?{밭매기라도 하고 그거 보리 조금 갈아야 세상 귀찮잖아, 그게 그만, 응?}

10310 # 비싸기는 몰 비싸 그까진 늬 보리가 머 마니 나오간디?{비싸기는 무얼 비싸 그까짓 늬 보리가 뭐 많이 나올까?}

[3초]

10310 # 아 그게 마니 쭈와기 나오냐 나락치름?{아, 그게 많이 수확이 나오냐 나락처럼?}

10310 # 찌꺼기 더나와? 그럼.{조금밖에 더 나와? 그럼.}

10310 # 그 하기만 그여까지 여 바떨 다 무거도 보리 하::나더 아나자나.{그 하기만 고약하지, 여기 받들 다 묵어도 보리 하나도 안하잖아.}

10310 # 절루 강게는 보리 마니 하더라.{저기로 가니까는 보리 많이 하더라.}

10310 # 절라두 미티로 그럼.{전라도 밀으로, 그럼.}

10310 # 절라도는 마니 하구 저 오디 놀로가서.{전라도는 많이 하고 저 어디 놀러가서.}

10310 # 음 이양기루 다 빈다 그때 강게 그때 고기싸람 전::부라 보리 미란 절라도가 마니 하.{응, 이양기로 다 벤대, 그때 가니까 그때 거기 사람 전부 다 보리 밀은 전라도가 많이 해.}

10310 # 경상도 쪼기루 절라도 쪼기루가 나 놀로가서 그때 봉게 마::니 하더라구 요기는 아무도 하는 사لامي 읍씨.{경상도 쪽으로 전라도 쪽으로가, 나 놀러가서 그때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 여기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

10311 @ 인제 겨울처레 보리를 발벼요 할무니?{이제 겨울철에 보리를 밟아요 할머니?}

10311 # 응.{응.}

10311 @ 그거쪼 예기 해주세요 어트케 하능 거예요?{그것 좀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하는거예요?}

10311 # 보리가 겨울처리는 밟는 거시 나두 보리밥 발부러두 땡기구 아이구 하시기러서 막 도망두 가구 그래씨 아부지가 보리밥 빨부라문.{보리가 겨울철에는 밟는 것이 나도 보리밭 밟으러도 다니고, 아이고, 하기 싫어서 막 도망도 가고 그랬어, 아버지가 보리밭 밟으라고 하면.}

10311 # 이케 어:러가꾸 추면.{이러케 얼어갓고 추우면.}

10311 @ 겨울철 보리바끼 하능 거.{겨울철 보리밟기 하는 것.}

10311 # 보리 바:끼는 이~ 이때 동기리 스펀 이케 십 시비윔 시비윔 때 이르케 얼부푸구 추머는 바시 들뜨그든 그러머는자 슬:세고 나르는 땅이 풀리자나.{보리 밟기는 잉, 이때 동지 설달 이케 십, 11월, 12월달에 이렇게 얼부풀고 추우면 밟이 들뜨거든, 그러면은 인제 설 쇄고 나면은 땅이 풀리잖아.}

10311 # 그러면 기계 암:발버 주문 주:거 다 누르게 말러 그렇게 이때 데면 인자 보리 싹:올라올 때 지끔 보리 보름세:고 나르는 정월따리 땀 데면 보리밥 빨끼는 한차미여..{그러면 그게 안밟아 주면 죽어, 다 누렇게 말라, 그러니까 이때 되면 이제 보리가 싹 올라올 때 지끔 보리 보름 쇄고 나면은 정월달에 쪼 되면은 보리밭 밟기는 한참이야.}

10311 # 발버주야야 가서.{밟아줘야 해 가서.}

10311 # 잘강잘강잘강 발버 주머는.{잘강잘강잘강 밟아 주머는.}

10311 # 인 땅이 착: 가랑게 비가 와서.{[x이렇게x] 땅이 착 가라앉게 비가 와서.}

10311 # 이~ 마니 비와가꾸 땅이 이케 착: 가란질 때는 별게 아난디 비 안오구 눈:와가꾸 인자 부푸루머는 그게 둥둥 뜨더라구 그래 가서 발부야야.{응, 많이 비와갓고 땅이 이렇게 착 가라앉을 때는 별게 아난데 비가 안오고 눈와갓고 인제 부풀면은 그게 둥둥 뜨더라고 그래 가서 밟아야 해.}

10311 @ 보리밥끼 할 때 머 이케 막 특빠란 행사가통 거 이씨씨요?{보리밟기 할 때 뭐 이렇게 막 특별히 행사 같은 것 있었어요?}

10311 # 읍씨씨 그냥 가서 시꾸더리 발버찌 몰라 이 동네는 행사 그릉 거 읍씨.{없었어, 그냥 가서 식구들이 밟았지, 몰라 이 동네는 행사 그런 것 없어.}

10311 # 저저 마::니하는 절라도 끔방이나 행사를 하나 어찌나 몰라두 여기는 아내 자 자기네 자기네 지비 시꾸덜찌리 가서 바꼬오고 그래찌.{저 많이 하는 전라도 근방이나 행사를 하나 어찌나 몰라도 여기는 안해 자기네 자기네 집 식구들끼리 가서 밟고 오고 그랬지.}

10311 @ 할머니 보리밭끼 노래는 아세요?{할머니 보리밟기 노래는 아세요?}

10311 # 몰::라 그릉 거는 아내떠이~ 없어.{몰라, 그런 것은 안했더니 없어.}

10311 # 이 동네는 아내서 몰라.{이 동네는 안해서 몰라.}

10311 # 그 어울려 댕이머서 하는 사람더른 그르케 하나 어찌나 몰라두.{그 어울려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 어찌나 몰라도.}

10312 @ 밀방아아고 보리방아 찼능 거 어트게 하는지 좀 예기 해 주세요.{밀방아하고 보리방아 찼는 것 어떻게 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10312 # 밀방아 보리방아 찼능 거 기계로 가서 찼느— 그 지끄른 기계가 이썩게 기계로 찼는디 엔나리는 기계 읍쓸 때는 확또기다가 도구때로다 찼어서 찼언는디.{밀방아, 보리방아 찼는 것 기계로 가서 찼는, 그 지금은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로 찼는데 옛날에는 기계가 없을 때는 절구통에다가 절굿공이로 찼어서, 찼었는디.}

10312 # 함::버니 찼어서는 몸머거.{한 번에 찼어서는 못 먹어.}

10312 # 함:번 부꾸 찼어서 저가 후루루루를 날더락 찼가꾸 싹: 마당이다 너르야야.{한 번 붓고 찼어서 겨가 후루루루룩 날도록 찼어갓고 싹 마당에다 널어야 해.}

10312 # 아시 찼서 마당이다 마당이다 너르서 말르머는 인자 그느를 팍팍 또 시러서 저 껍 떼기 까불러 내버리구 물부꾸 또 찼 그럼 대겨.{아시 찼어서 마당에다 마당에다 널어서 마르면은 인제 그놈을 팍팍 또 쓸어서 겨 껍떼기 까불어 내버리고 물 붓고 또 찼어, 그럼 닙여.}

10312 # 그래가꾸 보리싸리 나오더라구 찼:서 그르케서 머거썩 아이구!{저 껍떼기 보리 쌀이 나올대가지 찼어서 그렇게 해서 먹었어 아이고!}

10312 # 그른 얘기 하지두 마러 심드러썩.{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 힘들었어.}

10312 # 징그러 그런 예기 하믄.{징그러 그런 얘기하면.}

10313 @ 그 다메 이제 할머니 흑썩 밀서리 해보셔썩요? 밀서리?{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흑시 밀서리 해보셨어요? 밀서리?}

10313 # 응 밀: 끄너다가 밀서리 해서 막 치 그냥 마당이다 노코 귀가꾸 비벼서 까머그먼데::게 마시파.{응, 밀 끊어다가 밀서리 해서 막 치, 그냥 마당에다 놓고 구워갓고 비벼서 까 먹으면 되게 맛있다.}

10313 # 참::말로 마시썩 그거 미:런 더.{참말로 맛있어 그거 밀은 더.}

10313 @ 함번 하 콩서리나 머 닥썩리 이렇 건 아나셔썩요?{한번 해, 콩서리나 뭐 닙서리 이런 것은 안하셨어요?}

10313 # 왜:: 콩도 뽕바가꾸 바티서 안자서 귀 머거도 그냥 인저 으—ㅇ감 지게지고 콩뽕부러 가머는 마 한::잔 뽕바가꼬 지게미티다가 불질러가서.{왜 콩도 뽕아갓고 밭에서 앉아서 구워 먹어도 그냥 이제 영감이 지게지고 콩뽕으러 가면, 막 한 단 뽕아갓고 지게 밑에다가 불질러서.}

10313 # 콩이 투트트트트트 어지가니 그릉 거 귀서 꾸지면 머꼬서나 안지서 콩뽕바가꼬 오고 콩서리 마니 해머거썩.{콩이 툭툭툭툭툭툭 어지간히 그런 것 구워서 구워지면 먹고서는 앉아서 콩 뽕아갓고 오고 콩서리 많이 해 먹었어.}

10313 @ 그럼 머 닥썩리는 아나셔썩요?{그럼 뭐 닙서리는 안하셨지요?}

10313 # 닥써리? 그럼 건 여장게 아나지.{답써리? 그런 것은 여자니까 안하지.}

10313 @ 남자드른 마니 해여?{남자들은 많이 해요?}

10313 # 그럼 하지 자바다 귀 먹찌.{그럼 하지 잡아다 구워 먹지.}

10313 @ 또 다른 서리 머 하셔썬요?{또 다른 서리 뭐 하셔썬요?}

10313 # 아:웅.{아니.}

10313 @ 그럼 점만? 미리랑 콩?{그런 것만? 밀이랑 콩?}

10313 # 외 바티 가서 그거.{외 밭에 가서 그것.}

10313 @ 우리밭 가서?{우리밭 가서?}

10313 # 응.{응.}

10313 @ 차매서리 수박써리 이렇 거는녀?{참외서리 수박서리 이런 것은요?}

10313 # 그 여자가 그릉 건 아냐.{그 여자가 그런 것은 안해.}

10313 # 머시매더른 땡기머서 해찌.{남자애들은 다니면서 했지.}

10314 @ 금 보리찌파고 벼찌파고 멀 만들쑤 이썬요? 그럼 곁로?{그러면 보리짚하고 벼짚하고 무엇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으로?}

10314 @ 지브로.{짚으로.}

10314 # 지븐.{짚은.}

10314 @ 보리나 밀로 밀찌브로.{보리나 밀로 밀짚으로.}

10314 # 밀때는 엔나리 도렁이 여꺼썬 도렁이 도렁이라고 이 베니루가 읍쓰니까 비가 오머는 모를 시무러 가던지 머를 하던지 하든 더:꾸 나갈께 업썬서 밀찌비루 잘:: 여꺼노문 도렁이가 데게 조아.{밀대는 옛날에 도렁이 엮었어, 도렁이 도렁이라고, 이 비닐이 없으니까 비가 오면은 모를 심으러 가든지 뭐를 하든지 하면 덮고 날 것이 없어서 밀짚으로 잘 엮어 놓으면 도렁이가 엄청 좋아.}

10314 # 그릉 곁루 등어리다 어꼬 밀찢모자 쓰구 그라구서는 논 바테가 이라루 가찌.{그런 것으로 등허리에다 엮고 밀짚모자 쓰고 그러고서는 논밭에 가 일하러 갔지.}

10314 @ 금 비 안새요?{그럼 비 안새요?}

10314 # 응 안:샤.{응, 안새.}

10314 # 안드르가 잘: 역꺼나가 안 안샤: 그르케.{안 들어가 잘 엮어놔서 안, 안 새, 그렇게.}

10314 # 밀찢 밀찌비루 잘: 여꺼노문.{밀짚, 밀짚으로 잘 엮어 놓으면.}

10314 @ 어트게 만드느지 아세요?{어떻게 만드느지 아세요?}

10314 # 아 나도 몰라 이느느 우리 우리 아버지가 잘: 여꺼서 맨들구 그릉 거 해찌 우리 으-ㅇ감또 잘 모랴.{아 나도 몰라, 잉잉잉 우리 우리 아버지가 잘 엮어서 만들고 그런 것 했지, 우리 영감도 잘 못해.}

10314 @ 싱기하네 머 곤충 집또 만드러 줘썬요 그럼 거를?{싱기하네, 뭐 곤충집도 만들어 줬어요, 그런 것을?}

10314 # 응?{응?}

10314 @ 곤충집.{곤충집.}

10314 # 집?{집?}

10314 @ 곤충 지블 만드러 줘썬여?{곤충 집을 만들어 줬어요?}

10314 # 아~이.{아니.}

10314 @ 금 방석가통 건?{그럼 방석같은 것은?}

10314 # 응 방서근 밀때 방서기니 그거 깔고 놀 떼 읍썬게 밀때 방석 맨드러 노문 데게 셔:

나니 조아 여르미 끌코 땡기매 놀기도 밤먹끼도 조코.{응, 방석은 밀대 방석이니, 그것 깔고 놀 데 없으니까 밀대 방석 만들어 놓으면 되게 시원하니 좋아, 여름에 끌고 다니며 놀기도, 밥 먹기도 좋고.}

10314 # 마당이다 까러노코 밀짚빵석.{마당에다 깔아놓고 밀짚방석.}

10314 # 그럼 걸 만들러써 만드러선.{그런 것을 만들었어, 만들어서는.}

10314 # 나는 암만드러찌만 우리 아버지가 만들구 우리 으—ㅇ감탱이두 만들구 으—ㅇ감니미 눈썰미가 이써서 아내봐써도 와서 하능 거 이로케 보고 알케 중케 자랄더라구.{나는 안 만들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만들고 우리 영감도 만들고 영감님이 눈썰미가 있어서 안해봤어도 와서 하는 것 이렇게 보고 알려 주니까 잘 알더라고.}

10314 # 삼태민도 맨들구.{삼태기도 만들고.}

10314 @ 어트게 만드는 주 아세요? 할머니는 방석?(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할머니는 방석?)

10314 # 몰라 나는 머 여버여버 여벌로 바찌 머.{몰라 나는 뭐 겹다리, 겹다리, 겹다리로 봤지 뭐.}

10314 # 거 안저서 산내끼 꺾가꾸 죽죽 영능 검만 바찌.{거기 앉아서 새끼 파갓고 죽죽 엮는 것만 봤지.}

10315 @ 금제 고추 할머니 어트게 농사지세요?(그럼 이제 고추, 할머니 어떻게 농사 지세요?)

10315 # 응?(응?)

10315 @ 농사질 때 방법 고추.{농사질 때 방법 고추.}

10315 # 꼬추?(고추?)

10315 # 그저니는 바티다가 막.{그 전에는 밭에다가 막.}

10315 # 박꼴.{밭꼴.}

10315 # 보리갈디끼 가러가꾸 고추나무 심.{보리 갈 적에 갈아갓고 고추나무 심[x지x].}

10315 # 나무 꼬추가 마니 날꺼 아녀 인자 씨릴 뿌리문?{나무 고추가 많이 날꺼 아냐 인제, 씨를 뿌리면.}

10315 # 그라문 싹:: 소까가꾸 더문더문드문 두고 우리가 헨는디 지끄문 모를 버가꾸 그르케 시무니까 하나하나 함: 포기씩 함: 포기씩 시몽게 씨도 마니 안드러가고.{그러면 싹 솟아갓고 드문드문드문 두고 우리가 했는데 지금은 모를 부어갓고 그렇게 심으니까 하나하나 한 포기씩 한 포기씩 심으니까 씨도 많이 안 들어가고.}

10315 # 모버따가 파종하는디 이 동네 싸람드른 모 그르케 할중도 몰르고 사다 시머 사다.{모 부었다가 파종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할 줄도 몰르고 사다 심어 사다.}

10315 # 잘 하는 사람네 지비서 사다가.{잘 하는 사람네 집에서 사다가.}

[3초]

10315 @ 그래서 인제 가으레 여르면 따가주구 머 말려서 노코 그르케 해요?(그래서 이제 가을에 열으면 따가지고 말려서 놓고 그렇게 해요?)

10315 # 응 응.{응 응.}

[5초]

10315 @ 옥썬수 옥썬수 어트게 해요?(옥수수 옥수수는 어떻게 해요?)

10315 # 옥썬수? 옥썬수는 알맹이 옥썬수 따가꼬 시무문 잘대.{옥수수? 옥수수는 알맹이 옥수수 따갓고 심으면 잘돼.}

10315 # 아무데나 시머도 잘 여러 그거.{아무데나 심어도 잘 열어 그거.}

10315 @ 하나씩 시머요?{하나씩 심어요?}

10315 # 응 항 구덩이 두 개씩 세 개씩 지버너.{응, 한 구덩이에 두 개씩 세 개씩 집어 넣어.}

10315 # 서너개씩 느두 갠차냐.{서너 개씩 넣어도 괜찮아.}

10315 @ 금 자라나면 인제 그냥 그대로 내비뒤요?{그러면 자라나면 인제 그냥 그대로 내버려뒤요?}

10315 # 응, 비루 줌 주구.{응, 비료 줌 주고.}

10315 # 비루주구 키우머는 그건 잘 여러.{비료 주고 키우면 그건 잘 열어.}

10315 # 배랑 머 약뚜 아내두 데 잘도냐.{별로 뭐 약도 안해도 돼 잘돼.}

10315 @ 비료는 멀 주셔써요? 엔나레?{비료는 뭘 주셨어요?}

10315 # 엔나리? 엔나리도 비루는 나와써 왜정시대도.{옛날에? 옛날에도 비료는 나왔어 왜정시대도.}

10315 # 비루줘서 저절 그::저네.{비료줘서 저저 그 전에.}

10315 # 응 우리 아버지 시절이 비루가 귀::해서.{응, 우리 아버지 시절에 비료가 귀해서.}

10315 # 퇴비루 풀: 맨드리 풀:로 그르케 퇴비 해가꾸 줘찌만.{퇴비로 풀 만들어, 풀로 그렇게 퇴비해갖고 줬지만.}

10315 # 콩게 짐승도 메기구 거르를 해찌만.{그러니까 짐승도 먹이고 거름을 했지만.}

10315 # 그저니 잘라와써 비루는 마니 나와 비루 주더라구.{그전에는 잘나왔어 비료는 많이 나와, 비료 주더라고.}

10315 # 우리 아버지찌기는 나 그랑게 어려쓸 떼기.{우리 아버지 적에는 나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10315 # 그때는 비루가 읍썩게 맨::날 푸를 하더라구 풀.{그때는 비료가 없으니까 맨날 풀을 하더라고 풀.}

10315 # 푸래서 그냥 말리미다.{풀해서 그냥 등성이에다.}

10315 # 저런디 들파니다가 그냥.{저런 데 들판에다가 그냥.}

10315 # 열::마를 푸래다 가따 싸::노문 써::그른 그누미루.{열마를 풀 해다가 갖다 쌓아 놓으면 썩으면 그놈으로.}

10315 # 가따가 노니두 느쿠 바티도 느쿠 푸래 뽕 더미루.{갖다가 논에도 넣고 밭에도 넣고 풀해 풀 두엄으로.}

10315 # 거북 거북씨려께 지어찌 도라가신 냥반드리.{거북 거북하게 지었지, 돌아가신 양반들이.}

10315 @ 그럼제 땅을 이케 기르며 자라머는 제 여르메 따서 멍는 거예요?{그럼 인제 땅을 이렇게 기르며, 자라면은 인제 여름에 따서 먹는 거예요?}

10315 # 응.{응.}

10315 @ 담배 하셔 해보셔써요? 담배?{담배 하셔, 해보셨어요? 담배?}

10315 # 담배농사 하내 해봐써.{담배농사 한 해 해봤어.}

10315 @ 그거또 좀 예기애 주세요, 어트게 해요?{그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10315 # 담배 모버가꾸 종묘를 무를 뽕서 바티다 이이게 심는다.{담배 모 부어갖고 종묘를 물을 부어서 밭에다 이, 이렇게 심는데.}

10315 # 여기 토지리 암: 만나 자란대더라구.{여기 토질이 안맞나 잘 안 되더라고.}

10315 # 담배농사 한번 지어따가 그냥 피에 바써.{담배농사 한 번 지었다가 그냥 피해 봤어.}

10315 # 그래서 오르게 헨나 그더또 담배농사를 해노머는.{그래서 어떻게 했나, 그것도 담배농사를 해놓으면은.}

10315 # 건조대가서 거 찌:야야 찌 찌는 디 가서 따 따로 또 찌:오야 거 하느디.{건조대에 가서 그것 찢어야 해, 찌 찢는 데 가서 따, 따로 또 찢어 와야 그거 하는데.}

10315 # 아 그거 몰라 으-ㅇ가미 그냥 하다가 그냥 하다가 마러써.{아, 그것 몰라, 영감이 그냥 하다가 그냥 하다가 말았어.}

10315 @ 금 마늘?{그럼 마늘?}

10315 # 마늘? 마느른 지금도 시:머 먹찌.{마늘? 마늘은 지금도 심어 먹지.}

10315 @ 어르게 하세요? 처으메?{어떻게 하세요? 처음에?}

10315 # 마느랄: 까가꾸.{마늘을 까갸고.}

10315 @ 까요?{까요?}

10315 # 마느를 쪼개야 하장까.{마늘을 쪼개야 하잖아.}

10315 # 마늘 쪼개 하나 하나를 쪼개야 자냐.{마늘은 쪼개, 하나하나를 쪼개야 하잖아.}

10315 # 쪼개서 그냥 시:머 꼭꼭 근디 지끄른.{쪼개서 그냥 심어, 꼭꼭, 근데 지금은.}

10315 # 그저니는 그냥 죽죽 시먼느디 지금 베니루가 나와떼.{그전에는 그냥 죽죽 심었는데 지금 비닐이 나왔데.}

10315 # 마닐 심는 베니루 게 구멍 뜨리징 거.{마늘 심는 비닐, 이렇게 구멍 뚫어진 것.}

10315 # 그 바다게 딱: 까러노코 그 구머기다 하낙썩만 느른 데데 머.{그 바닥에 딱 깔아놓고 그 구멍에다 하나씩만 넣으면 되데 뭐.}

[3초]

10315 @ 그러미제 자라머는.{그럼 이제 자라면은.}

10315 # 응 나중이 인자 여르미 하지 너머면 캐 오월따리.{응, 나중에 인제 여름에 하지 넘으면 캐, 5월달에.}

[3초]

10315 @ 금 마느를 여꺼서 이케 매다러 노세요? 할머니?{그럼 마늘을 엮어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세요? 할머니?}

10315 # 응.{응.}

10315 @ 할머니 그거 하세요?{할머니 그것 하세요?}

10315 # 오리는 아드리 모썸게 해서 아내써.{올해는 아들이 못 심게 해서 안했어.}

10315 # 여꺼서 매다라떼 이케.{엮어서 매달았는데 이렇게.}

10315 # 지푸래기루 여꺼가꾸 한 두릅씩 한 두릅씩 여꺼 매달지.{지푸라기로 엮어갓고 한 두릅씩 한 두릅씩 엮어 매달지.}

10315 @ 감자 하지감자 어르게 하세요?{감자, 하지감자 어떻게 하세요?}

10315 # 하지감자 머 종: 사다가 바티다 시:프면 썩: 나와.{하지감자 뭐 종 사다가 밭에다 심으면 썩 나와.}

10315 # 썩: 나오면 분또다서 키워 그른 잘드러.{썩 나오면 북 돌아서 키워, 그러면 잘 들어.}

[2초]

10315 @ 그냥 고기다 골 이케 해노코 고기다 그냥 심능 거예요?{그냥 거기다 골 이렇게 해



놓고 거기다 그냥 심는 거예요?}

10315 # 응.{응.}

10315 @ 고고마는?{고구마는?}

10315 # 고고마 고구마는 이~ 여르미 심찌 인자 잉?{고구마, 고구마는 잉 여름에 심지 인제 응?}

10315 # 하 이 하지감자는 보미 싱꼬 쪼그미쓰른자 하지감자는 이 달 너머가면 하지 때 데 머는 시:프야야.{하, 이 하지감자는 봄에 심고조금 있으면 인제 하지감자는 이 달 넘어가면 하지 때 되면은 심어야 해.}

10315 # 하지감자는 일찍 그란디.{하지감자는 일찍 그런데.}

10315 # 고고마는 인자 하:지 아니만 시무문 대 느께 시머 오월팔 사월파리 인자 음너그로 사월 중순기 이르케 심꼬 오월초서에 시머도.{고구마는 인제 하지 안에만 심으면 돼, 늦게 심어, 5월달, 4월달에 인제음력으로 4월 중순경 이렇게 심고 5월 초순에 심어도.}

10315 # 고고마는 잘: 드러 머거.{고구마는 잘 열어, 먹어.}

[2초]

10315 # 고고마 농사 지키는 시워.{고구마 농사 짓기는 쉬워.}

10315 @ 소낭가요?{손 안가요?}

10315 # 그 시머노코 그냥 놔둬 인자 함번 매:서 그냥 놔:두면 녁쿠리 쪽쪽 빼더가꾸 지덜로 잘 드러.{그 심어놓고 그냥 놔둬, 인자 한번 매서 그냥 놔두면 덩굴이 쪽쪽 뻗어갓고 저절로 잘 열어.}

10315 # 고고마는 고구마 농사 지키는 시워.{고구마는 고구마는 농사 짓기는 쉬워.}

10315 @ 금 언제 캐신다고요? 고구마는?{그럼 언제 캐신다고요? 고구마는?}

10315 # 서리오기 저네 파월딸쫘 파월 너트면.{서리오기 전에 8월달쫘, 8월 넘으면.}

10316 @ 그러민제 할머니 수바기나 이런 차매 가통 거는너?{그럼 인제 할머니 수박이나 이런 것 참외 같은 것은요?}

10316 # 수박 차무는.{수박 참외는.}

10316 # 우리 아버지가 차미농사 잘 저서 수박 차무 마:니 헐는다.{우리 아버지가 참외농사 잘 지어서 수박 참외 많이 헐는데.}

10316 # 자 하라부지는 무서워가꾸 차무바티 가서 모찌켜.{재 할아버지는 무서워갓고 참외 밭에 가서 못 지켜.}

10316 # 누가 와서 패주기능 거 가트다.{누가 와서 패죽이는 것 같대.}

10316 # 금 마기서 잘라면 그런다고 아냐.{금 막에서 자려면 그런다고 안해.}

10316 # 아내서 차미농사 수박농사 안 저썸.{안해서 참외농사 수박농사 안졌어.}

10316 # 그래서 내가 아버지 주궁게 수박 차무도 모드더 멍는다구 막.{그래서 내가 아버지 죽으니까 수박참외도 못 얻어 먹는다고 막.}

10316 # 자 하라버지더러 머라구두 하고 그랜는다.{재 할아버지더러 뭐라고도 하고 그랜는 데.}

10316 # 아나드라구 모다 그거뚜.{안하더라고, 못해 그것도.}

10316 # 담덕 신 사لامي 수박 차무 하.{담력 쉰 사람이 수박 참외[+농사] 해.}

=1 @ 왜요?{왜요?}

=1 # 지킬람 지킬라면 대가낭게.{지키려면, 지키려면 대근하니까.}

=1 # 서리꾸니 얼마나 달라든다고 막 장정놈더러.{서리꾼이 얼마나 달려든다고, 막 장정놈들

이.}

=1 # 따가능 거 보고서두 내려오도 모다 가마::니 안저씨야지.{따가는 것 보고도 내려오도 못해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1 # 네로와서 왜 따가냐 하면 마저주거 막.{내려와서 왜 따가냐고 하면 맞아죽어 막.}

=1 # 뚜두러 팽개.{두들겨 패니까.}

10316 @ 금 수박 어트게 심는지 보서찌 할머니?{그럼 수박 어떻게 심는지 보셨죠, 할머니?}

10316 # 수박 그냥 저.{수박 그냥 저.}

10316 # 호박 썸띠기 시머찌 그른디 지금 싸람더른 그르케 안 시머.{호박 심듯이 심었어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안 심어.}

10316 # 모 모파니다 전::부라 종종 내가꾸.{모, 모판에다 전부가 종종 내갓고.}

10316 # 수박 그르케 하 하나 하나 떠다 심찌 엔날치름 시믈래파는 굴머주거 굴머주거.{수박 그렇게 하, 하나하나 떠다가 심지, 옛날처럼 심었다가는 굶어죽어, 굶어죽어.}

10316 @ 금 요즈멘 다 모로 이르게 하능 거예요?{그러면 요즘에는 다 모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316 # 그럼 종묘로 모 해가꾸 다: 하지.{그럼, 종묘로 모 해갓고 다 하지.}

10316 @ 엔나레는 그냥 심꼬?{옛날에는 그냥 심고.}

10316 # 이~ 엔날 엔날 싸람드른 그르케 할쥬도 몰르고 그런.{응, 옛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쥬도 몰르고 그런.}

10316 # 이 도구두 움써썸도 아나구 그냥.{이 도구도 없었어도 안하고 그냥.}

10316 # 바티다가 씨루 뿌려가꾸 그냥 시머찌 지금 싸람드른 그르케 하간디?{밭에다가 씨를 뿌려갓고 그냥 심었지,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

10316 @ 수박 차매는 인제 바세다 골타고 씨뿌려 가주구 받 매준 다으메 그냥 기다리능 거예요?{수박 참외는 인제 밭에다 골타고 씨뿌려갓고 받 매준 다음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10316 # 응 응 응.{응, 응, 응.}

10316 @ 퇴비 해주고?{퇴비 해주고?}

10316 # 응 응.{응, 응.}

10316 @ 사과는너? 할머니 사과?{사과는요? 할머니, 사과?}

10316 # 사과는 그르 거 머 여그 싸람 하기는 해간디 사과는.{사과는 그런 것은 뭐 여기 사람 하기는 했나, 사과는.}

10316 @ 복숭아도요?{복숭아도요?}

10316 # 그럼 복숭아밭 사과밭 그런 과수원밭 하는 사라미 하지.{그럼, 복숭아밭 사과밭 그런 과수원밭 하는 사람이 하지.}

10316 # 이:른 가서 마니 해따.{일은 가서 많이 했다.}

10316 @ 어떤 닐 하서씨요?{어떤 일 하셨어요?}

10316 # 일.{일.}

10316 # 사과두 따 사과바티 가서 사과 소까주고.{사과도 따, 사과밭에 가서 사과 숨아주고.}

10316 # 복숭아바티 복숭아 소꼬 나 잘::소까.{복숭아밭에 복숭아 숨고 나 잘 숨아.}

10316 # 참 사과 송는 디 일똥애뜨 일똥 잘 송는다구.{참, 사과 숨는 데 일똥했어 일똥, 잘 숨는다고.}

10316 # 사다리 가꾸 땡기머서 사다리카구 낭구 올라가서.{사다리 갓고 다니면서 사다기 타고 나무 올라가서.}

10316 @ 멀 소끄는 거예요? 어떻 거?(무엇을 숨는 거예요? 어떤 것?)

10316 # 복숭아는 요::로케 이 항 가지에.{복숭아는 이렇게 이 한 가지에.}

10316 # 한 여남 개씩 이르게 부터쓰머는.{한 여남은 개씩 이렇게 붙었으면은.}

10316 # 이 낭구 인는 디 철:까지에 인는 디서 처빠네 치 놔:두구.{이 나무 있는 데 첫가지에 있는 데서 첫번째 것 놔두고.}

10316 # 담::담 이르게 빠미리 요 뺨 대개 복숭아가.{다음 다음 이렇게 빠 마디 요 뺨 되게 복숭아가.}

10316 # 자기찌리 모미 부닥쳐서.{자기끼리 몸이 부딪쳐서.}

10316 # 안달 만치 소까 내야야.{안 달을 만큼 숨아 내야 해.}

10316 # 그르케 소까 줘써 그거뚜 잘:: 소꺼야야.{그렇게 숨아줬어 그것도 잘 숨아야 해.}

10316 @ 굴도 안내보셔쨌네요?(굴도 안 해보셨겠네요?)

10316 # 응?(응?)

10316 @ 굴.{굴.}

10316 # 규:른 여기서 하간디? 제주도나 가 하지.{굴은 여기서 할까? 제주도나 가[x야x] 하지.}

10317 @ 그러미제 바티나 들 가튼 데 아니른 사네 막 풀 마니 나자나요 그 풀 이름쭈 예기 해주세요.{그럼 이제 밭에나 들 같은 데 아니면 산에 막 풀 많이 나잖아요, 그 풀 이름 쭈 얘기해주세요.}

10317 # 풀?(풀?)

10317 @ 바테 나는 풀 이름.{밭에 나는 풀 이름.}

10317 # 바티 질:: 잘 나능 게 바라고여 바라고.{밭에 제일 잘 나는 것이 바랭이야 바랭이.}

10317 # 바라고가 여르미는 켈 마니 나와.{바랭이가 여름에는 제일 많이 나와.}

10317 @ 또 다름 거 바테?(또 다른 것 밭에?)

10317 # 저:: 그제 머냐.{저 그제 뭐냐.}

10317 # 바테 나능 게 바라 바라고 이~.{밭에 나는 것 바랭, 바랭이 잉.}

10317 # 얼렁 할랑게 잘 나오도 아나네 아이구 바티가 아이구.{얼른 하려니까 잘 나오지도 않네, 아이구, 밭에 아이구!}

10317 # 아이구 아이구 그그 그 켈:: 마~이 나는 마::~이 나는데.{그, 그, 그 제일 많이 나는, 많이 나는데.}이

10317 # 이르미 안 이르 이르미 얼렁 기어기 안데네.{이름이 안, 이름,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되네.}

10317 @ 그럼 또 들?(그럼 또 들?)

10317 # 드리? 드리는 피.{들에? 들에는 피.}

10317 @ 피?(피?)

10317 # 이~ 피가 바 노니 지그른 피 마니 안 나오지만 엔나리는 피사리 하기 징그르께 대가내써.{응, 피가 밭, 논에, 지금은 피 많이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피사리하기 징그럽게 대근했어.}

10317 @ 또 피하고 또?(또 피하고 또?)

10317 # 피 피도 나오고 보풀.{피, 피도 나오고 보풀.}

10317 # 보푸리라고 보풀 마:니 나오지 마~이 나썸 그거 맬라든 지라리지.{보풀이라고 보풀, 많이 나오지, 많이 났어, 그것 맬려면 지랄이지.}

10317 @ 응, 또.{응, 또.}

[4초]

10317 # 아휴! 머.{아휴! 뭐.}

10317 # 몰라 바티는 풍년초도 마니 나.{몰라 밭에는 풍:년초도 많이 나.}

10317 # 풍년초도 나오고.{풍년초도 나오고.}

10317 @ 이름 참 존네요.{이름 참 좋네요.}

10317 # 응.{응.}

[3초]

10317 @ 또 산 할머니 아는 풀 이름 좀 다 대보세요 한번 풀.{또 산, 할머니 아는 풀 이름 좀 다 대보세요 한 번 풀.}

10317 # 풀? 그렇게 풀두 그::뚝 나느디 이 얼렁 할랑게 잘 안 안나 생가기 안 나네.{풀? 그러니까 풀도 가득 나는데 얼른 하려니까 잘 안, 안 나, 생각이 안 나네.}

10317 @ 사네 나는 풀?(산에 나는 풀?)

10317 # 사네는 이~:: 엔나리는 으이~ 그게 아이구 머여.{산에는 잉, 옛날에는 잉, 그게 아이구, 뭐야.}

[10초]

10317 # 사니 나는 풀두 내가 마::니 아런느디 푸리 잔대.{산에 나는 풀도 내가 많이 알았는데, 풀이 잔대.}

10317 # 잔대도 마니 나구.{잔대도 많이 나고.}

10317 # 그거 원초리 원초리가 참:: 마~이 나썸 이 산 사니루 그냥.{그것 원추리, 원추리가 참 많이 났어, 이 산, 산으로 그냥.}

10317 # 원초리 꺼 원초리가 그냥 짹: 다시피 해썸 원초리 푸리.{원추리, [x그것x] 원추리가 그냥 짹: 절다시피 했어 원추리 풀이.}

10317 # 그래서 소덜 미기는 사람드리 원초리 뽀바다가 소 주구.{그래서 소들 먹이는 사람들이 원추리 뽀바다가 소 주고.}

=1 @ 소가 그렇 거 머거요?{소가 그런 것 먹어요?}

=1 # 응.{응.}

10317 # 원초리가 마~이 나썸 사니루 그라구서는.{원초리가 많이 났어, 산으로 그러고서는.}

10317 # 철:썰꼬시 마니 피구.{철쭉꽃이 많이 피고.}

10317 # 철쭉꼬시 마::니 퍼썸 이 산 사니 이 압싼.{철쭉꽃이 많이 폈어, 이 산, 산에, 이 앞산.}

10317 @ 푸리르민제 기억 자란나세요? 풀리름?{풀이름 이제 기억 잘 안나세요? 풀 이름?}

10317 # 풀 그제 그거시 우리 바테 아주 징:그르께 나서 내가 엔수를 대는디.{풀 그것 그것이 우리 밭에 아주 징그럽게 나서 내가 원수를 댔는데.}

10317 # 그 푸를 얼렁 썬각 아 얼렁 안 나 안 나네 지금.{그 푸를 얼른 썬각 아, 얼른 안 나, 안 나네 지금.}

[6초]

### 1.3.3.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10318 @ 넌제 할머니 가을거지아고 겨우살리 준비하는 거좀 예기 해주세요.{네, 이제 할머니 가을걷이하고 겨우살이 준비하는 것 좀 얘기해주세요.}

10318 @ 예저네 탈고카는 방버파고 요즈메 탈고카는 방버바고 달라저짜나요.{예전에 탈곡하는 방법하고 요즘에 탈곡하는 방법하고 달라졌잖아요.}

10318 # 틀리지.{다르지.}

10318 @ 어트게 달라저전는지.{어떻게 달라졌는지.}

10318 # 엔::나리는 탈고글 하머는.{옛날에는 탈곡을 하면.}

10318 # 이~ 베를 베다가 지게로 저다가 홀터서.{응, 베를 베어서 지게로 저다가 홀어서.}

10318 # 할라면 시미 그르케 드리 지그먼 머 기계루 탈고가닝게.{하려면 힘이 그렇게 들어, 지금은 뭐 기계로 탈곡하니까.}

10318 # 논: 바터:서 다 해가꼬 그냥.{논 밭에서 다 해갓고 그냥.}

10318 # 다 기계로 빼다가 그냥 이 또.{다 기계로 빼다가 그냥 이 또.}

10318 # 말리러 가는 거뚜 지그른 기계루 다 말려어.{말리러 가는 것도 지금은 기계로 다 말려.}

10318 # 그래서 방아까니루 그냥 집쩍 깡게 머 이 신상퍼냐아 베버도.{그래서 방앗간으로 그냥 직접 가니까 뭐 이 신상 편해, 벼 베도.}

10318 # 직쏘기루 가버려 그냥 방아까니로.{직속으로 가버려 그냥 방앗간으로.}

10318 # 농사를 여자 혼자도 메썸지기 질라면 지어 지끄른.{농사를 여자 혼자도 몇 섬지기 지려면 지어 지금은.}

10318 @ 그르른 탈고칼 때 자리깎 자리개로 하셔썸요?{그러면 탈곡할 때 자리개 자리개로 하셔요?}

10318 # 자리개질?{자리개질?}

10318 @ 예 자리개.{예, 자리개.}

10318 # 그거는 엔날 마리지 자리개지라는 거선.{그거는 옛날 말이지, 자리개질 하는 것은.}

10318 # 나 보지도 모대썸.{난 보지도 못했어.}

10318 @ 홀태로 하능 건 보셔꾸요?{벼훅이로 하는 것은 보셨고요?}

10318 # 으이~, 홀태는 내가 해썸도 자리개지라는 거선.{응, 벼훅이질은 내가 했어도 자리개질 하는 것은.}

10318 # 메썸년 저네 그냥 그 자리개지를 헨나 몰라도 나 어려썸 때에.{몇 십년 전에 그냥 그 자리개질을 헨나 몰라도, 나 어렸을 때에.}

10318 # 자리개질 아내썸 우리 아부지두.{자리개질 안했어, 우리 아버지도.}

10318 @ 도리깨지른너? 도리깨질.{도리깨질은요? 도리깨질.}

10318 # 도리깨지른.{도리깨질은.}

10318 # 북띠기 뚜덜라문 도리깨질 해썸.{북띠기 두드리려면 도리깨질 했지.}

10318 # 홀터가꾸 모가지 떠러징 건 북띠기 디러가꾸.{홀어갓고 모가지 떨어진 것 북띠기 드러갓고.}

10318 @ 그면 도리깨질도 기수리 이썸요? 할머니?{그러면 도리깨질도 기술이 있어요? 할머니?}

10318 @ 미리서 치능 거 끄너 치능 거 엽치능 거 머 이렇 거?{밀어서 치는 것, 꿰어 치는 것, 옆치는 것 뭐 이런 것?}

10318 # 몰라 그냥 나는 그냥 이르게 돌려가꾸 이르게 때련는다.{몰라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돌려갓고 이렇게 때렸는데.}

10318 # 그르케 치능 거 어트케 치능 거는 몰라두 대::개 도리께 드르면.{그렇게 치는 것 어떻게 치는 것은 몰라도 대개 도리께 들면.}

10318 # 이르게 둥글려서 이르게 머 때리지 머 누가 어트케 엽치고 자치고 머 그렁 거 하나?{이렇게 둥글게 해서 이러하게 매어 때리지, 뭐 누가 어떻게 옆치고 자치고 뭐 그런 것 하느냐?}

10318 @ 그럼 키 키질?{그럼 키, 키질?}

10318 # 치질? 치지른 지끔도 콩 뽀두리문 치질 하지 내가.{키질? 키질은 지금도 콩 두드리면 키질 하지 내가.}

10318 @ 그러면 방버비 이썬요 할머니? 그거 아무나 모타자나요 그래도.{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할머니? 그것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래도.}

10318 # 지금 애더른 모다지 우리 메누리도 모대.{지금 애들은 못하지 우리 며느리도 못해.}

10318 # 나는 그냥 엔나리 업니 밀티서.{나는 그냥 옛날에 어머니 밑에서.}

10318 # 배워썬게 하느디 치질두 아무나 이르게 안도냐.{배웠으니까 하는데 키질도 이렇게 아무나 안돼.}

10318 # 그거 머 시웅 거 가터두.{그것 뭐 쉬운 것 같아도.}

=1 @ 마자요 어려웅 거 가태요.{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1 # 어려워 다 뭉치구.{어려워 다 뭉치고.}

=1 @ 그다 알맹이 다 쏘다 내버릴 께 가태요.{그러다 알맹이 다 쏘아 내버릴 것 같아요.}

=1 # 응.{응.}

10318 @ 인제 탈곡끼 나올 때는 언제부터 나옴 거예요? 탈곡끼?{인제 탈곡기 나올 때는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탈곡기?}

10318 # 탈고끼가 이~ 나 한.{탈곡기가 잉, 나 한.}

10318 # 사십때 삼십때 대서 탈곡 나와썬.{40대, 30대 되어서 탈곡기 나왔어.}

10318 # 그릉게 한 사십년 덴내 머 인제 칠썬비나 텅개 탈곡 나옴 거또.{그러니까 한 40년 되었네 뭐, 이제 70이나 되니까 탈곡 나온 것도.}

[6초]

10319 @ 그 다으메 방아찼는 도구가 머머가 이썬? 할머니?{그 다음에 방아 찹는 도구가 뭐 뭐가 있지요? 할머니?}

10319 # 방아찼능 거 도고때, 메갱이 그거지 머.{방아 찹는 것은 절구통, 메공이 그거지 뭐.}

10319 @ 그 두개?{그 두 개?}

10319 # 응.{응.}

10319 @ 방버븐? 어뜨케?{방법은? 어떻게?}

10319 # 방버븐 메갱이는 이르게.{방법은 메공이는 이렇게.}

10319 # 자로 받가서 메갱이 맨드러가꾸 이르게 팡팡 남자드리 찌코 도고때는 여자드리 이케 찌꾸.{자루 박아서 메공이 만들어갓고 이렇게 팡팡 남자들이 찹고, 절굿공이는 여자들이 찹고.}

10320 @ 그르구 벼나 보리 밀가통 거느너 찌꼬 나면 껌찌리 이짜나요.{그리고 벼나 보리

밀 같은 것은요, 찢고 나면 껍질이 있잖아요.)  
 10320 # 응.{응.}  
 10320 @ 그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렇 거 이름.{그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런 것 이름.}  
 10320 # 보리썰.{보리겨.}  
 10320 @ 그게 저?(그게 겨?)  
 10320 # 응.{응.}  
 10320 @ 벼는?(벼는?)  
 10320 # 그래 벼는 맥썰.{그래 벼는 맥겨[x왕겨x].}  
 10320 @ 또 밀?(또 밀?)  
 10320 # 미 미른 머 몰라 밀썰라고 하나 어찌 하나 한디 보리.{미, 밀은 뭐 몰라, 밀겨라고 하나 어찌 하나 그런데 보리.}  
 10320 # 보리를 미른 머 저가 인나 빵구지 빵귀서 머궁게.{보리를, 밀은 뭐 겨가 있느냐, 빵지 빵아서 먹으니까.}  
 10320 # 그럼 지우리라구라 지울.{그럼 기울이라고 그래 기울.}  
 10320 @ 지올라와요?(기울 나와요?)  
 10320 # 이~.{응.}  
 10320 @ 그 버려요?(그것 버려요?)  
 10320 # 누룩떠더 밀찌울로 누루떠서 수래머겨.{누룩 띄워 밀기울로, 누룩 띄워서 술 해먹어.}  
 10320 # 미:런 미른 버릴께 업써 보리쳐는 내비려도.{밀은, 밀은 버릴 것이 없어, 보리겨는 내버려도.}  
 10321 @ 그 다메 이제 곡씩 갈무리 하는 방법 쭈 알려주세요.{그 다음에 이제 곡식 갈무리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0321 # 어 가: 갈무리하능 건 머.{어, 갈 갈무리 하는 것은 뭐.}  
 10321 # 잘 뒤따 멩멍 갈:무리 하능 거?(잘 뒀다 먹, 먹는 갈무리 하는 것?)  
 10321 @ 가마니?(가마니?)  
 10321 # 가마니 엔나리는 푸대가 안 나와쑹게 순::전 가마니지 머.{가마니, 옛날에는 포대가 안나왔으니까 순전히 가마니지 뭐.}  
 10321 # 그라지 아나면.{그렇지 않으면.}  
 10321 # 그게 머여 웅기단지.{그게 뭐야 웅기단지.}  
 10321 # 웅기그룩 큰:: 웅 우리 지는 웅기가 그냥.{웅기그릇 큰 웅, 우리 [x집은x] 웅기가 그냥.}  
 10321 # 미또가지 드른 웅기가 이썰서 거기다 퍼버 놔따가 머겨.{밀에 독 들은 웅기가 있어서 거기다 퍼부어 뒀다가 먹어.}  
 10321 # 장:파니다 다 놔도 벌레도 안 생겨 여르미.{장독간에다 다 놔도 벌레도 안 생겨 여름에.}  
 10321 # 뜨거오가꾸.{뜨거워갖고.}  
 10321 @ 그러쿠나.{그렇구나.}  
 10321 # 응.{응.}  
 10321 @ 또 섬?(또 섬?)  
 10321 # 섬:? 서:먼 그걸로 맨트르야야.{섬? 섬은 그걸로 만들어야 해.}

10321 # 지푸래기루.{지푸라기로.}

10321 # 섬: 여꺼서 우리 아버지는 그 잘려꺼써 오쟁이 섬.{섬 엮어서 우리 아버지는 그것 잘 엮었어, 오쟁이 섬.}

10321 # 그래가꾸 고기다 퍼버 노코.{그래갓고 거기다 퍼 부어 놓고.}

10321 # 그 섬: 맨트러서 퍼버노코 그라데 광이다 주욱.{그 섬 만들어서 퍼 부어 놓고 그라 데 광이다 죽.}

10321 # 지비루 맨드러.{짚으로 만들어.}

10321 @ 그 다메 뒤주 뒤주두 이써썬요? 할머니?(그 다음에 뒤주, 뒤주도 있었어요? 할머니?)

10321 # 뒤지는 막대기 디지 지금도 이썬 두지가.{뒤주는 막대기, 뒤주, 지금도 있지 뒤주 가.}

10321 @ 지금도?(지금도?)

10321 # 지금도 이썬 우리 그 딸레 지베 저그그 처원 따른 부자야.{지금도 있어, 우리 그 딸 네 집에, 저 그그 채운 딸은 부자야.}

10321 # 그 딸레 지비는 엔날 할머니드리.{그 딸네 집에는 옛날 할머니들이.}

10321 # 부자루 사라면 양반이드라 뒤지가 존:: 노미썬 안 내비러썬.{부자로 살었던 양반들 이라 뒤주가 좋은 놈 있어, 안 내버렸어.}

10321 # 지블 잘:: 지꼬 이사 해썬도 지끔 거기다가 양.{집을 잘 짓고 이사 했어도 지금 거기다가 그냥.}

10321 # 빨::가나케 오:치래 논 오시라 뒤지가 그르케 존 놈 이썬.{빨강게 옷칠해 놓은 옷이 라 뒤주가 그렇게 좋은 놈 있어.}

10321 @ 지금도 쓰능 거예요?(지금도 쓰는 거예요?)

10321 # 응 썬 쌀퍼부꾸.{응, 썬, 쌀 퍼붓고.}

10321 @ 존네 고기다 고기다 쌀르면 벌레 업썬요?(좋네, 거기다 거기다 쌀 넣으면 벌레 없 어요?)

10321 # 조아.{좋아.}

10321 # 여르미는 생긴다 그래도.{여름에는 생긴대 그래도.}

[4초]

10321 @ 그럼 제 통거리 통거리느녀?(그럼 이제 통가리, 통가리는요?)

10321 # 베통가리 빼 빼통가리 지비루 여꺼서 통거리를 맨트러가거 베퍼버따 마당이다.{벼 통가리 벼, 벼통가리 짚으로 엮어서 통가리를 만들어갓고 벼 퍼부었다 마당에다.}

10321 # 지그른 머 광이 그르케 마니 읍쓰니까 엔나레는 방아까니다 그르케 마니 곡썬글 안 바더썬썬.{지금은 뭐 광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방앗간에다 그렇게 많이 곡식을 안 받아썬어.}

10321 # 자기네 지비다 뒤따 가지가야지.{자기네 집에다 뒀다가 가져가야지.}

10321 # 지그머 방아까니 마니 지금 벼를 장이지만.{지금은 방앗간에 많이 지금 벼를 보관 하지만.}

10321 # 그게 베통거리 해놔따가 방아 찰라면 가서 찌다머꾸 그래썬 머 통가리서 퍼다가. {그게 벼통가리 해놔다가 방아 찌러면 가서 찌다 먹고 그랬지 뭐, 통가리에서 퍼다가.}

10321 @ 그른 통가리 어디다 놔썬요?(그러면 통가리 어디다 뒀어요?)

10321 # 마당이.{마당에.}



10321 @ 그냥?{그냥?}

10321 # 그럼 한 디 마당이.{그럼, 추운 데 마당에.}

10321 # 그렇게 도동 마질 때두 이찌.{그러니까 도둑 맞을 때도 있지.}

10321 # 도동노미 막 통거리를 막 퍼갈 때도 일써.{도둑놈이 막 통가리를 막 퍼갈 때도 있어.}

10321 @ 금 집똥 머예요? 집똥?{그럼 짚똥(+짚등우리)이 뭐예요? 짚똥?}

10321 # 집똥?{짚똥?}

10321 @ 집똥.{짚똥.}

10321 # 집 집똥? 도? 지비로 맨튼 도? 그걸 머 몰라 그릉 건.{집, 짚똥? 도? 집으로 만든 도? 그걸 뭐, 몰라 그런 것은.}

10321 @ 먹똥구미 먹똥구미?{먹등구미 먹등구미?}

10321 # 맥똥구미가 머냐?{먹등구미가 뭐냐?}

10321 @ 먹똥구미라고 나완네요? 그릉 거 업써요?{먹등구미라고 나왔네요? 그런 것 없어요?}

10321 # 음써 맥똥구미는.{없어 먹등구미는.}

10321 # 맥:싸리보구 맥:똥구미라고 그랜능게 비다.{먹서리보고 먹등구미라고 그랬는가 보다.}

10321 # 맥:싸리는 지비루 크::게 가마니보덤 메빠를 더 크게 여꺼서.{먹서리는 집으로 크게 가마니보다 몇 배를 더 크게 워어서.}

10321 # 맥:싸리를 맨드러써.{먹서리를 만들었어.}

10321 @ 아 그거 가테요.{아, 그것 같아요.}

10321 # 응 맥싸리를 맨드러따가 우리두 그른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가 보리 퍼서 사른방이다 노코 머거써 맥:싸리다가.{응, 먹서리를 만들었다가 우리도 그런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가 보리 퍼서 사랑방에다 놓고 먹었어 먹서리에다가.}

10321 @ 그건 사랑방에다가?{그건 사랑방에다가?}

10321 # 응 사른방이다 퍼버 노쿠.{응, 사랑방에다 퍼부어 놓고.}

10321 @ 금 씨오쟁이?{그럼 시오쟁이?}

10321 # 오쟁이 씨:오쟁이두 벤 그 벤:파니루다가 지비루 그르케 여꺼서.{오쟁이, 씨오쟁이도 벳, 그 벳단으로다가 집으로 그렇게 워어서.}

10321 # 오쟁이를 맨드러찌.{오쟁이를 만들었지.}

10321 @ 틀려요? 오쟁이아고?{달라요? 오쟁이아고?}

10321 # 오쟁이아고 그건 오쟁이는 쪼그마나게 하고.{오쟁이아고, 그건 오쟁이는 쪼그만하게 하고.}

10321 # 맥:싸리는 크: 막 방아니 그득망아게 해서 그냥 가따 퍼부느능 거 맨틀구래찌 먹싸리.{먹서리는 그 막 방안에 그득하게 해서 그냥 갖다 퍼부어 넣는 것 만들고 그랬지 먹서리.}

10321 @ 그 옛날뿐드리 다 만드른 거에여?{그 옛날분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10321 # 그 이~ 소니로.{그 응, 손으로.}

10321 # 우리 아버지는 지끄르클 잘 맨드러써 잘:: 만드러써 그릉 거.{우리 아버지는 짚그릇을 잘 만들어서 잘 만들었어, 그런 것.}

10321 @ 그거 기수리에요 그게.{그것 기술이에요 그게.}

10321 # 응.{응.}

10321 @ 그미제 씨:아딴지 씨:아딴지.{그럼 이제 씨앗단지, 씨앗단지.}

10321 # 씨:아딴지 가룻 거 그룻 거는 아내씨.{씨앗단지 같은 것 그런 것은 안했어.}

[3초]

10321 @ 단지 가룻 거 따로 이르게 씨아스로 씨알 너놓 거 그렇 건 업써씨요? 단지에다?  
{단지 같은 것 따로 이렇게 씨앗으로 씨앗 넣어 놓은 것, 그런 것은 없었어요? 단지에다?}

10321 # 단지여다가?{단지에다가?}

10321 # 단지다가 고 거시기 저기 콩:씨 그렇 건 마~이 뒤씨 머 단지 쪼기다가.{단지에다가  
그것 거시기 저기 콩씨 그런 것은 많이 뒀지 뭐, 단지 속에다가.}

10321 @ 베 낙 내너네 시물 베는녀?{벼, 나락 내년에 심을 베는요?}

10321 # 벼? 벼는 그런 디다 단지 쪼기다 몬너봐.{벼? 벼는 그런 데다 단지 속에다 못 넣어  
봐.}

10321 # 가마니다 너노야지.{가마니에다 넣어 놓아야지.}

[3초]

10321 @ 금 콩가룻 거만?{그럼 콩 같은 것만?}

10321 # 응.{응.}

10322 @ 그래서 가을거지가 끝나면너 집 지비나 나무로 생알 용품 만들자나요.{그래서 가  
을건이가 끝나면요, 짚, 짚이나 나무로 생활용품 만들잖아요.}

10322 # 음.{응.}

10322 @ 대나무나 싸리나무 가룻 걸로 어떻 거 어떻 거 만드려요?{대나무나 싸리나무 같은  
것으로 어떤 것 어떤 것 만들어요?}

10322 # 대나무루 비:짜락 맨들고.{대나무로 빗자루 만들고.}

10322 # 비 맨들고 갈키도 맨들고.{비 만들고 갈퀴로 만들고.}

10322 # 솜씨 존 사람드른 소쿠리도 만들구 그래씨머.{솜씨 좋은 사람들은 소쿠리도 만들고  
그랬지 뭐.}

10322 @ 싸리나무로는녀?{싸리나무로는요?}

10322 # 싸리때 나무루 바작.{싸리나무로 발채.}

10322 # 바자기라구 지게우이다.{발채라고 지게 위에다.}

10322 # 이르게 언저가꾸 땡기머서.{이렇게 얹어갖고 다니면서.}

10322 # 언능 거 이씨 그라야 무얼 다머가꼬 오지.{없는 것 있어, 그래야 뭘 담아갖고 오지.}

10322 # 알지게에다가는 멀 모뎡짜나 발이 가서 바껴지를 할라몬.{빈 지게에다가는 뭘 못  
담잖아, 발에 가서 발걸이를 하려면.}

10322 # 바자글 여겨서 거그다 매다라 그기다가 이르게 주저 안쳐노:야.{발채을 위어서 거기  
다 매달아 거기다가 이렇게 주저 얹혀 놓아야.}

10322 # 바티서 다 머 다:: 해서 바자기다가.{발에서 다 뭐 다해서 발채에다가.}

10322 # 이~? 질머지고 지베오지.{응? 짊어지고 집에 오지.}

10322 @ 음 그렇 걸 만드려씨요? 또 다룻 거는?{응,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또 다른 것  
은?}

10322 # 응.{응.}

10322 # 다룻 거 난 암만드려씨.{다른 것 나는 안 만들었어.}

10322 # 우리 아버지는 그 잘 만드려.{우리 아버지는 그것 잘 만들어.}

10322 # 바작또 맨들지만 싸리비로 비:찌락 갈키.{발채도 만들지만 싸리비로 빗자루, 갈퀴.}

10322 # 대나무 바시 우리 지비 여기 아니고 저 우:지배 가 이쨌는디.{대나무 밭이, 우리 집 이 여기 아니고 저 윗집에 가 있었는데.}

10322 # 데:개 커 대바시 그래서 막 대가 이르게 조아.{되게 커 대밭이 그래서 막 대나무가 이렇게 좋아.}

10322 # 그러면 그걸로다가 비:찌락또 맨들고 갈키도 맨들고 막.{그러면 그걸도 빗자루도 만들고 갈퀴도 만들고 막.}

10322 # 고령 거 해서 햐:찌.{그런 것 해서 했지.}

10322 @ 그러며는 머 대나무로도 만드시고 지브로도 만드시고?{그러면은 뭐 대나무로도 만드시고, 짚으로도 만드시고?}

10322 # 응.{응.}

=1 @ 완전 기술자선네요 그렇 거 어르게 만들지?{완전 기술자셨네요, 그런 것 어떻게 만들지?}

=1 # 잘 맨드러 잘 만드르셔쎄.{잘 만들어, 잘 만드셨어.}

10322 @ 멍석까툇 거또?{멍석 같은 것도?}

10322 # 멍석또 맨들고 도:짜리두 치:고 자리두 치:고 왕골 이 왕골자리 머 방석 차:: 이뿌게 잘:: 맨드러.{멍석도 만들고 돛자리도 치고 자리도 치고 왕골, 응, 왕골자리 뭐 방석 참 이쁘게 잘 만들어.}

10322 @ 그런 거 하능 거 다?{그런 것 하는 것을 다 [x보셨어요x]?}

10322 # 그리 지 지금 가뜨른 참 뒤따가 봐도 할꺼 그저니는 세상 구차내서 그냥 지버 내버려 버리고 태워 내버려 버리고 그냥.{그래 지 지금 같으면 참 뒀다가 봐도 할 거야, 그전에는 세상 귀찮아서 그냥 집어 내버리고 태워 내버리고 그냥.}

=1 @ 아까워라.{아까워라.}

=1 # 지버 내버려찌 엔나리는.{집어 내버렸지 옛날에는.}

=1 # 그런 지끄룩만 마나지 이른 이~? 그룩.{그런 짚그릇만 많았지 이? 그릇.}

=1 # 그게 머여 지금치름 다라 가툇 거 그.{그게 뭐야 지금처럼 대야 같은 것 그.}

=1 # 꼬무로 항 거 그렇 거시 읍쭈니께 그거 내놓게 그르케 조아가꾸 그릉 거슨 다 내버려 버려쎄 그냥.{꼬무로 한 것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것 나오니까 그렇게 좋아갖고 그런 것은 다 내버려 버렸어 그냥.}

=1 # 지끄를 가따 가따 뒤쓰른.{지금을 갖다 뒀으면.}

=1 # 저 가따 봐 나 내다 봐두 지금 큰:: 돈 바들꺼다.{저 갖다 봐, 내, 내다 봐도 지금 큰 돈을 받을 것이다.}

=1 @ 에 귀항 거 가테여.{네, 귀한 것 같아요.}

=1 # 잉.{응.}

=1 @ 사라미 만드러쓰니까 비싸져 그렇 거.{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비싸쥬 그런 것.}

=1 # 맨드러도 얼마나 이뿌게 잘 맨드러찌 조::옥 꼬실가치.{만들어도 얼마나 이쁘게 잘 만들었지 족 꽃같이.}

10322 @ 삼태기도 만드셔쎄요?{삼태기도 만드셨어요?}

10322 # 음 삼태미.{응, 삼태기.}

10322 @ 삼태미:~?{삼태미(+삼태기)?}

10322 # 이~ 삼태미.{응, 삼태기.}

10322 # 재:도 그런 디다 처내써 엔나리 때가꾸 삼태미다.{재도 그런 데다 처냈어, 옛날에 때서 삼태기예다.}

10322 @ 기술짜시네 다들?{기술자시네 다들?}

=1 @ 할머니 그런 거 쫘 배우시죠?{할머니 그런 것 쫘 배우시죠?}

=1 # 그게 멀 머더러 배워 그릉 걸 그르케.{그게 뭘 뭐하러 배워, 그런 것을 그렇게.}

=1 @ 지금도 작푸무로 만들쥬 이짜나요.{지금도 작품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1 # 그르치 엔나레 배워놔쓰른 작푸미로 햐 그까진 그릉 거 하도 아냐 구차내 심난시러.  
{그렇지 옛날에 배웠으면 작품으로 해, 그까짓 그런 것 하지도 안 해, 귀찮아, 심란스러워.}

10323 @ 그럼제 겨우레 땀 땀감 이짜내요 어터케 어떻 거 어떻 거 장마나세요 그런 거?{그럼 이제 겨울에 땀, 땀감 있잖아요, 어떻게 어떤 것 어떤 것 장만하세요, 그런 거?}

10323 # 땀:감 머 지푸라기 때:고 방아 찌면 맵찌도 때:구.{땀감 뭘 지푸라기 때고 방아 찌면 맥겨(+왕겨와 보리겨를 같이 씹)도 때고.}

10323 # 사니 가서 풀도 벼다 때:고 그래찌 무어:: 땀까미라구는.{산에 가서 풀도 베어다 때고 그랬지 뭘 땀감이라고는.}

10323 # 사니 가른 나무도 마나자나.{산에 가면 나무도 많잖아.}

10323 # 장작깨비니 마니 그릉 거또 벼다 때:고.{장작깨비니 많이 그런 것도 베어다 때고.}

10323 # 몰래 벼:야지 일본놈 찌기는.{몰래 베어야지 일제놈 적에는.}

10323 # 그거 걸러따는 지:너까.{그것 걸렀다는 징역 가.}

10323 @ 그래요?{그래요?}

10323 # 그럼 왜정시대는 소나무도 제대로 맘대로 모뻘써 지금도 모뻘.{그럼, 왜정시대는 소나무도 제대로 맘대로 못 베었어, 지금도 못 베어.}

10323 @ 금 사네다 이르게 글거 모으는 그런 이름이 머예요?{그럼 산에다 이렇게 굵어 모으는 그런 이름이 뭐예요?}

10323 # 솔까루 솔:까루.{솔가리 솔가리.}

10323 @ 또? 나문닙 까통 거 이렇 거는?{또? 나뭇잎 같은 것 이런 것은?}

10323 # 그거 솔 그걸 그 궁능 거슨 솔까루라구라구 나문닙 그릉 건 가랑니비라구 하구.{그것 솔, 그것, 그 굵는 것은 솔가리라고 그러고 나뭇잎 그런 것은 가랑잎이라고 하고.}

10323 # 이 찌능 거슨 나무 위:에서.{이 찌는 것은 나무 위에서.}

10323 # 이르게 쳐다보모는 나무가 주어가꾸 인는.{이렇게 쳐다보면은 나무가 죽어갖고 있는.}

10323 # 그거 나무더러 삭:쟁이라구라거든.{그거 나무더러 삭정이라고 그러거든.}

10323 # 그거 난 까꾸가서 쳐 내려다가 때:구 그래찌 삭:쟁가지.{그것 낫 갖고 가서 쳐 내려다가 때고 그랬지 삭정가지.}

10323 @ 삭쟁가지?{삭정가지?}

10323 # 응.{응.}

10323 @ 솔까루?{솔가리?}

10323 # 응.{응.}

10323 @ 장작까통 거는너?{장작같은 것은요?}

10323 # 장:자근 소나무 벼서 빠:개능 게 장:자가지.{장작은 소나무 벼서 패는 것이 장작이지.}

10323 @ 그렇 거 다 나 남자드리 하셔쨌네요?{그런 것 다 남, 남자들이 하쨌겠네요?}

10323 # 아 그르치 남자드리 하지 머 여자더른 할쑤 업찌.{아, 그렇지, 남자들이 하지 뭐, 여자들은 할 수 없지.}

10323 @ 여자더른 어떻 거 가꼬 와씨요?{여자들은 어떤 것 갖고 왔어요?}

10323 # 무 여자더른 무어 때다 주는 해능 김만 하지 뭘 여자더리 머랴 하기는.{뭐 여자들은 뭐 때다 주는, 해놓은 것만 하지, 뭘 여자들이 뭘 해 하기는.}

10323 # 여자더른 엔나레 질싸미나 하까.{여자들은 옛날에 길쌈이나 할까.}

10323 # 베짜구 빨래아구.{베짜고 빨래하고.}

10324 @ 그럼제 겨오레 겨울똥안 머글꺼 어트게 갈무리하세 하씨씨요?{그럼 이제 겨울에 겨울동안 먹을 것 어떻게 갈무리하세, 하셨어요?}

10324 # 겨울또롱 머글꺼 갈무리는 머.{겨울동안 먹을 것 갈무리는 뭐.}

10324 # 씨라구두 매다라나 여꺼 놔따가 머꼬.{씨래기도 매달아서 엮어 놔다가 먹고.}

10324 # 주루 짐치 마~이 담꾸 무수 구덩이다 무더따가 막 무수내서.{주로 김치 많이 담고, 무 구덩이에다 묻었다가 막 무 내서.}

10324 # 지저머꾸 끄려머꾸 머 그르 거 하지 머 무수꾸텡이.{지저먹고 끓여먹고 그런 것 하지 뭐, 무 구덩이[x에서 꺼내서x].}

10324 @ 밤:가통 거는?{밤 같은 것은?}

10324 # 바:른 이 동네는 읍씨 귀애 귀애.{밤은 이 동네는 없어 귀해, 귀해.}

10324 @ 귀해요?{귀해요?}

10324 # 이~ 산중이 저러 밤나무두 읍씨 여기.{응, 산중에 저런 밤나무도 없어 여기.}

10324 @ 감자 가통 거 이르케.{감자 같은 것 이렇게.}

10324 # 이~ 고구마 고구마 시머놔따 머꼬.{응, 고구마 고구마 심어놔다가 먹고.}

10325 @ 그럼 바메 그 어두워쉴 때 겨우레 겨우리건 여르미건.{그럼 밤에 그 어두웠을 때 겨울에, 겨울이건 여름이건.}

10325 @ 조명기구가 어트케 처으메 아무거또 업씨쉴 때부터.{조명기구가 어떻게,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10325 # 응.{응.}

10325 @ 할머니 아시는 대로 차례대로 이케 발찌낭 거 쫘 예기 해주세요 조명기구 이런 거.{할머니 아시는 대로 차례대로 이러하게 발전한 것 좀 얘기해주세요, 조명기구 이런 것.}

10325 # 조::명기구가 바 머 바 여기 지금 불롤란들구 정기 안드와쉴 때는.{조명기구가 봐, 뭐, 봐 여기 지금 불을 안 들어 오고 전기 안 들어 왔을 때는.}

10325 # 불켜가꾸 땡겨찌:: 불로 호야빨.{불켜갓고 다녔지, 불로 남포등불.}

10325 # 그거꾸 읍씨가꾸 그게 머냐 초 초도 마니 읍쑤닝까.{그것도 없어갓고 그게 뭐냐 초, 초도 많이 없으니까.}

10325 # 등자니다가 지름 너서 호야빨 들구 땡기머서 이르케 머 해머꼬.{등잔에다가 기름 넣어서 남포등불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해먹고.}

10325 # 엔::나레 추석 또라오머는 이~? 저깅 부쳐서 애덜 줄라른 아이구 얼마나 고상한지 아냐?{옛날에 추석 돌아오면은 응? 부침개 부쳐서 애들 주려면, 아이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느냐?}

10325 # 초롱빨 켜가꾸 그냥 바람 부루문 꺼지고 또 키구 또 꺼지구.{초롱불 켜서 그냥 바람 불면 꺼지고 또 켜고 또 꺼지고.}

10325 # 그래노코 밤새더락 안저서 부쳐씨 엄니랑 나랑.{그래놓고 밤새도록 앉아서 부쳤어

어머니랑 나랑.}

10325 # 그 부치니라구.{그 부치느라고.}

10325 # 아이구 참 대가나게 사려써.{아이고, 참 대근하게 살았어.}

10325 # 엔날싸람더런 말 할꺼두 읍써.{옛날 사람들은 말 할 것도 없어.}

10325 # 내가 이 동네 증기 드와쓸 떼기 잉.{내가 이 동네 전기 들어왔을 적에 응.}

10325 # 메썸 지금 메썸년 돼따 정기 드론지가.{몇 십, 지금 몇 십년 됐다, 전기 들어온 지가.}

10325 # 정기 완는디 증기뿌리 탁 켜지는데 눈물이 쑥 빠지더라.{전기가 왔는데 전기불이 탁 켜지는데 눈물이 쑥쑥 빠지더라.}

10325 # 우리 어무니가 증기두 읍써 고상하구 애덜 머 해미기니라구.{우리 어머니가 전기도 없이 고생하고 애들 뭐 해 먹이느라고.}

10325 # 그 등잔뿔 호롱뿔 켜가꾸 땡기머서 저갈 부친 생가기 나서.{그 등잔불 호롱불 켜갖고 다니면서 부침개 부친 생각이 나서.}

10325 # 그::르게 화낭게 기낭 마미 쟁::하니 그 생각버텀 떠드러 가드라구.{그렇게 환하니까 그냥 마음이 째하니 그 생각부터 떠올라 가더라고.}

10325 # 어머니 생각 읍.{어머니 생각, 응.}

10325 @ 정기뿔 처음 보시니까 어떠셔썬요?{전기불 처음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10325 # 아 그런 머 호가미야 얼마나 조아 중이뿔 켜쓸 떼기 막.{아 그런 뭐 호강이야 얼마나 좋아 전기불 켜을 적에 막.}

10325 # 세상이 개벽땡 거 가트지 머 정기가 드환는디.{세상이 개벽된 것 같지 뭐, 전기가 들어왔는데.}

10325 # 그 손자가 머라고 손자 새끼덜 해주니라구 그 고상하구 생여 하던 거시.{그 손자가 뭐라고 손자들 해주느라고 그 고생하고 생전 하던 것이.}

10325 # 아이 누니 탁 눈무리 빙돌더라구 너무나 감격 때가꾸.{아이고 눈에 탁 눈물이 빙돌더라고, 너무나 감격 돼갖고.}

10325 # 고상을 하도 마니 해서 할머니가.{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할머니가.}

10325 @ 부릅쓸 때 고생 마니 하셔썬 할머니?{불 없을 때 고생 많이 하셨지요 할머니?}

10325 # 지그른 참 퍼냐.{지금은 참 편해.}

10325 # 퍼냐 이게 사능 거시 머 퍼나지 이거 머머.{편해 이게 사는 것이 뭐 편하지 이것 뭐뭐.}

10325 # 얼마나 이를 마니 하냐.{얼마나 일을 많이 하냐.}

10325 # 보리를 훑:라.{보리를 훑으나.}

10325 # 지그른 보리두 양갈지 제오 나랑만 가라서 머꼬.{지금은 보리도 안 갈지 겨우 벼만 갈아서 먹고.}

10325 # 나라글 훑:라 기계가 다:: 훑터서 저 말려가꾸.{나라를 훑으나 기계가 다 훑어서 저 말려갖고.}

10325 # 말리능 거또 돈 디려서 말려서 다 가서.{말리는 것도 돈 들여서 말려서 다 가서.}

10325 # 방아까니 가따주면 쌀로 그냥 금방 방아도 금방내 썬서 가조고 얼마나 조아.{방앗간에 갖다주면 쌀로 그냥 금방 방아도 금방썬서 가져오고 얼마나 좋아.}

10325 @ 그럼제 아무꺼도 업쓸 때 초 그냥 호 호롱뿔 호야뿔 그리고 등잔뿔.{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초, 그냥 호 호롱불, 남포등불, 그리고 등잔불.}

10325 # 응 호롱뿔 호압 켜쎄 응 등잔뿔.{응, 호롱불, 남포 켜서, 응, 등잔불.}  
 10325 @ 겨릅뿔 가통 거는 머예요? 겨릅뿔?{겨릅불 같은 것은 뭐예요? 겨릅불?}  
 10325 # 겨르뿌리 머여?{겨릅불이 뭐야?}  
 10325 @ 고콜불? 이렇 거는 모르시져?{고콜불? 이런 것은 모르시죠?}  
 10325 # 몰라 그렇 거는.{몰라 그런 것은.}

#### 1.3.4.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10326 @ 이제 소머기는 거하고 일쏘네 대해서 여쭙보게요.{이제 소 먹이는 거하고 일손에 대해서 여쭙볼게요.}  
 10326 @ 소를 머길려면 어떤 시서리 피료 해쎄요 할머니?{소를 먹이려면 어떤 시설이 필요했어요, 할머니?}  
 10326 # 소년 어떤 시서리 오양 저:노코 응 아침 저녁기로 소죽 꾸려서 주능 거시 쥔:: 힘드러.{소는 어떤 시설이, 외양간 지어놓고, 응, 아침 저녁으로 소죽 끓여서 주는 것이 제일 힘들어.}  
 10326 # 소릴 그냥 아무케나 몬 모뚜자나 일쏘라.{소를 그냥 아무렇게나 못, 못 두잖아, 일쏘라.}  
 10326 # 부러머글랑게.{부러 먹으려니까.}  
 10326 # 고, 소죽글 끄릴라른 거기다가 콩도 한 데씩 지버느야야.{거, 소죽을 끓이려면 거기다가 콩도 한 되씩 집어넣어야 해.}  
 10326 # 그러케 해가지고 소죽 끄려가꾸 그냥 사라미 이기 쳐다봐도 머꾸시폴 쟁도여 구수루::마니 콩 쌀문 무리.{그렇게 해가지고 소죽 끓여가지고 그냥, 사람이 이렇게 쳐다봐도 먹고싶을 정도야, 구수한게 콩 삶은 물이.}  
 10326 # 지비 지비 쌀마저가꾸 데게 꾸쭈루마.{짚이, 짚이 삶아져가지고 되게 구수해.}  
 10326 # 거다 보리쌀도 막 한테박씩 퍼너가꾸 막 쌀머노먼 참 짐만 아니른 사라미 머거도 조치.{거기다 보리쌀도 막 한 되씩 퍼넣어가지고 막 삶아놓으면 참, 짚만 아니면 사람이 먹어도 좋지.}  
 10326 @ 그러케 잘 쥘써요?{그렇게 잘 쥘써요?}  
 10326 # 응.{응.}  
 10326 # 그케 해쎄 으-ㅇ감니미.{[x그렇게x] 했어, 영감님이.}  
 10326 @ 그 소 바불 머라고 한다고요?{그 소 밥을 뭐라고 한다고요?}  
 10326 # 소죽 소죽 끄린다구랴 소죽.{소죽, 소죽 끓인다고 그래, 소죽.}  
 10326 @ 또 소 키르 기를려면 피료항 거 머.{또 소 기를, 기를려면 필요한 거 뭐.}  
 10326 # 모 인자 사람 소니루 인자 그 주꾸려서 메기구 내노 내:다가 저 마당이다는 만날 몬 놔두니게 들빠까티 가따 내:다 매:따가 드려오고 그래쎄.{뭐 인제 사람 손으로 인제 그죽 끓여서 메기고 내놓, 내다가 저 마당에다는 매일 못 놔두니까 들 바깥에 갖다 내다 땀다가 들여오고 그랬지.}  
 10326 # 소니 마:니 가.{손이 많이 가.}  
 10326 @ 그래요? 똥또 치우고?{그래요? 똥도 치우고?}  
 10326 # 그럼 똥 치우구.{그럼, 똥 치우고.}

10327 @ 금 이제 나메 집 쏘도 머겨썬요 엔나레는?{그럼 이제 남의 집 소도 먹었어요, 옛날에는?}

10327 # 으응.{아니.}

10327 @ 그럼 거 업썬썬요?{그럼 이제 남의 집 소도 먹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10327 # 음.{응.}

10327 # 메기는 사람도 이썬썬.{먹이는 사람도 있었어.}

10327 @ 이썬썬요?{있어요?}

10327 # 이 백짱눔 소.{응, 백짱눔 소.}

10327 # 인저 이 명질 때 데머넌 파러리 서리 이 때 데머넌 파러리른 마:니 양가따마내도 슬때모기는 정치에 소 자버가꼬 백짱눔더리 이 거시강게 이 동네다가 막 푸리 메겨서 면::마리썬 메기는 사람두 이썬썬.{인제 이 명질 때 되면은 팔월에, 설에, 이 때 되면은 팔월에는 많이 안 갖따, 아무래도 설 대목에는 정초에 소 잡아갖고 백짱눔들이 이, 거시기하니까 이 동네에다가 막 풀어 먹여서 몇 마리썬 먹이는 사람도 있었어.}

10327 # 한달래.{한 달 내.}

10327 @ 그럼 어뜨케 메겨 주눔 거예요 다?{그럼 어떻게 먹여 주는 거예요, 다?}

10327 # 메겨주지 메겨주른 돈 주지 인자.{먹여주지, 먹여주면 돈을 주지 인제.}

[4초]

10327 @ 도는 어뜨케 줘요 그럼?{돈은 어떻게 줘요?}

10327 # 몰러 하루에 얼마썬 이케 일땅을 얼마썬 쳐서 줘나 어쨌나 그러커는 아내봐서 몰라.{몰라, 하루에 얼마썬 이렇게 일땅을 얼마썬 쳐서 줘나 어쨌나, 그렇게는 안 해봐서 몰라.}

10327 # 안 머겨바썬.{안 먹여봤어.}

10327 @ 그런 소를 배내썬라고 하세요?{그런 소를 배넛소라고 하세요?}

10327 # 배:내썬라고 아나 아나지.{배넛소라고 안하, 안 하지.}

10327 @ 머라고 하신다고요 그런 소를?{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런 소를?}

10327 # 그건 백짱눔 백짱눔 소는 메겨주는 소구.{그건 백장, 백장 소는 먹여주는 소고.}

10327 # 배메기는 다른 사라미 나가꼬 이런 개이니 나가꼬 송아썬를 라므는 우리두 배메기르 줘썬.{배메기는 다른 사람이 나갖고, 이런 개인이 나서 송아지를 나면 우리도 배메기를 줘어.}

10327 # 키워서 가조머는 반썬 나나명눔 거.{키워서 가져오면은 반썬 나눠먹는 거.}

10327 @ 음, 그럼 거 하썬썬썬요?{음, 그런 거 하썬썬썬요?}

10327 @ 그런 소를 머라고 하신다고요?{그런 소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10327 # 배메기소.{배메기소.}

10327 @ 음 그게 배메기썬구나.{음, 그게 배메기썬구나.}

10328 @ 그럼 이제 소 길드리는 방법.{그럼 이제, 소 길들이는 방법.}

10328 # 소 길드리는 거 머 정기질 할라른 얼마나 심들다고.{소 길들이는 거 뭐, 쟁기질 하려면 얼마나 힘들다고.}

10328 # 소 길디릴 때.{소 길들일 때.}

10328 @ 어뜨케 길드?{어떻게 [x길들였어요x]?}

10328 # 끌고나가.{끌고나가.}



10328 # 끌고 나가서 저 들빠까테 가서 쟁기 그양 메:가꼬 허쟁기 그냥 험빠 모파닝께 츠미는 모파니~께.{끌고 나가서 저 들 바깥에 가서 쟁기 그냥 매갖고, 헛쟁기, 그냥 헛파, 못 파니까, 처음에는 못 파니까.}

10328 # 쟁기만 그냥 빈 걸루 끌구 땡기구 끌구 땡기구.{쟁기만 그냥 빈 걸로 끌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10328 # 질드릴라른 경::장히 심드러 우리 으—o감님도 지란번 디릴라른 그거.{길들이려면 굉장히 힘들어, 우리 영감님도 길 한 번 드리려면, 그거.}

10328 # 부릴몰라문 애::다러.{부릴, 몰려면 애 달아.}

10328 # 보통 힘드릉 게 아녀 소 질드리기가.{보통 힘들은 게 아니야, 소 길들이기가.}

10328 @ 그 소 드를 소 말 잘 드게 하려면 코.{그 소 들을, 소 말 잘 듣게 하려면, 코.}

10328 # 코뚜레 뜨르야지.{코뚜레 뚫어야지.}

10328 @ 예 그거 쫌 얘기해 주세요.{예, 그거 쫌 얘기해 주세요.}

10328 # 코뚜레를 코로 뺑 뜨러가꼬 참나무 이쓰야야.{코뚜레를 코로 뺑 뚫어 가지고, 참나무 있어야 해.}

10328 # 참나무 매::끄마게 이 홀터가꾸 부리다 딱 굳는다.{참나무 말끔하게 이렇게 훑어 갖고 불에다 딱 굽는다.}

10328 # 귀가꼬 뚱::구라케 이케 맨드러.{구워갖고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10328 # 예게도 부리다 구문 나무가 날짱날짱해지머는 확 휘드라구.{[x그래도x] 불에다 구우면 나무가 날짱날짱해지머는 확 휘더라고.}

10328 # 휘어가꼬 코뚜렌 코 드르갈 만치 이르게 휘게 해노코서는 소를 막 매다라가꼬 코꾸머글 막 뜨를라른 세상 지랄을 다야 아프니까.{휘어가지고, 고뚜레 코 들어갈 만큼 이렇게 휘게 해놓고서는 소를 막 매달아갖고 콧구멍을 막 뚫으려면 세상 지랄을 다해, 아프니까.}

10328 # 그래서 그놈 맨드러가꼬 그놈을 폭 꺾서 해노머는 아폴 꺼 아녀.{그래서 그놈 만들어 갖고 그놈을 폭 꺾서 해놓으면은 아폴 것 아냐.}

10328 # 사::무 아푸문 소비늘 거기다 보더라고 소 코에다가.{사뭇 아프면 소변을 거기다 보더라고, 소 코에다가.}

10328 @ 정말루요?{정말로요?}

10328 # 이~.{응.}

10328 @ 사라미?{사람이?}

10328 # 이~ 사라미 소비늘 거기다가 오주를 거기다 사뭇 싸.{응, 사람이 소변을 거기다가, 오줌을 거기다 사뭇 싸.}

10328 # 그러면 코가 휘 나서.{그러면 코가 쉽게 나아.}

10328 # 나서서 인자 코뚜레를 뚜루야 소가 이른 마를 잘드찌.{나아서 인제 코뚜레를 뚫어야 소가 이른(+이르다) 말을 잘 듣지.}

10328 # 마란드러 심::드러서 모 뿌려머거.{말 안들어, 힘들어서 못 부려먹어.}

10328 # 막 자브땡기야 코가 아풍게 마를 드찌.{막 잡아당겨야 코가 아프니까 말을 듣지.}

10328 # 우리가 소 미겨서 아러.{우리가 소 먹여서 알아.}

10328 @ 고뻬는 머예요 고뻬?{고뻬는 뭐예요, 고뻬?}

10328 # 꼬뻬이?{고뻬?}

10328 @ 고뻬 고뻬 끈다고 하자나요 고뻬 맨다.{고뻬, 고뻬 끈다고 하잖아요, 고뻬 맨다.}

10328 # 코 쿠 뜨러가꼬.{코, 코 뚫어갖고.}

10328 # 여기다가 뒤 모가지다가 이르게 말꿀레 가치 이러케 해서 째마.{여기다가 뒤 목아 지에다가 이렇게 말꿀레 같이 이렇게 해서 잡아 매.}

10328 # 그거 보고 고뽕이라 고라더라고.{그거 보고 고뽕이라고 그러더라고.}

[4초]

10329 @ 할머니 그럼제 소를 이제 이르게 부리자나요 그 때 소 모는 소리가 이따면서요? {할머니 그럼 이제 소를 이제 이렇게 부리잖아요, 그 때 소 모는 소리가 있다면서요?}

10329 # 이라.{이라.}

10329 @ 그거쫘 알려주세요.{그것 좀 알려주세요.}

10329 # 이라 찌찌찌찌 그라야야.{이라 찌찌찌찌 그라야 해.}

10329 # 찢 이라 하머는 소더러 이 사라미로 마라면 야 하는 거랑 항가지여.{찌, 이라 하머는 소더러, 이 사람으로 말하면 야! 하는 거랑 한가지야.}

10329 # 이라 하먼 아리드러.{이라 하먼 알아들어.}

10329 # 그래 찌찌찌찌 하먼 가라는 소리여.{그래서 찌찌찌찌 하먼 가라는 소리야.}

10329 @ 아프로?{앞으로?}

10329 # 이 아프로 잘 가.{이, 앞으로 잘 가.}

10329 # 우리 노인네가 쟁기지르래가꼬와서 질머지고 이라 하믄 이르나.{우리 노인네가 쟁기질을 해갖고와서 쫓아지고 이라 하먼 일어나.}

10329 # 이러나서 인자 테리구 나가자나.{일어나서 이제 테리고 나가잖아.}

10329 # 와 하먼 가마~이 서꾸 와 하믄 가마니 서썩.{와 하먼 가만히 섰고, 와 하먼 가만히 섰어.}

10329 # 가마니 서썩랑 소리여 아 와 하믄.{가만히 섰으라는 소리야, 아, 와 하먼.}

10329 # 그래 제 다 아라드뜨라고.{그래서 모두 다 알아듣더라고.}

10329 # 그라고서는 인자 쟁기질 갈 때 이라 찌찌찌찌찌찌 하므 이르게 거러가.{그리고서는 이제 쟁기질 갈 때 이라, 찌찌찌찌찌찌 하먼 이렇게 걸어가.}

10329 @ 와 싱기하다.{우와, 신기하다.}

10329 # 음 싱기해 잘 드러.{음, 신기해, 잘 들어.}

10329 # 와 하므 서썩.{와 하먼 서 있어.}

10329 # 가마니 서썩.{가만히 서 있어.}

10329 @ 또 머 오른쪼그로 가고 왼쪼그로 가능 거는?{또 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것은?}

10329 # 몰라 나 그거는 오른쪽 왼쪼그로 가능 거.{몰라, 나 그건,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거.}

[5초]

10329 @ 그럼 암소 이르미 따로 이꼬 황소 이르미 따로 이썩어요?{그럼 암소 이름이 따로 있고, 황소 이름이 따로 있어요?}

10329 # 몰라 이름 왕소.{몰라, 이름 암소.}

10329 # 황소 암소 이름 안 지꾸 그냥.{황소, 암소 이름 안 짓고 그냥.}

[5초]

10329 # 다른 사람드른 이르믄 전나 몰라도 우리는 이름 안 지꾸 소만 메겨 바썰게.{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지었나 몰라도 우리는 이름 안 짓고 소만 먹여 봤으니까.}

10329 @ 이제 소 뽕로 여러가지가 난대요.{이제 소 뽕로 여러가지가 난대요.}

10329 # 응.{응.}

10329 @ 뿔 뿔 모양에 따라 이름이 또 다르대요.{뿔, 뿔 모양에 따라 이름이 또 다르대요.}

10329 # 그러능 거지.{그러는 거지.}

10329 # 소도 메기머는 이게 쪽 빠든 소두 이꾸 이로::케 꼬부라지는 소두 이꾸 이::쁘게 잘:: 라는 소두 이꾸 그랴 소가.{소도 먹이면은 이렇게 쪽 뿔은 소도 있고, 이렇게 꼬부라지는 소도 있고, 예쁘게 잘 나는 소도 있고 그래, 소가.}

10329 # 소두 여르 마리 메겨서 파라바편디 소 잘 메겨써 우리 으—○감니미.{소도 여러 마리 먹여서 팔아봤는데, 소 잘 먹였어 우리, 영감님이.}

10329 # 그래서 가지구 가른 상때여, 논산 소저니 가른.{그래서 가지고 가면 상대야, 논산 소전에 가면.}

10329 # 아라줘 아주 우리 소 가머는.{알아줘 아주, 우리 소 가머은.}

10329 # 음 잘 메가꼬 온다구 그냥.{음, 잘 먹여갖고 온다고 그냥.}

10329 @ 금 소뿌리 뽕드탕 건 이런 무르 이런 뿔 무슨 뿌리라고 하세요?{그럼 소뿔이 반듯한 건, 이런 무슨, 이런 뿔 무슨 뿔이라고 하세요?}

10329 # 몰라 나는 그롱 거.{몰라, 나는 그런 거.}

10329 @ 이케 똥고랑 거랑 머 이런 이름 이따드데?{이렇게 동그란 거랑 뭐 이런 이름이 있다던데?}

10329 # 소 뿌리 대한 이름 몰라.{소 뿔에 대한 이름 몰라.}

10329 @ 소 나이 나이에 따라서 이름 이써요?{소 나이, 나이에 따라서 이름 있어요?}

10329 # 이빨 보고 알데.{이빨 보고 알데.}

10329 # 이 이르게 딱 벌려보면 메 깨 메 깨 다.{이 이렇게 딱 벌려보면 몇 개, 몇 개, 다.}

10329 # 그짐말도 모대.{거짓말도 못 해.}

10329 # 음 그짐말도 모다.{응, 거짓말도 못 해.}

10329 # 이 소 볼쭈 아는 사람더른 이 딱 뿔리고 한 살 머건네 두 살 머건네 그르더라고. {이 소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딱 벌리고 한 살 먹었네, 두 살 먹었네 그러더라고.}

10329 @ 한 살 머근 소를 보고 머라고 하세요?{한 살 먹은 소를 보고 뭐라고 하세요?}

10329 # 몰라 나 한 살 머그 소 보고 머라고 하나.{몰라 나, 한 살 먹은 소 보고 뭐라고 하나.}

10329 # 일련 되른 한 살 멍는다는디.{일 년 되면 한 살 먹는다는데.}

[4초]

10330 @ 금 조은 소 고르는 방법 아세요 조은 소 고르는 방법?{좋은 소 고르는 방법 아세요, 좋은 소 고르는 방법?}

10330 # 몰라 나는 그양 따라만 땡겨서.{몰라, 나는 그냥 따라만 다녀서.}

10330 # 돈:만 바드머는 나안티 매:껴서 내가 돈:만 가주오 이찌.{돈만 받으면은 나한테 맡겨서 내가 돈만 가지고 있지.}

10330 # 우리 으—○감니른 소 볼라른 잘 바.{우리 영감님은 소 보려면 잘 봐.}

10330 # 잘 보고 잘 메겨써.{잘 보고, 잘 먹였어.}

10330 # 가주 가른 시장이서 일등애.{가지고 가면 시장에서 일등해.}

[4초]

10331 @ 금제 소 말고 집 일 도와주는 인제 머슴 이써자나요 할머니.{그럼 이제 소 말고 집 일 도와주는 인제 머슴 있었잖아요, 할머니.}

10331 # 음.{응.}

10331 @ 음 그리고 엔나레 머슴사리 여러가지 종류가 이썬썬 머슴사리도?{음, 그리고 옛날에 머슴살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머슴살이도?}

10331 # 모르지 여러가지 종류가 이썬나 어썬나.{모르지, 여러가지 종류가 있었나 어썬나.}

10331 # 어려썬 때게 나 어려썬 때기 아부지 엄니가 이 동네 사는 양반 일꾸늘 두구 이를 시켜머근 이 인는디 한 동네 우아래 찌비 이르게 살던 사라마 이를 해썬.{어렸을 적에, 나 어렸을 적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 동네 사는 양반, 일꾼을 두고 일을 시켜먹은 이 있는데 한 동네 위아래 집에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일을 했어.}

10331 # 건 몰라 나는 어려썬 때라.{그건 몰라 나는, 어렸을 때라.}

10331 # 우리는 우리 지금 귀이 우리 손녀딸 그거마날 때기 그일 그니가 와서 머슴 살더라고.{우리는 우리 지금 귀회(+제보자의 손녀), 우리 손녀딸, 그거 만할 적에 그 일 그 사람이 와서 머슴 살더라고.}

10331 @ 그럼 무슨일 하세요 그런 분드른?{그럼 무슨 일 하세요, 그런 분들은?}

10331 # 그 농사일 하지 뭐 하.{그 농사일 하지, 뭐해.}

10331 @ 다?{다?}

10331 # 응 가치.{응, 같이.}

10331 @ 상머슴 머 중머슴 이렇 거?{상머슴, 중머슴, 이런 거 [x있어요x]?}

10331 # 상머시른 남 젤: 자라는 일꾸니 나이 마니 머거서 모동 거시 다 하는 거시 상머시 밀티지 머.{상머슴은 남 [x일x], 제일 잘하는 일꾼이 나이 많이 먹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상머슴일테지 뭐.}

10331 # 중머시른 애덜.{중머슴은 애들.}

10331 @ 아 그래요?{아, 그래요?}

10331 # 응.{응.}

10331 @ 하머시른 이썬썬?{하머슴은 있어요?}

(+고개로 '없다'는 표시를 함)

10331 @ 그럼 할머니 엔나레 소작 부치능 거 아세요 그거?{그럼 할머니 옛날에 소작 부치는 거 아세요, 그거?}

10332 # 소자근 병자기로 자기에 노니 읍쓰닝게 으더가꼬 하 거 소자기라구라지.{소작은 병작으로 자기의 논이 없으니까 얻어가지고 하는 것을 소작이라고 그러지.}

10332 @ 어떻게 이루어지는거예요, 어떤 방식그로?{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10332 # 노를 가사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이르게 줘가꼬 메 까마니에 이르게 소자꾸니로 해서 그거 그 나라글 해오야만 그 사라마 낭거지는 자기가 멍는 걸로 소자글 진는다고 하드라고.{노를 가령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이렇게 줘서 몇 가마니에 이렇게 소작권으로 해서 그거 그 벼를 해와야만 그 사람이 나머지는 자기가 멍는 걸로 소작을 짓는다고 하더라고.}

10332 @ 그러면 약썬칸대로 몬 마드려 몬 해오면?{그러면 약속한대로 못 만들어, 못 해오면?}

10332 # 모대오몬 인자 그 다미는 논 안 줄티지 머.{못해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논 안 줄테지, 뭐.}

10332 @ 뭐 부조카면 자기 머글 꺼도 업겐네요?{뭐 부족하면 자기 먹을 것도 없겠네요?}

10332 # 그르치.{그렇지.}

10332 @ 잘 저야게꾸나.{잘 저야겠구나.}

10332 # 잘 저야지.{잘 지어야지.}

10333 @ 그럼 푸마시 푸마시는 어떠케?{그럼 품앗이, 품앗이는 어떻게?}

10333 # 푸마씨는 내가 자네네 지비 가서 이래주구 자네가 우리 지비 와서 이래주고.{품앗이는 내가 자네네 집에 가서 일 해주고, 자네가 우리 집에 와서 일 해주고.}

10333 # 그게 푸마씨여 두리 와따가따 하능 게.{그게 품앗이여, 둘이 왔다갔다 하는 게.}

10333 @ 근데 또까튼 닐 해줘야 돼요?{근데 똑같은 일 해줘야 돼요?}

10333 # 아무 아무 게 하루 가서 하며 대 푸마시.{아무, 아무 거나 하루 가서 하면 돼, 품앗이.}

10333 @ 그 푸마시 할려면 어떤 어떤닐 하셔썬요?{그 품앗이 하려면 어떤 어떤 일 하셔썬요?}

10333 # 푸마시?{품앗이?}

10333 @ 푸마시로.{품앗이로.}

10333 # 푸마시로 하는 거선 엔나리 반매고 반마난게 반매는 푸마시 모시물 때두 인저 가정 이집 가서 시머주고 저 사람네 시머주고 나도 심꾸.{품앗이로 하는 것은 옛날에 밭 매고, 밭 많으니까 밭매는 품앗이, 모 심을 때도 인제 가령 이집 가서 심어주고, 저 사람네 심어주고, 나도 심고.}

10333 # 그게 푸마씨지 머.{그게 품앗이지, 뭐.}

10333 # 서로소.{서로.}

10333 @ 그렇 거 말고 또 다름 거는?{그런 거 말고 또 다른 거는?}

10333 # 음, 다름 거 읊썬 이.{음, 다른 거 없어, 응.}

10333 @ 머 마늘 심꼬.{뭐 마늘 심고.}

10333 # 잉 하루 하루 가서 이~ 하루 가서 미어주 하루 가서 그 지비 해주면 하루 데려다가 우리가 쓰고 그래썬.{응, 하루, 하루 가서 잉, 하루 가서 메주고, 하루 가서 그 집에 해주면 하루 데려다가 우리가 쓰고 그랬지.}

10333 # 푸마시루.{품앗이로.}

10333 @ 지붕 올리고 그럴 때도 지붕 올릴 때?{지붕 올리고 그럴 때도, 지붕 올릴 때?}

10333 # 응.{응.}

10333 @ 그 푸마시로 이르게 품 교환나능 거 말고 금 그냥 품만 사능 거또 이썬썬?{그 품앗이로 이렇게 품 교환하는 거 말고 그럼 그냥 품만 사는 것도 있었썬?}

10333 # 도느루 쌀도 사 온 사라미썬.{돈으로 쌀로 사 온 사람 있지.}

10333 @ 금 그 돈 머라고 하세요?{그럼, 그 돈 뭐라고 하세요?}

10333 # 돈?{돈?}

10333 # 풍깁 품깁썬 준다 구라지 풍깁 썬다구.{품값, 품값을 준다고 그러지, 품값 준다고.}

10334 @ 그 노버더서 이랄 때 할머니 식썬 하고 간식 줘야 데자나요.{그 늬 얻어서 일 할 때, 할머니, 식사하고 간식 줘야 되썬아요.}

10334 # 그럼 다 해주지 삼시식썬.{그럼 다 해주지, 세끼 식사.}

10334 @ 뭐 줘써요 뭐 엔나레?{뭐 줘서요, 뭐, 옛날에?}

10334 # 아 엔나리 머 머 우리 멍는대로 뭐 참 이란번 할라면 도니 꽤 드르가.{아 옛날에 뭐, 우리 먹는대로 뭐 참, 일 한번 하려면 돈이 꽤 들어가.}

10334 # 반찬두 사우야구 뭐 고기도 사다 저 해주야:구.{반찬도 사와야 하고 뭐 고기도 사다 줘, 해줘야 하고.}

10334 # 바번 지비서 멍는 대로 쌀밥 보리 가튼 거 마니 안느쿠 이르게 잘 해주지.{밥은 집에서 먹는 대로 쌀밥, 보리 같은 거 많이 안 넣고 이렇게 잘 해주지.}

10334 # 그런디 반찬두 조용 거 사다주야지 넘 드러다 일 시킹게.{그런데 반찬도 좋은 거 사다줘야지, 남 들여다 일 시키니까.}

10334 # 참 자래줘써 우리는.{참 잘 해줬어, 우리는.}

10334 # 트키.{특히.}

10334 @ 머 머 해주셔써요 어떻 거?{뭐 뭐 해주셨어요, 어떤 거?}

10334 # 저 베 버서 등지마고.{저, 베 베서 등짐하고.}

10334 # 이르게 할 때에는 대가년 닐 한다고 우리 엄니가 소 물거리도 사다가 가서 막 방굴도 사다가 폭 쉬 느쿠 해전막 주지.{이렇게 할 때에는 대근한 일 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소 물거리(+소 등뼈)도 사다가 과서 막 밤 굴도 사다가 폭신 넣고 해전에 막 주지.}

10334 # 머그라구.{먹으라고.}

10334 # 그르케 줘써.{그렇게 줘서.}

10334 # 그렁 게 이라러 우리지비 일꾼 으들라른 자::와.{그러니까 일 하러 우리집에 일꾼 얻으려면 잘 와.}

10334 # 자래준다구.{잘 해준다고.}

10334 @ 국쑤두 줘써요 할머니?{국수도 줘서요, 할머니?}

10334 @ 새빠브로.{셋밥으로.}

10334 # 새빠도 국쑤 쌀머줄 때두 이꾸 그르치.{셋밥도 국수 삶아줄 때도 있고, 그렇지.}

10334 @ 수른노 술도 암 빠지자나요.{술은요, 술도 안 빠지잖아요.}

10334 # 그럼 수른 해너서 줘써.{그럼, 술은 해놔서 줘지.}

10334 @ 지베서 항 거?{집에서 한 거?}

10334 # 그럼 항 거.{그럼, 한 거.}

10334 @ 마걸리?{막걸리?}

10334 # 이~ 마걸리 단지에다 막 하::나 해노코 막 걸려서.{응, 막걸리 단지에다 막 하나 해 놓고 막 걸려서.}

10334 @ 소주는뇨 소주?{소주는요, 소주?}

10334 # 소주두 우리 엄니가 잘 니려는디 소주는 일꾼 모쨌.{소주도 우리 어머니가 잘 내리는데, 소주는 일꾼 못 줘.}

10334 # 몸 이~ 소주 주문 일 모대.{못, 응, 소주 주문 일 못해.}

10334 # 심 읍써서.{힘 없어서.}

10334 @ 그러쿠나.{그렇구나.}

[7초]

## 1.4. 의생활

### 1.4.1. 목화, 삼, 모시의 재배와 길쌈

10401 @ 할머니 모과 가튼 거 삼 가튼 거 해보써씨요 모시 가튼 거?(할머니, 목화 같은 거, 삼 같은 거 해보셨어요, 모시 같은 거?)

10401 # 나는 아내씨두 우리 어머니는 해써.{나는 안 했어도 우리 어머니는 했어.}

10401 # 모카 모카 해서 모카 송이 해가꼬 이 실 자서 빼가꼬 명주 짜구 삼도 사면서 함 번 해보건데 사른 그으—ㄱ씨릉게 하시더 아나더라구.{목화 목화 해서 목화 송이 해가지고 이 실 짜서 빼가지고 명주 짜고 삼도 삶아서 한 번 해보건데 삼은 그 욕심에 하시지도 않더라고.}

10401 # 모카는 마니 해써.{목화는 많이 했어.}

10401 @ 모과는 언제 시머요?(목화는 언제 심어요?)

10401 # 모카 췌이가 보미 시머가꼬 가:리 이 콩 뽕불떠기 다 뽕바.{목화 송이가 봄에 심어 가지고 가을에 이 콩 뽕을 때 다 뽕아.}

10401 @ 어뜨게 시머요 어뜨게 시를 때?(어떻게 심어요, 어떻게, 심을 때?)

10401 # 시를 때 뿌려 바티다.{심을 때 뿌려, 밭에다.}

10401 @ 그냥 바테다가?(그냥 밭에다가?)

10401 # 이~ 뿌려서 인자 드문드문 뿌려 놔두무는 인자 배게는 안 놔두지.{응, 뿌려서 이제 드문드문 뿌려 놔두면 인제 배게는 안 놔두지.}

10401 # 빼빼애도 커가꾸 모캐파리 여르머는 갈: 데머는 그게 다 여무러 거반.{빼빼해도 커 갖고 목화 다래 열면 가을 되면은 그게 다 여물어, 거의.}

10401 # 바서 여르미 치릴 파릴 때 되면 그거 다 뽕바다가 말리미다 너르야야.{봐서, 여름에 칠월, 팔월 때 되면 그거 다 뽕아다가 등성이에다 널어야 해.}

10401 # 이 매까티다가.{이 바깥에다가.}

10401 # 착:: 너르면 모캐파리가 이케 기냥 덩얼 그양 매다려가꼬 이마시가 어지가난 복췌아 마시가 이르게.{췌악 널면 목화다래가 이케 그냥 덩어리 그냥 매달려갖고 이만큼씩 해, 어지 간한 복췌아만큼 해 이렇게.}

10401 # 그러면 거다 말리미다 너르머는 모캐 췌이가 퍼.{그러면 거기다 등성이에다 널면 목화 송이가 퍼.}

10401 # 거그서 짜::악 빠러저가꾸.{거기서 췌악 벌어져가지고.}

10401 # 어이 나 모캐췌이 따기 시러서 울기도 퍼구러따.{어이, 나 목화송이 따기 싫어서 울 기도 많이 울었어.}

10401 # 마니 시머가꼬.{많이 심어갖고.}

[5초]

10401 # 그 따기 시러서 아이.{그거 따기 싫어서, 아이.}

10401 # 말리미가서 그거 안자서 그냥 하::야케 핀 늪 뽕바서 딸라든 아유 그북씨러.{등성이에 가서 그거 앉아서 그냥 하얏게 핀 늪 뽕아서 따려면, 아유 거북스러워.}

10401 # 참 사능 거또 그북씨러게 사라찌, 지금 애더런 퍼나지.{참, 사는 것도 거북스럽게

살았지, 지금 애들은 편하지.}

10401 # 얼마나 편냐.{얼마나 편해.}

10401 # 그런 거 아내도 오토 진지나구.{그런 거 안해도 웃도 진진하고.}

10401 # 그런 무명와 안넝꾸 빨래하기 조코 이렇 거 쪽쪽 빠러서 너러따 입꾸 얼마나 조와.{그런 무명옷 안 입고 빨래하기 좋고 이런 거 쪽쪽 빨아서 널었다 입고 얼마나 좋아.}

10401 @ 모과 타레 그르케 따서 그 담 어트게 하셔따고요?{목화 다레 그렇게 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10401 # 따서 따다가 모캐쑥이 따:서 인자 모캐 피머는 다:: 말 깨까시 말려서 골라가꼬 저 시내 가서 트러오야지.{따서 따다가 목화송이 따서 이제 목화 피면 다 말, 깨끗이 말려서 골라가지고 저 시내 가서 [x숨x]타와야지.}

10401 # 그 씨알맹이를 트러다가 하머는 자 소미루 나오자냐.{씨알맹이 타서 하면 이제 숨으로 나오잖아.}

10401 # 숨 빼다가 다:: 마:러서 꼬초 마러가꾸 우리 엄니가 물레 자서 실 빼서 그래가꼬 그 명 명 명베 짜찌.{숨 빼다가 다 말아서 고치 말아갖고 우리 어머니가 물레 잣어서 실 빼서 그래갖고 그 명, 명, 명베를 찼지.}

10401 # 차례썬 우리 엄니는.{잘했어, 우리 어머니는.}

10401 # 명베 질쌘.{명베, 질쌘.}

10401 # 난 아내 나는 아내썬.{난 안해, 나는 안했어.}

10401 # 엄니 해도 아내썬 구차내서.{어머니는 해도 안했어, 귀찮아서.}

10402 @ 삼베는요?{삼베는요?}

10402 # 삼 삼베도 시머서 그르케 하더머서도 삼베는 더 그역시려서도 모다.{삼, 삼베도 심어서 그렇게 하면서도, 삼베는 더 고역스러워서도 못해.}

10402 @ 보셔썬요 어트게 하는지?{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10402 # 음 봐썬.{음, 봤어.}

10402 @ 언제 시머요 삼베는?{언제 심어요, 삼베는?}

10402 # 아유 몰라 난 언제 심나 그거떨.{아유, 몰라, 나는 언제 심나 그것들.}

10402 # 그거또 어려서 그 때 바가꼬.{그것도 어려서 그 때 봐서.}

10403 @ 모시는요 모시?{모시는요, 모시?}

10403 # 모시는 아:내썬.{모시는 안했어.}

10403 # 삼베만 함번 시머썬 그때.{삼베만 한 번 심었어 그때.}

10403 # 삼베는 시머가꼬 삼베 그거 나무 베타가 막:: 쌀물라든 아유 아유 지겨워라.{삼베는 심어가지고 삼베 그거 나무 베타가 막 삶으려면, 아유, 아유, 지겨워라.}

10403 # 어따 쌀면나 몰라 내.{어디에다 삶았나 몰라 나는.}

10403 # 안저서 썬떠면.{얹아서 삶더구만.}

10403 # 쌀머서 꼬지버 내서 그냥 다:: 베껴가꼬 이러케 족족 흘터서.{삶아지면 꼬집어 내서 그냥 다 벗겨가지고 이렇게 족족 훑어서.}

10403 # 삼때 아이구 거 그건 참 그북 그북씨러.{삶데, 아이고, 그거 그건 참 거북, 거북스러워.}

10404 @ 금 길쌘메 피료한 기구 기구가 이짜나요 길쌘말 때.{길쌘에 필요한 기구가 있잖아요, 길쌘할 때.}

10404 @ 씨아 머 물레 이렇 거.{씨아, 뭐 물레 이런 거.}



10404 # 그르치.{그렇지.}

10404 @ 그런 기구들 이름 혹시 기억하셔요 할머니?(그런 기구들 이름 혹시 기억하셔요, 할머니?)

10404 # 씨아 씨아선 모캐쑹이 뜨능 거 뽀고 씨아시라 구랴.{씨아, 씨아는 목화송이 [x씨x] 빼는 것 보고 씨앗이라 그래.}

10404 # 모캐 모캐 나가꾸 씨알 빼능 거선 씨만 빼구 소:문 이짜기로 또 정리하고.{목화, 목화 낱가지고 씨알 빼는 것은 씨만 빼고 숨은 이쪽으로 또 정리하고.}

10404 # 그거뽀고 씨알 뺀다고 하고 모캐 씨 씨아시라고 하고.{그거보고 씨알 뺀다고 하고, 목화 씨앗이라고 하고.}

10404 # 이 물레 잔능 거슨 물레라고 하구.{이 물레 잣는 것은 물레라고 하고.}

10404 # 실 뽀바서 빼능 건 물레.{실 뽑아서 빼는 건 물레.}

10404 @ 얼레는뇨 얼레?(얼레는요, 얼레?)

10404 # 물레는 월레보고 물레라 구라능게비다.{물레는 얼레보고 물레라고 그러는가 보다.}

10404 @ 또가데요?(똑같아요?)

10404 # 이~.{응.}

10404 @ 할때?{할대?}

10404 # 할때?{할대?}

10404 @ 할때나 잉알때 베 찔 때 하능 거 가튼데.{할대나 잉알때, 베 찔 때 하는 거 같은데.}

10404 # 음 베 베트리여서 짜능 거.{음, 베, 베틀에서 짜는 것.}

10404 # 할때 으—○아때.{할대, 잉알때.}

10404 # 으—○아는 이로케 거리노코 인자 이거설 또까트문 안 데자냐 잉아가.{잉아는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이것을 똑같으면 안 되잖아, 잉아가.}

10404 # 이르케 중드리가 데야 바디가 치머는 이 오리 이리저리 와따가따 하야 베가 짜지 지.{이렇게 중도리가 돼야 바디가 치면은 이 올이 이리저리 왔다갔다 해야 베가 짜지지.}

10404 # 그러거면 날 잉의 날더러 잉아시라 구라고 이거 씨:라고 하고 그라더라고.{그렇게 하면 날실 잉아 날실더러 잉아라고 그러고 이거 씨라고 하고 그러더라고.}

10404 # 부기가 노코 짜능 거 씨아시라 그러고.{북에 놓고 짜는 거 씨앗이라 그러고.}

10404 @ 할머니 베틀도 이쓰셔쨌요 지베?(할머니, 베틀도 있으셨어요, 집에?)

10404 # 응 우리도 베틀 이쨌쨌.{응, 우리도 베틀 있었어.}

10404 # 엄니 짜능 거 봐쨌도 나는 그러커 안 짜쨌.{어머니가 짜는 거 봤어도 나는 그런 거 안 쨌어.}

10404 # 아놀라 가쨌.{안 올라 갔어.}

10404 # 안 짜바쨌.{안 짜봤어.}

10404 # 엄니가 시기두 아냐.{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아.}

10404 # 그거 다 끄너노문 다 이슬라면 심나나다고.{그거 다 끓여 놓으면 다 이으려면 심란하다고.}

10404 @ 할때는 머에요 할때?(할대는 뭐예요, 할대?)

10404 # 할때?{할대?}

10404 # 잉아거리 할때 잉아 거리서 할때로다 이러::케 하야.{잉아걸이, 할대, 잉아 걸어서 할때로다 이렇게 해야.}

10404 # 바를 한번 이르게 잡땡기고 이르::카머는 그거시 짹 짹 버러지고 그라더라고.{발을 한번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하면 그것이 짹 짹 벌어지고 그라더라고.}

10404 # 그냥 버러지능 게 아녀.{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야.}

10404 # 음 발로.{음, 발로.}

10404 # 그게 활때예요?(그게 활대예요?)

10404 @ 응.{응.}

10405 @ 금 이제 함 필 무명이나 삼베 이렇 게 한 피리 얼마 며쨌치예요?(그럼 이제 한 필, 무명이나 삼베 이런 게 한 필이 얼마, 몇 센티예요?)

10405 # 함 피리 메쨌찌가 아니라 수무자여 수무자.{한 필이 몇 센티가 아니라 스무자야, 스무자.}

10405 # 수무자 함 피리여.{스무자 한 필이야.}

10405 # 자로 수무자가 함 피리여.{자로 스무자가 한 필이야.}

10405 @ 그러구나 금 머 하루에 한 얼마나 짜요 며 짜 며 필이나 짜세요?(그렇구나, 그럼 뭐 하루에 한 얼마나 짜요, 몇 자, 몇 필이나 짜요?)

10405 # 한 메 필 모 짜.{한, 몇 필 못 짜.}

10405 # 한 열 짜 한 죽짜사자 짜야 여남자 이케 따더라.{한 열 자, 한, 죽자살자 짜야 여남은 자 이렇게 짜더라.}

10405 # 한 빌 찰라든 이트른 걸리더라고 엄니 봐:도 엄니 우리 엄니도 베 잘 짜도.{한 필 짜려면 이들은 걸리더라고, 어머니니 봐도, 어머니니, 우리 어머니니도 베 잘 짜도.}

10405 @ 어휴 진짜 힘드러쨌네요.{어휴, 진짜 힘들었쨌네요.}

10405 # 심들구 말구.{힘들고 말고.}

10406 @ 할머니두 길쌈 여뻬서 도와주시면서 머 재미있는 닐 이쨌명 거 쫘 얘기해주세요.{할머니도 길쌈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재밌는 일 있었던 거 쫘 얘기해주세요.}

10406 # 길쌈 여뻬 도와주는 거슨 머 저 이거 그게 씨알 트를 띠기 모케 쫘이 씨아 다 씨아 시 트러울 떼기 그거 그거 쪼금 해쓰까. {길쌈 옆에 도와주는 것은 뭐, 저, 이거, 그게 씨아를 돌릴 적에, 목화 송이 씨아에다, 씨아 돌릴 적에 그거 그거 쪼금 했을까.}

10406 # 꼬추말구.{고치말고.}

10406 # 그건 해쨌쨌.{그거는 해쨌어.}

10406 # 꼬때 마는 거슬.{고치대 마는 것을.}

10406 @ 그러면 이케 명 잔능 거?(그러면 이렇게 명 잳는 거?)

10406 # 명 명 잔능 거또 잘못 짜시먼 구:께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항게 명 길쌈 베린다고 시키도 모다.{명, 명 잳는 것도 잘못 잳으면 굵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하니까 명, 길쌈 베린다고 시키지도 못해.}

10406 # 아 아냐 마마막 모다게 해쨌.{아, 안해, 마마막 못하게 했어.}

10406 # 히~:: 디지게 혼나 그거 만치믄.{히, 죽게 혼나, 그거 만치면.}

10406 # 베린다고.{버린다고.}

10406 # 그라고 나이두 이꾸.{그리고 나이도 있고.}

10406 # 나이가 어려쓰니께 모다게 하고.{나이가 어렸으니까 못하게 하고.}

10406 @ 길쌈 할머니 어머니께서 길쌈 할 때 노래 부르셔쨌요 그렁 거 혹씨?(길쌈, 할머니 어머니께서 길쌈 할 때 노래 부르셨어요, 그런 거 혹시?)

10406 # 아 뭐 안 불러쨌 노래 그렁 거 아냐.{아, 뭐, 안 불렀어, 노래 그런 거 아냐.}

10406 # 우리 어머니는 노래도 모따.{우리 어머니는 노래도 못해.}  
 10406 # 노래도 모뽀러.{노래도 못 불러.}  
 10406 # 아리랑도 모뽀르는 양바니여.{아리랑도 못 부르는 양반이야.}  
 [7초]

## 1.4.2. 누에치기와 비단 짜기

10409 @ 금 할머니가 좀 얘기 말씀 좀 해주세요.{그럼 할머니가 좀 얘기, 말씀 좀 해주세요.}  
 10409 @ 누에 해명 거.{누에 했던 거.}  
 10409 # 뉘:여는 나는 소질 읍써.{누에는 나는 소질 없어.}  
 10409 # 암 메겨써.{안 먹였어.}  
 10409 # 뉘:여 메긴 사라마 알지.{누에 먹인 사람이 알지.}  
 10409 # 뉘:여는 암 메겨써.{누에는 안 먹였어.}  
 10409 @ 그래도 할머니 대충 아시는데 지난번에.{그래도 대충 아시던데, 지난번에.}  
 10409 # 뉘:여 뭐 인자 잠 자고 나머는 메짬 잔네 메짬 잔네 하는디 여벌로 어려쓸 때 드르머는 그 징그르가꼬 귀경도 모까써 나는.{누에 뭐, 이제 잠 자고 나면 몇 잠 잤네, 몇 잠 잤네 하는데 걸다리로 어렸을 때 들으면 그 징그러워가지고 구경도 못 잤어, 나는.}  
 10409 # 뉘:여 저티는 그양 막 꾸물 이~ 꾸루럭꺼려.{누에 곁에는 그냥 막 꾸물, 잉 꾸물거려서.}  
 10409 # 아이고 그 집 시꾸더런 뽕닙 쭈구서는 이르게 하면 아이구 막 도망와써 도망와 아주 징글마즈가꼬.{아이고, 그 집 식구들은 뽕잎 주고서는 이렇게 하면 이이구 막 도망왔어, 도망와, 아주 징글맞아갖고.}  
 10409 # 벌레가치 생겨서.{벌레같이 생겨서.}  
 10409 @ 그게 뽕니불 머거요?{그게 뽕잎을 먹어요?}  
 10409 # 응 뽕니불 막 히~ 한::참 뽕닙 머거서 한잠 올라갈 때는 비오는 소리나.{응, 뽕잎을 막, 흥 한참 뽕잎 먹어서 한 잠 올라갈 때는 비오는 소리 나.}  
 10409 # 새:: 고기만 서써도.{새(+뽕잎 먹는 소리), 거기만 서 있어도.}  
 10409 @ 그르케 머꼬 똥도 마니 싸고.{그렇게 먹고, 똥도 많이 싸고.}  
 10409 # 으~ 날마도 쳐주더라고 날마도 아침 저녁기로.{응, 날마다 쳐주더라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10409 # 그거 터러내고 주고.{그거 털어내고 주고.}  
 10409 # 뉘:여 메길 때기 여자들 참:: 힘들더라고.{누에 먹일 때 여자들 참 힘들더라고.}  
 10409 # 우리는 그렁 거는 아내봐서.{우리는 그런 거는 안해봤어.}  
 10409 # 아내써 우리 아버지가 그렁 건 모따.{안했어,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건 못 해.}  
 10409 # 일 일 일꺼리 마나다고 아내써.{일, 일, 일거리 많다고 안했어.}  
 10409 # 당신 하시는 일만 해져.{당신 하시는 일만 했지.}  
 10409 @ 그럼 누여가 이제 다 그게 머꼬 크면 갑짜기 이제 짐 만들어요, 이케?{그럼 누에

가 인제 다 그케 먹고 크면 갑자기 인제 집 만들어요, 이렇게?}

10409 # 자기가 인자 때가 되머는 집 만드러가꼬 그 소기 드르가서 안 나오더라고 머.{자기가 이제 때가 되면 집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고, 뭐.}

10409 @ 음 이케 하약 어떠케 만들어요 지블?(음, 이렇게 하얏[x게x], 어떻게 만들어요, 집을?)

10409 # 똥고라케 뉘여.{동그랗게 누에.}

10409 # 하::야케 똥고라케 이~ 실 빼 지가 그케 지블 똥::고라케 맨드러가꼬 드르가대.{하얏게, 동그랗게 응, 실 빼, 지가, 집을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대.}

10409 # 아여 하이튼 신기한 짐성이여.{아휴, 하여튼 신기한 짐승이야.}

10409 @ 금 그걸 찰머가주고.{그럼 그걸 삶아가지고.}

10409 # 그거 잠시리 올라가면 인자 그거 딸 때 데문 따가꼬 찰머서 이제 실 빼서 인제 명주를 짜는디 거기다 인자 놔두머는 뉘여 소기서 지가 또 뜰코 나와 나비로.{그거 잠실이 올라가면 이제 그거 딸 때 되면 따가지고 삶아서 이제 실 빼서 이제 명주를 짜는데 거기다 이제 놔두면 누에 속에서 그것이 또 뚫고 나와, 나비로.}

10409 # 이~ 안 주꼬 거기서 살다가 나오더라고.{응, 안 죽고, 거기서 살다가 나오더라고.}

10409 @ 금 나비 나온 거 그걸로 짜면 안 돼요?(그럼 나비 나온 거 그걸로 짜면 안 돼요?)

10409 # 안 디지.{안 되지.}

10409 @ 왜요?{왜요?}

10409 # 그거슨 인자 나비가 나와가꼬 아를 까가꼬 인자 다시 새끼를 나터라고 새끼를 맨들더라고 알 쏘기서 새끼가 나와.{그것은 이제 나비가 나와서 알을 까고 이제 다시 새끼를 낳더라고, 새끼를 만들려고, 알 속에서 새끼가 나와.}

10409 @ 오:: 그러쿠나.{와, 그렇구나.}

10409 # 에~.{응.}

10409 # 알랄 때 데머는 시가니 데머는 이 조이 가튼 디 흥겹 까튼 디 다:: 놔주더라고.{알 낳을 때 되면, 시간이 뜬 이 종이 같은 것, 흥겹 같은 것을 다 놔주더라고.}

10409 # 그러면 그 이 뉘여 꼬추 쏘기서 나비가 나와가꼬 거기다 아를 까더라고 줄::주리. {그러면 그 이 누에 고치 속에서 나비가 나와가지고 거기다 알을 낳더라고, 줄줄이.}

[7초]

10410 @ 그 고치 그 모게서 실 뽑는 거 보셔썸요?(그 고치 그 목에서 실 뽑는 거 보셨어요?)

10410 # 음 봐썸 귀경은 해썸.{음, 봤어, 귀경은 했어.}

10410 @ 어트게 하는지 본대로.{어떻게 하는지, 본대로.}

10410 # 본대로 이 지비서 하는디 마당이다가 그 실 꼬추를 뜨겁게 찜:뎌.{본대로, 이 집에서 하는데 마당에다가 그 실 고치를 뜨겁게 삶데.}

10410 # 그냥 차니룬 안다.{그냥 찬 것으로는 안돼.}

10410 # 뜨겁게 찰머가꾸 이게 멀루 사::무 혼드르면 시리 줄줄줄줄 나오믄 뽀바가꾸 다.{뜨겁게 삶아가지고 이제 뭇로 계속 흔들면 실이 줄줄줄줄 나오면 뽑아가지고 다.}

10410 # 나두 자:시는 몰르건네 내가 여벌루 바서.{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네, 내가 걸다리로 봐서.}

10410 # 그 메긴 양반더리 알지.{그 먹인 양반들이 알지.}

### 1.4.3. 옷 만들기

10412 @ 그럼 할머니 온까튼 거 잘 지어따고 하셔짜나요.{그럼 할머니, 옷같은 것은 잘 지었다고 하셨잖아요.}

10412 # 으~.{응.}

10412 @ 온 지을 때 천 종류가 이썬요 여러가지 종류드리?{옷 지을 때 천 종류가 있어요, 여러가지 종류들이?}

10412 # 그르치.{그렇지.}

10412 @ 어떻 거 어떻 거.{어떤 것 어떤 것.}

10412 # 무명도 이꼬 인주두 이꼬 지비서 짤 명도 이꼬 명지베도 이꼬.{무명도 있고, 인조견 사도 있고, 집에서 짤 무명[x베x]도 있고, 명주 베도 있고.}

10412 # 시장이서 뜨는 거시기두 이꼬.{시장에서 뜨는 거시기도 있고.}

10412 # 그릉 걸로 떠다가 맨드러서 우리 애더런 다:: 이퍼써 내가 다 해서.{그런 걸로 떠다가 만들어서 우리 애들은 다 입혔어, 내가 다해서.}

10412 # 전 응 응.{전에 응, 응.}

10412 # 엔나리는 응이라 구라지.{옛날에는 응이라고 그러지.}

10412 # 그게 인자 내복 읍써가꾸 응: 떠다가 내:복뚜 맨드러 이퍼고 속 바지 가튼 거.{그게 이제 내복 없어서 응 떠다가 내복도 만들어 입히고 속 바지 같은 거.}

10413 @ 어떻 거 어떻 거 만드러써요 할머니?{어떤 거 어떤 거 만들었어요, 할머니?}

10413 @ 만드러 이부싱 거 다 만드셔써요 이렇 거?{만들어 입으신 거, 다 만드셨어요, 이런 거?}

10413 # 다 만드러써.{다 만들었지.}

10413 @ 엔날 치마저고리.{옛날 치마저고리.}

10413 # 치마저고리 바지 머 두루매기 머 다 만드러써.{치마저고리, 바지 머 두루매기 뭐, 다 만들었어.}

10413 # 나 두루매기 자랴.{나 두루매기 잘 해.}

10413 @ 동정 소매 주머니 이렇 거 다?{동정, 소매, 주머니, 이런 거 다?}

10413 # 그럼 으~.{그럼, 응.}

10413 @ 또 또 머 만드러써요?{또, 또 뭐 만드셨어요?}

10413 # 머 만드러냐고?{뭐 만들었냐고?}

10413 # 바지 저고리에 두루매기 저 머 그릉 거 만드러써 머 버전.{바지 저고리에 두루매기 저, 뭐 그런 거 만들었지, 뭐 버전.}

10413 # 이 버전 시넌 버전.{이 버전 신는 버전.}

10413 @ 버전두요? 고쟁이?{버전도요? 고쟁이?}

10413 # 고쟁이.{고쟁이.}

10413 @ 조끼도?{조끼도?}

10413 # 응 조끼 가튼 거.{응, 조끼같은 거.}

10413 @ 히:: 다 만드르션네.{와, 다 만드셨네.}

10413 # 응 다 만드러써.{응, 다 만들었어.}

10414 @ 그럼 마름질 하능 거 어트게 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그럼 마름질 하는 거 어

떻게 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10414 # 마름지리 머여?{마름질이 뭐야?}

10414 # 말르능 거?{마르는 것?}

10414 @ 예.{예.}

10414 # 말르능 거 대량 짐자케서 온까따가 대가머서 말르지 머.{마르는 거 대량 짐작해서  
옷갖다가 대가면서 마르지 뭐.}

10414 @ 그냥 그 위에다 노코 찢라요?{그냥 그 위에다 놓고 잘라요?}

10414 # 그럼.{그럼.}

10414 @ 따라서?{따라서?}

10414 # 이~ 따라서.{응, 따라서.}

10414 # 따라서 찢르능 거 인자 필목 재가꼬 말러가꼬 그대로 인자 꼬매서 입는 거지 뭐.  
{따라서 자르는 거 인제 필목 재가지고, 말라가지고 그대로 이제 꿰매서 입는 거지, 뭐.}

10414 @ 보니 따로 인능 게 아니라?{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10414 # 버니 지금 싸람더른 뿐 노코 하지만 엔나레는 뽀니나 이써?{본이, 지금 사람들은  
본을 놓고 하지만 옛날에는 본이나 있어?}

10414 # 그냥 이케 짐자기로 만드러쎄.{그냥 이렇게 짐작으로 만들었지.}

10415 @ 금 인제 바느지리 중요하자나요.{그럼 인제 바느질이 중요하잖아요.}

10415 @ 바느질 할려면 어떻 거 어떻 거 피료하셔요?{바느질 하려면 어떤 거, 어떤 거 필  
요하셔요?}

10415 # 바느질 도구가 별 거 별 거 이써?{바느질 도구가 별 거, 별 거 있어?}

10415 # 가세하고 바느라고 시라고만 이쓰면 데지.{가워하고 바늘하고 실하고만 있으면 되  
지.}

10415 # 인두 골무.{인두, 골무.}

10415 # 골무 가통 거 맨드러서 찢구.{골무 같은 거 만들어서 끼고.}

10415 # 인두가 이써야 하고.{인두가 있어야 하고.}

10415 @ 인두?{인두?}

10415 # 응.{응.}

10415 # 데려가머 인자 말러서 데려가머 꼬매야 할팅게 인두지래서 밥풀로 부치야고.{다려  
가머 인제 말라서 다려가머 꿰매야 하니까 인두질해서 밥풀로 부쳐야 하고.}

10415 # 부칠 떠는 부치야지.{불일 데는 붙여야지.}

10415 @ 그래요?{그래요?}

10415 # 그럼.{그럼.}

10415 @ 골무는 뭘로 만드셔쎄요?{골무는 뭘로 만드셨어요?}

10415 # 골무 그냥 흥겍때기로.{골무 그냥 형겍조각으로.}

10415 # 흥거비로 저버서.{형겍으로 접어서.}

10415 @ 반지꼬리는?{반질고리는.}

10415 # 반지꼬리 맨드롱 거슨 인자 잘 맨들라몬 그거또 시간 더더서 인자 이뿌게 맨들라몬  
어려웁쎄 머.{반질고리 만드는 것은 이제 잘 만들려면 그것도 시간 더더서 이제 예쁘게 만  
들려면 어렵지, 뭐.}

[6초]

10416 @ 바느질 하는 여러가지 방법 이써요 할머니?{바느질하는 여러가지 방법 있어요, 할

머니?)

10416 @ 그냥 꼬매기만 하든 되는 거예요?(그냥 꿰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416 @ 여러가지 방버비 이쥌.{여러가지 방법이 있쥌.}

10416 # 그래.{그래.}

10416 # 가: 그 바느질도 여러가지 이쥌.{[x감침질x], 그 바느질도 여러가지 있지.}

10416 # 바금질두 이꼬 감침질두 이꼬 호능 거또 이꼬 쯡쯡쯡쯡 화나가능 거 이꼬.{박음질도 있고 감침질도 있고 호아시침질하는 것도 있고, 쯡쯡쯡쯡 홈질하는는 것도 있고.}

10416 # 이 여르몬 까튼 데 그릉 거 맨트를 때는 바거서 하야자냐.{이 여름옷 같은 데, 그런 거 만들 때는 박아 해야 하잖아.}

10416 # 겨우로슨 쯡쯡 화가꼬 그냥 꼬매서 이~ 여러거블 해서 숨두야 하니까 냥 화서 입꼬.{겨울옷은 쯡쯡 홈질해가지고 그냥 꿰매서 잉, 여러 겹을 해서 숨을 넣어야 하니까 그냥 홈질해서 입고.}

10416 # 베기 거또 이꼬.{박는 것(+누비옷)도 있고.}

10416 # 항 거블 맨트는 거슨 순저니 바그야지 바금질 하야지.{한 겹으로 만드는 것은 순전히 박아야지, 박음질 해야지.}

10416 # 감침질 하야고.{감침질 해야하고.}

10416 @ 호는 게 머예요?(호(+호아시침질질)는 게 뭐예요?)

10416 # 호능 거슨 이케 쯡쯡쯡쯡쯡 이르게 화나가능 거.{호는 것은 이렇게 쯡쯡쯡쯡쯡 이렇게 홈질해나가는 거.}

10416 @ 누비능 건뇨 누비능 거?(누비는 건요, 누비는 거?)

10416 # 누비능 거뚜 호느 거 뽀고 기양 여러번 하능 거시 누비능 거지.{누비는 것도 호(+홈질)는 거 보고 그냥 여러 번 하는 것이 누비는 거지.}

[6초]

10416 @ 누더기 누더기를 누벼요?(누더기, 누더기를 누벼요?)

10416 # 누더기?(누더기?)

10416 # 누더기는 머 그저니 애들 재울라머는 그 저니 퍼대기도 읍썩게 이게 맨드러서 저 마라자른 이거저저 까러서 뉘:는 퍼대기더러 두더기라고 누더기라 고라지.{누더기는 뭐 그건에 애들 재우려면 그 전에 포대기도 없으니까 이게 만들어서 저 말하자면 이거 저저 깔아서 뉘는 포대기더러 누더기라고, 누더기라고 그러지.}

10416 @ 그건 특빠리 다르게 만드러요?(그건 특별히 다르게 만드러요?)

10416 # 멀 다르게 만드러.{뭘 다르게 만들어.}

10416 # 그런 처니루 네모 뽀뜨다게 해가꼬 만드는 사람도 이꼬 그냥 저기 거시기 저 애덜 업꼬 땡기는 퍼대기치름 이르게 맨드는 사람도 이꾸 그르치.{그런 천으로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저기 거시기 저 애들 업고 다니는 포대기처럼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10초]

10417 @ 그럼 빨래.{그럼 빨래.}

10417 # 빨래?(빨래?)

10417 # 빨래야 자기 맘대로 하지 머.{빨래야 자기 맘대로 하지, 뭐.}

10417 # 빨래를 머 누가 알려줘서 하?(빨래를 뭐, 누가 알려줘서 해?)

10417 # 깨까다게 빨라고 할라른 비누칠도 마니 하고 쌀무야 하고.{깨끗하게 빨려고 하려면

비누칠도 마니 하고, 삶아야 하고.}

10417 @ 비누두 이썬요?{비누도 있어요?}

10417 # 비누를 만드러 썬썬. {비누를 만들어 썬썬.}

10417 # 비누가 어디가 이썬. {비누가 어디가 있어.}

10417 # 저루 만드러썬. {겨로 만들었지.}

10417 @ 저루요?{저(+겨)로요?}

10417 # 그럼 빨래썬 켜물르쿠. {그럼 빨래 겨, [x양x]젓물 넣고.}

10417 # 마드러 썬 겨뚜 우리두 썬 만드러 썬썬. {만들어 썬 것도 우리도 썬 [x많이x] 만들어 썬어.}

10417 @ 그 어트게 하시능 거예요?{그것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0417 # 비누를 고 인저 거시기 지금 양젓물 사다가 저 이따 저. {비누를 겨 이제 거시기 지금 양젓물 사다가 겨 있다, 겨.}

10417 # 방아썬 저 곤저. {방아썬 겨, 고운 겨.}

10417 # 그놈 느쿠 양젓물 느코 막 물 물 끄려가꼬 양젓물 노카가꾸 저하고 그누마고 이퀴서 막:: 치다. {그놈 놓고 양젓물 넣고 막 물, 물 끓여가지고 양젓물 녹여가지고 겨하고 그놈 하고 익혀서 막 치대.}

10417 # 치대가꾸 바락바락 치대노머는 인제 저가 이글꺼 아녀. {치대갓고 바락바락 치대놓으면 이제 겨가 익을 것 아냐.}

10417 # 그라머는 꼭::꼭 뭉쳐. {그러면 꼭꼭 뭉쳐.}

10417 # 뭉쳐 놔따가 썬:머는 비누 돼. {뭉쳐 났다가 썬면 비누 돼.}

10417 # 깨끄대. {깨끗해.}

10417 @ 그게 거품미 나와요?{그게 거품이 나와요?}

10417 # 이~ 거품 나. {잉, 거품 나.}

10417 @ 때도 지고?{때도 지고?}

10417 # 응 때도 지고. {응, 때도 지고.}

[4초]

10417 # 지그른 연나리는 그거 읍썬게 그냥 그르케 맨드런는디 지그른 이 옥수끄르밍가 머싱가 지금 사다 느쿠 맨드르른 잘 도냐. {지금은, 옛날에는 그거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옥시크린(+표백제 상표명)인가 뭔가 지금 사다 놓고 만들면 잘 돼.}

[3초]

10417 # 맨드러 썬썬. {만들어 썬어.}

10417 @ 옥씨크린도 녀서 만드르썬썬요 할머니가?{옥시크린(+표백제 상표명)도 넣어서 만들으셨어요, 할머니가?}

10417 # 아니 지그 지끄른 인자 장이서 시장이서 상게 이르케 지금 맨드른 사람더른 그르케 썬대. {아니, 지금은 인제 장에서, 시장에서 사니까, 이렇게 지금 만드느 사람들은 그렇게 썬대.}

10417 # 그라는디 지썬 누가 비루 맨드러 세탁기 다 쓰는디. {그러는데 지금 누가 비누 만들어, 세탁기 다 쓰는데.}

10417 # 세탁기 다 쓰는데 하이타이 쓰면 다 돼, 다 되지 뭐. {세탁기 다 쓰는데 하이타이(+세제 상표명) 쓰면 다 돼, 다 되지 뭐.}

10417 @ 금 오감 별로 빨래할 때 달라요?{그럼 옷감 별로 빨래할 때 달라요?}



10417 @ 오감 별로.{옷감 별로.}

10417 # 빨래 할 때?{빨래 할 때?}

10417 # 빨래 할 때 머 그거 엔나리 머 오감 별루가 멀 달러 업씨 사는 사람드리.{빨래 할 때 뭐, 그거 옛날에 뭐 옷감 별로가 뭘 달라 없이(+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10417 # 엔나레는 읍써서 명 명 거 광목 거 그렇 거 이부니께 그렇 거 다 치대서 빨랑게 기냥 잼물 비누루 다 써찌.{옛날에는 없어서(+가난해서) 명, 명, 거 광목 거 그런 거 입으니까 그런 거 다 치대서 빨래니까 그냥 양젯물 비누로 다 썼지.}

10417 # 지그른 누가 잼물 비누를 써.{지금은 누가 젯물 비누를 써.}

10417 # 어 터로시니 머니 이렇 거 나오는다.{어, 털옷이니 뭐니, 이런 거 나오는데.}

10417 # 이런 무명 거 까툽 거나 그러케 치대서 빠:러찌.{이런 무명 옷 같은 거나 그렇게 치대서 빨았지.}

[7초]

10417 @ 금 이제 말려가지구 아까 머 인두로 어트게 방망이 이렇 거 쓰셔썬요?{그럼 이제 말려서 아까 뭐 인두로 어떻게 방망이 이런 거 쓰셨어요?}

10417 # 음.{음.}

10417 @ 어트게 손질 어트게 하셔썬요?{어떻게 손질 어떠하게 하셨어요?}

10417 # 방망이루 땀물 빠질라든 방망이로 두드려서 빨구.{방망이로, 땀물 빠지게 하려면 방망이로 두드려서 빨고.}

10417 # 인자 우글쭈글한 거 할라든 대리미로 대려찌.{이제 우글쭈글한 거 하려면 대리미로 닦았지.}

10417 # 인두는 바느질 할 때나 사용하지.{인두는 바느질 할 때나 사용하지.}

10417 # 바지저고리 바느질 꼬맬 때기는 자 이런 디 호구 항 거 우글쭈글 항게 싹: 대려가 머 풀칠 해가머서 데려서 바느질 할라든 저구리 이런 디 이~? 이짜기루 냉기고 저짜기로 냉기고 이제 할 테기 밥풀로다 부처가꼬 딱딱 대려가머 꼬매야지.{바지저고리 바느질 꿰맬 적에는 인제, 이런 데 흠질한 거 우글쭈글하니까 싹악 다려가면서 풀칠 해가면서 다려서 바느질 하려면 저고리 이런 데 응?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고 인제 할 적에 밥풀로 부처 갖고 딱딱 다려가머 꿰매야지.}

10417 @ 그때 인두.{그때 인두.}

10417 # 그럼.{그럼.}

10417 @ 그러면 대리미 대리미가 이썬썬요?{그럼 대리미, 대리미가 있었어요?}

10417 # 대리미 이썬 반드시.{다리미 있지, 반드시.}

10417 @ 그거또 이케 달귀가주구?{그것도 이렇게 달귀가지고?}

10417 # 수뿔.{숫불.}

10417 @ 수뿔에?{숫불에?}

10417 # 어~.{응.}

10417 @ 그게 머예요 이르미?{그게 뭐예요, 이름이?}

10417 # 다리미.{다리미.}

10417 @ 그 수뿔 그 다마웅 거.{그 숫불 그 담아온 거.}

10417 # 그거뽕고 다리미라 고랴.{그거보고 다리미라고 그래.}

[7초]

10417 # 수뿔 때서 대리미다가 다머가꼬 대리 대리고 지그른 지그른 그 대리미가 이 기계

대리미 맨치로 나와가꼬 수뽕을 아나고 증기다 꼬바서 하지만 엔나레는 수뽕로 해짜나.{숯불 때서 다리미에다가 담아갓고 다려, 다리고 지금은 지금은 그 다리미가 이 기계 다리미처럼 나와가지고 숯불로 안 하고 전기에 꽂아서 하지만 옛날에는 숯불로 했잖아.}

10417 # 이게 사발가면 대접까치 생긴 디다 다며서.{이 사발같은, 대접같이 생긴 데다 담아서.}

10417 @ 금 인두는 어디다가 이케 해요?{그럼, 인두는 어디다가 이렇게 해요?}

10417 # 화리.{화로.}

10417 # 화로다가 화로다가 불 다마노코 꼬바노코.{화로에, 화로에다코 불 담아놓고 쪼아놓고.}

10417 @ 화리?{화로?}

10417 # 이이~.{응, 응.}

10417 @ 금 다드미 다듬 다드미질 하는 거는?{그럼, 다듬이, 다듬, 다듬이질 하는 거는?}

10417 # 다드미질 하능 거는 빨래 빠러가꼬 푸지애가꼬 풀 미겨서 인자 막 투디리야지.{다듬이질하는 것은 빨래 빨아가지고 풀 먹여서 이제 막 두드려야지.}

10417 # 그거 보고 다듬뿔 도리다 다디미지라지.{그것 보고 다듬이돌, 돌에다 다듬이질하지.}

10417 @ 투두리는 건 머예요 이게?{두드리는 건 뭐예요, 이게?}

10417 # 다듬뿔: {다듬이 돌.}

10417 @ 막때기는?{막대기는?}

10417 # 막때기엔 방망이.{막대기는 방망이.}

10417 # 다디미 빵맹이.{다듬이 방망이.}

10417 # 다디미 방맹이라고 그래.{다듬이 방망이라고 그래.}

[4초]

10417 @ 금 빨래도 다 동네에서 하는 고시 이썬썬이 아니면 지베서 그냥?{그럼 빨래도 다 동네에서 하는 곳이 있었어요, 아니면 집에서 그냥?}

10417 # 아 저 지금 지비서 삼 판 사람드리 이글러닝게 이썬.{아, 저 지금 집에서 삼 판 사람들이 요즈음이니까 있지.}

10417 # 엔나리는 들:파니 가서 해찌 머.{옛날에는 들판에 가서 했지, 뭐.}

10417 # 다 이:구 가서.{다 이고 가서}

10417 # 각짜 퍼 샤메 가서.{각자 퍼, 샘에 가서.}

10417 # 저:: 들 가운데 샤미 가서.{저 들 가운데 샘에 가서.}

10417 @ 아줌마들끼리요?{아줌마들끼리요?}

10417 # 그럼.{그럼.}

10417 @ 금 거기서 막 얘기도 하고 그러셔쨌네요?{그럼 거기서 막 얘기도 하고 그러셨겠네요?}

10417 # 그 함번 나가면 안 오머는 막 이~: 주둥이 까고 아논다고 뭘 지라라고 느껴 오냐고 야다나고 할머니들 그래찌 멀 며느리드레 한티.{그 한 번 나가면 안 오머는 막 잉, 주둥이 까고 안 온다고 뭘 지랄하고 늦게 오냐고 야단하고 할머니들 그랬지 뭘, 며느리들한테.}

10417 # 그거 하른 인자 수 수다하자나.{그거 하면 이제 수, 수다떨잖아.}

10417 # 여러시 모여쥬게 수다떨지.{여럿이 모였으니까 수다떨지.}

[5초]

10417 @ 빨래를 함번 빨고 두 번 빨고 이렇 거 이썬썬이요?{빨래를 한 번 빨고 두 번 빨고

이런 거 있었어요?)

10417 # 음 아시 빨고 두 버네는 쌀뜨야:고.{응, 애벌 빨래 하고, 두 번째는 삶아야 하고.}

10417 @ 그르케 항상 그르케 하셔쨌요?{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10417 # 그림.{그림.}

10417 @ 함버나면 안지니까?{한 번하면 안지니까?}

10417 # 안 안지:이고 때가 안 나.{안, 안지고 때가 안 나와.}

10417 # 깨까다덜 아냐.{깨끗하지 않아.}

10417 # 뽀야나덜 아냐 쌀무야지.{뽀얏지 않아, 삶아야지.}

10417 # 비누발로 쌀머서 잔무리다 쌀무야 뽀야나지.{비누발로 삶아서 양젓물에다 삶아야 뽀얏지.}

10417 # 그르케서 해드려쨌.{그렇게 해서 해드렸지.}

10417 # 여자드리 놀: 씨가니 어디가 이쨌 엔나리는.{여자들이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옛날에는.}

10417 # 마실도 모 까.{마실도 못 가.}

10417 # 눈 팔 새두 읍쨌.{[x한x]눈 팔 새도 없어.}

10417 # 바베 먹꼬 빨래 하고 푸지 해서 그렁 거 해서 이 식구덜 다 바느질레가꾸 이퍼드릴 라면 지비 대주가 쪼끔 머타게 출바리 널븐 사라븐 바느질도 이쁘게 자래서 이필라븐 대가 나다고.{밥 해 먹고, 빨래 하고, 풀질해서 그렁 거 해서 이, 식구들 다 바느질해가지고 입혀 드리려면 집에 대주가 조금 뽀하게 출발이 넓은 사람은 바느질도 예쁘게 잘해서 입히려면 대근하다고.}

10417 # 그냥 암게나 그럭쨌럭 입는 사람드른 쫁쫁쫁쫁 화상께나 해줘도 우리는 그르케 아 내바쨌.{그냥 아무렇게나 그럭저럭 입는 사람들은 쫁쫁쫁쫁 화상께나 해줘도 우리는 그렇게 안해봤어.}

10417 #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머쟁이고 신사여.{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머쟁이고 신사야.}

10417 # 그래서 조케 해드리야야.{그래서 좋게 해드리야해.}

10417 @ 할머니가 그림 신경 마니 쓰쨌쨌네요.{할머니가 그림 신경 많이 쓰쨌쨌네요.}

10417 # 그르치.{그렇지.}

10417 # 우리 어머니 도라가신 어머니가 자래서 디려쨌 우리 아버지.{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잘해서 드렸어, 우리 아버지.}

10417 # 나는 어려쨌 떼게 아버지가 한 이십 쌀 머거서 도라가쨌쨌게 내가 쪼끔 해드리긴 해드려쨌도 어머니가 자::래드려쨌.{나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한 이십 살 먹어서 돌아가쨌으니 내가 쪼끔 해드리긴 해드렸어도 어머니가 잘 해드렸어.}

10417 # 머쟁이 맨드려쨌 아버지를.{머쟁이 만들었어, 아버지를.}

10417 # 나 나두 으-ㅇ감니븐 내가 자래쨌쨌 인자.{나, 나도 영감님은 내가 잘해쨌지, 이제.}

10417 # 바느질 내가 자랑게.{바느질을 내가 잘하니까.}

10417 # 바느질 자랑게 이쁘게 잘 해드려쨌.{바느질 잘 하니까 예쁘게 잘해드렸어.}

10417 @ 되게 조아 하쨌쨌네요 그러먼요.{되게 좋아하쨌쨌네요, 그러먼요.}

10417 # 응 조아해쨌.{응, 좋아했지.}

10417 @ 그 안사람 숨쨌때로 사람드리 오슬 이버쨌네요.{그 안사람 숨쨌대로 사람들이 웃

을 입었겠네요.}

10417 # 그르치 그룽게 이 엔나레는 싹빠느질도 하도 모다고 저러케 바느질쟁이드리 푸파리  
꾼 바느질 저러케 싸가는 사람도 으쓱게.{그렇지, 그렇게 이 옛날에는 싹바느질도 하지도 못  
하고 저렇게 바느질쟁이들이 품팔이꾼 바느질 저렇게 샅으로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10417 # 제 소니루 다 지가 각짜가 다 꼬매잉게 우수게 꼬매이꾸 나오는 사람도 마냐 여자  
덜두.{자기 손으로 다 자기가 각자가 다 꿰매니까 우습게 꿰매 입고 나오는 사람도 많아, 여  
자들도.}

10417 # 지그른 다 이뿌게 다 이꼬 나오지만 지그른 머 바느질 저고리도 가통 거도 마니 안  
넙찌만 저르케 그냥 시장이서 바느질싸기루 하는 사람드리 이끼 때때 거기다 줘서 이붕게  
다 이뿌지.{지금은 다 예쁘게 다 입고 나오지만 지금은 뭐 바느질 저고리도 같은 것도 많이  
안 입지만 저렇게 그냥 시장에서 바느질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줘서 입  
으니까 다 예쁘지.}

10417 # 다 이뿌게 나오지.{다 예쁘게 나오지.}

10417 # 그저니는 엔나리는 저고리 이꼬 나오는 거 보면 참 우스꽝시르께 해이꼬 나오는 사  
람들 마내써.{그 전에는 옛날에는 저고리 입고 나오는 거 보면 참 우스꽝스럽게 해 입고 나  
오는 사람들 많았어.}

10417 # 나는 삭:씨덜 여기 시집 까머는 사주 사준 찌구리 저 실랑네 지비서 사주 찌구리  
양단 저구리 가져 오능 거 내가 다 꼬매써.{나는 색시들 여기 시집 가면은 사주, 사주 저고  
리 저 신랑네 집에서 사주 저고리 양단 저고리 가져 오는 거 내가 다 꿰맸어.}

10417 # 메::엘 싸라물 꼬매줘써.{몇 사람을 꿰매 줬어.}

10417 @ 할머니 자라시니까 소문 나가주구.{할머니 잘 하시니까 소문 나가지고.}

10417 # 응.{응.}

10417 # 바느질 야 그 시집 깔라른 사준 찌구리는 우리 지비로 다 가꾸 와써.{바느질 야,  
그, 시집 가려면 사주 저고리는 우리 집으로 다 가져 왔어.}

10417 # 해달라구.{해달라고.}

10417 @ 증유앙 거니깐.{중요한 거니까.}

10417 # 이~ 해달라구 해서 내가 말라서 치쭈 재가 재서 그 사람 봐가꼬 치쭈 재서 사준 찌  
고리 꼬매 주른 지끔두 여기서 이븐 사람드리 메 딴써서 지금두 그 얘기야.{응, 해달라고 해  
서 내가 말라서 치쭈 재가, 재서 그 사람 봐갓고 치쭈 재서 사주 저고리 꿰매 주면 지금도  
여기서 입은 사라들이 몇 있어서 지금도 그 얘기 해. }

10417 # 아리.{알아.}

10417 # 동네서 이르케 해서.{동네에서 이렇게 해서.}

[3초]

10418 @ 할머니 그러머는 그냥 그 천 만드러서 그냥 해이부면 안니뿌자나요 색까리.{할머  
니, 그러면 그냥 그 천 만들어서 그냥 해 입으면 안 예쁘잖아요, 색깔이.}

10418 # 그래.{그래.}

10418 @ 염새캐솔 꺼 아니예요.{염색했을 거 아니예요.}

10418 # 염 자 빠러서 인자 거시기아른 츠:미 떠다 할 때는 이빠도 자꾸 빠르머는 안 이부  
머는 물디리지.{염 인제 빨아서 인제 거시기하면 처음에 떠다 할 때는 예빠도 자꾸 빨아서  
안 예쁘면 물들이지.}

10418 # 우리 애더런 참: 내가 이뿌게 자래놔따.{우리 애들은 참 내가 예쁘게 잘해놨다.}

10418 # 노랑물도 디리고 부농물도 디리고.{노랑물도 들고 분홍물도 들고.}

10418 @ 그거 어뜨케 하시능 거예요?(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0418 # 물리 파러 물감.{물[x감x]을 팔아, 물감.}

10418 # 파룽게 가따가 잘:: 디러가꼬 손지레가꼬 다 꼬매서 이피므는 명즐 때 나오면 아러.{파니까 갖다가 잘 들여갖고 손질해갖고 다 꿰매서 입히면 명절 때 나오면 알아.}

10418 # 누 집 따린지 누 집 아긴지.{뉘 집 딸인지 뉘 집 아기인지.}

10418 # 딱:: 이꾸 나오면.{딱 입고 나오면.}

10418 # 아이고 너는 느 어매가 숨씨가 조아서 참 젤 이뿌게 이꼬 나온다.{아이고, 너는 네 어매가 숨씨가 좋아서 참 제일 예쁘게 입고 나온다.}

10418 # 그런 소리 드려쨌 이~.{그런 소리 들었지 응.}

10418 @ 금 엔나레 물감 업쓸 땐 어뜨케 물드려쨌요?(그러면 옛날에 물감 없을 때는 어떻게 물들였어요?)

10418 # 몰라 나는 엔나리.{몰라, 나는 옛날에는.}

10418 # 물감 읍쓸 때는 멀로 헨나.{물감 없을 때는 뭘로 했나.}

10418 @ 할머니 어려쨌 때 어뜨게 해드려쨌요, 해주셔쨌요?(할머니 어렸을 때 어떻게 해드렸어요, 해주셨어요?)

10418 # 나 이쓸 때도 우리 엄니도 물감 드리더라고.{나 있을 때도 우리 어머니도 물감 들이더라고.}

10418 @ 사서?(사서?)

10418 # 이~ 사서.{응, 사서.}

10418 # 그때도.{그때도.}

10418 @ 엔날 자연 물감 말고?(옛날 자연 물감 말고?)

10418 # 이~.{응.}

10418 # 그때도 무리 이써서 이거 찌건 물 다 사다가.{그때도 물감이 있었서 이것 저것 물감 다 사다가.}

10418 @ 무니도 너쨌요?(무늬도 넣었어요?)

10418 # 무니 몰라 안너쨌 무니를 어뜨게 지비서 땀드러.{무늬는 몰라, 안 넣었어, 무늬를 어떻게 집에서 만들어.}

[3초]

10419 @ 금 제 이거 하나만 여쭙보게요.{그럼 이제 이거 하나만 여쭙볼게요.}

10419 @ 무명 표배근 어터케 해쨌요 표백?(무명 표백은 어떻게 했어요, 표백?)

10419 # 무명 포백?(무명 표백?)

10419 # 응 양젼물.{응, 양젼물.}

10419 # 쨌물 사다가 엄니 포백 하더라고.{양젼물 사다가 어머니가 표백 하더라고.}

10419 # 사다가 폭::폭 쌀머서 막 두드려 빼든 뽀야냐.{사다가 폭폭 삶아서 막 두드려 빼면 뽀얀해.}

10419 @ 어 그러요?(어, 그래요?)

10419 # 이~ 양젼물로.{응, 양젼물로.}

10419 @ 금 기와짱 가툽 거 빼아가주고 표백또 해쨌요?(금 기와장 같은 거 뺏아가지고 표백도 했어요?)

10419 # 아내쨌 그렇 건.{안했어, 그런 것은.}

10419 # 기와짱 빠가꼬 하는 거슨 시끼 따꺼써 씨끼.{기왓장 빵아 가지고 하는 것은 식기  
 닦았어, 식기.}

10419 @ 어트케요 어트게?{어떻게요, 어떻게?}

10419 # 시끼.{식기.}

10419 # 이런 밥 퍼먹는 엔날 시끼.{이런 밥 퍼먹는 옛날 식기.}

10419 # 그거 빠다가 고::께 처가꾸 그누미로 싹싹 따끄면 뿌야냐.{그거 빵아다가 곱게 처가  
 꾸 그눔으로 싹싹 닦으면 뿌연해.}

10419 @ 오 그래요?{오, 그래요?}

10419 # 기와짱 이~.{기왓장 응.}

10419 # 그거뚜 이 슬 때 모기 이룬 때 이르케 오머는 그거 주수루 땡기기가 이러써.{그거  
 이 설 대목에 이런 때 이렇게 오면은 그거 주으러 다니는 것이 일어었어.}

10419 # 기와짱 주수루 땡기기가.{기왓장 주으러 다니는 것이.}

10419 # 그거 시끼 따끌라구.{그거 식기 닦으려구.}

10419 # 수제 따꾸.{수저 닦고.}

10419 @ 오:: 그렇 걸루 빨랜 아나고.{오, 그런 것으로 빨래는 안하고.}

10419 # 아내써 그렇 걸루 무슨 빨래를 하.{안했어, 그런 것으로 무슨 빨래를 해.}

10419 # 그룩 따꺼찌.{그릇 닦았지.}

10419 @ 금 그르시 깨끄테저요?{그럼 그릇이 깨끗해저요?}

10419 # 이~ 개까다.{응, 깨끗해.}

10419 # 그거 아니면 딱떨 모대써.{그거 아니면 닦지를 못 했어.}

10419 # 기와짱 아니른.{기왓장 아니면.}

10419 @ 그래요?{그래요?}

10419 @ 그럼 진짜 시끼는 멀로 따꺼써요 풍풍도 업써쓸 업썸는데.{그럼 진짜 식기는 멀로  
 닦았어요, 풍풍(+주방 세제 상표명)도 없었을, 없었는데.}

10419 # 포풍 읍썸게 그 그걸루 따꺼써 그거라구.{풍풍도 없으니까 그, 그걸로 닦았어, 그걸  
 하고.}

10419 # 그거 읍썸문 채루 따끄머는 그양 시금 안 그르케 까까다게 유니 안 나.{그거 없으  
 면 채로 닦으면은 그냥 식기(+놋그릇) 그렇게 깨끗하게 윤이 안 나.}

10419 # 그 저: 기와짱 주서다가 이게 채루 처가꾸 가루 맨드러서 쪼끔씩 노코 따꺼찌.{그  
 저 기왓장 주위다가 이렇게 채로 처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쪼끔씩 놓고 닦았지.}

10419 # 그러믄 뿌::어나지 그냥 스기 나.{그러면 뿌영잖아, 그냥 광이 나.}

10419 @ 신기하네.{신기하네.}

10419 @ 그래꾸나.{그랬구나.}

10419 @ 그러케 빨구 설거지 하구 그래꾸나.{그렇게 빨고 설거지하고 그랬구나.}

10419 @ 쥼물로 하구.{양젓물로 하고.}

10419 # 쥼물로 하구.{양젓물로 하고.}

10419 @ 또 비누 저로 만드러서 하구.{또 비누 겨로 만들어서 하고.}

10419 # 엔날 노인네들 주그니드리 불쌍야.{옛날 노인네들 죽은 이들이 불쌍해.}

10419 # 하두 고통스르게 사려서.{하도 고통스럽게 살아서.}

[7초]

=1 @ 할머니 머 올 이러케 만들다가 재미써편 얘기 하나만 해주세요.{할머니, 뭐 옷 이렇게

만들다가 재미있었던 얘기 하나만 해주세요.}

=1 # 온: 만들다가?{옷 만들다가?}

=1 # 재미뎌 뉘?{재밋던 일?}

=1 @ 온 이케 할머니 숨씨 조으셔가주구 그르케 온 까툽 거 만들다가 재미써뎌 얘기 하나. {옷 이렇게 할머니 숨씨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옷같은 거 만들다가 재밋었던 얘기 하나.}

=1 # 온: 만들다 재미뎌 얘기는 우리 큰딸 하꼬 뎡길 때. {옷 만들다 재밋던 얘기는 우리 큰 딸 학교 다닐 때.}

=1 # 그 때 무와빠리를 이브라 구라더라고. {그 때 겁옷을 입으라 그러더라고.}

=1 # 그런디 무와빠리를 하꼬에서 부창애꼬 뎡길떠기 무와빠리를 뎡들라는데 도:제 생가기 안 나. {그런데 겁옷을 학교에서 부창학교(+부창국민학교) 다닐 적에 사의를 뎡들라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

=1 # 그래서 바느질찌비 저 너머 하느니가 저 등너머 하느니가 바느질찌비 이써써. {그래서 바느질 집에 저 넘어 하는 이가 저 등너머 하는 이가 바느질 집이 있었어.}

=1 # 그래 가서 함머는 어트게 하나 그래떠니 이르케 이르케 이르케 하라 구라더라고 알려주더라고. {그래 가서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알려주더라고.}

=1 # 그래 그느믄 이 하능 거설 보고 와가꾸 내가 지비서 우리 툄로 바겨써. {그래 그놈을 이 하는 것을 보고 와가지고 내가 집에서 우리 [x재봉x]툄로 박았어.}

=1 # 바가서 무와빠리를 뎡드러가꾸 하::안 에리 하 히네리 다라서 다:: 이케 해났는데 그르케 입 이떠 노닝게 이빠 우리 따리 그라고 큰따리. {박아서 겁옷을 만들어갖고 하얀 깃, 하, 흰 깃을 달아서 다 이렇게 해났는데 그렇게 입, 입혀 놓으니까 예빠, 우리 딸이, 그리고 큰 딸이.}

=1 # 아이고 어트게 이쁜지 아주 그냥 참:: 싱기하게도 이빠. {아이고 어떻게 예쁜지 아주 그냥 참 싱기하게도 예빠.}

=1 # 그래 내가 그때 그냥 뎡드러 노꾸 명줄 때 인자 바지 저고리 치매 저고리 가가 임 얘기가 이빠써. {그래 내가 그때 그냥 만들어 놓고 명줄 때 이제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 그 애가 인[x물x], 얘기가 예뻤어.}

=1 # 이빠서 치매 저고리 명주베 떠서 부농물 디리고 노랑물 디리고 해가꼬 바느장 거러서 치매 저고리를 함 벌 다 궁게 해서 이핑게 파덜 초이리다 인자 이꾸 나가는데 왜이르케 이뿌냐. {예빠서 치마 저고리 명주 베 떠서 분홍물 들이고 노랑물 들이고 해갖고 [x바느질해서 x] 치마 저고리를 한 벌 다 해서 입히니까 팔월 초일이라 이제 입고 나가는데 왜이렇게 예쁘냐.}

=1 # 차::암 이빠써. {참 예뻤어.}

=1 # 이~ 그래서 가:덜 킨 떠기 그거 항 거시 누니 서녀내. {응,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그거 한 것이 눈에 선하네.}

=1 # 지금 우리 애더른 자더른 그냥 사다만 이핑게 저렁 거 아낭게 신상은 퍼나는데 그르케 이빨 쭈가 읍써써. {지금 우리 애들은 그 애들은 그냥 사다만 입히니까 저런 거 안하니까 신상은 편한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

=1 @ 이~ 진짜. {와, 진짜.}

=1 @ 할머니가 해서 이러케 이퍼노면 얼마나 기쁠까.{할머니가 해서 이렇게 입혀놓으면 얼마나 기쁠까.}

=1 # 응 이~.{응, 잉.}

=1 # 익 익꾸 조아가꾸 그냥 이래 저두 조아 저두 조아가꾸 이 쳐다보고 기뻐아드라구.{입, 입고 좋아갖고 그냥 이렇게, 저도 좋아, 저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기뻐하더라고.}

=1 @ 할머니두 되게 보람 이쓰셔께쎄요.{할머니도 되게 보람 있으셨겠어요.}

=1 # 응 그러케써 조아 항게.{응, 그렇게 했어, 좋아하니까.}

=1 # 자래 이퍼써 내가.{잘 해 입혔어, 내가.}

=1 @ 솜씨 조은 엄마 때무네 남편 분 하라버지도 조아 하셔쎄네.{솜씨 좋은 엄마 때문에 남편 분, 할아버지도 좋아하셨겠네.}

=1 # 하라부지도 내가 명지 바지 저고리 참:: 투드려 패서 흥두께 이퍼서 낙쌍아게 이러케 해서 잘 해드려쎄.{할아버지도 내가 명주 바지 저고리 참 투드려 패서 흥두께질해서 근사하게 이러케 해서 잘 해드렸지.}

=1 # 자래드려써 이뿌게.{잘 해드렸어, 예쁘게.}

=1 @ 고맙따고 하셔요?{고맙다고 하셔요?}

=1 # 고맙따고나 머나 해중게 조타 고라지 머.{고맙다고나 뭐나 해주니까 좋다고 그러지 뭐.}

10417 @ 흥도께 패는 게 머예요 할머니?{흥두께 패는 게 뭐예요, 할머니?}

10417 # 다디미를 해가꾸 그라몬 이게 이게 이게 저븐 고비가 이짜냐.{다듬이를 해갖고 그러면 이게, 이게, 이게 접은 구김이 있잖아.}

10417 # 그래 그라몬 고비 읍쌔기 위해서 흥도께라고 나무로 요마::나게 해서 매::끄마게 해서 지래기 이마나게 이써.{그래, 그러면 구김을 없애기 위해서 흥두께라고 나무로 요만하게 해서 말끔하게 해서 길이가 이만하게 있어.}

10417 # 그라몬 거기따 흥도께다 가머가꾸 막:: 투드려 패머는 꾸기가 하::나두 읍찌 매::크마지.{그러면 거기에다 흥두께에다 감아가지고 막 투드려 패면 구김이 하나도 없지, 말끔하지.}

10417 @ 다리미보다 조아요?{다리미보다 좋아요?}

10417 # 응.{응.}

10417 # 다리미치름 항거치름 그르케 해써.{다리미처럼 한 것처럼 그렇게 했어.}

10417 # 패대서 뚜디려서 그냥 나근나근나그나게 해가꾸 해디리문 이뿌지 그른디 털터래 쪼그매.{패서 투드려서 그냥 나긋나긋하게 해가지고 해드리면 예쁘지 그런데 털털해, 조금.}

10417 # 깔끔시르께를 아니버.{깔끔스럽게 안 입어.}

10417 # 그저니 우리 아버지는 펍: 깔끄매서 그르케 해디리면 깔끔시르께 이번ندي 우리 으—ㅇ가몬 그르케 깔끄시럽틀 아내써.{그전에 우리 아버지는 펍: 깔끔해서 그렇게 해드리면 깔끔스럽게 입었는데 우리 영감은 그렇게 깔끔스럽지 안했어.}

10417 # 그냥 이부분 이부분 그거구 이 안 그르드라구.{그냥 입으면 입으면 그거구, 이 안 [+입으면] 그러더라고.}

10417 # 해주기는 내가 자래줘써도.{해주기는 내가 잘 해줬어도.}

[5초]



## 1.5. 식생활

### 1.5.1. 채소 재배와 요리

10501 @ 네 할머니 오느른 식생활에 대해서 여쭙보게요.{네, 할머니 오늘은 식생활에 대해서 여쭙볼게요.}

10501 # 응.{응.}

10501 @ 채소 재배하는 거하고 요리를 먼저 여쭙보게요.{채소 재배하는 거하고 요리를 먼저 여쭙볼게요.}

10501 @ 어 바테서 기른 채소에는 어떻 거뜨리 이썬요?{어, 밭에서 기른 채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10501 @ 채소.{채소.}

10501 # 채수화?{채소?}

10501 # 무 배추 파 시금치 당근 머 넵 그 그게 머여 다마네기 마늘 그릉 거지 점부.{무, 배추, 파, 시금치, 당근 뭐, 넵, 그 그게 뭐여, 양파, 마늘, 그런 거지 전부.}

10502 @ 그러머는 이렇 건 어뜨게 길러 머그세요 처으메?{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길러 먹으세요, 처음에?}

10502 @ 배추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배추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10502 # 배추?{배추?}

10502 # 배추씨 던저따가 그냥 지그른 모 사다 시머.{배추씨 뿌렸다가 그냥, 지금은 모 사다 심어.}

10502 # 씨 던지면 또 고르게 잘 나고 안 나고 할 때 이썬게 호배추 가:리 김장 하는 거슨 몬 멍는 노른 갈:고 파니다가 해 논 놈.{씨 뿌리면 또 고르게 잘 나고 안 나고 할 때가 있으니까 호배추 가을에 김장하는 것은 못 먹는 놈은 갈고 판에다가 해 놓은 것.}

10502 # 종자 재배 한 사람만티 사다 시머 오래 잘 데때 오래.{종자 재배 한 사람한테 사다가 심어, 올해 잘 됐대, 올해.}

10502 # 그르케 해떠니.{그렇게 했더니.}

10502 @ 그러면 상치 상추는요 상추?{그러면 상추, 상추는요, 상추?}

10502 # 상추?{상추?}

10502 # 상추 바티다 가르른 잘 도ㅏ.{상추 밭에다 갈면 잘 돼.}

10502 # 그거는 막 보미 던저.{그것은 막 봄에 뿌려.}

10502 # 인제 조금 이썬 가르야야.{이제 조금 있으면 갈아야 해.}

10502 # 정월 스 슬 새고 나서 보름 새고 이월 초에는 던저 버리야야.{정월, 설, 설 쇠고 나서 보름 쇠고 이월 초에는 뿌려 버려야 해.}

10502 # 상추는 일찍 까리.{상추는 일찍 갈아.}

10502 @ 그럼 그냥 막 자라는 대로 뜨더멍능 거예요?{그리고나서 막 자라는 대로 뜯어먹는 거예요?}

10502 # 응 뜨더머궁게 잘 커 그건.{응, 뜯어 먹으니까 잘 커, 그건.}

10502 # 추워두 아너러 주거.{추워도 안 얼어 죽어.}

10502 # 그게 이~ 도카.{그것이 잉, 독해.}

10502 # 자 안 안 말러 주거.{잘 안, 안 말라 죽어.}

10502 # 무는뇨?{무는요?}

10502 # 무는 아직 모써머.{무는 아직 못 심어.}

10502 @ 어? 그래요?{어? 그래요?}

10502 # 에~ 무는 이~ 치릴파리 심우야야.{응, 무는 잉, 칠월달에 심어야 해.}

10502 # 치릴버터 인제 가:리 멍년 무는 가:리 채소 멍년 무는 그 때 싱꼬 봄무라고 인는디 보미 멍능 거 종자 던지면 잘 커.{칠월부터 인제 가을에 먹는 무는 가을에 채소 먹는 무는 그 때 심고 봄무라고 있는데 봄에 먹는 것 종자 뿌리면 잘 커.}

10502 @ 그럼 가으레 멍는 무 어트게 커요?{그럼 가을에 먹는 무는 어떻게 커요?}

10502 @ 길러 머거요?{길러 먹어요?}

10502 # 가:리 멍년 거 바티다 더저른 이~ 오월 유월 유월파레 음력 유월 양너그로 치윔 그 때 가르면 치릴 한 달 파윔 한 달 구월 시월파리는 뽕찌아나?{가을에 먹는 것은 밭에다 던지면 잉, 오월, 유월, 유월달에 음력 유월, 양력으로 칠월 그 때 갈면 칠월 한 달, 팔월 한 달, 구월, 시월달에는 뽕잖아?}

10502 # 상개월만 커두 잘 커 마니 커.{삼개월만 커도 잘 커, 많이 커.}

10502 @ 그래서 그냥 멍능 거예요?{그래서 그냥 먹는 거예요?}

10502 # 이~.{응.}

[5초]

10502 @ 장다리무는 머예요 할머니?{장다리무는 뭐예요, 할머니?}

10502 # 장다리는 공다리야.{장다리는 공다리야.}

10502 # 그걸 뿌려다가 인자 보미 지끔 뿌릴 씨간 쪼그미쓰른 뿌리야건네.{그걸 뿌려다가 이제 봄에 지금 쭈릴 시간인데 조금 있으면 뿌려야겠네.}

10502 # 그거 뿌려다가 열무 하능 거.{그거 뿌려다가 열:무를 하는 거야.}

10502 # 장다리가.{장다리가.}

10502 # 응 여르메 머 여르메 열:무.{응 여름에 뭐 여름에 열무.}

10502 # 열:무 씨더로 장다리라 구라.{열무 씨더라 장다리라고 그래.}

[3초]

10502 @ 파는뇨?{파는요?}

10502 # 파는 자 머 수시루 심는디 아무 때도 심는디 보미 이케 모 베타가 여르미 이케 파종 해노코 뽕바다가 인자 움:겨 심찌.{파는 인제 뭐 수시로 심는데 아무 때나 심는데 봄에 이렇게 모 부엌다가 여름에 이렇게 파종 해놓고 뽕바다가 인제 움겨 심지.}

10502 # 잘 대 파도.{잘 돼, 파도.}

[5초]

10502 @ 고추?{고추?}

10502 # 꼬추 인자 저거 보미 썸꾸.{고추은 이제 저거 봄에 심고.}

[3초]

10502 @ 그냥 시르면 다 잘 나요?{그냥 심으면 다 잘 나요?}

10502 @ 머 특빠리 해 주능 거 업써요?{뭐 특별히 해 주는 거 없어요?}

10502 # 특빠리 하능 거 움써.{특별히 하는 거 없어.}

10502 # 꼬추도 잘 나는디 지끔더른 다 해서 재배 해가꾸 모 판때기다 키워가꾸 종자로 파

러명은 사람덜 이썬게 그거 사다 시머. {고추도 잘 나는데 지금은 다 해서 재배해갖고 모판에다 키워갖고 종자로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사다 심어.}

10502 # 조아 모털 모를 사다 심능 게 시워.{조아, 모를, 모를 사다 심는 게 쉬워.}

10502 @ 근테 고추는 머 이러케 북돋워준다고 이렇 거또 하고 머 막때기도 꼬자 노차나요.{그런데 고추는 뭐 이렇게 북돋워 준다고 이런 것도 하고 뭐 막대기도 꽃아 놓잖아요.}

10502 # 아니 꼬추막때 꼬부야지.{아니, 고추 막대 꼽아야지.}

10502 # 그라야 따지.{그래야 따지.}

10502 # 부또 도다주고.{북도 돋워주고.}

10502 @ 왜 그르케 하능 거예요?{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502 # 안 자빠지게.{안 넘어지게.}

10502 # 꼬초는 자빠지머는 쭈와기 여러따가 다 절절 모다자나, 씨러지면.{고추는 넘어지면 수확기에 열었다가 다 결실 못 하잖아, 쓰러지면.}

10502 # 그렇게 부틀 도다줄 때기 짱짱하라고 막때기 꼬바서 짬매노코 부쭈구 그르카지.{그러니까 북을 돌아줄 때 짱짱하라고 막대기 꼽아서 잡아매놓고 북 돋워주고 그렇게 하지.}

10502 # 시금치 줌 알려주세요.{시금치 줌 알려 주세요.}

10502 # 시금치?{시금치?}

10502 # 시금치 보미 심찌.{시금치 봄에 심지.}

10502 # 보미 시머서 보미 멍는 놈 이꼬 가:리 시머서 이 겨:리 멍는 놈두 이꼬 인는디 대:개 보미 시머 보미.{봄에 심어서 봄에 먹는 놈 있고 가을에 심어서 겨울에 먹는 놈도 있고 있는데 대개 봄에 심어, 봄에.}

10502 # 보미 마니 시머.{봄에 많이 심어.}

10502 @ 부추는뇨?{부추는요?}

10502 # 부추?{부추?}

10502 # 부추는 씹는 씨아시로 씹는 거뽕덤 그거 시머 나따가 찌저 심능 게 마나.{부추는 심는 씨앗으로 심는 것보다 그거 심어 왔다가 찢어 심는 게 많아.}

10502 # 웅:겨 시무야야.{웁겨 심어야 해.}

10502 # 부추 모를 뭇따가 마니 나머는 찌저서 바티다 다:: 거 여 다른 데로 웅겨서 이 앵:겨 시머.{부추 모를 부었다가 많이 나면은 찢어서 밭에다 다른 데로 웁겨서 이거 웁겨 심어.}

10502 # 그라우야 그거시 뿌리가 찌:러 부트면 앙 커 그거는.{그래야 그것이 뿌리가 절어 붙으면 안 커, 그거는.}

10502 # 그 찌른 느를 다꾸 뜨더 노야야.{그 절은 놈을 자꾸 뜯어 놓아야 해.}

10502 # 제각각.{제각각.}

10502 @ 그서 호미로 시머요?{그래서 호미로 심어요?}

10502 # 이~ 호미로.{응, 호미로.}

10502 # 시워 그래도 그거또.{쉬워, 그래도 그것도.}

10502 @ 마늘요 할머니.{마늘요 할머니.}

10502 # 마늘 마느른 시아니 시머찌.{마늘, 마늘은 겨울 심었지.}

10502 # 가으리 가으리 시머서 지끔 이 파종이 안직 싸:기 안터찌 이사기가.{가을에, 가을에 심어서 지금 이, 파종이 아직 싹이 안 텄지, 이삭이.}

10502 # 지금 올라와.{지금 올라와.}

10502 @ 가을에 심는 건?{가을에 심는 건?}

10502 # 가르리 시머.{가을에 심어.}

[3초]

10502 @ 마느른 또 어트게 손지라는 거 머 그렇 거느뇨?{마늘은 또 어떻게 손질하는 거 뭐 그런 것은요?}

10502 # 마늘 시머노코 지끄른 엔나리는 막 고리다 수북쭈북 이르게 심는데 지그면 신식 돼서 그거또 베니루가 다 나와가고 구멍글 하나하나 다 뜨러놔짜나.{마늘 심어놓고 지금은 옛날에는 막 끝에다 수북수북 이렇게 심[x었x]는데 지금은 신식이 돼서 그것도 비닐이 다 나와갖고 구멍을 하나하나 다 뚫어 놔잖아.}

10502 # 그래 베니루 사다가 쪽: 까라노코 그 항 구머게 하나씩 다 시머.{그래 비닐 사다가 쪽 깔아놓고 그 한 구멍에 하나씩 다 심어.}

10502 # 구머기다가.{구멍에다가.}

10502 # 그렇게 고대루 키워.{그렇게 그대루 키워.}

10502 # 거름만 주면 대 거름만.{거름만 주면 돼, 거름만.}

10502 # 거름 미꺼름 소기다가 거름 느쿠 싱꼬.{거름, 밑거름 속에다가 거름 넣고 심고.}

10502 # 그대로 크지 인자.{그대로 크지 인제.}

10502 @ 금 거르른 어떻 걸 쥔 잘 줘야 돼요 잘 싱겨써서?{그럼 거름은 어떤 걸 제일 잘 줘야 돼요, 잘 싱겨써서?}

10502 # 거름?{거름?}

10502 # 테비 저 시장이서 파러.{퇴비, 저 시장에서 팔어.}

10502 # 마늘 비루라구.{마늘 비료라고.}

10502 @ 금 머 고추나 이렇 거 보다도 마느른 테비 줘야 돼요?{그럼 뭐 고추나 이런 거 보다도 마늘을 퇴비 줘야 돼요?}

10502 # 어 마 마늘 시를 때기 퇴비 쪼끔 하고 마늘롱사 심닝 거시 더 꼬추보덤 더 시웁, 시워.{어, 마늘 심을 때 퇴비 조금하고 마늘농사 심는 것이 더 고추보다 더 쉬워.}

10502 # 심머만 노코 미꺼 소기다 미꺼름 하고 시머 노:머는 크더락까장 얼마 거름도 아냐. {심어만 놓고 밑거름, 속에다 밑거름하고 심어 놓으면 크도록 까지 얼마 거름도 안해.}

10502 # 야 비 비올 떠기 비루 췌끄때만 슬슬 뿌려주면 잘 커 잘.{야, 비올 때에 비료 조금만 슬슬 뿌려주면 잘 커, 잘.}

10502 @ 생강은뇨 할머니?{생강은요, 할머니?}

10502 # 생강도 생강은 쪼금 이써서 한 사월 오월따리 시므야야 생강.{생강도 생강은 조금 있어서 한 사월, 오월달에 심어야 해 생강.}

10502 # 삼사월 시머서 가르리 캐능 거지.{삼사월 심어서 가을에 캐는 거지.}

[2초]

10502 # 그런 농사지끼는 시워.{그런 농사짓기는 쉬워.}

10502 # 생강 가통 거 그렇 건.{생강 같은 것 그런 것은.}

10502 @ 쑥까시나 미나리도?{쑥갓이나 미나리도?}

10502 # 쑥까슨 바티다 하야고 미나리는 저 논뻬미다 하야지.{쑥갓은 밭에다 해야 하고 미나리는 저 논배미에 해야지.}

10502 # 무린는 디다가.{물 있는 데다가.}

10502 @ 그렇 건 어트게 시무세요?{그런 건 어떻게 심으세요?}

10502 # 쭈까 쭈까슨 씨루 싱꼬 미나리는 저 미나리깡이서 난 늪 뜨더다가 포기포기 모 심  
떠끼 뜨문뜨문뜨문뜨문 시너노른 찌러부터 미나리깡 도냐.{쭈갓은 씨로 심고 미나리는 저  
미나리깡에서 난 늪 뜰어다가 포기포기 모 심듯이 뜨문뜨문뜨문뜨문 심어놓으면 절어 붙어  
미나리깡 돼.}

10502 # 그거 그거는.{그거, 그거는.}

[3초]

10502 @ 미나리깡이요?{미나리깡(+깡)이요?}

10502 # 음.{음.}

10502 @ 그게 머예요?{그게 뭐예요?}

10502 # 미나리밭 이짜냐.{미나리밭(+깡) 있잖아.}

10502 # 여가 널떠 미나리뻔.{여기가 넓지 미나리깡.}

10502 @ 그게 미나리깡이예요?{그게 미나리깡이예요?}

10502 # 이~ 미나리깡.{응, 미나리깡.}

10502 # 거그서 막 찌다가 엉겨 심찌 엉겨 시머.{거기서 막 뜰어다가 옮겨 심지, 옮겨 심어.}

10502 # 그케 따다.{그렇게 따다.}

10502 # 몰 모짜리여서 모 뽕바다가 모 심떠기.{못, 못자리에서 모 뽕아다가 모 심듯이.}

[3초]

10502 @ 할무이 죽순두 길러 보셔썬요?{할머니, 죽순도 길러 보셨어요?}

10502 # 죽순 대나무밭.{죽순 대나무밭.}

10502 # 죽순 이~.{죽순, 응.}

10502 # 구건 머 저절루 나.{그건 머 저절로 나.}

10502 # 대바티서.{대밭에서.}

10502 # 우리 저 우:찌비 사를 떠기 대바시 찌금두 이썬 그집 팔구 네러와서.{우리 저 옷집  
에 살 적에 대밭이 지금도 있어, 그 집 팔고 내려와서.}

10502 # 죽썬니 얼마나 마~이 나는데 막 팔뚜까리 이른 느미 막 쭈쭈 나.{죽순이 얼마나 많  
이 나는데 막 팔뚝같은 이런 늪이 막 쭈쭈 나.}

10502 # 아이 거 오월딸 사월 오월.{아이, 그거 오월달, 사월, 오월.}

10502 # 양여그로 오월딸 사월딸 데머는 이 하냐 막 나기 시자간다.{양력으로 오월달, 사월  
달 되면은 이 함께(+하냐은 하냐임) 막 나기 시작한다.}

10502 # 나오기 시작 하믄 막 이런 누미 올라와.{나오기 시작하면 막 이런 늪이 올라와.}

10502 @ 머 씨 안 뿌리구.{뭘 씨 안 뿌리고.}

10502 # 아 암 뿌려!{아, 안 뿌려!}

10502 # 그 대나무 바티서 그냥 나와.{그 대나무 밭에서 그냥 나와.}

10502 # 이~ 한번 찌러 부트면 매 맨날 나와.{응, 한번 절어 붙으면 맨날 나와.}

10502 @ 금 죽썬으로 머 해 드세요?{그럼 죽순으로 뭘 해 드세요?}

10502 # 여그 싸람덜 죽썬 그릉 거 암 머거.{여기 사람들 죽순 그런 거 안 먹어.}

10502 # 그라는데 일번 싸람드리 그저니 우리 죽썬 마:니 날떠기 뽕바다 달라가면 그 사람  
더른 요리를 자래 먹뜨라고.{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전에 우리 죽순 많이 날 때 뽕아다 달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요리를 잘해 먹더라고.}

10502 # 구워 죽썬늘.{구워, 죽순을.}

10502 # 그어 부리 귀가꼬 그저니는 지끄른 곤노지만 엔나리는 곤노도 우꾸 풍로라구 그거

불 펴서 수뿌리다 머 하능 거 이써꺼든?(그거 불에 구워갖고 그 전에는, 지금은 곤로지만 옛날에는 곤로도 없고 풍로라고 그거 불 펴서 숯불에다 뭐 하는 거 있었거든?)

10502 # 거기다 구떠라구.{거기다 굶더라고.}

10502 # 귀가꼬 짹::짹 쓰러서 소곰 무쳐가꼬 귀가꼬 먹떼.{구워가지고 짹짹 썰어서 소곰 묻혀갖고 구워가지고 먹떼.}

10502 # 이~ 귀서 머거.{응, 구워서 먹어.}

10502 # 그 귀서 꼬치장도 안 찌거 머꼬 매웅게.{그거 구워서 고추장도 안 찍어 먹고 매우니까.}

10502 # 일번 싸람 매웅 거 몸 머궁게 왜간장 간장 일본 싸람 그거 뽀고 왜간장이라지 그 사람드리 명는 간장.{일본 사람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왜간장, 간장, 일본 사람 그거 보고 왜간장이라지, 그 사람들이 먹는 간장.}

10502 # 거기다 양녀매서 찌거 먹뜨라고.{거기다 양념해서 찍어 먹더라고.}

10502 @ 요즈메 막 탕수육 까튼 데 드리가지나요.{요즘에 막 탕수육 같은 데 들어가잖아 요.}

10502 # 이~ 지그른 마~이 쓰지.{응, 지금은 많이 쓰지.}

10502 @ 그 다메 감자는 어뜨게 길러 머거요 할머니?(그 다음에 감자는 어떻게 길러 먹어요, 할머니?)

10502 # 고구마여 하지감자여?(고구마여, 하짓감자여?)

10502 @ 하지감자.{하짓감자.}

10502 # 하지감자 쪼그미쭈문 싱견네 보미.{하지감자, 조금 있으면 심겠네, 봄에.}

10502 # 보미 시머서 가으리 가으리 캐는디 그 바테다 시머 그냥.{봄에 심어서 가을에 가을에 캐는데 그 밭에다 심어, 그냥.}

10502 @ 씨알 고구마에 남겨 놔따가?(씨알 고구마에 남겨 뒀다가?)

10502 # 으이~.{응.}

10502 # 하지감자 사다가 여기 농사짓는 사람더리나 뒀나 어쨌나는 몰로지만 대게 둘라문 심드려 그거. {하짓감자 사다가 여기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뒀나 어쨌나는 모르지만 대게 둘라문 힘들어, 그거.}

10502 # 잘 그랑게 기냥 종자때 데른 시장이 가서 한 일관 여기 재배 마::니 하는 사람더리다 뒀따 하지. {잘, 그러니까 그냥 종자 때 되면 시장에 가서 한 일 관, 여기 재배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뒀다 하지.}

10502 # 그렇 거 농사 여기는 쪼끔 지닝게 한 일 관 이 관 쪼끔씩 사다가 머글 꺼 조금 심는디 잘 커 짜기루 잉 잘 커 잘 라.{그런 거 농사, 여기는 조금 지으니까 한 일 관, 이 관 쪼끔씩 사다가 먹을 거 조금 심는데 잘 커, 짹으로 응, 잘 커, 잘 나.}

10502 # 그래 여기는 농사 마니 안정게 씨 머 찌금씩 항게 마니 하는 사람 이써야지.{그래, 여기는 농사 많이 안 지으니까 씨, 뭐 쪼금씩 하니까 많이 하는 사람 있어야지.}

10502 # 먼저기 작:짜나 다털 바시.{먼적이 작잖아, 다들 밭이.}

[4초]

10502 # 그럼 고구마는요 할머니?(그럼 고구마는요, 할머니?)

10502 # 고고마는?(고구마는?)

10502 # 수늘 내가꾸 이르케 내:른 이르케 이 올라오자냐.{순을 내가지고 이렇게 내면 이렇게 이게 올라오잖아.}

10502 # 그러면 수를 찢어서 푹푹푹 킁너서 수니루 시머.{그러면 수를 잘라서 푹푹푹 꿰어서 순으로 심어.}

10502 # 고고마 에~ 에~ 수니로 시머 이거는 그냥 씨로 아냐.{고구마, 응, 응, 순으로 심어, 이것은 그냥 씨로 안 해.}

10502 # 종자를 내 종을 내.{종자를 내, 종자를 내.}

10502 # 바티다 요만::치 이르게 할라른 한 이백 평 삼백 평 시를 꺼래도 요자리만 가지면 할껴.{밭에다 요만큼 이렇게 하려면 한 이백 평, 삼백 평 심을 것이라도 요자리만 가지면 할 거야.}

10502 # 자리 바거서 뒤엄 소기다 뒤엄 퇴비 느코 이 막 흙 찌고 퇴 퇴비 소기다 바꾸서는 흙 손 소기다가 막 잔뜩 호글 찌구서는 우이다 이르게 이르게 고고마를 수를 노:크 감자를 가따 논다 이~.(자리를 박아서 두엄 속에다 두엄 퇴비 넣고 이, 막 흙 넣고 퇴, 퇴비 속에다 박고서는 흙 속, 속에다 막 잔뜩 흙을 넣고서는 위에다 이렇게 이렇게 고구마 순을 놓고, 감자를 갖다 논다, 잉.)

10502 # 고고마를 가따 노머는 그라구서는 폭:: 더퍼서 우이 딱: 더퍼 놔두고 인자 따따다게 지비로 딱 더퍼 놔두면 아널자나.{고구마를 갖다 놓으면 그리고서 폭 덮어서 위에 딱 덮어 놔두고, 이제 따뜻하게 쪼으로 딱 덮어 놔두면 안 얼잖아.}

10502 # 지금 쏜 지금 고고마 쏜 늘 때여 정월파리.{지금 순, 지금 고구마 순 넣을 때야, 정월달에.}

10502 # 순 너서 이르게 딱 막 씨워 놔두문 막 이만큼씩 후끈 후끈나니 막 소박::아게 올라 오지.{순 넣어서 이렇게 딱 막 씨워 놔두면 막 이만큼씩 후끈후끈하게 막 수북하게 올라오지.}

10502 # 그라른 오월 류월까지 그냥 여기 사월 오월 파리 마니 나오문 그 수냉이 끼너다가 바티다 시머.{그러면 오월, 유월까지 그냥 여기 사월 오월 달에 많이 나오면 그 순 꿰어다가 밭에다 심어.}

10502 # 순 끼러서.{순 꿰어서.}

10502 @ 그냥 시머요?{그냥 심어요?}

10502 @ 뿌리가 업짜나요.{뿌리가 없잖아요.}

10502 # 뿌리 순 수니루.{뿌리, 순, 순으로.}

10502 # 순 뜨 뜨더서 이르게 감자순 이짜냐.{순 뜯, 뜯어서 이렇게 감자순 있잖아.}

10502 # 이르게 주두라케 나오면 푹푹 찢아서 요지리기에서 요지리기.{이렇게 길다랗게 나오면 푹푹 잘라서 요 길이에서 요길이[x까지x].}

10502 # 요지리기 이르게 이르게 끼느야야.{요 길이 이렇게 이렇게 꿰어야 해.}

10502 # 요지리기에서 요지래기 끼느면 땅에다 땅 무꾸 여기서 여기망크른 호기루 무꾸 이 건 냉겨 뒤 이 올라온 무더기를.{요 길이에서 요 길이 꿰으면 땅에다 딱 묻고, 여기서 여기만큼은 흙으로 묻고 이 건 남겨 뒤, 이 올라오는 무더기를.}

10502 # 이케 냉겨두문 거그서 사::무 인자 막 버더나가면서 고고마 소기서 알 드르며 임미 뿌리가 수냉이가 빠드며 그라 바티로 하나.{이렇게 남겨두면 거기서 사뭇 인제 막 뺏어나가면서 고구마 속에서 알 들으며 이미 뿌리가 순이 뺏으며 그래, 밭으로 하나.}

[6초]

10502 @ 토라느뇨 할머니 토란?{토란은요, 할머니, 토란?}

10502 # 토라는 씨알로 그냥 가따 시머나뒤.{토란은 씨알로 그냥 갖다 심어놔뒤.}

10502 @ 어 그래요?

10502 # 이.{응.}

10502 # 토란씨 그놈 하나씩 드문드문 시머노른 그거 여가내서 죽또 아냐.{토란씨, 그놈 하나씩 드문드문 심어놓으면 그거 여간해서 죽지도 안 해.}

10502 # 병두 읊씨.{병도 없어.}

10502 @ 연그는요 할머니?{연근은요, 할머니?}

10502 # 여?{여?}

10502 @ 연근.{연근.}

10502 # 여그는 여기서 아냐.{연근은 여기서 안 해.}

10502 # 저 농빼미서 하.{저 논 주변에서 해.}

10502 # 노니서 하능 겨.{논에서 하는 거야.}

10502 @ 해보써씨요?{해 보셨어요?}

10502 # 아내바씨 그릉 긴.{안 해봤어, 그런 것은.}

10502 # 여 하는 사람 저 건너 누가 와서 하나 한다고 하는디 지금 장녀니 해노코 올 보미 데머는자 또 나올꺼 거그서 싸기 틀꺼.{여기 하는 사람 저 건너 누가 와서 하나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작년에 해놓고 올 봄에 되면 이제 또 나올 거야, 거기서 싸이 틀꺼야.}

10502 # 연그나는 사람 읊씨.{연근하는 사람 없어.}

10502 @ 당그니요.{당근이요.}

10502 # 당그는 시머.{당근은 심어.}

10502 @ 어트케 하세요?{어떻게 하세요?}

10502 # 씨로.{씨로.}

10502 # 씨루 시머 이.{씨로 심어, 응.}

10502 # 씨루 시머 당근씨 사다가 보미 시머.{씨로 심어 당근씨 사다가 봄에 심어.}

10502 # 시르면 가으리 캐는디 그거뚜.{심으면 가을에 캐는데 그것도.}

10502 @ 근데 당근 보면 까무잡잡하자나요.{근데 당근 보면 까무잡잡하잖아요.}

10502 @ 시장에 내놓 건 빨가난데.{시장에 내놓것은 빨간데.}

10502 @ 달라요 종이?{달라요, 종이?}

10502 # 어 아냐.{어, 아냐.}

10502 # 까무잡잡 하면 당근 꺾때기가 까무잡잡 해도 글그머는 빨가냐 그게.{까무잡잡하면 당근 꺾때기가 까무잡잡해도 굵으면 빨개, 그게.}

10502 # 이르케 크 이 클 때 클 때 보면 온 우꺼텅이 여기는 이케 이 입새귀가 나온 디 그 미티 똥아리 바로는 까마.{이렇게 크, 응, 클 때 클 때 보면 윗, 윗동아리 여기는 이렇게 윗, 앞사귀가 나온 데 그 밑에 동아리 바로는 까매.}

10502 # 우리도 시머 바찌만 까마사라마.{우리도 심어 봤지만 거무스름해.}

10502 # 그러내 뽕바다가 인자 닥닥 글거버리면 밭:가내져.{그런 것 뽕아다가 이제 닥닥 굵어버리면 밭간해져.}

10502 @ 응 그러구나.{응, 그렇구나.}

10502 # 응.{응.}

[3초]

10502 @ 그래서 그냥케 당그는 씨뿌려가주구?{그래서 그냥 이렇게 당근은 씨 뿌려가지고?}

10502 # 씨 잉 씨루 시머도 잘 커.{씨, 응, 씨로 심어도 잘 커.}



10502 # 바티다 무 심띠끼.{발에다, 무 심띠이.}

10502 # 잘 크더라고.{잘 크더라고.}

10502 @ 우영은요 할머니?{우영은요, 할머니?}

10502 # 우억?{우억(+영)?}

10502 @ 우영.{우영.}

10502 # 우영두 여기선 아내.{우영도 여기서는 안해.}

10502 # 노니다 하지.{논에다 하지.}

[5초]

10502 @ 호박.{호박.}

10502 # 호바근 심찌.{호박은 심지.}

10502 @ 어뜨게 하세요?{어떻게 하세요?}

10502 # 바티다 씨루 하낙씩.{발에다 씨로 하나씩.}

10502 @ 하나씨교?{하나씩요?}

10502 # 응 하나씩.{응 하나씩.}

10502 # 두 개 한 구덩이 두 개씩 하낙씩 지버너서 인자 마니 드리가서 서너 너대개씩 썸 썸머노코 다 나:머는 소까버리지.{두 개, 한 구덩이에 두 개씩, 하나씩 집어넣어서 이제 많이 들어가서 서너 너댓개씩 심, 심어놓고 다 나면은 속아버리지.}

10502 # 두 개만 나두고.{두 개만 놔두고.}

10502 # 소까내면 잘 커 그렁 긴.{속아내면 잘 커 그렁 것은.}

10502 # 농사지끼 시웅 게 호방 농사다.{농사짓기 쉬운 것이 호박 농사이다.}

10502 @ 그러쿠나.{그렇구나.}

[4초]

10502 @ 가지?{가지?}

10502 # 가지두 싱:꼬.{가지도 심고.}

10502 # 가지두 씨루 시머.{가지도 씨로 심어.}

10502 @ 씨루 시머요?{씨로 심어요?}

10502 # 응 씨루 시머따 모뵈따가 그냥 이리저리 앵겨 시머 잘라.{응, 씨로 심었다가 모 부었다가 그냥 이리저리 옮겨 심어, 잘 나.}

10502 @ 가지두 머 이케 대 줘야 돼요 잘 자라라고?{가지도 뭐 이렇게 대 줘야 돼요, 잘 자라라고?}

10502 # 응.{응.}

10502 # 가지를 꼬바주야 꼬바주야지 앙 꼬바주머는 인자 이짜기다 열라 저까 저짜기다 열라 가지 가지 가지가 막 이르게 느러지머는 자빠져.{가지를 꼬아줘야, 꼬아줘야지 안 꼬아주면 이제 이쪽에 열라 저쪽, 저쪽에 열라 가지, 가지의 줄기가 막 이렇게 늘어지면 쓰러져.}

10502 # 막때기에 꼭 줍매 주야 거기가 완저나게 사르가꼬 짱짱하니 부터이찌.{막대기에 꼭 잡아매 줘야 거기가 완전하게 살아갖고 짱짱하니 붙어있지.}

10502 @ 열매도 잘 매저요?{여가지도 잘 열어요?}

10502 # 잘 매저.{잘 맺어(열어).}

10502 @ 세어노면 더 잘 매저요?{세워 놓으면 더 잘 맺어요?}

10502 # 응 잘 저.{응, 잘 [x열어x].}

10502 # 잘 대.{잘 돼.}

10502 # 가지가튼 농사지끼 일도 아녀.{가지같은 농사 짓기 일도 아니야.}

10502 @ 오이.{오이.}

10502 # 오이 가지 며.{오이, 가지, 뭐.}

10502 # 오이는자 시머노코 녕쿠로라 올라가라구 이르게 대나무 가통 걸 그르게 집 찌서 막 찜매주야 올라가지.{오이는 이제 심어놓고 녕쿨이 올라가라고 이렇게 대나무 같은 것을 집 지어서 막 묶어줘야 올라가지.}

10502 # 우리는 마니 아난게 두어 포기 바티다 이르게 바꾸텨이다 시머서 따 머글 때도 이 꼬 안 따머글 때도 이꼬.{우리는 많이 안하니까, 두어 포기 밭에다 이렇게 밭에다 심어서 따 먹을 때도 있고, 안 따먹을 때도 있고.}

10502 # 그냥 이 디우라니 여기다가 쪼끔 시머서 메깨 시머서 따머꾸 그래.{그냥 이 뒷 울 안(+뒤뜰)에 여기다가 쪼끔 심어서 몇 개 심어서 따먹고 그래.}

10502 @ 언제 시머요 오이?{언제 심어요, 오이?}

10502 # 다 농사 지서 파리 파리 머글라고 한 사람드른 우:상 아이다가 지금 낙쫑에서 요마 큼씩 커떼 오이.{다 농사 지어서 팔아, 팔아 먹으려고 한 사람들은 온상 안에다가 지금 파종 해서 요만큼씩 컸데, 오이.}

10502 # 그래 그럼 사다가 보미 심찌 인자.{그래 그놈 사다가 봄에 심지 이제.}

10502 # 여르미.{여름에.}

10502 @ 사다 시무세요?{사다 심으세요?}

10502 # 오월 응 오월파리.{오월, 응, 오월달에.}

10502 @ 씨 안 뿌리시고?{씨 안 뿌리시고?}

10502 # 암 뿌려.{안 뿌려.}

[5초]

10502 # 싸:: 오이 가지 그런 거 시장에서.{싸, 오이, 가지 그런 거, 시장에서.}

10502 # 처늬니 머 시 포기 네 포기 이러케 중게 그런 거 가따 싱꾸 머 할라구 아냐.{천원에 뭐 세 포기, 네 포기 이렇게 주니까 그런 거 갖다 심고 뭐 하려고 안해.}

10502 # 한 이쳐늬ن 어치 삼쳐늬치 이러케 사다가 그냥 죽 시머 놔똥따가 올라가른 이 울타리 해주구 따머꾸 그래.{한 이천원 어치, 삼천원 어치, 이렇게 사다가 그냥 죽 심어 놔똥따가 올라가면 이 울타리 해주고 따먹고 그래.}

10502 # 아 지금 싸람들 그거 전문저기루 하는 사람드리 씨안내 해서 지그른 다 버러명은 생활이 다각각 아녀?{아 지금 사람들,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씨앗을 내, 해서 지금은 다 벌어먹는 생활이 다 각각 아니야?}

10502 # 그릉게 다:: 자기네 마니 종자로 해서 내서 파는 사람 그거 사다가 또 열매 여러서 따다 파는 사람 다 그런디 우리네는 머 그런 장사를 아나고 그양 멍는 거만 쪼금씩 항게 그양 다 우리 머글 꺼만.{그러니까 다 자기네 많이 종자로 해서 내서 파는 사람, 그거 사다가 또 열매 열어서 따다 파는 사람, 다 그러는데 우리네는 뭐 그런 장사를 안하고 그냥 먹는 것만 쪼금씩 하니까 그냥 다 우리 먹을 것만.}

10502 # 근 자드리 인자 가게항게 마니 저른 데다 산 그냥 가따 마니 사옹게 기냥 거기서 가따 머꾸 그래.{그런데 재들이 이제 가게하니까 많이 저런 데에서 사, 그냥 갖다 많이 사오니깐 그냥 거기서 갖다 먹고 그래.}

10502 @ 그럼 할머니 토마토 해보써썌요 토마토?{그럼 할머니 토마토 해보셨어요, 토마토?}

10502 # 토마토는 아내바썌.{토마토는 안해 봤어.}

10502 @ 혹시 어뜨게 하는지 아세요?{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502 # 토마토도 보미 여러면 지금 하는 사람드른 지금 다 모드러가쨌 이랬는데 그거또 이거 오이 가지처럼 저 온상 아니다 길러따가 나오는 사람덜 토마토 오이 썬 사루 가르는 마 토마토 머 모 마이 나오데.{토마토도 봄에 열었던 지금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모 들여왔지. 이랬는데 그것도 이거 오이, 가지처럼 저 온상 안에다 길렀다가 나오는 사람들 토마토, 오이 썬 사러 가면 토마토 뭐, 모 많이 나오데.}

10502 # 그러면 메 포기 사다 심는 사람도 이썬 여기.{그러면 몇 포기 사다 심는 사람도 있어, 여기.}

10502 # 잘 열더라고.{잘 열더라고.}

[4초]

10502 @ 그니~까 받 그 시장에서 사와서 모를 사오는구나!{그러니까 받, 그 시장에서 사와서, 모를 사오는구나!}

10502 # 잉 살다가.{응, 사다가.}

10502 # 종자에서 파는 사라미 마나자네 지끄른 종자루.{종자해서 파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 지금은 종자로.}

10502 @ 그럼 연그니나 우엉 가튼 거 할머니 아 내 보셔따고 해쨌?{그럼 연근이나 우엉 같은 거 할머니 안 해 보셨다고 했죠?}

10502 # 응 아내바썬 그런 거.{응, 안해봤어, 그런 거.}

10502 @ 근데 어뜨게 하는지도.{그런데 어떻게 하는지도.}

10502 # 몰라.{몰라.}

10502 # 그거는 노니서 하는 사람드리 전문저기루 하는 사람들 나 귀경도 아내바썬.{그것은 논에서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나 구경도 안해봤어.}

10502 @ 버섯은요 혹시 버섯?{버섯은요, 혹시 버섯?}

10502 # 버섯?{버섯?}

10502 # 표고퍼서뚜 이 지비서 하는디 여 뒤찌비 여기서 하는디 참나무 버섯.{표고버섯도 이 집에서 하는데 여기 뒷집에 여기서 하는데 참나무 버섯.}

10502 # 그거 참나무다 는는 거 보여.{그거 참나무에다 넣는 거 보여.}

10502 # 그거 하는디 나무에다가 종균 이 종주를 너어, 나무에다.{그거 하는데 나무에다가 종균, 이 종균을 넣어, 나무에다.}

10502 # 저 종균 이쓰른 나무로 나무를 이 토마게 요지레기 이르게 막 여 저기서 이만치 지리기 이르게 오게 찢르네.{저 종균 있으면 나무로, 나무를 이 토막에 요 길이 이렇게 막 여기 저기 이만큼 길이가 이렇게 오게 자르네.}

10502 # 그래서 인자 구멍 뜨려주러 온 사라미 이썬 기계로.{그래서 이제 구멍 뚫어주러 온 사람이 있어, 기계로.}

10502 # 다 돌려가며 구머글 뜨러.{다 돌아가며 구멍을 뚫어.}

10502 # 그러믄 거기다가 여기서 이라러 우리 품 팔러 가보믄 종균 가따주믄 엔나레는 종그늘 막 이르게 그 엔날 싸람들도 명칭에서 그르게 할 중을 몰릉게 병에다가 종주를 이르게 가 너서 오르는 그누를 다 병을 깨트러가꾸 그누를 다:: 이르게 투가리 가튼 디다 다머노쿠 도구지래서 방아 양념 찢는 도구통 이짜냐.{그러면 거기다가 여기서 일하러 우리 품 팔러 가보면 종균 갖다주면 옛날에는 종균을 막 이렇게 그 옛날 사람들도 명칭해서 그렇게 할 줄을 모르니까 병에다 종균을 이렇게 갖다 넣어서 오면, 그 놈을 다 병을 깨뜨려가지고 그 놈

을 다 이렇게 툭배기 같은 데다 담아놓고 절구질 해서 방아, 양념 찜는 절구통 있잖아.)  
 10502 # 거기다 드러버서 이러케 쿡쿡쿡 찌가꼬 그 구멍 구머게 늘라든 무지하게 더더  
 썩어.{거기다 들어 부어서 이렇게 쿡쿡쿡 찜어가지고 그 구멍 구멍에 넣으려면 무지하게 더  
 났어.}  
 10502 # 그랜는디 지그든 종근도 그러케 안 너.{그랬는데 지금은 종근도 그렇게 안 넣어.}

## 1.6. 거주 생활

### 1.6.1. 집짓기

10601 @ 이제 거주생활에서 집찌끼에 대해서 여쭙보게요.{이제 거주생활에서 집짓기에 대  
 해서 여쭙 볼게요.}  
 10601 # 이 잉.{이, 응.}  
 10601 @ 할머니 처으메 이제 집터를 집찔려면 집터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자나요?{할머  
 니, 처음에 인제 집터를 집지으려면 집터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10601 # 잉 터를 다듬는 거.{응, 터를 다듬는 것.}  
 10601 @ 어뜨케 집터를 선정해요 어뜨케?{어떻게 집터를 선정해요, 어떻게?}  
 10601 # 집터를 다드믈 떼기 지관늘 오래다가 오:디루 안치냐.{집터를 다듬을 때 지관을  
 오래서 어디로 [+ 방위를]잡느냐.}  
 10601 # 그거 제: 처빠니 그거 무리봐::.{그거 제일 첫번에 그거 물어봐.}  
 10601 # 다 집 찔라든 그냥 지턴 아나자냐.{다 집 지으려면 그냥 짓지는 않잖아.}  
 10601 # 그 지관 오래다가 워디로 나나망이로 안치느냐 워디는 어디 어 지금 대개 보면  
 나망찌절 마니 지차냐.{그 지관 오래서 어디로 나, 남향으로 안치냐 어디는 어디 지금 대개  
 보면 남향집을 많이 짓잖아.}  
 10601 # 그르케 지어서 인자 상 상낭을 이 주추 놀 떼기 메 씨에 그거 논나.{그렇게 지어  
 서 인제 상, 상낭을 이 주춧돌 놀 때에 몇 시에 그거 놓나.}  
 10601 # 워트게 하나 터를 어뜨케 다듬나.{어떻게 하나, 터를 어떻게 다듬나.}  
 10601 # 그거또 아러 보고.{그것도 알아 보고.}  
 10601 @ 그러케서 그 집 찔 그 사람 불러다가?{그렇게 해서 그 집 찔 그 사람 불러다가?}  
 10601 # 잉 그거 하고.{응, 그거 하고.}  
 10601 # 그라고서는 인자 터 다듬꾸 주추 노쿠.{그리고서는 인제 터 다듬고 주춧돌 놓고.}  
 10601 @ 할머니 그럼 터 다질 때는 또 아니 터 다질 때 부르는 노래 이씨요 혹시?{할머니  
 그럼 터 다질 때는 또, 아니, 터 다질 때 부르는 노래 있어요, 혹시?}  
 10601 # 노래 불루더든 나 몰라 잘.{노래 부르더만 나 몰라, 잘.}  
 10601 @ 불러씨요?{부르셨어요?}  
 10601 # 잉: 보고 우리 노 하대 뭐라고.{잉, 보고 우리 노[X래X]하대 뭐라고.}  
 10601 # 주 주추 주추 노차 주추 노차라등가 머라고 하딩가 하드라고 남자더리.{주, 주추,  
 주춧돌 놓자, 주춧돌 놓자라등가 뭐라고 하딩가 하더라고, 남자들이.}

10601 # 딱: 내기 집 바.{딱 내 집 바.}

10601 @ 싱기하다.{싱기하다.}

10601 # 그 거시기로 다드르면서.{그 거시기로 다듬으면서.}

10601 @ 기억 모타세요?{기억 못 하세요?}

10601 # 그러케 할뻘 업써 아냐.{그렇게 할 거 없어, 안 해.}

10601 @ 그렇 거 귀한 건데 그렇 거.{그런 것은 귀한 건데, 그렇 거.}

10601 # 주 주주 노차고 하등가 머라고 하등가 하머서 노래 하머서 헨는디.{주, 주춧돌 놓  
자고 하던가 뭐라고 하던가 하면서 노래 하면서 했는데.}

10601 # 다 이전네.{다 잊었네.}

10601 @ 하라버지도?{할아버지도?}

10601 # 앵 우리 영가미.{응, 우리 영감이.}

10601 # 그래 나는 머글 꺼 해서 날르니라고 머 여벌팅이여찌.{그래 나는 먹을 거 해서 나  
르느라고 뭐 여벌이었지.}

10601 # 뒤에서 이라는디 지끔만 해두 멍능 거시 저기하지만 그 저니는 머 여간 마니 멍  
능 거 해 날리아자냐.{뒤에서 일하는데 지끔만 해도 먹는 것이 저기 하지만 그 전에는 뭐  
여간 많이 먹는 거 해 날라야잖아.}

10601 # 음서기 귀할 때라.{음식이 귀할 때라.}

10602 @ 금 인제 옛날 할머니 옛날시그로 집 진능 거 해보셔따고 해짜나요 하라버지랑 가  
치?{그럼 인제 옛날 할머니 옛날식으로 집 짓는 거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할아버지랑 같  
이?}

10602 @ 그거 쯔 이제 순서대로 인제 얘기 쯔 해주세요.{이거 쯔 인제 순서대로 인제 얘  
기 쯔 해주세요.}

10602 @ 처으메 터 다끌 때 어트게 하시는지?{처음에 터 닭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10602 # 처으미 터 다꺼 터 다드머 노코 이 네 구텡이 저 주춧돌 바거 노코 지동 세우고  
대보 거 걸고.{처음에 터 닭아, 터 다듬어 놓고 이 네 모통이 저, 주춧돌 박아 놓고 기둥 세  
우고, 대들보 그거 걸고.}

10602 @ 게보가 머예요?{대들보가 뭐예요?}

10602 # 개보 이게 지동 세운 디다가 막때기 이르게 이르게서 거능 거 게보 거능 거 엽꾸  
레로 다.{대들보 이게 기둥 세운 데다가 막대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는 거, 대들보 거는  
거, 옆구리로 다.}

10602 @ 보: 보는 어트게 하신다고요?{보, 보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10602 # 그거 인제 지동은 지동이고 이 엽꾸리에 너능 거 게보 보 거능 거 보 보짱 건다  
구 그라드라구 우리 영가미.{그거 인제 기둥은 기둥이고, 이 옆구리에 넣는 거 대들보, 보  
거는 거, 보, 보장(+ 대들보) 건다구 그러더라고 우리 영감이.}

10602 # 보짱걸고 네 구 이깁 머지 이 지블 질라른 네 구텡이가 상지동이 이쓰니께 이 네  
구 다: 거르야자냐.{대들보 걸고 네 모통이, 이게 뭐지 이 집을 지으려면 네 모통이가 상기  
둥이 있으니까, 이 네 모통이를 다 걸어야 하잖아.}

10602 # 그러케 거러노코 거기다 딱 해노코서는 서까래 상 상낭을 해야야.{그렇게 걸어놓  
고, 거기다 딱 해놓고서는 서까래 상, 상량을 해야 해.}

10602 # 상낭을 해야 서까래를 세워.{상량을 해야 서까래를 세워.}

10602 # 그러케.{그렇게.}

10602 @ 근데 보: 보는 멀로 이러케 거러요 보?{근데 보, 보는 멀로 이렇게 걸어요, 보?}

10602 # 막때기.{막대기.}

10602 @ 어 그래요?{어, 그래요?}

10602 # 잉.{어.}

10602 @ 금 벼근 아직 안 만들고?{그럼 벼근 아직 안 만들고?}

10602 # 잉 그저니 잉 그 지금 그르케 쳐으미는 엔나레는 그러키 헨는디 지끄먼 인자 벼  
또리 이췌게 벼뿔로 착착착착 싸쿠 인자 여기 아피만 지동 박꼬 저런 디는 지동 아나고 그  
거시기루다가 벼뿔로다가만 지금 항게 더: 시워.{응, 그전에 잉, 그 지금 그렇게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인제 벼뿔이 있으니까 벼뿔로 착착착착 쌓고 인제 여기 앞  
에만 기둥 박고 저런 데는 기둥 안하고{+ 세우고} 그 거시기로다가 벼뿔로만 지금 하니까  
더 쉬워.}

10602 @ 그 엔나레는 일탄 게보를.{그 옛날에는 일단 대들보를.}

10602 # 잉 다.{응, 다.}

10602 @ 네구텡이 이름 뭐요?{네 모서리 이름이 뭐요?}

10602 # 네 구텡이 하야지 잉.{네 모서리 해야지, 응.}

10602 @ 금 인제 벼 아직 안 만들고 벌써 상낭을 해요?{그럼 인제 벼 아직 안 만들고 벌  
써 상낭을 해요?}

10602 # 벼 암 만들고 상낭을 하야야.{벼 안 만들고 상량을 해야 해.}

10602 @ 그러쿠나!{그렇구나!}

10602 # 앵.{응.}

10602 @ 한 번 얘기 해주세요 상낭하능 거.{한 번 얘기 해주세요, 상량하는 거.}

10602 # 상낭하는 상낭 막때기를 상낭뽀라고 췌:: 존 노물 가따가 그 날 시도 쓰고 주인  
이름 원 대주 이름 그거 쓰구 상낭을 하지.{상량하는, 상량 막대기를 마룻대라고 제일 좋은  
것을 갖다가 그날 일시도 쓰고 주인 이름, 원 대주 이름, 그거 쓰고 상량을 하지.}

10602 @ 부스로 쓰고요?{붓으로 쓰고요?}

10602 # 잉 부스로 쓰고.{응, 붓으로 쓰고.}

10602 # 상낭을 한 대:메 인자 여그 벼글 다 만드능겨: 이 외때기 여꺼가꾸.{상량을 한 다  
음에 인제 여기 벼를 다 만드는 거야, 이 외엍어갓고.}

10602 # 엔나레는 엔날 지븐.{옛날에는, 옛날 집은.}

10602 # 여꺼서 다.{엍어서, 다.}

10602 # 베랑빠글 맨드러 베랑빠글 다.{벼를 만들어 벼를 다.}

10602 @ 나무로?{나무로?}

10602 # 나무로 다 여꺼서.{나무로 다 엍어서.}

10602 # 그래노코서는 인자 다 인자 죄 발러 또 흐기로.{그렇게하고 인제 다 인제 다 발  
라, 또 흙으로.}

10602 # 그렇게 경장히 오래 걸려써.{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어.}

10602 # 지그른 머 한 번만 발러도 췌 발러 버리면 다 되자네 집찌끼가 쉬웁써.{지금은 뭐  
한 번만 발라도 췌 발라 버리면 다 되잖아, 집짓기가 쉽지.}

10602 # 제 엔날찌븐 되게 깨탈마저써.{저 옛날집은 되게 까탈스러웠어.}

10602 # 발러노코 외때기 여꺼가꼬 아: 아이 아피 발르구 뒤 발르구 또 마빠가구 또 또:  
발르구 메 시버를 발러 시버늘.{발라놓고 외엍어갓고 아, 아이[+ 구], 앞에 바르고 뒤에 바

르고 또 맞벽하고 또, 또 바르고 몇 십번을 발라, 몇 십번을.}

10602 @ 어 마빠기 머예요 마백?{어 맞벽이 뭐예요, 맞벽?}

10602 # 마빠근 금방 발르능 거구.{맞벽은 금방 바르는 거구.}

10602 # 인자 중가니 또 함 번 발르구.{인제 중간에 또 한 번 바르고.}

10602 # 아주 인자 다 매꼬마게 하능 거 인자 다 에여꺼노코 매꼬마게 문지러 새벽 치야지 인자.{아주 인제 다 말끔하게 하는 거 인제, 다 외엿어놓고 말끔하게 문질러 새벽을 쳐야지, 인제.}

10602 @ 아 두껍게 맨들어 며 빼늘 말롱 말롱.{아, 두껍게 만들어, 몇 번을 마르게, 마르게.}

10602 # 잉.{응.}

10602 # 가른 한 번 아시 발러노코 외때기 여꺼서 그양 마시 발러노코 또 저 여기서 한 번 발 아니서 발르면 저 저쪽 베끼아 깎떼기는 그냥 이짜냐.{그러면 한 번 초벌 발라놓고 외엿어서 그냥 아시 발라놓고 또, 저 여기서 한 번 안에서 바르면 저, 저쪽 밖에 깎떼기는 그냥 있잖아.}

10602 # 거기서 또 한 번 발러서 꼬둑꼬두가게 말르면 또 한번 발르구 저짜기 가서 또 한 번 발르구.{거기서 또 한 번 발라서 꾸덕꾸덕하게 마르면 또 한 번 바르고 저쪽에 가서 또 한 번 바르고.}

10602 # 그러카고서는 인자 곱:게 마주막 이: 그러케 하.{그렇게 하고서는 인제 곱게 마지막 응, 그렇게 해.}

10602 @ 마지막?{마지막?}

10602 # 아이구! 그거 그르케 집 찢라든 상 개월 걸려 상 개월.{아이구! 그거 그렇게 집 지으려면 삼 개월 걸려, 삼 개월.}

10602 # 그런디 지그른 금방 하:.{그런데 지금은 금방 해.}

10602 # 집 진능 거 집 진능 거 깨달시렵또 아냐 지그른.{집 짓는 거, 집 짓는 거 까탈스럽지도 안해, 지금은.}

10602 # 흑 외 벽똥 생겨가꼬 흑.{흙 말고 벽돌 생겨갓고, 흙.}

10602 # 벽똥로 싸버리면 그마닝게.{벽돌로 쌓아 버리면 그만이니까.}

10602 @ 그러며는 지금 흑 빨르능 거조 흑?{그러면 지금 흙 바르는 거죠, 흙?}

10602 # 잉 에 옴나레는 흑 빨러찌.{응, 응, 옛날에는 흙 발랐지.}

10602 # 지그른 쉼멘뜨가 저게 벽또리 나와쥬게 그걸로 싸버렇게 일도 아녀.{지금은 시멘트가 저게 벽돌이 나왔으니까, 그걸로 쌓아버리니까 일도 아니야.}

10602 @ 그러케 하며는 이러케 머 요즈메는 머 머 층 머 따느로 그러케 하자나 소기 따뜨타게 바람 안 통하게.{그렇게 하면 이렇게 뭐 요즘에는 뭐 몇 층, 몇 단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속이 따뜻하게, 바람 안 통하게.}

10602 # 잉 잉.{응, 응.}

10602 # 그래 스티로폼 노쿠 지금 메 판 발르지.{그래, 스티로폼 놓고 지금 몇 단으로 바르지.}

10602 @ 근데 그 땐 나무만?{근데 그 땐 나무만?}

10602 # 나무만 하구 우야 호기로만 발러쥬는데 호기로 싹 발러노면 바라미 들 드러와.{나무만 하고 위에 흙으로만 발랐었는데 흙으로 싹 발라놓으면 바람이 덜 들어와.}

10602 # 그래 세:사무리로 발러 우리도 흑 벽또려 이게.{그래, 회삼물로 발라, 우리도 흙

벽돌이야, 이게.}

10602 # 흐게다 발롱 겨.{흙에다 바른 거야.}

10602 # 흐기로다 발라서 흐글 우리는 그러케 아나고 인자 흑백또를 저거치름 벽돌치름 찌거서 찌거가꼬 말려따가 이거 다 쌓겨 이게.{흙으로 발라서 흙을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인제 흙벽돌을 저거처럼 벽돌처럼 찍어서 찍어갖고 말렸다가 이거 다 썬 거야, 이게.}

10602 # 흐 흐기루.{흙, 흙으로.}

10602 # 흑백또루.{흙벽돌로.}

10602 # 그러케 싸서 베랑 바라미 새버게 들 드랴.{그렇게 쌓아서 벽으로 바람이 새벽에 덜 들어와.}

10602 @ 그리구 흐그로 하며는 모메도 조테요.{그리고 흙으로 하면 몸에도 좋대요.}

10602 # 이거 흐기루 다 쌓 겨 흐기루 흐기루 싸악 발라서 흑백또루.{이거 흙으로 다 썬 거야, 흙으로, 흙으로 싸악 발라서 흑벽돌로.}

10602 @ 그 흐근 그림 무슨 흐게요?{그 흙은 그림 무슨 흙이에요?}

10602 # 황토흑.{황토흙.}

10602 # 잉 황토흐기로다.{응, 황토흙으로.}

10602 @ 세 버늘 발른다.{세 번을 바른다.}

10602 # 잉.{잉.}

10602 @ 바다근?{바닥은?}

10602 # 바다근 인자 딱 나라시 해노코서는 인자 거신 고래를 맨틀라먼 방을 놀랑게 구들 구들 구드를 메주 덩어리처럼 벽돌처럼 맨드러가꾸 구드를 방빠다게다가 지금 이러케 터다 드른 디다 쪽:: 까러 까러가꼬 방을 놔:찌.{바닥은 인제 딱 반듯하게 해 놓고서는 인제 거시기 고래를 만들려면 방을 놓으려니까 구들, 구들, 구들을 메주 덩어리처럼, 벽돌처럼 만들어 갖고 구들을 방바닥에다가 지금 이렇게 터 다듬은 데다 좌악 깔아, 깔아갖고 방을 놓았지.}

10602 @ 구드를요?{구들을요?}

10602 # 잉 구드를.{에, 구들을.}

10602 @ 흐기에요?{흙이에요?}

10602 # 흐겨.{흙이야.}

10602 # 흐기로 흐기로 구워.{흙으로, 흙으로 구워.}

10602 # 그걸 놔:서 인자 하르는 빠삭 말르면 잘 안 깨져.{그걸 놔:서 인제 하면은 바삭 마르면 잘 안 깨져.}

10602 # 그게 구들짱.{그게 구들장.}

10602 # 그러카구서는 우이다가 돌 도릴 이런 놈 구들뚝 파는 파러써 옛날에는 구드를 파러써.{그렇게 하고서 위에다가 돌, 돌을 이런 놈 구들돌을 파는, 팔았어, 옛날에는 구들을 팔았어.}

10602 # 그 느미로 구들짱을 족:: 내려.{그 놈으로 구들장을 좌악 넣어.}

10602 # 우리 으-ㅇ감 잘: 놔 방.{우리 영감 잘 놔, 방.}

10602 # 그라고서는 방 놀람 뽀퍼 땡겨써.{그리고나서는 방 놓으려면 뽀혀 다녔어.}

10602 # 방 잘 룬다고.{방 잘 놓는다고.}

10602 # 집 찢라면 지그면 인자 막 그렇 거 아나고 싹:: 그냥 발러 버리고 콩그리 쳐버리고서는 그거 하지 아냐.{집 지으려면 지금은 인제 그런 거 안 하고 싹 그냥 발라 버리고 콩크리트 쳐버리고 그거 하지, 안 해.}



10602 @ 장관?{장관?}

10602 # 잉 장관 논는 디 그거 저거 보이라 드러가게 호수 느려노코 짝: 발러 버리면 끈나 자냐.{응, 장관 논는 데 그거 저거 보일러 들어가게 호스 늘어놓고 짝 발라 버리면 끝나잖아.}

10602 @ 할머니 그러며는 구드리요 그제 온돌로 만드는 온돌 그 기리 인나요 그럼?{할머니, 그러면 구들이요, 그제 온돌로 만드는 온돌 그 길이가 있나요, 그럼?}

10602 @ 불 드러가는 길이요?{불 들어가는 길이요?}

10602 # 잉.{응.}

10602 # 기를 노야지 이러케 하야지 고래.{길을 노야지, 이렇게 해야지, 고래.}

10602 # 족::족 이러케 줄조리 고를 다:: 타구 나가.{족족 이렇게 줄줄이 골을 다 타고 나가.}

10602 @ 그 구드를 놀 때?{그 구들을 놀 때?}

10602 # 앵 구들 놀 때.{응, 구들을 놀 때.}

10602 @ 구은 그 벽또리에요 구드리?{구운 그 벽돌이에요, 구들이?}

10602 # 벽또른 막 흐기 바:짝 말려서 베에 베테다 말린 백또런디 부릴 땡게 이거가꼬 깨지도 잘 아냐.{벽돌은 막 흙이 바짝 말라서 벌에 벌에다 말린 벽돌인데 불을 때니까 익어갓고(+ 구워갓고) 잘 깨지지도 안 해.}

10602 # 다 흐기 흑백또리래.{다 흙이, 흙벽돌이래.}

10602 # 다름 걸로는 모다자냐.{다른 걸로는 못 하잖아.}

10602 # 흐기로 항 거야 흑백또리지.{흙으로 한 거야, 흙벽돌이지.}

10602 @ 금 그 고래로 웅기가 드러가능 거조?{그럼, 그 고래로 온기가 들어가는 거죠?}

10602 # 이 그르치.{응, 그렇지.}

10602 # 고 골고리 골:고리 영지가 드러가서 따습찌 머 부리.{고 골고루, 골고루 연기가 들어가서 따뜻하지 뭐, 불이.}

10602 @ 구들짱 데워가지고?{구들장 데워가지고?}

10602 # 잉 데워가꾸 따승 겨.{응, 데워갓고 따뜻한 거야.}

10602 @ 궁까 인제 그런 시그로 바닥 만들고 일탄 그럼 아까 상냥 논 다오메 어트게 한다구요 또?{그러니까 인제 그런 식으로 바닥 만들고 일단 그럼 아까 상냥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구요, 또?}

10602 # 상냥 한 담 상냥 세운 다메 서까래릴 자 거르야지 이르케.{상냥 한 담에, 상냥 세운 다음에 서까래를 인제 걸어야지, 이렇게.}

10602 # 나무 서까래를.{나무 서까래를.}

10602 # 상냥뽀 우에다 족족족 다:: 네리야 지벌 해 일자냐.{마룻대 위에다 족족족 다 내려야 집을 해 이잖아.}

10602 # 지붕을 지끄른 인자 막 함서기루두 해구 기와루두 해 일지만 기와루 해도 서까래로 언지야 야구.{지붕을 지금은 인제 막 함석으로도 하고 기와로도 애 이지만, 기와로 해도 서까래로 없어야 하고.}

10602 # 지그른 서까래두 뭐 언질 꺼뚜 읍데 머.{지금은 서까래도 뭐, 얹일 것도 없데, 뭐.}

10602 # 녀:뜨랑 사나 거시강게 머 신상 퍼나대.{넵게 살아, 거시기하니까 뭐 신상 편하데.}

10602 # 그저네 그러케 해찌만.{그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10602 @ 그래서 이러케 삭 빼대를 만드능 거조 지금?{그래서 이렇게 삭 빼대를 만드는 거  
쥬, 지금?}

10602 # 이 그 그르치.{응, 그, 그렇지.}

10602 @ 그 처으메 하능 게 지봉을 이어 이어요 이제?{그 처음에 하는 게 지봉을 이어,  
이어요, 인제?}

10602 # 처으메 하능 게 지봉 인자 그러케 하구서는 지 지비로 지봉 해이능 거지 머.{처음  
에 하는 게 지봉, 인제 그렇게 하고서는 쥬, 쥬으로 지봉 해 이는 거지, 뭐.}

10602 @ 지금부터?{지금부터?}

10602 # 응.{응.}

10602 @ 비오고 그럴까 봐.{비오고 그럴까 봐.}

10602 # 그럼.{그럼.}

10602 @ 지봉 해 이능 거 어트게 해요?{지봉 해 이는 거 어떻게 해요?}

10602 # 영떼기.{이영.}

10602 # 지비루 영 여꾼 느미루.{쥬으로 이영 엮은 것으로.}

10602 # 우이 올라가서 이게 이게 말하자면.{위로 올라가서 이게, 이게 말하자면.}

10602 # 상냥한 보짱이라면.{상량한 대들보이라면.}

10602 # 여기다가 엮꾸리다 전부 다 이러케 이러케 서까래를 걸었자나 이 늬 따라서 인자  
죽:쭈.{여기다가 옆구리에다 전부다 이렇게, 이렇게 서까래를 걸었잖아 이 것 따라서 인제  
죽죽.}

10602 # 서까래를 거러쓰머는 인자 서까래 거른 우이다가 다 지벌 땡기머서 둥구라케 해  
이능 거지 머.{서까래를 걸었으면 인제 서까래를 건 위에다가 다 쥬을 당기머서 둥그랗게  
해 이는 거지 뭐.}

10602 # 서까래를 거러서 짜가꾸.{서까래를 걸어서 짜갓고.}

10602 # 네 구탱이 이러케 자 짜서.{네 모서리 이렇게 다 짜서.}

10602 # 나무도 검:나게 드러가.{나무도 많이 들어가.}

10602 # 아이 씨발탱이 지그메야 나무도 안드러가.{아이 썩할 지금이야 나무도 안 들어  
가.}

[3초]

10602 # 지끄른 머 저: 슬라브 쳐빠리면 머 금방네 해버리데.{지금은 뭐, 저 슬라브 쳐버리  
면 뭐 금방 해버리데.}

[8초]

10602 @ 할머니 주춧돌은 어떤 돌로 해요?{할머니, 주춧돌은 어떤 돌로 해요?}

10602 # 주춧돌?{주춧돌?}

[3초]

10602 # 주춧돌 깨먹또리라고 뽕뽕뽕 도리썩.{주춧돌 까만돌이라고 반듯반듯한 돌이 있  
어.}

10602 @ 파려요?{팔아요?}

10602 # 카 잉 응.{하, 응, 응.}

10602 # 그런 늬 가따가 돌 드러다가 노면 닐.{그런 것 갓다가 돌 들어다 놓으면 돼.}

10602 @ 할머니 기둥 세울 때요.{할머니, 기둥 세울 때요.}

10602 @ 주춧돌 놓 자리에 그 밑에 모래나 뭐 자갈가튼 거 이런 걸로 튼튼하게 아내요?  
 {주춧돌 놓을 자리에 그 밑에 모래나 뭐 자갈 같은 것 이런 걸로 튼튼하게 안 해요?}

10602 @ 그냥 땅에다 해요?{그냥 땅에다 해요?}

10602 # 땅에다 하.{땅에다 해.}

10602 # 판파나게 해노코 탁: 땅에다 해야 싹 싸지 그럼 디다가 뭐 노머는 더 엉성해 지랴:  
 {판판하게 해 놓고 탁 땅에다 해야 싹 쌓지 그런 데다가 뭐 놓으면 더 엉성해 지랄이 야.}

10602 @ 그러쿠나.{그렇구나.}

10602 # 뭐 안 놔.{뭐 안 놔.}

[6초]

10602 @ 바심지른 뭐예요 할머니 바심질?{바심질은 뭐예요, 할머니, 바심질?}

10602 # 바심지리 머여?{바심질이 뭐야?}

10602 @ 먹 멩매긴다고 하나?{먹, 멩매긴다고 하나?}

10602 @ 바심질.{바심질.}

10602 @ 먹쭈 친다고 하나?{먹쭈 친다고 하나?}

10602 # 음 먹탱기능 거 먹똥르능 거.{음, 먹쭈 튀기는거, 먹쭈 돌르는 거.}

10602 @ 그게 머예요?{그게 뭐예요?}

10602 # 먹쭈 탱기능 거 아무케나 하면 안 마찌::.{먹쭈 튀기는 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맞 지.}

10602 # 자때로 다 재가꼬 먹쭈 탁:: 탱기가꼬 메 짜 메 찌 메 뿐 다: 아:르야 고대로 해야  
 그거시 다 드러가지 매마케크름.{자로 다 재갓고 먹쭈 탁 튀겨갓고 몇자 몇치 몇분 다 알아  
 야 그대로 해야 그것이 다 들어가지 맞, 맞게끔.}

10602 @ 근까 그 선 가튼 거를 표시할 때 먹쭈로 텅기능 거예요?{그러니까 그 선 같은 걸  
 표시할 때 먹쭈로 튀기는 거예요}

10602 # 잉 텅기능 거.{응, 튀기는 거.}

[4초]

10602 @ 그래서 그러케 인제 뼈대 만들고 지붕부터 해 올리고.{그래서 그렇게 인제 뼈대  
 만들고 지붕부터해 올리고.}

10602 # 그 그러케.{그, 그렇게.}

10602 @ 그 다메 이제 벽체 꾸민다구요 아까 삼다느로?{그 다음에 인제 벽체 꾸민다구요,  
 아까, 삼단으로?}

10602 # 응.{응.}

10602 @ 세 번 발라서?{세 번 발라서?}

10602 # 응.{응.}

10602 @ 가운데 나무 머라구요?{가운데 나무가 뭐라구요?}

10602 @ 머 꺾언는 낀다구?{뭐 꺾 있는, 낀다구?}

10602 # 낀 거?{낀 거?}

10602 @ 나무.{나무.}

10602 # 나:무?{나무?}

10602 @ 벼게.{벽에.}

10602 # 벼게다가 찌는 드룽 거?{벽에다가 끼는, 들인 거?}

10602 # 가로짱?{가로장?}

10602 @ 그니까 벽 흐카기 저네 이러케 족 나무로 싼다고 해짜나요.{그러니까 벽, 흙하기 전에 이렇게 쪽 나무로 쌓는다고 했잖아요.}

10602 # 흐가 후 발르기 저네는 영때기 여끄야지.{흙하, 흙 바르기 전에는 이영 얹어야지.}

10602 @ 아 영때기{아, 이영.}

10602 # 으—○:때래 잉 나레 거.{이영, 응, 날에 그거.}

10602 # 오일 에영는다고 그래 에 영는다고 그건 뽀고.{외 일, 외웁는다고 그래, 외웁는다고, 그것 보고.}

10602 # 에여꺼서 흑뻑 친다고.{외웁어서 흙벽을 친다고.}

10602 @ 그러면 그런 나무 쓰이는 나무 종뉴 재료가 머예요 다?{그러면 그런 나무 쓰이는 나무 종류 재료가 뭐예요, 다?}

10602 @ 그 나무 뼈대 만들 때.{그 나무, 뼈대 만들 때.}

10602 @ 집 뼈대.{집 뼈대.}

10602 # 집 뼈대 맨드는 종뉴?{집 뼈대 만드는 종류?}

10602 @ 그 나무들 다.{그 나무들 다.}

10602 # 지동.{기동.}

10602 # 질 지동 나무.{기, 기동 나무.}

10602 @ 그제 무슨 나무요, 소나무?{그러니까 무슨 나무요, 소나무?}

10602 # 소나무.{소나무.}

10602 # 점부라 소나무로 해써.{전부가 소나무로 했어.}

10602 # 소나무가 젤 튼트냐::.{소나무가 제일 튼튼해.}

10602 # 잘 썩지도 아나고 소나무는.{잘 썩지도 않고, 소나무는.}

10602 # 소나무가 젤 조아.{소나무가 제일 좋아.}

10602 # 벌레도 안 나고.{벌레도 안 나고.}

[5초]

10602 @ 그 다메 이제 구들 그러케 다 노코 금까 인제 뼈대 만들고 벽 세우고 아니 지붕 해 일고 벽 세우고 바닥 하고요 구들?{그 다음에 인제 구들 그렇게 다 놓고 그러니까 인제 뼈대 만들고, 벽 세우고, 지붕 해 일고, 벽 세우고, 바닥하고요, 구들?}

10602 @ 영 응.{응, 응.}

10602 @ 그 다메 마루 마루도 까랴요 마루?{그 다음에 마루, 마루도 깔아요, 마루?}

10602 # 마루 깔지 인자 방 노키 저네.{마루 깔지 인제 방 놓기 전에.}

10602 # 방 노키 저네 마러 방 노코 마러 다 까러.{방 놓기 전에 마루, 방 놓고 마루 다 깔아.}

10602 # 뜰뻥 맨트르고.{토방을 만들고.}

10602 @ 어뜨게 해요 마루는?{어떻게 해요, 마루는?}

10602 # 마루?{마루?}

10602 # 마루넌 할 때 텐넬 너께 할라든 하구 마러 거시갈라든 하구.{마루는 할 때 툇마루를 넓게 하려면 하고 마루, 거시기하려면 하구.}

10602 # 이거뚜 이러케 마루뻥 이러케 여기 우리도 마룻을 여기 놔짜너 이러케.{어것도 이렇게 마룻방 이렇게 여기 우리도 마루를 여여기 놔잖아, 이렇게.}

10602 # 여기가 이게 송판 드러써 송판 마루 송판.{여기가 이게 송판 들었어, 송판, 마루

송판.}

10602 # 음 여따가 다.{음, 여기다가 다.}

10602 @ 나물 짜가주구 논능 거예요?{나무를 짜서 놓는 거예요?}

10602 # 응 여기다 마루 송판 가따 여기다 다 까러찌 이러케.{응, 여기에 마루 송판 갖다 여기다 다 깔았지, 이렇게.}

10602 # 송판니여 이게 다.{송판이야, 이게 다.}

10602 @ 응 진짜루.{응, 진짜로.}

10602 # 응 이거뚜 뜨더내비리고 다시 한 번 까르야 하는디.{이거 뜯어 내비리고 다시 한 번 깔아야 하는데.}

10602 @ 그럼 반자 인제 반자 언질 때.{그럼 반자, 인제 반자 없을 때.}

10602 # 반자는 이 집 다 지꼬 반자하능 겨 되배할 때.{반자는 이 집 다 짓고 반자 하는 거야, 도배할 때.}

10602 @ 음 마루 칸 다메 머해요 할머니?{음, 마루 칸 다음에 뭐해요 할머니?}

10602 @ 어디 한 번 순서대로 또 그 다음.{어디 한 번 순서대로 또 그 다음.}

10602 # 마루 칸 대메 이 마로가 하머는 다 도냐 거반.{마루 칸 다음에 이 마루가 되면 다 돼, 거반.}

10602 # 다 되야 마루 노여 깔자냐.{다 돼야 마루 놓아 깔잖아.}

10602 # 그런 대메 인자 방 노코 마루 깔고.{그런 다음에 인제 방 놓고 마루 깔고.}

10602 # 그라고서는 여 인자 되배 할 떼게 여 여기 반자 눌루고.{그리고 나서는 여, 인제 도배 할 때 여기 반자 누르고.}

10602 # 이 이거 뜨더내면 횡 하이 그 거시기가 다 보이지.{이, 이거 뜯어내면 횡 하니 그 거시기가 다 보이지.}

10602 # 상냥 항 거시.{상당한 것이.}

10602 # 게 반자를 눌러두게 안 보이지.{그게 반자를 눌러두니까 안 보이지.}

10602 @ 그 반자가 어트게 딱 부터 인네요 잘.{그 반자가 어떻게 딱 붙어 있네요, 잘.}

10602 # 그거 반자트럴 짜:: 그거뚜.{그거 반자들을 짜, 그것도.}

10602 # 잉 짜서 다꾸 이리저리 이러케 네모 뺏뜨타게 주릴 느려서 짜가꾸 조걸 딱딱 부 치자냐.{잉, 짜서 자꾸 이리저리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줄을 늘여서 짜갖고 저것을 딱딱 붙 이잖아.}

10602 @ 하 손 마니 가능구나.{아, 손이 많이 가는구나.}

10602 # 그럼.{그럼.}

10602 @ 그 다른 창호 달기.{그 다음에 창호 달기.}

10602 # 응?{응?}

10602 @ 창호?{창호?}

10602 # 창호가 머여?{창호가 뭐야?}

10602 # 창문?{창문?}

10602 # 창문는 집 질 떼게 내는 겨.{창문은 집 질 때 내는거야.}

10602 @ 처음부터?{처음부터?}

10602 # 처음부터.{처음부터.}

10602 # 메 짜 메 푼 저 딱딱 재노쿠 저기 딱 해노쿠 인자 가로짱 질르구 다 하지.{몇 자, 몇 푼 저 딱딱 재 놓고 저기 딱 해 놓고 인제 가로장 지르고 다 하지.}

10602 # 문터 문턱 맨틀구.{문턱, 문턱 만들고.}

10602 @ 도배는 다 그 다음 해야?{도배는 다 그 다음에 해야?}

10602 # 그럼.{그럼.}

10602 # 도배는 마무리지 인자.{도배는 마무리지, 인제.}

10602 # 끈마무리.{끝마무리.}

10602 @ 도배:: 도배 할 때 어르게 하셔썬요?{도배, 도배를 할 때 어떻게 하셔썬요?}

10602 # 아 그양 죄 발리썬 뭐 어트갸. 조이 사다 그럼 조이 사다가 숨썬 존: 사람들 다. 이거 우리가 발리썬 그냥 내가.{아, 그냥 다 발리썬지, 뭐 어떻게 해. 종이 사다, 그럼, 종이 사다가 숨썬 좋은 사람들. 다 이거 우리가 발리썬, 그냥, 내가.}

10602 @ 진짜요?{진짜요?}

10602 # 잉.{응.}

10602 # 내가 발리썬 인자 또 되배지 사다가 또 발르야 야 전.{내가 발라서 인제 도, 도배지 사다가 또 발라야 해, 인제.}

10602 # 날 따따타면 발르야지.{날이 따듯하면 발라야지.}

10602 @ 진짜 할머니 기술짜시네.{진짜 할머니 기술자시네.}

10602 # 아이구! 잘 말러 그리두.{아이구! 잘 말러 그래도.}

10602 # 그저니 그 정시랑두 빨르구.{그 전에, 그 정식이랑도 바르고.}

10602 # 크나드리랑도 우리 으—ㅇ가미랑도 발르구.{큰아들이랑도, 우리 영감이랑도 바르고.}

[5초]

10603 @ 그럼 인제 지붕 해이는 재료 재료에 따라서 집 이르미 틀려지자나요.{그럼 인제 지붕 해이는 재료, 재료에 따라서 집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10603 # 그러치 초가집.{그렇지, 초가집.}

10603 @ 그거 썬 얘기해 주세요 어떤 재료 무슨 집 이러케.{그거 썬 얘기해 주세요, 어떤 재료에 무슨 집 이렇게.}

10603 # 지푸래기로 하는 지븐 초가집.{짚으로 하는 집은 초가집.}

10603 # 함서기루 하는 지븐 함석썬.{함석으로 하는 집은 함석집.}

10603 # 기와루 하명 기와집.{기와로 하면 기와집.}

10603 # 그르지 머.{그렇지, 뭐.}

10603 # 진능 거슨 다 또까치 저.{짓는 것은 다 똑같이 지어.}

10603 # 그래 그 언는 디 대해서 그러치.{그래 그 언는 데 대해서 그렇지.}

[4초]

10604 @ 그리고 인제 지베 모양과 크기에 따라도 달라요 이르미 할머니?{그리고 인제 집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요 이름이, 할머니?}

10604 @ 집 모양 자근 거부터 이러케 이름드리 어르게 지어 지는지.{집 모양, 작은 것부터 이렇게 이름들이 어떻게 지어 지는지.}

10603 # 그래.{그래.}

10604 # 머 지븐 내내 이르미 또까트지 머::.{뭐 집은 내내 이름이 똑같지, 뭐.}

10604 # 지븐 썬 크나 자그나 집 진능 거슨 다:: 재료가 또까치 드르가지.{집은 제일 크나 작으나 집 짓는 것은 다 재료가 똑같이 들어가지.}

10604 # 마니 마니 드러가냐 작게 드러가냐 치썬가 지르냐 널브난데 똑::까치 구조여.{많

이, 많이 들어가냐, 작게 들어가냐, 찢수가 길으냐, 넓으냐, 똑같은 구조야.}

10604 # 자근 옴팡찌비나 머나 또까터.{작은 옴팡집이나 뭐나 똑같아.}

10604 # 진는 시근.{짓는 식은.}

10604 # 지금 자근 집 머라우요? 옴팡집?{지금 작은 집 뭐라우요? 옴팡집?}

10604 # 옴팡집.{옴팡집.}

10604 @ 옴팡집.{옴팡집.}

10604 # 응.{응.}

10604 # 자근지블?{작은 집을?}

10604 # 응 옴팡집.{응, 옴팡집.}

10604 @ 더 자근 지븐 머라고 해요?{더 작은 집은 뭐라고 해요?}

10604 # 더 자근 지비 어디여 옴팡찌비몽 옴팡집.{더 작은 집이 어디 있어, 옴팡집이면 옴팡집.}

10604 # 더 자근 지비 얼마나 이써 내내.{더 작은 집이 얼마나 있어, 내내.}

10604 @ 오두막집?{오두막집?}

10604 # 오두막찌비 옴팡찌비 오두막찌비여.{오두막집이, 옴팡집이 오두막집이야.}

10604 # 그럼 오두 옴팡집 다음에 쫘 큰 지븐 머라고 해요?{그럼 오두, 옴팡집 다음에 쫘 큰 집은 뭐라고 해요?}

10604 # 초가삼칸이라고 아냐?{초가삼간이라고 안 해?}

10604 # 쏘아집.{초가집.}

10604 @ 삼칸집.{삼간집.}

10604 # 응 상칸집.{응, 삼간집.}

10604 # 그라고서는 인자 크면 인자 사칸 오칸 저노테 머 이러키 진는디 그거는 인자 목쭈가 인자 머리 써서 다:: 하야 목쭈도 겹나게 대가냐.{그리고서는 인제, 크면 인제 사 칸, 오 칸 저 놓데, 뭐 이렇게 짓는데 그것은 인제 목수가 인제 머리 써서 다 해야, 목수도 아주 많이 대근해.}

10604 # 머리 써서 그거 맨틀라든 질라든.{머리 써서 그거 만들려면, 지으려면.}

10604 # 우리 으—ㅇ가든 밤새더락 잠 안 자.{우리 영감은 밤새도록 잠 안 자.}

10604 # 이게 그:리고: 예 저니는 성냥개비 이짜냐?{이게 그리고, 예전에는 성냥개비 있잖아?}

10604 # 성냥 성냥 개비로다 다:: 이러케 마쳐보고 그랴.{성냥, 성냥 개비로 다 이렇게 맞춰보고 그래.}

10604 # 다 해서 워디 어디 얼마 드리간다 머 드리간다 이러케.{다 해서 어디, 어디 얼마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이렇게.}

10604 # 그거 골치 아파::.{그거 골치 아파.}

10604 # 지반 채 마터서 질라든 싱경 마~이 쓰드라우.{집 한 채 맡아서 지으려면 신경 많이 쓰더라고.}

10604 # 지끄면 지끔 집 진능 거슨 더 시워.{지금은 지금 집 짓는 것은 더 쉬워.}

10604 @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걸 다 계획글 짜야자요?{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걸 다 계획을 짜야 하잖아요?}

10604 # 그럼 되 다 밤새더락.{그럼, 돼, 다 밤새도록.}

10604 # 또 그라고 집 진능 거또 모양 모양을 또 이러케 해 달라 저러케 해 달라 그라면

골치 아프자나.{또 그리고 집 짓는 것도 모양, 모양을 또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10604 # 그렇게 항가지 지비루 진능 건 아니자나.{그러니까 한가지 집으로 짓는 건 아니잖  
아.}

10604 # 그렇게 자기가 그날 저녁에 밤새더락 으—구를 해서 그 기튼날 가서 할라면 다  
적뜨라구.{그러니까 자기가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연구를 해서 그 이튿날 가서 하려면 다  
적더라고.}

10604 # 어디는 메 차 메 치 메 뿐 어디 나무는 메 치.{어디는 몇 자, 몇 치, 몇 분, 어디  
나무는 몇 치.}

10604 # 그 다: 저거가꼬 가드라구.{그거 다 적어갖고 가더라고.}

10604 @ 치 분 이러케 해요?{치, 분 이렇게 해요?}

10604 # 응 치 분.{응, 치, 분.}

[3초]

10604 @ 그리구 인제 담가튼 거 또 그거까지 다 해줘야 되자나요?{그리고 인제 담같은  
것, 또 그것까지 다 해줘야 되잖아요?}

10604 @ 다미랑 울타리.{담이랑 울타리.}

10604 # 그러치.{그렇지.}

10604 @ 사립문가튼 거 그런 건 어뜨게 해요?{사립문같은 거, 그런 건 어떻게 해요?}

10604 # 담 여: 집 쩌노코 담: 칠라몽 지금 이러케 치는 지금 지븐 머 담도 얼마 안치지  
만.{담, 여기 집 지어놓고 담 치려면 지금 이렇게 치는 지금 집은 뭐 담도 얼마 안 치지지  
만.}

10604 # 담: 치코 대문 싸름문 대문 맨틀고.{담 치고, 대문 사립문 대문 만들고.}

10604 # 그런 거 하지 머:.{그런 거 하지, 뭐.}

10604 # 자기네 집 구조대로 인자.{자기네 집 구조대로 인제.}

10604 @ 만드려요?{만들어요?}

10604 # 잉 만들지.{응, 만들지.}

10604 @ 그럼 다른 돌:땀도 하고.{그럼 담은 돌담도 하고.}

10604 # 또 흑땀도 하고.{또 흙담도 하고.}

10604 # 지금 쉼민 쉼민 부로쿠로도 치고.{지금 시멘트, 시멘트 블럭으로도 치고.}

10604 # 옌나레는 그 저릉 게 읍썰게 울타리도 하고.{옛날에는 그, 저런 게 없으니까 울타  
리도 하고.}

10604 # 나무 벼:다가.{나무 베다가.}

[3초]

10604 @ 할머니 막 장뚝때 가튼 거또 해주셔 해줘요?{할머니, 막 장뚝대같은 것도 해주  
셔, 해줘요?}

10604 # 이: 장뚝때도 다.{응, 장뚝대도 다.}

10604 @ 해주능구나! 그럼 건 어뜨게 해요 다 장뚝때?{해주는구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해  
요, 다 장뚝대?}

10604 # 장뚝때 머 인자 마당 터 터 그런 이쓰면 돌맹이로다 잘 싸코 공꾸리 사무리로 싹  
발러지르는 사람도 이꾸 그거 모타면 그냥 돌만 노코.{장뚝대 뭐 인제, 마당 터, 터 그런 [x  
거x] 있으면 돌맹이로 잘 쌓고 콘크리트 삼물리로 싹 바르는 사람도 있고, 그거 못 하면 그



냥 돌만 놓고.}

10604 # 그 그냥 장독대 가따 언는 사람 인는디 공꾸리 헨 장독대가 좀 안 조타::.{그, 그냥 장독대 갖다 없는 사람 있는데 콘크리트로 한 장독대가 좀 안 좋대.}

10604 # 비 오면 무리 안 가가꾸 엔나레 지렁이 가튼 거 이짜냐.{비 오면 물이 안 내려갔고 옛날에 지렁이 같은 거 있잖아.}

10604 # 그 늪 떠러지면 새로 드러갈 떠가 읍쥬게 사무 그르그이 우이가 이제 서리구 이꾸 그런다구 하드라구.{그 늪 떨어지면 사이로 들어갈 때가 없으니까 항상 그릇 위에서 이제 서리고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10604 # 썩꾸리 한 사멸 사물뚜기는.{콘크리트 한 삼물을, 삼물 독에는.}

10604 @ 근데 흐그로 하며는 흐그로 하면 어트케요?{근데 흙으로 하면은, 흙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10604 @ 마루로 하나?{마루로 하나?}

10604 # 후기로 하며너 흐게 흑 여게 우:에 이러케 맨트리 노쿠 흑 거기다 싸서 돌 까리 노코 그 우인따가 인자 큰 돌 납작납작 한 늪 짝: 깔지.{흙으로 하면 흙에, 흙, 여기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흙 거기다 쌓아서 돌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인제 큰 돌 납작납작한 것 짝 깔지.}

10604 # 그러케 해 노치 새새.{그렇게 해 놓지, 사이사이.}

10604 @ 그러면 드러가고 구멍으로 지렁이가?{그러면 들어가고 구멍으로, 지렁이가?}

10604 # 잉 잉 잉.{응, 응, 응.}

10604 @ 또 아이고 외양간까지 해줘요?{또 아이고, 외양간까지 해줘요?}

10604 @ 굴뚜가고?{굴뚝하고?}

10604 # 아유 집 찌면 굴뚝뚜 이찌.{아유, 집 지으면 굴뚝도 있지.}

10604 # 불 때면 그림.{불 때면, 그림.}

10604 # 부를 때는 잉 나무 때는 부까트머는 굴뚜굴 이쓰야 영지가 나갈 꺼 아냐.{불을 때는, 나무 때는 부엌같으면 굴뚝이 있어야 연기가 나갈거 아냐.}

10604 # 굴뚝때 세우지.{굴뚝대 세우지.}

10604 # 조옥 방 놀 때기.{죽, 방 놀 적에.}

10604 @ 부엌뚜 만드러 주겐네요 그림?{부엌도 만들어 주겠네요, 그림?}

10604 # 뷔:뚜 만들고.{부엌도 만들고.}

10604 # 여기 우리도 저짜기 주방이 뷔:짜리여.{여기 우리도 저쪽 주방이 부엌자리야.}

10604 # 불 땀 뷔:짜리.{불 땀 부엌자리.}

10604 # 이 집 불 때써써.{이 집 불 때 썼어.}

10604 # 그랜는디 미:꿔가꾸 저르케 그냥 맨드러찌.{그랬는데 메꿔갖고 저렇게 그냥 만들었지.}

10604 @ 솥 꺼는데 거기가 어디조 할머니?{솥 거는데 거기가 어디죠, 할머니?}

10604 # 뷔:.{부엌.}

10604 # 아궁지.{아궁이.}

10604 @ 아궁지 부뚜막?{아궁이, 부뚜막?}

10604 # 잉.{응.}

10604 # 부뚜막.{부뚜막.}

10604 # 여두 솥 불 때써.{여기도 솥, 불 땀어.}

10604 # 부엌 맨트리가꾸.{부엌 만들어갖고.}

10604 # 우리집뚜.{우리집도.}

10604 @ 그럼 집 만들 때 한 면 명 쓰여요 사라미?{그럼 집 만들 때 한 몇 명 쓰여요, 사람이?}

10604 # 고쳐서.{거쳐서.}

10604 @ 면 명 동원돼요?{몇 명 동원돼요?}

10604 # 맨 명 쓰는 거 머 지비 시꾸 이인 싸라미 일 자라면 그냥 이러케 크기 큰 건물 하나 세울 때에만 그러치.{몇 명 쓰는 거 뭐 집이 식구 이있[x고x], 사람이 일 잘하면 그냥 이렇게 크게, 큰 건물 하나 세울 때에만 그렇지.}

10604 # 상냥해서 지붕 딱 해 이러노면 그 미꾸명에서 하는 니른 시꾸드리 다 마니 해야 자냐.{상냥해서 지붕 딱 해 이어 놓으면 그 밀구명에서 하는 일은 식구들이 다 많이 해야 하잖아.}

10604 # 그럼 다 하.{그럼, 다, 하.}

10604 # 다 계소개서.{다 계속해서.}

10604 @ 그리고 외양간 가튼 거또 해줘요?{그리고 외양간 같은 것도 해줘요?}

10604 # 오양까는 마구간 그렇 거슨 자기네가 허야지 머.{외양간은 마굿간 그런 것은 자기네가 해야지, 뭐.}

10604 @ 마구간 가튼.{마굿간 같은.}

10604 # 목쭈가 멀 해조.{목수가 뭘 해줘.}

10604 @ 불러다 노코 해달라구 하면 해주조?{불러다 놓고 해달라고 하면 해주조?}

10604 # 그럼.{그럼.}

10604 @ 허간가튼 거.{헛간 같은 거.}

10604 # 허간 가튼 거 맨드능 거 그 늬 어지가난 사람 다 맨들지 머.{헛간 같은 거 만드는 거 그것은 어지간한 사람은 다 만들지, 뭐.}

10604 # 걸 맨드닝 걸.{그걸 만드는 걸.}

10604 # 옴나레는 나무 벼다가 사니서 이러케 벼다가 하는디 그런 거슬 모 빼가게 하고 걸렁게 하나 벼따가는 크닐 나자냐.{옛날에는 나무 베어다가 산에서 이렇게 베어다가 하는데 그런 것을 못 베어가게 하고 걸리니까 하나 베었다가는 큰일 나잖아.}

10604 # 그렇게 몰래 벼다가 쓰니라구 대가내찌.{그러니까 몰래 베어다가 쓰느라고 대근했지.}

[6초]

10604 @ 그럼 집 찼능 거또 아까 흐그로 발르면 흑찌비고 요즈메는 인제 벽돌로?{그럼 집 짓는 것도 아까 흙으로 바르면 흙집이고 요즘에는 인제 벽돌로?}

10604 # 응 벽돌루.{응, 벽돌로.}

=1 # 취? 추면 저방이루 가.{추워? 추우면 저 방으로 가.}

=1 @ 아니예요.{아니예요.}

=1 # 안취?{안 추워?}

=1 @ 예.{네.}

=1 @ 다리 저려.{다리 절여.}

=1 # 다리 저 요 우이로 올라와.{다리 절, 요(+이불) 위로 올라와.}

=1 @ 아니 저기 따쉬 저방에.{아니 저기 따듯해 저방에.}

=1 # 저 압두 아와떠라고 얘기가.{저기 아무도 안왔더라고 얘기가.}

10605 @ 집 진는 재료에 따라서 한번 이름 좀 알려주세요.{집 짓는 재료에 따라서 한번 이름 좀 알려주세요.}

10605 @ 집 집 여기 진는 재료.{집, 집 여기 짓는 재료.}

10605 @ 나무 그렇 거 말고 아까 할머니 얘기 해주셨는데.{나무 그런 거 말고, 아까 할머니가 얘기 해주셨는데.}

10605 # 집 질 떼기 머 재료는 벽돌.{집 지을 적에 뭐 재료는 벽돌.}

10605 # 벽돌 드려 처메는 주춧돌이 이씨야 하고 벽돌 지그문 이 거시기 그거 머여 그 저 부루꾸 벽돌 쉼엔 쉼엔 벽돌 이짜냐.{벽돌 들어, 처음에는 주춧돌이 있어야 하고, 벽돌 지금은 이 거시기 그게 뭐야 그, 저 블록 벽돌 시멘트, 시멘트 벽돌 있잖아.}

10605 # 그걸루 마니 사용양게 머 다 나무 마니 피로 허치 안트라구.{그걸로 많이 사용하니까 뭐 다 나무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

10605 @ 금 벽돌로 싸은 지븐 머라고 해요?{그럼 벽돌로 쌓은 집은 뭐라고 해요?}

10605 # 벽돌로 쌓 집 내내 머 초가지비라고 그라지.{벽돌로 쌓 집 내내 뭐 초가지집이라고 그라지.}

10605 # 머 벽돌로 싸가꾸 양어 잘 해야 양옥찌비 되지.{뭐 벽돌로 쌓아갖고 양옥 잘 해야 양옥집이 되지.}

10605 # 벽돌로 해가꾸 그냥 우리네치름 하능 거슨 초가지비지 머::.{벽돌로 해갖고 그냥 우리처럼 하는 것은 초가지집이지, 뭐.}

10605 @ 벽돌찹?{벽돌집?}

10605 # 벽돌찹.{벽돌집.}

10605 @ 흙찹?{흙집?}

10605 # 흙 흙 호기로 하지 지그문 지그머 흙뚜 읍씨.{흙, 흙, 흙으로 하지, 지금은, 지금은 흙도 없어.}

10605 # 흙:뚜 기야.{흙도 귀해.}

10605 # 호기로 할래도 모다 호기로 하구자퍼도.{흙으로 하려고 해도 못 해, 흙으로 하고 싶어도.}

10605 # 어따 호기루 찌글 떠가 읍씨서.{어디 흙으로 찍을 데가 없어서.}

10605 @ 금 흙찹 호글 찡는 사라마 따로 이씨씨요 할머니?{그럼 흙집, 흙을 찍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할머니?}

10605 # 에에우리는 우리가 으—ㅇ:가미랑 나랑 다 찌거씨.{에에, 우리는 우리가 영감이랑 나랑 다 찍었어.}

10605 # 여 하능 거.{이거 하는 거.}

10605 @ 기계로?{기계로?}

10605 # 기계 짜:가꾸.{기계 짜갖고.}

10605 # 흙벽돌 짜서.{흙벽돌 짜서.}

10605 # 물 리겨가꾸.{물 이겨갖고.}

10605 # 이 다 이 지비 이이 이 뒤찌비 남새바시 이러케 노파씨.{이 다, 이 집에, 이이, 이 뒷집이 채소밭이 이렇게 높았어.}

10605 # 그래서 그 남새밭 호글 으더가꾸 고기서 벽돌 바거서 말려서 다:: 가따가 이 집 찌꾸 그 구덩이를 미어줘씨.{그래서 그 채소밭 흙을 얻어갖고 거기서 벽돌 박아서 말려서

다 갖다가 이 집 짓고 그 구덩이를 메워줬어.}

10605 # 다른 흙 가따가.{다른 흙 갖다가.}

10605 # 흐기 그 느미 조아서 거기서 쓰구.{흙이 그눔이 좋아서 거기서 쓰고.}

[4초]

10605 @ 흐기 그때는 마난나 봐요.{흙이 그때는 많았나 봐요.}

10605 # 잉 그 때는 마나씨.{응, 그 때는 많았어.}

10605 # 지그른 흙 읍 쓸래두 읍씨.{지금은 흙 없, 쓸래도 없어.}

10605 # 다 마당이 사무레 하고 다 전버라 저르케 해서.{다 마당이 삼물하고 다 전부가 저렇게 해서.}

10605 # 흐글 어디가 팔 띠가 읍씨.{흙을 어디 팔 데가 없어.}

10606 @ 그럼 집 찢는 연장 좀 얘기해 주세요.{그러면 집 짓는 연장 좀 얘기해 주세요.}

10606 @ 연장 머 머 이러케 집 찢 때마다 쓰는 연장들 이름.{연장 뭐 뭐, 이렇게 집 지을 때마다 쓰는 연장들 이름.}

10606 # 도끼.{도끼.}

10606 @ 요즈메는 안 쓰자나요.{요즘에는 안 쓰잖아요.}

10606 # 응.{응.}

10606 @ 그 이름들이.{그 이름들이.}

10606 # 도:끼 이쓰야 하고 화갱이 이쓰야 하고.{도끼 있어야 하고 곡괭이 있어야 하고.}

10606 @ 서경이가 머예요?{화갱이가 뭐예요?}

10606 # 이 땅 파는 화갱이 이쓰야 야고 삽두 이쓰야 하고.{이 땅 파는 곡괭이 있어야 하고 삽도 있어야 하고.}

10606 # 또 끌:두 이씨야 야고 옰날 찢 질라면.{또 끌도 있어야 하고, 옰날 집 지으려면.}

10606 # 빠루 끌 자국.{배척, 끌, 자귀.}

10606 @ 그제 다 머하능 거예요?{그제 다 뭐하는 거예요?}

10606 @ 끄리 머요 끌?{끌이 뭐예요, 끌?}

10606 # 끌?{끌?}

10606 # 구멍 파는 끌.{구멍 파는 끌.}

10606 # 나무 나무 나무가 그냥 더퍼노코 드러가.{나무, 나무, 나무가 그냥 덮어놓고 들어가.}

10606 # 자때로 채서 끌 꾸머걸 파야 이 이노를 가따 찢르머는 일루 폭 드러가능 거슬 맨 드르야 드르갈 꺼 아녀.{자로 채서 끌 구멍을 파야 이 이것을 갖다 찢르면 이리로 폭 들어가는 것을 만들어야 들어갈 거 아냐.}

10606 # 췌:기.{췌기.}

10606 # 그라야 찡찡아니 이러케 췌:기 질러가꾸 가마이 부터 이찌 가따 췌워 또.{그래야 찡찡하니 이렇게 췌기 질러갖고 가만히 붙어 있지, 갖다 췌워 또.}

10606 # 그 다:: 파씨 옰나레는 다.{그거 다 봤어, 옰날에는 다.}

10606 # 끌꾸멍 잉 끌루.{끌구멍, 응, 끌로.}

10606 @ 끌로 다 끌루.{끌로, 다 끌로.}

10606 @ 또 또 머 머 이씨따고요 끌 말고?{또, 또 뭐, 뭐 있었다고요, 끌 말고?}

10606 # 끌 자구.{끌, 자귀.}

10606 # @ 자구 자구 머예요?{자구, 자구가 뭐예요?}

10606 # 투디려 방는 자구.{두들여 박는 자귀.}  
 10606 @ 또?{또?}  
 10606 # 끄라구 자구아구 도끼아구.{끌하고 자귀하고 도끼하고.}  
 10606 # 도끼두 이씨야야.{도끼도 있어야 해.}  
 10606 # 또 장두리.{또 장도리.}  
 10606 @ 도끼는 어디다 써요 할머니?{도끼는 어디다 써요, 할머니?}  
 10606 # 도끼?{도끼?}  
 10606 @ 나무 찍고?{나무 찍고?}  
 10606 # 잉 뽕깎 때.{응, 쪼깎 때.}  
 10606 # 장도리.{장도리.}  
 10606 # 모 뽕 때 이쓰른 장두리두 이씨야 하고.{못 뽕 때 있으면 장도리도 있어야 하고.}  
 10606 # 아유 머 아주 썰:썰.{아유, 뭐 아주 흔했어.}  
 10606 # 대패두 이씨야 하고.{대패도 있어야 하고.}  
 10606 # 옴나레는 대패로 마니 해짜냐.{옛날에는 대패로 많이 했잖아.}  
 10606 # 대패로 미:르야지.{대패로 밀어야지.}  
 10606 # 끌:루 파야아구 끌 꾸먹.{끌로 파야하고, 끌 구멍.}  
 [4초]  
 10606 # 지금 집 찢는 사람 퍼냐.{지금 집 짓는 사람들은 편해.}  
 10606 # 그릉 꺼 아낭게.{그런 거 안 하니까.}  
 10606 @ 톱: 톱:뚜 이씨요?{톱, 톱도 있어요?}  
 10606 # 톱:뚜 이찌.{톱도 있지.}  
 10606 @ 옴나레도?{옛날에도?}  
 10606 # 잉.{응.}  
 10606 # 지그먼 시대가 조아가꼬 점::부라 다 이 목쭈가 그러케 파고 그라능 거 업떠라.  
 {지금은 시대가 좋아갓고 전부가 다 이, 목수가 그렇게 파고 그러는 거 없더라.}  
 10606 # 다 해: 놔썰.{다 해놔어.}  
 10606 # 해다가 마쳐서 끼:기만 하면 데데 다.{해다가 마쳐서 끼우기만 하면 되데, 다.}  
 10606 # 다 공장이서 다.{다 공장에서 다.}  
 10607 @ 마저.{맞아.}  
 10606 @ 기계루 쓰르문?{기계로 쓰려면?}  
 10606 # 응 기계서 딱딱 그러케 해 나와.{응, 기계에서 딱딱 그렇게 해 나와.}  
 [5초]  
 10607 @ 집 인제 지블 다 지어 노면 그 집 부분드레 대에서 명칭이 다 이짜나요 할머니?  
 {집, 인제 집을 다 지어 놓으면 그 집 부분들에 대해서 명칭이 다 있잖아요, 할머니?}  
 10607 # 그르치.{그렇지.}  
 [8초]  
 10607 @ 금까 지붕 지동 세우는 그 돌 이르미 머라고 하셔쪄?{그러니까 지붕, 기둥 세우는 그 돌 이름이 뭐라고 하셨쪄?}  
 10607 # 주춧돌?{주춧돌?}  
 10607 @ 주춧돌.{주춧돌.}  
 10607 @ 금 이거 그거는 기둥.{그럼 이거 그것은 기둥.}

10607 # 기둥.{기둥.}

10607 @ 그리고 여기.{그리고 여기.}

10607 # 보짱.{대들보.}

10607 @ 보짱.{대들보.}

10607 @ 큰: 거 지붕에?{큰 것, 지붕에?}

10607 # 지붕에 그건 보짱 세운 데 놔두면 상냥.{지붕에 그건 대들보 세운 데 놔두면 상량.}

10607 # 상냥뽀.{마룻대.}

10607 @ 그 기테? 서까래.{그 곁에? 서까래.}

10607 # 서:까래 잉.{서까래 잉.}

10607 @ 또 추녀는 머요 추녀?{또 추녀는 뭐예요, 추녀?}

10607 # 추녀는 서까래 미티 그거 추녀 추녀라고 하능 겨.{추녀는 서까래 밑에 그거 추녀, 추녀라고 하는 거야.}

10607 # 서까래 쉼은 미꾸먹떠러 추녀라구.{서까래 썩은 밑구멍떠러 추녀라고.}

10607 @ 그리고 영.{그리고 이영.}

10607 # 영: 영녕 외때기 여끄야 영 올라가지.{이영, 이영엿, 외엿어야 이영 올라가지.}

10607 # 여끄야 인자 상냥 해노쿠 서까래 거러 노코 인자 이러케 예역찌 인자.{엿어야 인제, 상량 해놓고 서까래 걸어 놓고 인제 이렇게 외엿지 인제.}

10607 # 사:무 외때기 여끄야 지벌 피던지 멀 피던지 하제.{사뭇 외엿어야 짚을 펴든지 뭇 펴든지 하지.}

10607 @ 지스락?{기스락?}

10607 # 지시락 미티여 이거 머 지시락 저 처매 끄트럴 지시라기라 구라고.{기스락 밑이야, 이거 뭇 기스락, 저 처마 끝으로 기스락이라고 그러고.}

10607 @ 그 만 용마루 용마루 이렇 거?{그 마루, 용마루, 용마루 이런 거?}

10607 # 용마루는 다:: 지붕 해 인: 우이다가 용마루를 트러서 언능 거 뽀고 용마루라 그라.{용마루는 다 지붕 해 인 위에 용마루를 틀어서 얹은 것 보고 용마루라고 그래.}

10607 # 마주막 파네 지붕 해 일고.{마지막 판에 지붕 해 이고.}

10607 @ 왜 언저요 그거?{왜 얹어요, 그거?}

10607 # 나래짱이루 먼저 여코몬 둘레둘레둘레 해가꾸 여기 나래에가 다투 둥굴둥굴 해가꾸 이 더퍼져 이떨 아나자내.{날 먼저 얹으면 둘레둘레둘레 둘러갓고 여기 나래에 가 자꾸 둥굴둥굴 해갓고 이것이 덮어져 있지를 앓잖아.}

10607 # 이리케 이리케 해다가 이 마디에 다 무리 드러갈 꺼 아녀.{이렇게 이렇게 해다가 이 마디에 다 물이 들어갈 거 아니야.}

10607 # 그렇게 용마로럴 이쁘게 다 트러서 이러케 뱅뱅 트러서 꾸부려서 또 여꺼내능 겨.{그러니까 용마루를 예쁘게 다 틀어서 이렇게 뱅뱅 틀어서 꾸부려서 또 얹어내는 거야.}

10607 # 옛날 싸람들도 머리가 조아.{옛날 사람들도 머리가 좋아.}

10607 # 용마루 트능 거 뽀면.{용마루 트는 것 보면.}

10607 # 트러서 다:: 트러가꾸 용마루를 탁 더퍼노므는 요로케 빼조개가꾸 요러케 딱: 더 프른 무리 글로 안 드러간단 마려.{틀어서 다 틀어갓고 용마루를 탁 덮어놓으면은 이렇게 뽀족해갓고 이렇게 딱 덮으면 물이 그리로 안 들어간단 말이야.}

10607 # 용마루대 사이로.{용마루대 사이로.}

10607 @ 사이로?{사이로?}

10607 # 그르케 해서 용마루를 언저씨.{그렇게 해서 용마루를 얹었어.}

10607 @ 이쓰니까 이 사이로 드러가지 모타게 씨우능 거예요?{있으니까 이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게 씨우는 거예요?}

10607 # 그런 잉 씨우능 거 용마루.{그러, 응, 씨우는 거, 용마루.}

10607 # 그걸 해야 무리 안 드러간단 마려.{그걸 해야 물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10607 @ 금 문도 인제 이러케 여능 거랑.{그럼 문도 인제 이렇게 여는 거랑.}

10607 # 미다지.{미단이.}

10607 @ 또 이러케 이러케.{또 이렇게 이렇게.}

10607 # 이잉 여능 거 이꼬.{응, 여는 게 있고.}

10607 @ 그건 이르미 이씨요?{그건 이름이 있어요?}

10607 @ 여다지 미다지.{여단이, 미단이.}

10607 # 이진 미다지라 구라고 그거슨 문 던문 단는다고 하고.{이건 미단이라고 그리고 그 것은 문 덧문 단는다고 하고.}

10607 # 문쌀 문.{문짝, 문.}

10607 @ 문도 두 개씩 만드러씨요?{문도 두 개씩 만들었어요?}

10607 # 앵.{응.}

10607 @ 바께 인는 문이?{밖에 있는 문이?}

10607 # 배께 바께 인능 거시 던문.{밖에, 밖에 있는 것이 덧문.}

10607 @ 아네 인능 거?{안에 있는 것은?}

10607 # 아네에는 미다지문.{안에는 미단이문.}

10607 @ 그 문도 인제 이런 거 잡꼬 여능 거.{그럼 문도 인제 이런 거 잡고 여는 거.}

10607 # 잉 문꼴.{응, 문고리.}

[3초]

10607 @ 금까 그 문 열려고 이러케 잡능 거?{그러니까 그 문 열려고 이렇게 잡는 거?}

10607 # 응.{응.}

10607 @ 그게 머라구?{그게 뭐라구요?}

10607 # 던문.{덧문.}

10607 @ 안 문 여기.{아뇨, 문 여기.}

10607 # 문꼴 문골.{문고, 문고리.}

10607 @ 문 문찌방은 머예요 할머니?{문, 문지방은 뭐예요, 할머니?}

10607 # 문찌방 이거 뽀고 문찌방이라고 그라 이거.{문지방, 이것 보고 문지방이라고 그래, 이거.}

10607 @ 응 그리고 이거 이렇 거?{응, 그리고 이거 이런 거?}

10607 # 어뜬 거?{어떤 거?}

10607 @ 바다게.{바닥에.}

10607 # 바다근.{바닥은.}

10607 @ 이거 이거 바다게 논능 거.{이거 이거 바닥에 놓는 거.}

10607 # 바다게 논능 거 이거 이거?{바닥에 놓는 거 이거, 이거?}

10607 @ 네.{예.}

10607 # 방빠닥.{방바닥.}

10607 @ 근까 장판.{그러니까 장판.}

10607 # 장판 까라따.{장판 깔았다.}

10607 @ 올나렌 이런 거 아내꼬 머해쫐 할머니?{옛날에 이런 거 안 했고 뭐했쫐, 할머니?}

10607 # 자리 까라찌 머.{자리 깔았지, 뭐.}

10607 @ 자리 잉.{자리 잉.}

10607 # 자리 까러써 올나레는.{자리 깔았어, 옛날에는.}

10607 # 장파니나 이써써?{장판이나 있었어?}

10607 # 자리까러.{자리 깔아.}

10607 @ 종이도 깔고?{종이도 깔고?}

10607 @ 종이는 앙 까라요?{종이는 안 깔아요?}

10607 # 존 안 까라써.{종[x이x], 안 깔았어.}

10607 @ 하긴 따끄문 안되니까, 찌저지니까?{하긴 닦으면 안되니까, 찢어지니까?}

10607 # 종이는 앙 깔고 장판 노코.{종이는 안 깔고 장판 놓고.}

10607 @ 굽:또리는 머예요?{굽도리는 뭐예요?}

10607 # 굽:또리는 저 구텡이 더러 굽또리라 구라.{굽도리는 저 구석 더러 굽도리라고 그래.}

10607 # 구텡이 이리케 도라가는 굽또리.{구석 이렇게 돌아가는 굽도리.}

10607 @ 그러고 다라기랑 벽짱도 만드려써요?{그리고 다락이랑 벽장도 만들었어요?}

10607 # 그림.{그림.}

10607 @ 그거또 처음부터 만들쫐?{그것도 처음부터 만들쫐?}

10607 # 우리도 벽짱 이든 뜨더버려찌.{우리도 벽장 있던 [x거x] 뜯어버렸지. }

10607 @ 그래요?{그래요?}

10607 # 이잉.{응.}

10607 # 처음부터 만드려요 처음부터?{처음부터 만들어요, 처음부터?}

10607 # 응.{응.}

10607 # 처음부터 만드려 벼짱.{처음부터 만들어, 벽장.}

[7초]

10608 @ 할머니 그리구 왜 집 찌을 때 어떤 의식 어떻 걸 해요?{할머니 그리고 왜 집 지을 때 어떤 의식 어떤 걸 해요?}

10608 @ 터 잔 다지 다지거나 상냥할 때 먼가 의식 이리케 뭐.{터 잘 다지 다지거나 상냥할 때 뭔가 의식 이렇게, 뭐.}

10607 # 응.{응.}

10608 # 멍능 거?{먹는 거?}

10608 @ 고사 지내고 이렇 거?{고사 지내고 이런 거?}

10607 # 영 응.{영, 응.}

10608 # 떡또 아구 돼지두 잡꼬 돼지 머리도 노코.{떡도 하고, 돼지도 잡고, 돼지 머리도 놓고.}

10608 @ 언제 해요 언제?{언제 해요, 언제?}

10608 # 터: 놀룰 때 하구 잉 상냥알 때 하구.{터 누룰 때 하고, 응 상냥할 때 하고.}



10608 @ 왜 그르 그 때 해요 왜?{왜 그렇[x게x], 그 때 해요, 왜?}

10608 # 몰라:~{몰라.}

10608 @ 중요하니까?{중요하니까?}

10608 # 잉.{응.}

10608 # 터 놀룰 때 하드라고 터 터 터 터 다드물 때.{터 누를 때 하더라고, 터, 터, 터, 터 다듬을 때.}

10608 @ 어뜨게 해요 어뜨케?{어떻게 해요, 어떻게?}

10608 # 몰라 난 평만 해줘찌.{몰라, 난 떡만 해줬지.}

10608 # 떠가고 술 노쿠 네 구팅이 부꾸 그러더라구.{떡하고 술 놓고 네 모서리에 붓고, 그러더라고.}

10608 # 주추 논는디 네 구팅이에다가 술 가파 부꾸.{주추돌 놓는 데 네 모서리에다가 술 갖다 붓고.}

10608 @ 그르케 잉.{그렇게 잉.}

10608 # 잉.{응.}

10608 @ 상냥에는?{상냥에는?}

10608 # 상냥은 상냥뽀 올릴 때 잉 상냥뽀 올릴 때 인자 목쭈 한주먹 주는 나려: 그 나려.{상냥은 대들보 응 대들보 올릴 때, 인제 목수에게 한주먹 주는 날이야, 그 날은.}

10608 # 상냥뽀 옴는 나려 다: 인자 집 지벌 다 손 마루리 해두 아무가 더퍼도 더꼬 사를 거시기를 다 해놔짜냐.{대들보 엮는 날은 다 인제 집, 집을 다 손마루리 해도 아무나 덮어도 덮고 살 거시기를 다 해놔잖아.}

10608 # 상냥 우에 올라 가르는.{상냥 위에 올라가면은.}

10608 # 그랑게 그거 할 때 돈 한주먹 줘.{그러니까 그거 할 때 돈 한주먹 줘.}

10608 @ 그러쿠나:~!{그렇구나!}

10608 # 응.{응.}

10608 # 목쭈 목쭈가 젤루 중요한 거시 상냥:뽀 언질 때여.{목수, 목수가 제일 중요한 것이 대들보 엮일 때야.}

10608 # 그놈 가파 언저만 노으르는 인자 서까래 거리가꾸 지붕 해이르른 사릉게 다.{그거 갖다 엮어만 놓으면 인제 서까래 걸어갖고 지붕 해 이면 사니까, 다.}

10608 @ 마저.{맞아.}

10608 @ 그걸 잘모타면 쓰러지능 거예요?{그걸 잘 못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10608 # 그럼.{그럼.}

10608 @ 그때 그때 이제 술 머꼬 의식글 해요?{그때 그때 인제 술 먹고 의식을 해요?}

10608 # 응.{응.}

10608 @ 어뜨케?{어떻게?}

10608 # 인잔 지사 지내고 지사 지내고 인자 그거 상냥 할 때기 인자 목쭈 돈 거러서 한주먹 주지.{인제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인제 그거 상량을 할 적에 인제 목수 돈 걸어서 한주먹 주지.}

10608 # 욱 바따고.{수고했다고.}

10609 @ 응 그러쿠나!{응, 그렇구나!}

[15초]

## 1.6.2. 가신과 조상 숭배 신앙

10610 @ 이제 집찌능 거 말고요 할머니.{이제 집 짓는 것 말고요, 할머니.}

10610 # 응.{응}

10610 @ 올나레 할머니 이제 천주교셔쓰니까 잘 모르시나?{옛날에 할머니는 인제 천주교 셸으니까 잘 모르시나?}

10610 @ 올나레 민속 시낭이 이씨짜나요?{옛날에 민속 신앙이 있었잖아요?}

10610 @ 머 무네도 이꼬 터주에도 이꼬 조왕도 이꼬.{뭐 문에도 있고 터주에도 있고 조왕도 있고.}

10610 @ 뭐 이렇 거 올나레 그런 거 혹시 드려보셔썬요?{뭐 이런 거 옛날에 그런 거 혹시 들어보썬어요?}

10610 # 아 그렇 건 모 뜨려바썬.{아, 그런 건 못 들어봤어.}

10610 # 안 드려바썬 드려꺼나.{안 들어봤어, 들어꺼나.}

10610 @ 샘물 우물가튼 데.{샘물, 우물같은 데.}

10610 # 그런 건 몰라.{그런 건 몰라.}

10610 @ 머 지켜준다고 이렇 거 이씨자나요.{뭐 지켜준다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10610 # 이양: 그렇 거 나 안 그런 미시를 아내서 그렇 걸 몰라.{응, 그런 거 나 안, 그런 미신을 안해서 그런 건 몰라.}

10611 @ 그럼 저 조상을 숭배한 건 어트게 조상은 어트게 모셔썬요 올나레?{그럼 저 조상을 숭배한 건 어떻게, 조상은 어떻게 모썬어요, 옛날에?}

10611 # 올나레?{옛날에?}

10611 @ 그 인제 이런 아까 그 샘물 우물 외양간 지켜주는 그런 거는 조상 아니자나요. {그 인제 이런 아까 그 샘물, 우물, 외양간 지켜주는 그런 것은 조상 아니잖아요.}

10611 # 그르치.{그렇지.}

10611 @ 근데 이제 조상 우리 조상드른 어트케.{그런데, 조상,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10610 # 조상님 응.{조상님, 응.}

10611 # 조상 지사 지내고 하능 거보 조상을 위한다고 그라자나.{조상 제사 지내고 하는 거보[x고x] 조상을 위한다고 그러잖아.}

10611 # 근디 우리는 큰:집 크나버지가 게셔가꼬 할머니 하라버지 조상을 큰지비서 큰대게서 지내서 지사 지내로만 가서 몰라.{그런데 우리는 큰집 큰아버지가 게셔갓고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을 큰집에서 큰댁에서 지내서 제사 지내러만 가서 몰라.}

10611 @ 그니까 지사로?{그러니까 제사로?}

10611 # 잉 지사로 해썬.{응, 제사로 했어.}

10611 @ 머 조상 판지 모시고 이렇 건 머예요?{뭐 조상 단지 모시고 이런 건 뭐예요?}

10611 # 조상 판지 모신다 쏘리는 뭘 어따가 올나레 조상 판지를 뭘:따가 우애난나 몰라도 나는 그런 거슨 조상 판지 우애능 거슨 몰르거썬.{조상 단지 모신단 소리는 뭘 어디다 옛날에 조상 단지를 뭘 어디에다 위해 났나 몰라도 나는 그런 것은 조상 단지 위하는 것은 모르겠어.}

10611 # 그래두 이체가 이썬게 조상 판지 우애드탄다고 할 꺼 아녀?{그래도 이치가 있으니까 조상 단지 위하듯 한다고 할 거 아냐?}

10611 @ 그 단지에다가 머 조상 태어난 시 이런 거 모시나?{그 단지에다가 뭐 조상 태어난 시 이런 거 모시나?}

10611 # 으::.{응.}

10611 # 몰르지 그거는.{모르지, 그거는.}

10611 # 조상단지 뭐 할라면 조상 단지 우애드탄다고.{조상단지, 뭐 하려면 조상 단지 위하듯 한다고.}

[4초]

10612 @ 그럼 머 이 지역에서 그리 천주교 말고 조상 머 다른 지븐 어트게 모셔요?{그리고 그럼 뭐 이 지역에서 우리 천주교 말고 조상 뭐 다른 집은 어떻게 모셔요?}

10612 # 앵.{응.}

10612 @ 다 제사로?{다 제사로?}

10612 # 제사로 모시지::.{제사로 모시지.}

10612 # 제사 지내는 사람 제사로 하지.{제사 지내는 사람 제사로 하지.}

10612 @ 머 특빠란 건 업꼬?{뭐 특별한 건 없고?}

10612 # 읍찌 머 딱 이 동네도 봐두 그냥 제사만 모시지.{없지 뭐, 딱 이 동네도 봐도 그냥 제사만 모시지.}

10612 # 머 특빠라게 지사 지낸다고 머 별다른 건 아나테 다.{뭐, 특별하게 제사 지낸다고 뭐 별다른 건 안하테, 다.}

### 1.6.3. 금기 생활

10613 @ 그러면 살면서 일상 소계서 하지 마라야 할 꺼뜰 이짜나요.{그러면 살면서 일상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있잖아요.}

10613 # 그러치.{그렇지.}

10613 @ 예를 들면 이제 음력 음력 그런 음년 세시랑 관련돼서 꼭 하지 마라야 될 꺼뜰. {예를 들면 인제 음력, 음력 그런 음력 세시랑 관련돼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

10613 @ 정초에 바늘 빌리러 가지마라 이렇 거또 인나요?{정초에 바늘 빌리러 가지마라, 이런 것도 있나요?}

10613 # 옛날 노인네드른 정월팔레는 여자가 사:밀 저 초사흘 넘떠라간 너므지비 모 까썸.{옛날 노인네들은 정월 달에는 여자가 삼일, 저 초사흘 넘도록은 남의 집에 못 갔어.}

10613 # 모땡기게 하더라고 우리 업니도.{못 다니게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10613 # 여자드른 야초.{여자들은 애초.}

10613 # 그랑게 그냥 지비만 가마니 이꾸 여자드리 썩썩 안 도라댕기드라.{그러니까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고 여자들이 썩썩 안 돌아다니더라.}

10613 # 지끄른 머 초하루고 보르미고 상과넙씨 땡기는디.{지금은 뭐 초하루고, 보름이고 상관없이 다니는데.}

10613 # 재수 읍따::.{재수 없대.}

10613 # 여자가 이러케 가 땡기면서 하면 요그더 명는다고 모까게 하더라고.{여자가 이렇게 가, 다니면서 하면 욱 얻어 먹는다고 못 가게 하더라고.}

10613 # 그란디 몰라.{그런데 몰라.}

10613 # 그랜는 그릉 건 앙 가려쑹게 우리 천주교라.{그랬는데 그런 건 안 가렸으니까, 우리 천주교라.}

10613 @ 여자드리.{여자들이.}

10613 @ 또 다른 어떤 때 또 다른 때 머머 하지 마라라 이렇 거 이썬요?{또 다른, 어떤 때 또 다른 때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있어요?}

10613 @ 시기로 시기로 볼 때.{시기로, 시기로 볼 때.}

10613 # 앵 그렇건 몰루지.{응, 그런 건 모르지.}

10613 @ 정초만?{정초만?}

10613 # 잉 정초만 그래썬.{응, 정초만 그랬지.}

10614 @ 그럼 인제 여자는 머 하지 마라 남자 머 하지 마라 이러케 여자 남자 구벼라능 거.{그럼 인제 여자는 뭐 하지 마라, 남자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여자 남자 구별하는 거.}

10614 # 초정치 여자더리 워디 쑹쑹 드러가구 하머는 재수 읍쓰니께 그런 디 가지 마라라.{연초에 여자들이 어디 쑹쑹 들어가고 하면 재수 없으니까 그런 데 가지 말아라.}

10614 # 남자는 가두 권차능게 기냥 남자드른 보통 땡기도 하지만 여자드른 그래서 할머니드리 막 모까게 하구 우리 엄니도 묻: 까게 하드라고 벌렁거리고 가지 마라고.{남자는 가도 괜찮으니까 그냥 남자들은 보통 다니기도 하지만 여자들은 그래서 할머니들이 막 못 가게 하고, 우리 어머니도 못 가게 하더라고 덜렁거리고 가지 말라고.}

10614 # 그래 그런디 지끄먼 여자구 남자구 머 상과늬꾸.{그래 그런데 지금은 여자고 남자가 뭐 상관 없고.}

10614 # 예로 여자드리 크닐 마니 하러 땡기지.{의외로 여자들이 큰일 많이 하러 다니지.}

10614 # 대통령도 나가구 국회의원 나가구 어디두 나가구 다 나가드라.{대통령도 나가고, 국회의원도 나가고, 어디도 나가고 다 나가더라.}

10614 # 엔나레는 암만 암만 마니 배워두 여자가 오디를 그런 디를 가.{옛날에는 아무리 아무리 많이 배워도 여자가 어디를 그런 데를 가.}

10614 # 아:나리썬썬.{안 알아썬지.}

10614 # 안쳐썬썬.{안 쳐썬어.}

10614 @ 금 남자는 가지 말아야 되는 데 이썬요?{그럼 남자는 가지 말아야 되는 데 있어요?}

10614 # 남자 가지 말라는 디를 어디가 이썬 술썬비나 가지말라 하하하하.{남자 가지 말라는 데가 어디 있어, 술집이나 가지 말라 하하하하.}

10614 @ 아 이썬요 부억.{아, 있어요, 부억.}

10614 # 뷔:키? 잉.{부억에? 응.}

10614 @ 가지 말라고 항 건 아니고 인제 그거 저.{가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인제 그건 저.}

10614 # 갠 쯔 삼가 하라능 거지.{갠, 쯔 삼가라는 거지.}

10614 # 아 지그른 여자 남자 사이 여전 남자들 설거지도 자래주더라.{아, 지금은 여자 남자 사이, 요즘 남자들 설거지도 잘 해주더라.}

10615 @ 그럼 인제 혼사 혼사하고 팔려된 거.{그럼 인제 혼사, 혼사하고 팔려된 거.}

10615 @ 머 머 호닌날 바더노코 어디 가지마라 머 이렇 거 이썬썬요?{뭐, 뭐 혼인날 받아놓고 어디 가지마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10615 # 호닌날 바더노코?{혼인날 받아놓고?}

10615 # 나는.{나는.}

10615 @ 초상찍 까지마라.{초상집 가지마라.}

10615 # 이잉 초상찌비 초상찍까튼 떠 가려찌.{응, 초상집에, 초상집같은 데 가렸지.}

10615 # 저 존 날 이쓰니께.{저 좋은 날 있으니까.}

10615 @ 조은 날 이쓰니까.{좋은 날 있으니까.}

10615 # 그라고 이 발 발써 초상 나머는 에식카려 갈라머는 삼가아고 앙 가자나.{그리고 이 벌써 초상 나면 에식하러 가려면 삼가고 안 가잖아.}

10615 @ 어디요?{어디요?}

10615 # 가쁜 에식 할라므머는 오늘 가튼 날 내일 가튼 날 에식 할라면 이지비서 초상이 나써.{가령 에식 하려면은 오늘 같은 날 내일 같은 날 에식 하려면 이 집에서 초상이 났어.}

10615 # 그라머는 지그몬 저 전부라 저 잉 장내식짱이루 강게 여기는 송장이 읍쫘게 상과 니 읍는디 옐나레는 지비서 다 해쓰니께 모:까게 해써.{그러면 지금은 저, 전부가 저 잉 장례식장으로 가니까, 여기는 송장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다 했으니까 못 가게 했어.}

10615 # 거기털.{거기털.}

10615 # 와 왕내를 아내써.{왕, 왕래를 안했어.}

10615 # 모땡기게.{못 다니게.}

10615 @ 그래요 손 상 당한 지베 가지 말라고?{그래요, 손, 상을 당한 집에 가지 말라고?}

10615 # 응 가지 말라고.{응, 가지 말라고.}

10615 # 지그몬 저가 이쓰니께 초상찍도 머 가따가 오고 머 순: 송장을 보냐 머야냐.{지금은 저기가 있으니까 초상집도 뭐 갔다가 오고 숯 뭐 송장을 봐 뭐 해.}

10615 # 장내식짱에 가머능 거 아::주 미꾸머게다 가따 느노코 사진만 하나 가따노코 와따 가따 머 사지니다만 인사하구 오지.{장례식장에 가면 거기 아주 밀구멍에 갖다 넣어 놓고 사진만 하나 갖다놓고 왔다갔다 뭐 사진에다만 인사하고 오지.}

10615 # 어디 상 상주드라고 인사해도 신체를 봐 머 야?{어디 상, 상주들하고 인사해도 시체를 봐, 뭐 해?}

10615 # 옐나리는 신체빵서 다 인사해써.{옛날에는 시체방에서 다 인사했어.}

10615 # 신체 여다 뉘여노코.{시체 여기다 뉘여 놓고.}

10615 # 여기다 다.{여기다 다.}

10615 # 상주 여기 족: 안자쓰면 와서 잉 도라가신 맹이난테 인사 하구 저라고.{상주 여기 족 앉아 있으면 와서 응, 돌아가신 맹인한테 인사하고 절하고.}

10615 # 그르카고 상주아고 저라고 나가찌.{그렇게 하고 상주하고 절하고 나갔지.}

10615 # 누가 그냥 지그몬 머머 이~ 사진만 하나 따 딱 가따노코 그양 그거 머 신체가 이써 무에써.{누가 그냥, 지금은 뭐뭐 응, 사진만 하나 딱, 딱 갖다 놓고 그냥 그거 뭐 시체가 있어, 뭐가 있어.}

10615 # 그 사람 사진만 보고 저라고 인사아고 오능 겨.{그 사람 사진만 보고 절하고 인사하고 오는 거야.}

10615 # 신체는 하나 보도 아나고.{시체는 하나 보지도 않고.}

10615 # 그렇게 지금 초상찍도 상과놉써.{그러니까 지금 초상집도 상관 없어.}

10615 # 보 머 보능 게 이씨야지.{보는, 뭐 보는 게 있어야지.}  
 [3초]  
 10616 @ 그럼 이제 장네 하고 관련된 금기.{그럼 이제 장례하고 관련된 금기.}  
 10616 @ 머 하지 마라.{뭐 하지 마라.}  
 10616 @ 머 예를 들면 관 과뒤로 고양이 지나가게 하지 마라 이렇 거.{뭐 예를 들면 관, 관 위로 고양이 지나가게 하지 마라 이런 거.}  
 10616 @ 고양이 그렇 거예요?{고양이 그런 거예요?}  
 10616 # 영 고양이가 지나가면 재수 업따고 막 마전 사납따고 그란다는디 지끄면 머 고양이 어디로 지나가::.{영, 고양이가 지나가면 재수 없다고 막, 마집 사납다고 그란다는데 지금은 뭐 고양이가 어디로 지나가.}  
 10616 # 그게 그날 딱 끄내 오머는 사니루 자기 잉 치 자기네 잉 종사니로 가는 사람 가구.{그게 그날 딱 꺼내 오면은 산으로 응, 치, 자기네 응, 종산으로 가는 사람은 가고.}  
 10616 @ 바루?{바로?}  
 10616 # 저:: 태:우루 가는 사라면 머 쟁네 예식짜이루 태우루 가구 그러지.{저 태우러 가는 사람은 장례 예식장으로 태우러 가고 그러지.}  
 10616 # 머머 어 고양이가 언제 볼 쎄 인냐 갈 쎄 이꾸.{뭐뭐 어, 고양이가 언제 볼 새가 있느냐, 갈 새가 있고.}  
 10616 # 워디를.{어디를.}  
 10616 # 옛날 마려 옛날 이거 옛날 그 역싸저기루 나오능 거 다 저거쫌게 그러지.{옛날 말 이야, 옛날 이거 옛날, 그 역사적으로 나오는 거 다 적어쓰니까 그러지.}  
 10616 # 지그른 머.{지금은 뭐.}  
 [10초]

## 1.7. 질병과 민간요법

### 1.7.1. 각종 질병과 민간요법

10701 @ 인제 할머니 질병 질병하고 민간요법만 여쭙보게요.{인제 할머니, 질병, 질병하고 민간요법만 여쭙볼게요.}  
 10701 @ 옛날에 마니 발쌍해뎐 질병드리 이씨씨요?{옛날에 많이 발생했던 질병들이 있었어요?}  
 10701 #응.{응.}  
 10701 @ 요즈메는 별로 업찌만 옛날에는 막 이렇 거 되게 마나씨뎐 거.{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막 이런 거 되게 많았었던 거.}  
 10701 # 질병 응:기 알코 뭐 그러능 거 병.{질병 옮겨 앓고 뭐 그러는 거, 병.}  
 10701 @ 대게 자진 버진 뭐 마른버진 진버진 여드름 땀띠 두르레기 문둥이도 이쨌고.{대게 자진 버짐 뭐 마른버짐 진버짐 여드름 땀띠 두르레기 문둥이도 있었고.}  
 10701 # 응.{응.}

10701 @ 기계충 뭐 이렇 거 그 옛날?{기계충 뭐 이런거, 그 옛날?}

10701 # 옛날에는 머리로 기계충두 마나가꾸 애들두 머리가 그만 경:장이 저기해써.{옛날에는 머리로 기계충도 많아갔고 아이들두 머리가 그만 굉장히 저기했어.}

10701 # 히뜨기뜨기 댕이 기계충 나가꾸.{희뜩희뜩 다니[x며x] 기계충 나갔고.}

10701 @ 기계뚝 때때 그렇 거조?{기계뚝 때문에 그런 거조?}

10701 # 응.{응.}

10701 # 이게 그거 소독 아나고 그냥 막 쓰던 늬 쓰고 그냥 다:코 그러케서 그라나 데나 머리깍꼬 오면 그라드라고.{이게 그거 소독 안 하고 그냥 막 쓰던 것 쓰고 그냥 자꾸 그렇게 해서 그라나 저러나 머리 깎고 오면 그러더라고.}

10701 # 마름버듬 나도 마름버듬 마니 나쎌네.{마름버짐 나도 마름버짐 많이 났었네.}

10701 # 사::무 마름버듬 왜 이러케 피나.{사뭇 마름버짐 왜 이렇게 피나.}

10701 # 마름버듬 나가꾸.{마름버짐 나갔고.}

10701 @ 얼구레 펴요?{얼굴에 펴요?}

10701 # 응 얼구리 하야케 이러케 마름버듬이 펴.{응, 얼굴에 하얗게 이렇게 마름버짐이 펴.}

10701 # 그라머는 그거슬 뭐 병원이 가서 약 사다먹꼬 약을 발르고 그러케 해서 난능 거슬 아나고 짜리 지름.{그러면 그것을 뭐 병원에 가서 약 사다먹고 약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낫는 것을 안하고, 짜리 기름.}

10701 # 짜리때 짜리때릴 꾸먼 잉: 마까테 빼깁 저 말리미 인는 짜리때릴 끄너다가 바싹 말른 늬 이르게 화리뿌리다 꼬바노면 지글지글지걸려 끄러 올르더라고.{짜리대, 짜리대를 구으면 잉 바깥에 바깥 저 등성이에 있는 짜리대를 끓어다가 바싹 마른 늬 이렇게 화로불에 다 쪼아놓으면 지글지글지글거려 끓어 오르더라고.}

10701 # 짐이 이르게.{짐이 이렇게.}

10701 # 이거 우이루 대 우이루.{이거 위로 [x짜리x]대 위로.}

10701 # 그라믄 그놈 찌거서 이러케 이러케 발르면 경:장이 따거워.{그러면 그놈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 굉장히 따가워.}

10701 # 그라믄 움써지고 그러더라고.{그러면 없어지고 그러더라고.}

10701 @ 어 그래요?{어, 그래요?}

10701 # 앵 그러케 해봐 사::무 마 그래서 얼굴 승저질주 알아써두 얼굴에 머 티꺼도 움써나.{응, 그렇게 해봐도 사뭇 뭐 그래서 얼굴에 흉터 생길 줄 알았어도 얼굴에 뭐 티끌도 없어, 나.}

10701 # 애기찌게 여남살을 머글때기 열댓살 어지가니 나:써 그게.{애기일 때 여남은 살 먹을 때, 열댓살 때 어지간히 났어, 그게.}

10701 # 마름버드미 마름버드미.{마름버짐이, 마름버짐이.}

10701 # 근디 지금 생각하머는 잘: 머그야 하는디 그 옛날에는 그냥 고기가통 건 머 바쁜 양굽꾸 잘: 머거써도 저런 우유니 저렇 거니 부유 그렇 거 하나두 안 머꾸 커서 그러능 거 가터.{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잘 먹어야 하는데 그 옛날에는 그냥 고기 같은 건, 뭐 밥은 안 굶고 잘 먹었어도 저런 우유니, 저런 것이니, 분유 그런 거 하나도 안 먹고 커서 그런 것 같아.}

10701 # 영냥니.{영양이.}

10701 @ 그 기계충은 어뜨게 나껴써요?{그 기계충은 어떻게 낫게 했어요?}

10701 # 모르지 기계총은 머리 까끄면 기계총 나서 우리 애드런 그렇 거 안 나썬 기계총.  
{모르지, 기계총은 머리 깎으면 기계총 나서, 우리 애들은 그런 거 안 났어, 기계총.}

10701 # 그렇 건 모르거때.{그런 건 모르겠데.}

10701 @ 그냥 그건 어트게 나:?.{그냥 그건 어떻게 나아?}

10701 @ 어트케야 되나 그건?.{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10701 @ 그르머는 여드름 가통 거는 뭐 하셔썬요?.{그러면 여드름 같은 것은 뭐 하셔썬  
요?}

10701 # 여드름 나머는 여드르면 가라안떠라꼬 짜면 그냥.{여드름 나면 여드름은 가라앉더  
라고 짜면, 그냥.}

10701 # 읍썬저:: 여드름 나두 여드름 썬썬 나반는디 마니는 안나썬두 그냥 읍썬지대.{없  
어져, 여드름, 나도 여드름 썬썬 나났는데 많이는 안 났어도 그냥 읍썬지데.}

10701 @ 그럼 땀띠나 두드러기 가통 거는?.{그럼 땀띠나 두드러기 같은 것은?}

10701 # 땀:띠에는 땀땀띠 인자 그거는 이: 분 발르고.{땀띠에는 땀띠 인제 그건, 잉 분 바  
르고.}

10701 # 분 가루분 잉 가루분 발리주고 사무 그라머는 참물로 시꼬 에 가루분 발르고 그  
람 읍썬지는디 두드리기는 참말로 대가냐.{분, 가루분 응, 가루분 발라주고 사뭇 그러면은  
찬물로 썬고 가루분 바르고 그라면 읍썬지는데 두드리기는 정말 대근해.}

10701 @ 음 마자요.{음, 맞아요.}

10701 # 응 두드리기 나는 우리 애더리 두드리기 우리 크나더리 마니 나썬.{응, 두드리기  
나는, 우리 애들이 두드리기 우리 큰아들이 많이 났어.}

10701 # 다른 아들은 안 난는디.{다른 애들은 안 났는데.}

10701 # 두드리기 나서 사무 큰 녹 바썬.{두드리기 나서 사뭇 큰 욱 났어.}

10701 @ 왜 나요 왜?.{왜 나요, 왜?}

10701 # 그란디.{그런데.}

10701 # 몰라 매릅썬 이르케 나테 두드리기가.{몰라, 말없이(+ 이유없이) 이렇게 나테, 두  
드리기가.}

10701 @ 뭐 잘몬 머거서 그런가?.{뭐 잘못 먹어서 그런가?}

10701 # 고기 어떤 때는 머꼬 뭐 채수가토 채소가통 거또 마니 머꾸 하는디 썬:이 그러케  
나더라고:.{고기 어떤 때는 먹고, 뭐 채소같은, 채소같은 것도 많이 먹고 하는데 썬히 그렇  
게 나더라고.}

10701 # 제 모메서.{제 몸에서.}

10701 @ 다 나요 모메?.{다 나요, 몸에?}

10701 # 응 게러워 츠메는 이러케 그꾸 글거 개립따구.{응, 가려워 처음에는 이렇게 긁고  
긁어, 가렵다고.}

10701 # 글거 그래서 두드리기 나가꼬 참 병원에두 마::니 가구 업꾸 나 노상 병원이 게고  
야결 막 각이루 하낙썬 사다가 주사 이 논능 거 알켜주데.{긁어, 그래서 두드리기 나갔고  
참 병원에두 많이 가고 업고 나, 노상 병원에 가고 약을 막 각으로 하나썬 사다가 주사 이  
거 놓는 거 알려주데.}

10701 # 에 저 노라고 그래서 근데 내가 봐주고 약 발르고 사무 그래썬.{에, 저 놓으라고,  
그래서 근데 내가 [x주사x]봐주고 약 바르고 사뭇 그랬어.}

10701 # 그래떠니 지금 썬: 게 안 나더라고.{그랬더니 지금은 썬 게 안 나더라고.}



10701 @ 두드리기는 그럼 민간 요빠부로 어뜨케 해요?{두드리기는 그럼 민간요법으로 어떻게 해요?}

10701 # 개려서 응.{가려워서, 응.}

10701 # 민간 요빠비로는 뭐 지푸레기 어디 저 화장실 그저니는 지비루 해 이르니까.{민간 요법으로는 뭐 지푸라기 어디 저 화장실, 그 전에는 짚으로 해 이니까.}

10701 # 동쪼그로 가는 지푸레기 빼다가 부뚜마게 세워노쿠 두드리기를 씨려주라고 하더라고.{동쪽으로 가는 지푸라기 빼다가 부뚜막에 세워놓고 두드리기를 쓸어주라고 하더라고.}

10701 # 이케 모를 이케 영지 찌우머서 조금 이러케 뿌려가며.{이렇게 몸을, 이렇게 연기 쏘이면서, 조금 이렇게 뿌려가며.}

10701 # 아 그름 거또 해보고 이릉 거또 해봐도 안 들어.{아 그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봐도 안 들어.}

10701 # 병워니 땡기머서 업꼬 땡임서 병워니 주사 마꾸 야기루 다 메기고 기운낭게 안 나?{병원에 다니면서 업고 다니면서 병원에 주사맞고 약을 다 먹이고 기운나니까 안 나아?}

10701 @ 부스러믄요?{부스럼은요?}

10701 # 앵: 부수.{앵, 부스[x럼x].}

10701 # 옛날에는 부시름두 마~이 나썸.{옛날에는 부스럼도 많이 났어.}

10701 @ 부시러믄 어뜨케 해요?{부스럼은 어떻게 해요?}

10701 # 고름 짜야지 뭐 끓으면.{고름 짜야지 뭐, 끓으면.}

10701 @ 그 따른 방법?{그 다른 방법?}

10701 # 읍썸.{없어.}

10701 @ 약 어떤 거 머거썸요?{약 어떤 거 먹었어요?}

10701 # 지금 애더런 부시름 안 나.{지금 애들은 부스럼 안 나.}

10701 # 지금 주사를 잘 방지해 주구 놔주구 하니께 그라나 옛날에는 부시름두 마~이 나구 다리끼도 왜 그러케 마~이 나 다리끼.{지금 주사로 잘 방지해 주고 놔주고 하니까 그러는지, 옛날에는 부스럼도 많이 나고 다래끼도 왜 그렇게 많이 나, 다래끼.}

10701 @ 다리끼 나면 어뜨케 해요 할머니?{다래끼 나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

10701 # 다리끼 나면 끓믄 짜면 짜부라 드리.{다리끼 나면 끓으면 짜면 짜부라져.}

10701 # 그때 끓드락.{그때 끓도록.}

10701 @ 짜요 눈?{짜요, 눈?}

10701 # 응 아:니 제절루 터져 에 지절로 터져.{응, 아니 저절로 터져, 응 저절로 터져.}

10701 @ 진짜?{진짜?}

10701 # 터지면 고름 나면.{터지면 고름 나오면.}

10701 @ 다리끼 나면 뭐 어뜨케 한다 그런 방법 업썸요?{다래끼 나면 뭐 어떻게 한다 그런 방법 없어요?}

10701 # 다리끼 나는데 방버는 노인네들 그저니 이: 눈썸 빼가꼬 저: 질꺼름 까이다가 가따가 새금파리다 이러케 해노코 딱 더퍼노코 다른 사라미 차면 그사람기로 올라간다고.{다래끼 나는데 방법은 노인네들이 그 전에 이 눈썸 빼갓고 저 길거리 가에다가 갓다가 새금파리에다 이러케 해놓고 딱 덮어놓고 다른 사람이 차면 그사람에게로 옮겨 간다고.}

10701 # 아이고 시상이 멍청한 소리도 드럽게도 해썸.{아이고, 세상에 멍청한 소리도 더럽게도 했어.}

10701 # 그래 그래가꼬 그: 올라 갈꺼?:{그래, 그래갖고 그게 올라 갈 거야?}

10701 # 올라간다고 그러케 하라고 하드라.{옳아 간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10701 # 나두 다래끼 어지가니 나:씨.{나도 다래끼 어지간히 났어.}

10701 # 아이구 다리끼도 왜르케 마~이나.{아이구, 다래끼도 왜 이렇게 많이 나.}

[7초]

10701 @ 그럼 무좀 무좀 가통 건 어트케?{그럼 무좀, 무좀 같은 것은 어떻게?}

10701 # 응 발 무저.{응, 발 무좀.}

10701 # 발 썩:에 무점 나고.{발 사이에 무좀 나고.}

10701 @ 그건 어트케 고쳐요 엔날에?{그건 어떻게 고쳐요, 옛날에?}

10701 # 약 빨룽게 켜찬테 지그든.{약 바르면 괜찮대, 지금은.}

10701 @ 별게 다 이짜나요 발 머 무좀.{별게 다 있잖아요, 발 뭐 무좀.}

10701 # 아이 몰라 빼슬팅이.{아이, 몰라 벗을 적에.}

10701 # 나는 무좀 난 디는 약가따 발리 무좀약 사다가 발룽게 나서.{나는 무좀 난 데는 약 갖다 발리, 무좀약 사다가 바르니까 나아.}

10701 # 엔날에는 그런 소소한 병이 마니 이씨씨 자지그레 하니.{옛날에는 그런 소소한 병이 많이 있었어, 자질구레하니.}

10701 # 다리끼 나구 눈 애피 개:씨바리 올르고 그라고 눈 빨거나니.{다래끼 나고 눈 앞에 개씨바리 옳고 그리고 눈 빨건하니.}

10701 # 그렇 거 인는디 지금 애드른 그렇 켜: 읍씨.{그런 거 있는데 지금 애들은 그런 거는 없어.}

10701 # 심하지 아나.{심하지 않아.}

[2초]

10701 @ 기침 그렇 거 감기 걸릴때 어뜨케 약 말구 다른 방법?{기침 그런 거 감기 걸릴때, 어떻게 약 말고 다른 방법?}

10701 #응.{응.}

10701 # 다른 방법 뭐 야.{다른 방법 뭐 해.}

10701 # 기침 나고 하머는 양 머그야지 머.{기침 나고 하면 약 먹어야지, 뭐.}

10701 # 지끔 버 그 뱅이 한다고 도냐.{지금 뭐 그 액막이 한다고 돼?}

10701 # 중풍 중풍 가통 거는요?{중풍, 중풍 같은 거는요?}

10701 # 중풍은 아파가꼬 풍나가꼬 그거슨 한쪼글 모쓰는건디 그게 데게 힘드는 병이지. {중풍은 아파갖고 풍 나서 그것은 한쪽을 못 쓰는 건데 그게 되게 힘든 병이지.}

10701 # 중풍이 제일 힘 드룽 게 중풍은.{중풍이 제일 힘드니까, 중풍은.}

10701 # 모 꼬썩.{못 고쳐.}

10701 @ 방법 업썩요?{방법 없어요?}

10701 # 읍씨.{없어.}

10702 @ 인제 명는 음식 때무네 생기는 병에서요 설싸하면 어트케 해요?{인제 먹는 음식 때문에 생기는 병에서요, 설사하면 어떻게 해요?}

10702 # 설사?{설사?}

10702 @ 설싸 하면 어트케 하썩썩요 엔날에?{설사 하면 어떻게 하썩썩어요, 옛날에?}

10702 # 설싸아른 엔나레 노인 양반드룬 쑥물 해주데 쑥.{설사하면 옛날에 노인 양반들은 쑥물 해주데, 쑥.}

10702 # 쑥:뿌리 캐다가.{쑥뿌리 캐다가.}

10702 # 그걸 파:: 잉 쑥뿌리를 팍팍 찌가꼬 설탕 느코 팍팍 끄려서 에 시근 데미 주드라구.{그걸 팍, 잉 쑥뿌리를 팍팍 찌갓고 설탕 넣고 팍팍 끓여서 이거 식은 다음에 주더라고.}

10702 # 쑥:뿌리 머그라고.{쑥뿌리 먹으라고.}

10702 @ 마시라고?{마시라고?}

10702 # 잉 마시라고 그러믄 텐다구.{응, 마시라고 그러면 괜찮다고.}

10702 @ 토사광란?{토사광란?}

10702 # 토사광란 나머는 질갱이 뿌렁이 머거썬.{토사광란 나면 질갱이 뿌리 먹었어.}

10702 @ 토사광나니 뭐예요?{토사광란이 뭐예요?}

10702 # 배 아파서 광난 나능 거 체해가꼬.{배 아파서 광란 나는 거, 체해갓고.}

10702 @ 광난 칫뿌리?{광란, 칫뿌리.}

10702 # 음:: 칫뿌리 아녀.{으음, 칫뿌리가 아니야.}

10702 # 배짱이 이짜나.{질갱이 있잖아.}

10702 @ 아 예.{아, 예.}

10702 # 체해 뱀짱이 질갱이 뿌렁.{체해, 질갱이 질갱이 뿌리.}

10702 # 그거 토사광난 난 디 캐가꼬 깨까시 씨쳐서 팍::팍 찌서 시::서너 수깅 머그면 가.{그거 토사광란 난 데 캐갓고 깨끗이 씻어서 팍팍 찌서 서너 수저 먹으면 개.}

10702 # 그거 아주 직빵이여.{그거 아주 바로 들어.}

10702 @ 개요?{개요?}

10702 # 잉 가.{응, 개.}

10702 # 따:구 손 따구.{따고, 손 따고.}

10702 @ 응 신기하네 체해쓸 때는?{응, 신기하네, 체했을 때는?}

10702 # 첼: 때.{체할 때.}

10702 @ 체해쓸.{체했을 [x때x].}

10702 # 체:야 토사광난 나거든.{체해야 토사광란 나거든.}

10702 @ 질갱이 뿌리.{질갱이 뿌리.}

10702 # 응 질갱이 뿌리.{응, 질갱이 뿌리.}

10702 @ 사래 걸러쓸 때 사래 걸러쓸 때?{사래 걸렀을 때, 사래 걸렀을 때?}

10702 # 잉?{잉?}

10702 # 채치기?{채채기?}

10702 @ 사래 사래 사래 들었을 때 이짜나요.{사래, 사래, 사래 들었을 때 있잖아요.}

10702 # 사래 드를 떠기 채치기 나고 사래 들리능 거 마리자냐?{사래 들을 때 채채기 나고, 사래 들리는 거 말이잖아?}

10702 # 몰라 고거슨.{몰라, 그것은.}

10702 @ 딸꾹질 날 때?{딸꾹질 날 때?}

10702 # 곁떡질 날 때 물 먹짜냐 설탕물.{딸꾹질 날 때 물 먹잖아, 설탕물.}

10702 # 설탕물 머그머그머그면 켜대.{설탕물 먹으먹으먹으면 켜대.}

10702 @ 설탕무리예요?{설탕물이에요?}

10702 # 예잉.{예 응.}

10702 @ 그냥?{그냥?}

10702 # 잉 설탕물 타서 먹뜨라고.{응, 설탕물 타서 먹더라고.}

10702 @ 또 다른 방법 업서요?{또 다른 방법 없어요?}

10702 # 읍썌.{없어.}

10702 @ 트림 트림은 그냥 하면 되요?{트림, 트림은 그냥 하면 돼요?}

10702 @ 경끼두 이러켜썌요 옛날에?{경기도 일으켰어요, 옛날에?}

10702 # 경끼두 마내썌 옛날에는.{경기도 많이 했지, 옛날에는.}

10702 @ 경끼 이르키면 어트게 해요?{경기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10702 # 경끼 이르키머는 다른 방법 읍썌.{경기 일으키면 다른 방법 없어.}

10702 # 침쟁이한테 가서 따야지.{침쟁이한테 가서 따야지.}

10702 # 침 노코 따구 주사 마꾸.{침 놓고, 따고, 주사 맞고.}

10702 # 정끼 나면 대가냐.{경기 나면 대근해.}

10702 # 식초 뿌리데.{식초 뿌리데.}

10702 # 정시난디 식초.{경기 났는데, 식초.}

10702 @ 그룩 그 애한테?{그렇게 애한테?}

10702 # 잉 이케 식초릴 지비서 다른 식초 이:~?{응, 이렇게 식초를 집에서 담은 식초, 잉?}

10702 # 그거슬 그냥 얼굴이다 그냥 뿌리면 저기항게 채 이뜨라 채 얼굴채.{그것을 그냥 얼굴에다 그냥 뿌리면 저기하니까 채 있더라 채, 얼굴채.}

10702 # 그라더니 하얀 그 거시기 저기 삼베 바푸재이 가통 거 그렇 켜 얼굴 더퍼노코 폭:: 막 폼떠라고 이러케.{그러더니 하얀 그 거시기 저기 삼베 밥보자기 같은 거 그런 거 얼굴에 덮어놓고 확 막 뽀터라고, 이렇게.}

10702 # 그냥 이비다 무러가꼬.{그냥 입에다 물어갖고.}

10702 # 그라트는 정끼가 갠다고 그라는데 아이고 정끼 정끼 낭 거또 바는 죽어 금방 애 정끼 낭 거.{그러면 경기가 갠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경기, 경기 난 것도 받은 죽어, 금방 애 가.}

10702 @ 응.{응.}

10702 @ 또요.{또요.}

[3초]

10702 @ 헛빠늘 세면 어트게 해요?{헛바늘 서면 어떻게 해요?}

10702 # 서빠늘?{헛바늘?}

10702 # 서빠늘 스른 강 개지 모.{헛바늘 서면 그냥 개지, 뭐.}

10702 @ 뭐 발르고 이런 거 업썌요? 아프자나요.{뭐 바르고 이런 거 없어요?}

10702 # 아파:: 쟁장이 아파.{아파, 굉장히 아파.}

10702 # 뭐 발르는 약뚜 베랑 읍썌 그거 서빠늘 때.{뭐 바르는 약도 별로 없어, 헛바늘 때.}

10702 @ 뭐 꿀 물고 이꼬 이러카는?{뭐, 꿀 물고 있고, 이렇게 하는?}

10702 # 잉 서빠늘 스는디 꿀 발르고 뭐 할 할 나슬 때가 되야 나서.{응, 헛바늘 서는 데 꿀 바르고 뭐 할, 할, 나을 때가 되야 나아.}

10703 @ 응 그럼 또 그외에 질병들 중에서 처년두.{응, 그럼 또 그외에 질병들 중에서 천 연두.}

10703 # 처년두가 뭐냐?{천연두가 뭐냐?}

10703 @ 손님.{손님.}

10703 # 손:님.{손님.}

10703 # 지그른 그릉 거 읊썌.{지금은 그런 거 없어.}

10703 @ 그거 오면 어트게 해요?{그거 오면 어떻게 해요?}

10703 # 어 그거 오면은 바 거시기 저 금지해썌.{어, 그거 오면은 바, 거시기 저 금지했지.}

10703 # 그 지비 아무도 못 까겨 올라 그거는 저녀미여.{그 집에 아무도 못 가게, 읊아, 그것은 전염이야.}

10703 # 그릉 게 오능 거또 머 우리도 하나 딸래미 하나 손님아다 이리썌.{그런 게 오는 것도 뭐, 우리도 하나 딸아이 하나 손님하다 잃었어.}

10703 @ 아:이고 그러쿠나.{아이고, 그렇구나.}

10703 # 잉 한지베 사는 사라미 세 사는 사라미 격: 친정이 가서 그걸 올마 올마가꾸 와서 우리 애기한테 올려가꼬 가 그집 가:도 머시매두 주꾸 우리는 딸래미가 주꾸 그래썌.{응,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세 사는 사람이 자기 친정에 가서 그걸 읊아, 읊아 갖고 와서 우리 애기한테 읊겨 갖고 그애 그 집 그애 남자애도 죽고 우리는 딸아이가 죽고 그랬어.}

10703 @ 어머 어떡케.{어머, 어떡해.}

10703 # 그래 주거서 세: 살 머거썌 때.{그래서 죽었어, 세 살 먹었을 때.}

10703 # 막 이뿌고 아장아장 걸구댕길 때.{막 예쁘고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10703 # 그러더니 올르면 죽더라고.{그러더니 읊으면 죽더라고.}

10703 # 손님 알타.{손님 앓다가.}

10703 # 쥔: 무신 병이여.{제일 무서운 병이야.}

10703 @ 그러쿠나! 뭐 달 방버븐 업꾸요?{그렇구나! 뭐 달리 방법은 없고요?}

10703 # 어 읊썌 건.{어, 읊어 그건.}

10703 @ 곱보 곱보는 어트게?{곱보, 곱보는 어떻게?}

10703 # 곱보가 그거 하다가 공부 되자나.{곱보가 그거 하다가 곱보 되잖아.}

10703 # 따갈 글거썌서 따그랭이 띠고 하머는.{딱지 곱어썌서 딱지 떼고 하머은.}

10703 # 손님 와따.{손님 왔다가.}

10703 # 지그른 그런 병이 읊짜나.{지금은 그런 병이 없잖아.}

10703 # 다 예방에서 주사루 마가버렇게.{다 예방해서 주사로 막아버리니까.}

10703 # 일번 나므는 발썌 방지 하자냐 보건소서.{금방 나면 발썌 방지하잖아, 보건소에 서.}

10703 # 그릉 걸 다.{그런 걸 다.}

10703 @ 학지른뇨 학질?{학질은요, 학질?}

10703 # 학질두 그 그저니는 수부젠는디 지금 학질 알른 사람 읊썌.{학질도 그 전에는 수북했는데 지금은 학질 앓는 사람 없어.}

10703 # 학지리 하루거리거든?{학질이 하루거리거든?}

10703 # 그런데 그게 읊썌 하루거리 알른 사람.{그런데 그게 없어, 하루거리 앓는 사람.}

10703 # 그저니는 이르게 그저니는 기운 읊썌가꼬 학질도 마니 걸러썌.{그전에는 이렇게 그전에는 기운 읊어갖고 학질도 많이 걸렸어.}

10703 @ 그럼 학지른 어트게 나께요?{그럼 학질은 어떻게 낫게 해요?}

10703 # 아이구 그뚜 힘드러.{이이고, 그것도 힘들어.}

10703 # 그건 학질 놀래서 떠러진다고 놀래고 막 놀래끼고 그냥 저:: 산 공동모지 가가꼬 가서 그냥 제주 너므라고 그라고 거기서 귀:신 나온다고 하고 막 잉:: 느다답썌 무서서 그냥

놀래면 떠러진다 그래도 양 그래 양 머그야 떠러지지.{그건 학질은 놀래면 떨어진다고 놀래게 하고, 놀래키고 그냥 저 산 공동묘지에 가갖고, 가서 그냥 재주 넘으라고 그러고 거기서 귀신 나온다고 하고, 막 잉, 느닷없이 무서워서 그냥 놀래면 떨어진다고 그래도 안 그래, 약 먹어야 떨어지지.}

10703 # 양 양 머꾸 주사 마즈야 떠러지 지끄면은.{약, 약 먹고 주사 맞아야 떨어지지, 지금은.}

10703 @ 놀래면 떠러지면 아니 그럼 놀램병 걸리겠쎬요 그러다가.{놀라서 떨어지면 아니 그럼 놀램병 걸리겠어요, 그러다가.}

10703 # 아이고! 무슨.{아이고! 무슨.}

10703 # 나두 학질 때레 올::마나 고상을 행는디 우리 엄니가 데리고 가서 저 사니 가서 잉:: 모이똥이이다 저라라고 그러더니 모이 모이 가서 빈 모이 무근 모이 가서 저라는디 잉:: 야:야 저 거기 뭐 모이똥이에서 귀신 나온다고 그래서 얼마나 놀래고 당막짬 해 지렐 떠러지닌커녕 지랄도 아나드라 치.{나도 학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저 산에 가서 잉, 묘에다 절하라고 그러더니 묘, 묘에 가서 빈 묘, 묵은 묘에 가서 절하는데 잉, 애야 저 거기 뭐 묘에서 귀신 나온다고 그래서 얼마나 놀라고 달음박질을 했는지, 지랄 떨어지기는커녕 지랄도 안 하더라 치.}

10703 @ 아이고::.{이이고.}

10703 # 아이 참.{아이 참.}

10703 # 배 지금은 주사가 조아.{그래 지금은 주사가 좋아.}

10703 # 주사 마꾸 양 머꾸 하면 지금 으야기 발팔 대가꾸:: 아픈 병 환자들두 얼마 읍:: 쎬.{주사 맞고 약 먹고 하면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아픈 병 환자들도 얼마 없어.}

[4초]

10703 @ 홍역 알면 어트게 해쎬요 홍역?{홍역 앓으면 어떻게 했어요, 홍역?}

10703 # 잉?{응?}

10703 # 호녁?{홍역?}

10703 # 호녁 지금 주사 중께 다 갠찬차냐.{홍역 지금은 주사 맞으니까, 다 괜찮잖아.}

10703 # 호녀가고 바는 주거 애기.{홍역하고 반은 죽어 애기.}

10703 @ 옛날에는 어트게 나껴쎬요?{옛날에는 어떻게 낫게 했어요?}

10703 # 그러.{그러[x니x].}

10703 # 그러니 그거 때테가 때문 때 되믄 나서.{그러니까 그것은 때가 때, 때 되면 나아.}

10703 # 한 그거뚜 일주일 너머가면.{한 그것도 일주일 넘어가면.}

10703 # 호녁 꼬또 호녁 꼬뜨러가믄.{홍역 꽃도 홍역 꽃 들어가면.}

10703 @ 야근 업꼬요?{약은 없고요?}

10703 # 쏜 나겍꾸.{꽃 약없고.}

10703 # 업쎬 암마내두.{없어, 아무리 해도.}

10703 @ 호녁또 무서워요?{홍역도 무서워요?}

10703 # 무섭쎬.{무섭지.}

10703 @ 여 롤라요?{열 올라요?}

10703 # 그거 참 여 롤르고 보리차물 꼬려가꼬 사::무 보리차물 주고 데려완네.{열 오르고, 보리차물 끓여갖고 사뭇 보리차물 주고, 데워 왔네.}

10703 # 여리 펄펄펄펄 올라가.{열이 펄펄펄펄 올라가.}

10703 @ 불거리는데요?{불거리는데요?}

10703 @ 또까태요 불거리?{똑같아요, 불거리?}

10703 # 불거리가 뭐여?{불거리가 뭐야?}

10703 @ 불.{불.}

10703 # 이잉 여 여기여기 그거 나능 거?{응, 여 여기 여기 그거 나는 거?}

10703 # 몰라.{몰라.}

10703 # 그 그렇 동 그거뽀꼬 향아리 손님이라고 그라자냐.{그 그런 동급 그것보고 향아리 손님이라고 그러잖아.}

10703 # 그저니는 향아리 손님두 마니 나 애써써.{그전에는 향아리 손님도 많이 나, 애썼어.}

10703 # 애 으른 애 업시 다.{애, 으른, 애할 것 없이 다.}

10703 # 그래는 지금 애더런 향아리 손님 그렇 것도 읍떠라고.{그런데 지금 애들은 향아리 손님 그런 것도 없더라고.}

10703 @ 요기가 이케 커지고 아파요?{여기가 이렇게 커지고 아파요?}

10703 # 아파 아프지 뭐 향아리 손님알 때.{아파, 아프지 뭐, 향아리 손님할 때.}

10703 @ 그거는 어떠케?{그것은 어떻게?}

10703 # 나두 한번 해봐써 향아리 손님.{나도 한번 해봤어, 향아리 손님.}

10703 @ 그럼 어르게 해요 그건?{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10703 @ 향아리 손님 오면.{향아리 손님 오면.}

10703 # 그거뚜 기한이 이때.{그것도 기한이 있데.}

10703 # 한창게 나서 그냥 놔둬두.{한참하고 나아, 그냥 놔둬도.}

10703 # 나뉘두 나서 그건 제절루.{나뉘도 나아, 그거는 저절로.}

10703 @ 제절루.{제절로.}

10703 @ 향아리 손님 때무네 주근 사라문 업써요?{향아리 손님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10703 # 읍:써 그렇 건.{없어, 그런 건.}

10703 # 손니마다 주근 사라문 이써두.{손님 하다 죽은 사람은 있어도.}

10703 # 향아리 손니문 시간이 지나문 그 가.{향아리 손님은 시간이 지나면 그거 나아.}

10703 # 개가꼬 나서.{말끔히 나아.}

10703 @ 밥또 몸 먹쫄 아파서?{밥도 못 먹쫄, 아파서?}

10703 # 그르치 머 이마냥 게 그냥.{그렇지 뭐, 이만한 게 그냥.}

10703 # 지금 가트면 주사 향 방만 마즈문 겔 껴: 그거.{지금 같으면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나을 거야, 그거.}

10703 @ 참 별개 다 있네.{참, 별개 다 있네.}

10703 @ 할머니 그러구요.{할머니, 그러구요.}

10703 # 응.{응.}

10703 @ 귀머거리랑 말더드미 어린 거 이짜나요.{귀먹어리랑 말더듬이 이런 거 있잖아요.}

10703 # 응 응 응 응.{응, 응, 응, 응.}

10703 @ 말 병어리 이렇 거또 병이에요?{말 병어리, 이런 것도 병이에요?}

10703 # 병이지.{병이지.}

10703 @ 왜 오능 거예요 그렇 건?{왜 오는 거예요, 그런 건?}

10703 # 몰라 왜 오나.{몰라, 왜 오나.}

10703 # 제가 부실 영양실조니 돼서 오년지: 머물 해서 오는지 지 유:전인지.{자기가 부실, 영양실조라서 오는지 뭘 해서 오는지 제 유전인지.}

[4초]

10703 @ 그 나중에 커봐야 알조 애기 때 모르조?{그거 나중에 커봐야 알죠, 애기 때는 모르죠?}

10703 # 그럼 몰루지 애기때는.{그럼, 모르지 애기 때는.}

10703 @ 가래툰?{가래툰?}

10703 # 가래토비 뭐여?{가래툰이 뭐야?}

10703 @ 가래툰 가래툰 여기 이런 데 부꾸 아풍 거.{가래툰, 가래툰 여기 이런 데 붓고 아픈거.}

10703 # 잉.{응.}

10703 # 가래때 스능 거 이:.{가래툰 서는 거, 응.}

10703 # 그거 나두 마니 아라써 가래때 스능 거.{그거 나도 많이 앓았어, 가래툰 서는 거.}

10703 # 그거 왜 그라나 기릴 마니 거러서 그러는지 머 시미 똥:땡기며 가래때가 서는지 이러케 잘 스드라고 가래때는.{그거 왜 그라나 길을 많이 걸어서 그러는지 똥 심하게 뛰어 다니면 가래툰이 서는지 이렇게 잘 서더라고, 가래툰은.}

10703 # 근디 지금 우리 애더런 그러케 가래때 스고 그라는걸 몰라 지금 애드른.{그런데 지금 우리 애들은 그렇게 가래툰 서고 그러는걸 몰라, 지금 애들은.}

10703 @ 그럼 가래때 스면 어트게 해요?{그럼 가래툰이 서면 어떻게 해요?}

10703 @ 찬물로 찜질하나?{찬물로 찜질하나?}

10703 # 아이 가래때 스면 자다가 우리 우끼는 데 밤 치미 있자냐?{아이, 가래때 서면 자다가 우리 위에는 예, 밤에 침이 있잖아?}

10703 # 바미 자다 한참 침 그눔 탁: 배터가꼬 가래때 스 데 문질러 주구 그라드라고.{밤에 자다가 한참, 침 그것을 탁 뺏어갖고 가래툰 선 데 문질러 주고 그러더라고.}

10703 @ 모기 물려쓸 때 그러케 아내요?{모기 물렸을 때 그렇게 안해요?}

10703 # 모기 물려쓸 때 그런 데 가래툰 쓴드타면 엄마가 그르케 해주대.{모기 물렸을 때 그런 데 가래툰 선 듯하면 엄마가 그렇게 해주데. }

10703 @ 어 그러쿠나.{아, 그렇구나.}

10703 @ 밤:치물 발른다?{밤에 침을 바른다.}

10703 # 밤:침 밤치미 야기랴.{밤침, 밤침이 약이래.}

10704 @ 그러고 병때무네 무당이나 그런 굵 가튼거 무당이 구까튼거 해써요?{그리고 병때문에 무당이나 그런 굵 같은 거 무당이 굵 같은 거 했어요?}

10704 @ 혹시 옛날에?{혹시 옛날에?}

10704 @ 병 때무네.{병 때문에.}

10704 # 병 때머네 병점도 마니 일꼬 무당들 데려다 구뚜 마니 하고 그라는데 지그른 아냐: 인자.{병 때문에 병점도 많이 읽고 무당들 데려다 굵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안해, 인제.}

10704 @ 사람드리 다 그거 허찌 허찌시라고 하고.{사람들이 다 그거 헛짓, 헛짓이라고 하고.}



10704 @ 그거 할 때 어뜨게 해요?{그거 할 때 어떻게 해요?}

10704 @ 무당 불러다가 음식 해노코 이러케 비러요?{무당 불러다가 음식 해놓고 이렇게 빌어요?}

10704 # 응 그어 그거 구쟁이가 와서 막 북 두드려 이장 두드려가며 머 머라고 씨부렁거리 가면서 빌지 머.{응, 굿쟁이가 와서 막 북 두드려 그냥, 두드려가면서 뭐, 뭐라고 씨부렁거리 가면서 빌지 뭐.}

10704 @ 누구한테 비러요 그믐?{누구한테 빌어요, 그러면?}

10704 # 아 그냥 그냥 하늘겨: 여다 이이.{아 그냥 그냥 하는 거야, 여기다 잉.}

10704 # 저 움묵 이다 머 채려노코.{저 윗목에다 뭐 차려놓고.}

10704 @ 그럼 나서요?{그럼 나아요?}

10704 # 몰라 그런 거 아내봐써 난는지 그거 한지 그렇 건 우리가 아내봐썅게.{몰라 그런 거 안해봤어, 낫는지 그거한지, 그런 건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10704 @ 보셔썅요 엔날에?{보셨어요, 옛날에?}

10704 # 응.{응.}

10704 @ 뭐 특별란 경엄 업쓰세요 그런 거?{뭐 특별한 경험 없으세요, 그런 거?}

10704 # 읍썅 읍썅.{없어, 없어.}

[5초]

## 1.7.2. 약초 캐는 과정과 주변 이야기

10705 @ 할머니 그러면요.{할머니, 그러면요.}

10705 @ 이런 민간 약 인제 그런 야 캐머글러고 약초 캐본 적 이쓰세요?{이런 민간 약, 인제 그런 약 해먹으려고 약초 캐본 적 있으세요?}

10705 # 야캐머글라고?{약 해먹으려고?}

10705 @ 약초 아무 드레 나가든지 사네 나가서.{약초, 아무 들에 나가든지 산에 나가서.}

10705 # 약초 캐웅 거?{약초 캐온 거?}

10705 # 약초는 나는 뭐 특별라게 캐웅 거슨 읍썅.{약초는, 나는 뭐 특별나게 캐온 것은 없어.}

10705 # 지금 우리 아더리 캐날르데.{지금 우리 아들이 캐서 나르데.}

10705 # 칙:뿌리.{썩뿌리.}

10705 @ 응.{응.}

10705 # 칙 마니 캐다가 막 내리더라구.{썩 많이 캐다가 막 내리더라고.}

10705 # 짜오데.{짜오데.}

10705 # 접때 십마넌 주고 짜따 그라데.{저번에 십만원 주고 줬다고 그러데.}

10705 @ 칙 칙 캐요?{썩, 썩 캐요?}

10704 # 응.{응.}

10705 @ 또 다름 거 어떻 거 캐요?{또 다른 거 어떤 거 캐요?}

10704 # 응 칙.{응, 썩.}

10705 # 아녀 칭만 캐와떠라구.{아냐, 썩만 캐 왔더라고.}

10705 @ 썩근 썩?{썩은, 썩?}

10705 @ 쑥뚜 약재 아니에요?{쑥도 약재 아니에요?}

10704 # 아니 그.{아니 그.}

10705 # 쑥뚜 약쨌디 쑥근 아나구 저 사니 가서 칭만 캐와뜨라.{쑥도 약재인데 쑥은 안하고, 저 산에 가서 칭만 캐왔더라.}

10705 @ 할머니는 쑥 마니 캐오셔쨌?{할머니는 쑥 많이 캐오셨쨌?}

10705 # 나는 쑥 캐다가 옼나리 떠개머꼬 저 시장에 가서 팔고 그래쨌.{나는 쑥 캐다가 옼날에 떡 해먹고 저 시장에 가서 팔고 그랬어.}

10705 # 머 나물 뜨더다가 나물 장사 마니 해쨌 나두.{뭘 나물 뜯어다가 나물장사 많이 했어, 나두.}

10705 @ 금 쑥 쨌때 어뜨게 캐요 할머니?{그럼 쑥 쨌 때 어떻게 캐요, 할머니?}

10705 # 뭘 쨌 뜯쨌.{뭘 캐, 뜯지.}

10705 # 칼로 가꼬 가서 끈만 그럼.{칼을 갖고 가서 끝만, 그럼.}

10704 @ 아 뜯는다.{아, 뜯는다.}

10705 @ 그냥 보고 고운넙 뜨더요?{그냥 보고 고운옼 뜯어요?}

10706 @ 금 이 마으레서 재배하는 약초 이쨌요 혹쨌?{그럼 이 마을에서 재배하는 약초 있어요, 혹시?}

10706 # 읍쨌 여기는.{없어, 여기는.}

10706 # 그저니는 쨌는다.{그전에는 쨌는데.}

10706 @ 뭘 해쨌요 옼날옼?{뭘 했어요, 옼날에?}

10706 # 옼나리에 저 여기 쨌람 아나고 저 너머 쨌라미 머 당:기라나?{옼날에 저 여기 쨌람은 안하고 저 너머 사람이 뭘 당:기라나?}

10706 # 그럼 거 해쨌.{그런 거 했어.}

10706 @ 비닐하우스요?{비닐하우스요?}

10706 # 아니 노주로 시머노코 노인네 그 양반이 이르게 머 여러가지 약초너무럴 시머서 키우데 하라부지가.{아니, 노지에 심어놓고 노인네 양반이 이렇게, 뭘 여러가지 약초나물을 심어서 키우데, 할아버지가.}

10706 # 그럼 건 뽕쨌두 여기서 지끔 머 재배애서 마 그거 하는 사랸은 읍쨌 우리 동네는.{그런 건 봤어도 여기서 지금 재배해서 막 그거 하는 사랸은 없어, 우리 동네에는.}

10707 @ 그럼 옼날부터 전승된 약 야까통 거 비뽕비 이쨌서 혹시 아시능 거 이쨌세요?{그럼 옼날부터 전승된 약, 약같은 거 비뽕이 있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10707 @ 약 툇뽕리 머 고야글 만든다든지 머 이케 뽕글뽕그란.{약, 툇뽕리 뭘, 고약을 만든다든지 뭘, 이렇게 뽕글뽕그란.}

10707 # 화낙.{환약.}

10707 @ 그럼 거 만드는 방법 혹시 아시능 거?{그런 거 만드는 방법, 혹시 아시는 것?}

10707 @ 옼날부터 옼마 할머니한테 저내오는.{옼날부터 옼마, 할머니한테 전해오는.}

10707 # 화화낙 뽕드능 거 이 저 지끔두 뽕드러 논 거 이쨌만.{환, 환약 만드는 거, 이 저 지끔두 만들어 논 거 있지만.}

10707 # 그제 저거 변비는 그제 그 거시기 뽕: 말구 다시마 이쨌나?{그제 저거 변비는 그제 그 거시기 미역말고 다시마 있잖아?}

10707 # 다시마 가지구 가서 뽕치까루 뽕치아고 다시마아고 꺾: 꺼먹뽕 그거아고 콩아고 그쨌 바쨌 빠다가 환 저와쨌.{다시마 가지고 가서 뽕치가루 뽕치하고 다시마하고 꺾: 검은깨

그거하고 콩하고 거진 바삭 빵아다가 환 지어 왔어.}

10707 # 화내다 노코 머거 걸.{환 해서 놓고 먹어, 그걸.}

10707 # 변비에 조타 그래서 머궁게 조터라구.{변비에 좋다고 그래서 먹으니까 좋더라고.}

10707 @ 변비에?{변비에?}

10707 # 에 변비에.{응, 변비에.}

10707 @ 다시마.{다시마.}

10707 # 에 멸치 잉.{응, 멸치 응.}

10704 @ 멸치?{멸치?}

10707 @ 또?{또?}

10707 # 다시마하고 멸치하고 콩 있지 이: 콩.{다시마하고 멸치하고 콩 있지 응, 콩.}

10707 # 콩 청국장 띄워서.{콩은 청국장 띄워서.}

10707 # 콩 청국장 맨드렁 거 바삭 말렸다가 그놈 서꺼가꼬 가서가서 빠:서 맨드려써.{콩, 청국장 만든 거 바삭 말렸다가 그거 섞어갖고 가져가서 빵아서 만들었어.}

10707 @ 음 청국장 만든 콩으로?{음, 청국장 만든 콩으로?}

10707 # 응 청국장이 사람게 조타고 그렇게 얼마 을:마나들 해싸 기냥.{응, 청국장이 사람에게 좋다고 그러니까 얼마, 얼마나들 해, 그냥.}

10707 # 모메 조탕께.{몸에 좋다니까.}

[5초]

10707 @ 그러구나 또 다른 방 약 전승되는 야그 뭐 업써요 만드능 거?{그렇구나, 또 다른 방[x법x], 약, 전승되는 약은 뭐 없어요, 만드는 거?}

10707 @ 약초로 만드능 거.{약초로 만드는 거.}

10707 # 몰라 약초로 마드렁 건 아내봐쓰니까.{몰라, 약초로 만든 거는 안해봤으니까.}

10707 @ 뭐 막 꼬려가지고 탕 만드능 거.{뭐 막 끓여가지고 탕 만드는 거.}

10707 # 그렇 거 아내봐써.{그런 거 안해봤어.}

10707 @ 뭐 까망 거를 종이 위에다 발라노코 뭐 꼬리자나요 탕.{뭐 까만거를 종이 위에다 발라 놓고 뭐 끓이잖아요, 탕.}

10707 @ 약 뭐 그런 거 종이 발르조 이러케?{약 뭐 그런 거 종이 바르죠, 이렇게?}

10707 @ 까만 단지에.{까만 단지에.}

10707 # 응.{응.}

10707 @ 그런 거 뭐로 방법 무슨 약 만드려요 그렇 거?{그런 거 뭐 방법, 무슨 약 만드려요, 그런 거?}

10707 # 거.{그거.}

10707 # 야근 지여다 대려는 머거써두 양 만드려 보든 아내써 그런 야글 거다가.{약은 지여다 달여 먹었어도 약 만들어 보지는 않았어 그런 약을, 거기다.}

10707 @ 그럼 그냥 대리는 저준 약 대리능 거조?{그럼 그냥 달이는, 지어준 약 달이는 거죠?}

10707 # 단지 잉 응 저준 약 대리능 거.{단지 잉, 응, 지어준 약 달이는 거.}

10707 # 대려서 옴나레는 다: 화 그 화 화덕뿌리다가 그러케 대려머거찌 머 대려서 꼭::짜: 머거찌.{달여서 옛날에는 다 화, 그 화, 화덕불에다가 그렇게 달여 먹었지, 뭐 달여서 꼭 짜 먹었지.}

## 일상 대화 발화

- =1 # 몰라 와서 머 아 잉.{몰라 와서 뭐, 잉.}
- =1 # 할머니가 자란다고 하느디 자래서 자란다고 하느디 모대서 모단다고.{할머니가 잘한다고 하는데 잘해서 잘한다고 하느디 못해서 못한다고 [x하느디x].}
- =1 @ 말쓰를 잘 하시고 바르미 정화카시네요 예~.{말쓰를 잘 하시고 발음이 정확하시네요, 네.}
- =1 @ 금 여기 이 동네가 아까 저 논산시?{그러면 여기 이 동네가 아까, 저 논산시?}
- =1 # 예에 인자서 그 머너는 그저네는 은진 머::니루 대써요 그래따가 인자 이버네 인자.{예, 예, 인제 그 머저는 그전에는 은진면으로 댜어요 그랬다가 인제 이번에 인제.}
- =1 # 한 삼년 대써 이 논산시루 이르케 폐넵땡 대가.{한 삼년 댜어, 논산시로 이렇게 편입된 지가.}
- =1 # 은진 떠나서 여기만 요로케 그래서 논산시루 부창동이루 데이써유.{은진 떠나서 여기만 이렇게 그래서 논산시로 부 창동으로 되있어요.}
- =1 @ 기 지금 저 자제분더른 메시나 되요?{그, 지금 저 자제분들은 몇이나 되요?}
- =1 # 하이고 왜 이르케 마니 난나 몰라 내가 팔람매.{아이고 왜 그렇게 많이 낳나 몰라 내가, 팔람매.}
- =1 # 딸 닐 아들 닐.{딸 넷, 아들 넷.}
- =1 @ 아이 잘 두셨네요 얼마나 조아요.{아이 잘 두셨네요, 얼마나 좋아요.}
- =1 @ 딸 열싱게 참 조으시저?{딸 여럿이니까 참 좋으시죠?}
- =1 # 조::웅가 어쩡가 모르거써요.{좋은가 어쩡가 모르겠어요.}
- =1 # 지금 싸람더른 멍청하다그라 왜 그르케 마니 난나구.{지금 사람들은 멍청하다고 그래 왜 그렇게 많이 낳냐고.}
- =1 # 나 차:에서두 그래써 차에서도.{나 차에서도 그랬어 차에서도.}
- =1 # 할머니는 멘 남매나 두서써요 그래서 내.{할머니는 몇 남매나 두셨어요 그래서 내가.}
- =1 # 나 마니 나찌요 그래떠~이 한 멘남매요 팔람매나요 딸 닐 아들 니시라 그래뜨니.{나 많이 낳았지요, 그랬더니 한 몇남매나요? 팔람매나요 딸 넷 아들 넷이라 그랬더니.}
- =1 # 겨티 안진 절문 사라미.{겉에 앓은 젊은 사람이.}
- =1 # 아이고 할머니 생긴 거슨 하:나 양멍청하게 생겼느디 왜 그르케 멍청하게 마니 나따.{아이고 할머니 생긴 것은 하나 안 멍청하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멍청하게 많이 낳대.}
- =1 # 몰라 왜 이르케 멍청하게 난나.{몰라 왜 그렇게 멍청하게 낳았나.}
- =1 @ 지금 연세가 어트게 데세요?{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 =1 # 일고벼요.{일곱이예요.}
- =1 @ 이른 일고비여? 근테 이케 정정하세여?{일흔 일곱이요? 근테 이렇게 정정하세요?}
- =1 # 예.{예.}
- =1 # 정정 정정한지가 어쩡지 이른 일고비여.{정정 정정한지 어쩡디 일흔 일곱이야.}
- =1 @ 그럼 주로 거 겨론하셔가지고 한 이른 무아 무스닐 하셔써요?{그럼 주로 그 결혼하셔서 한 일은 무슨, 무슨 일 하셨어요?}
- =1 # 맨 농사지꼬 머 품팔러두 땡기구 머 장사두 땡기구 아낭 거 써.{맨 농사짓고 뭐 품팔

러도 다니고 뭐 장사도 다니고 안한 것 없어.}업

=1 # 일도 막 얼마나 너무 일 얼마나 마니 땀겨따구 애들 키우면서.{일도 막 얼마나 남의 일 얼마나 많이 다녔다고 애들 키우면서.}

{2초}

=1 # 즈 지낭바니 이게 오래좀 사르면서 경강해쓰른 내가 고상을 좀 드라는데.{주, 주인 양반이 이렇게 오래좀 살면서 건강했으면 내가 고생을 좀 덜하는데.}

=1 # 살만치 사라썬요 그냥 우리도 그냥 초니서 생화랄만치 그랜는다.{살만큼 살았어요, 그냥 우리도 그냥 촌에서 생활할만큼 그랬는데.}

=1 # 아 이 노인네가 아 한 사십 머거가꾸 풍이루 쓰러져버리네 마운 뎌.{아, 이 노인네가 한 사십 먹어서 풍으로 쓰러져버리네 마흔 몇.}

=1 # 마운 다서싱가 여서싱가 오십 때 쓰러전나 예~ 그르케가꾸.{마흔 다섯인가 여섯인가 오십 대에 쓰러졌나 예, 그렇게해갖고.}

=1 # 소도 메:기구 다 메:기는데 암겨뚜 모다구 머 인자 마 다 인자 저단나고 애더런.{소도 먹이고 다 먹이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뭐 인제 막 다 인제 절단나고 애들은.}

=1 # 즈 나름대루 버 직장이 땡긴다구 나가서 벌구.{제 나름대로 벌, 직장에 다닌다고 나가서 벌고.}

=1 # 그래 농사이를 안 시키구 즈떨때루 다 나가서 생화라구.{그래 농사일을 안시키고 자기대로 다 나가서 생활하고.}

=1 # 큰메누리 큰아덜 따루 일변나 일변 겨로나구 바루.{큰며느리 큰아들 따로 금방 나, 금방 결혼하고 바로.}

=1 # 즈 시내가서 직장 생와란다구.{자기 시내가서 직장 생활한다고.}

=1 # 가구이를 해써 아드리 농땡 자래썬유 그래서.{가구일을 했어, 아들이 농방(+가구방) 잘 했어요 그래서.}

=1 # 나간다구 그래서 그랴 마~임두 모깁켜주는 느른 나가 느 버러머거라.{나간다고 그래서 그래 많이도 못 가르쳐 주는 놈은 나가서 너희 벌어먹어라.}

=1 # 나가가꾸 큰메누리를 자르더와가꾸 어트게 어척씨런지.{나가갖고 큰며느리를 잘 얻어와서 어떻게 억척스런지.}

=1 # 부자 대썬요 돈 마니 버러때.{부자 됐어요, 돈 많이 벌었대.}

=1 @ 그럼 지금 누구랑 가치 사세요?(그럼 지금 누구랑 같이 사세요?)

=1 # 막뎡이 열 쉼살.{막둥이 열 세살 때.}

=1 @ 열 쉼살 때 집 썬파능 거.{열 세살 때 집 지었다는.}

=1 # 예 그 망내두~이.{예, 그 막내둥이.}

=1 # 가가 마흔 사려.{그애가 마흔 살이야.}

=1 @ 그럼 그 그 손 손자 손녀두 메디켄네요?(그런 그, 그 손, 손자 손녀도 몇 있겠네요?)

=1 # 둘 남매 난는디 데게 이빠.{둘 남매 낳는데 되게 이빠.}

=1 @ 그 망내 손주 손녀 그거 디게 이뿌지요 예~.{그 막내 손주 손녀 그거 되게 이쁘지요, 예.}

=1 # 장구 장구 나나 나썬 손자가 으팍씨려요.{장군, 장군 하나 났어 손자가 대견스러워요.}

=1 # 예~ 우 우서주꺼썬.{잉, 웃, 웃어 죽겠어.}

=1 @ 으팍씨렵따 구래요?(으팍스럽다고 그래요?)

=1 # 예 겸::나게 머시매가 으견시르께 대 누가 아날켜저도 대 대견시르께 마랴.{예, 겹나게

머슴애가 의견스럽게 대, 누가 안 가르쳐줘도 대, 대견스럽게 말해.}

=1 @ 메 쌀 머건는데요.{몇 살 먹었는데요?}

=1 # 지금 여덟 쌀 이파개씨요.{지금 여덟 살 입학했어요.}

=1 @ 그룬디 그래요.{그런데 그래요?}

=1 # 예 껍 우췌 그 인자 처린는 얘기를 하 애드리 머시매가.{예, 껍 우수췌, 그 인제 철있는 얘기를 해, 애들이 머슴애가.}

=1 # 생기기두 지 애비가치 잘 생기구 이쁘게 잉?{생기기도 제 아버지같이 잘 생기고, 이쁘게 잉?}

=1 @ 키두 크구 그렇가보조?{키도 크고 그런가보죠?}

=1 # 에 이 머리가 똑똑 뚜더가.{예, 이 머리가 똑똑 똑똑해.}

=1 @ 할머니 할머니두 저 겡장이 큰 키여췌 엔나레.{할머니, 할머니도 저 굉장히 큰 키였지요, 옛날에.}

=1 # 크지요 늘거췌게 췌 쪼고매 주룽 거 가터 늘거서.{크지요, 늙었으니까 췌 조금 췌 것 같아 늙어서.}

=1 @ 그 고향은 어디세요?{그[X림X] 고향은 어디세요?}

=1 # 여기요 내내 이동네 여기서 예.{여기요 내내 이동네 여기서 예.}

=1 @ 동네에서 그래 이 동네 시잡와씨요? 아이구!{동네에서 그래 이 동네로 시잡왔어요? 아이구!}

=1 # 시잡 웅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 하나빼께 안나따 친정 엄니 친정 아버지가.{시잡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 하나밖에 안 낳았대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가.}

=1 # 그러서 아자씨를 그 차칸 우리가 교에 승당에 땡깡게.{그러서 아저씨를 그 착한 우리가 교회를 성당에 다니니까.}

=1 # 너 나 아덜라 하나 다구: 다구 항게 그 우리 시아 시아버지 췌모기 그러라 그럼 두췌를 가지가라 하구서는.{너 나[x에게x] 아들 낳아 하나 다오 다오 하니까 그 우리 시아, 시아버지 재목이 그러라 그럼 두췌를 가져가라 하고서는.}

=1 # 우리 지비를 보내췌땅게 그래가꾸 이제 여기서 기냥 사러씨요.{우리 집에를 보내췌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그냥 살았어요.}

=1 @ 아아:: 그래요 아:.{아아, 그래요, 아.}

=1 @ 저 글 그 때도 그게 교헤 저 천주교 성당 다니셔씨요?{저 그, 그 때도 그게 교회 저 청주교 성당 다니셨어요?}

=1 @ 에 성당이.{예, 성당에.}

=1 # 열:씨미 해췌 큰지.{열심히 했어, 큰집.}

=1 # 크 큰지비 시아버지나 우리 지비 으—○ 감니미나.{큰, 큰집에 시아버지나 우리 집에 영감님이나.}

=1 # 너::머나 하::두 열씨밍게 신부니미 그래씨요.{너무나 하도 열심히니까 신부님이 그랬어요.}

=1 # 느는 두리 다 그냥 양주꾸두 하놀라라 승천 한다.{너희 둘이 다 그냥 안 죽고도 하늘나라 승천한다.}

=1 # 그르케 열씨미 저 잉 미드미 지극 정성이루 미더가꾸.{그렇게 열심히 저 믿음이 지극 정성으로 믿어갖고.}

=1 # 그르케 미던는디 우리 애더른 아냐 아내유 그냥 아내유.{그렇게 믿었는데 우리 애들은

안해, 안해요 그냥, 안해요.}

=1 # 아 거 무두러 땡겨유 나더러두 그랴.{아, 그거 뭐하러 다녀요, 나더러도 그랴.}

=1 # 머더러 땡기냐구 머더러 땡기기는 다 그래두.{뭐하러 다니냐고 땡하러 다니기는 다 그래도.}

=1 # 가정이구 어디구 다 주거서 천당갈라 천당이 어디가 이써유.{가정이고 어디고 다 죽어서 천당가려고, 천당이 어디 있어요.}

=1 # 천당 천지 신부님도 도동노미테 이지라라구.{천당 천지가 신부님도 도둑놈이테 이 지랄하고.}

=1 # 지그른 돈 마:나고 천당가고 조은디 갈라문.{지금은 돈 많고, 천당가고 좋은데 가려면.}

=1 # 희생을 자라야 한다고 너무 거 발키지 말고 돔::는 길 배오 배오야 천당가지.{희생을 잘한다고 남의 것 밝히지 말고, 돕는 것을 배워야 천당가지.}

=1 # 그거 지금 가는 맨:날 하느니만티가서 애가 맘 검게 머꼬.{그것 지금 개는 맨날 하느님한테가서 애가 마음 검게 먹고.}

=1 # 그람 모쓴다 월래 애더러 너만티 도울쥬을 아르야지 그래유.{그러면 못쓴대 월래 애들이 남한테 도울 줄 알아야야지 그래요.}

=1 @ 요즘 싸람 다 그러지요 예.{요즘 사람 다 그렇지요, 예.}

=1 # 근디 땡기라구래두 저:너 잘 안땡겨.{근데 다니라고 해도 전혀 잘 안다녀.}

=1 @ 동네가 보니까 땅이 마니 너 널꼬 그러네요 논사니요?{동네가 보니까 땅이 많이 넓, 넓고 그러네요, 논산이요?}

=1 # 배랑 녀뚜 아내요 여기.{별로 넓지도 안해요, 여기.}

=1 # 무 어디 머 지바나 드러설 짜리두.{뭐 어디, 뭐 집 하나 들어설 자리도 [X없는데X].}

=1 @ 금 여기서는 주로 농사를 인제 논농사하고 반농사지조?{그럼 여기서는 주로 농사를 이제 논농사 밭농사지조?}

=1 # 예 논농사 바순 요고 디:가 이꼬 노는 저:: 드리 가서 저 등와동 아페 가 이써요 잉 예.{예 논농사 밭은 이거 뒤에 가 있고 논은 저 들에 가서 저 등화동 앞에 가서 있어요, 잉, 예.}

=1 # 조아 지끄른 질 조아서 머 차 지찌비 차 이쥬게 차 가꾸와 두루를 가따 드루구 나능 기양 순:: 거리 땡기머서 다 땡겨는데 아이고.{좋아 지금은 길 좋아서 뭐 차 집집이 차 있으니까 차 갖고 와서 부르릉 갔다 들어오고 나는 그냥, 순전히 걸어다니면서 다 다녔는데 아이고.}

=1 @ 금 반농사는 주로 뭐뽀 심 해써요? 엔나레는뇨?{그럼 밭농사는 주로 뭐뽀 심, 했어요? 옛날에는요?}

=1 # 엔나리 심는다는 게 지오 콩하구 꽤 초니서 꽤를 마니.{엔날에 심는다는 것 겨우 콩하고 깨 촌에서 깨를 많이.}

=1 # 애덜 자 저르케 사룽게.{애들 인제 저렇게 사니까.}

=1 # 줌 줄라면 꽤아구 들 꽤 콩농사.{줌 주러면 깨하고 들 깨 콩농사.}

=1 # 지금 애더런 텐장 다머 머굴 쥬도 몰라 장경거니를.{지금 애들은 된장 담아 먹을 줄도 몰라 장 건건이를.}

=1 # 그래서 메주콩 시:머가꾸 텐장 다머가꾸 애덜 다.{그래서 메주콩 심어서 된장 담아서 애들 다.}

=1 # 지오 달라능 게 와서 장만 달라지 다룽 건 머 즈드리 다 잘 사머궁게 앙 가지가요.{거

우 달라는 것이 와서 장만 달라지 다른 것은 뭐 자기들이 다 잘 사서 먹으니까 안 가져가  
요.}

=1 # 장 다머 머굴 쫓은 폴릉게 장은 머 다가지가 팔람매가.{장 담가 먹을줄은 모르니까 장  
은 뭐 다 가져가, 팔람매가.}

=1 @ 보리구구는 보리를 비구 베고는 인제 머 시먼나요? 그때는?(보리 그것은 보리는 베구  
베고는 이제 뭐 심었나요? 그 때는?)

=1 # 그 그저니 보리 바:고 콩 썸꼬 고고마 심꼬 그래쥬유.{그 그전에 보리 베고 콩 심고 고  
구마 심고 그랬지요.}

=1 # 지금 보리 앙 가려 모퀴두.{지금 보리 안 갈아 묵혀두.}

=1 @ 그저네 그 머쥬? 그 파월 딸쭈 가능 게 메미링가?(그전에 그 뭐쥬? 그 팔월달쭈 가는  
것이 메밀인가?)

=1 # 매물 매물 예.{메밀 메밀, 예.}

=1 @ 그거뚜 같고 그래쥬요?(그것도 같고 그랬어요?)

=1 # 예.{예.}

=1 # 매밀 농사를 우리는 아내바쥬 안저쥬요.{메밀 농사를 우리는 안해왔어 안졌어요.}

=1 # 그 수악또 마니 나오도 아나고 안저쥬 그릉 건.{그 수확도 많이 나오도 안하고 안졌어  
그런 것은.}

=1 @ 잔치 때 그거 먹짜나요?(잔치 때 그것 먹잖아요.}

=1 # 매물묵 데게 마시쥬.{매밀묵 되게 맛있어.}

=1 @ 여기는 잔치 때 매물무가고 또 다른 거 멩나요? 또 하나 그거?(여기는 잔치 때 메밀  
묵하고 또 다른 것 먹나요? 또 하나 그것?)

=1 # 도투리.{도토리.}

=1 @ 도토리묵 또 뭐쥬? 파랑게?(도토리묵 또 뭐쥬? 파란 것이?)

=1 # 녹뚜묵?(녹두묵?)

=1 @ 녹뚜무기에요? 예 그게 더 마시쥬? 녹두무기.{녹두묵이에요? 네, 그게 더 맛있쥬? 녹  
두묵이.}

=1 # 마시쥬요.{맛있지요.}

=1 @ 그 다메 이 가으리 이르게 그 노라케 잉능 거 이짜나요? 쯔마::나니?(그 다음에 이 가  
을에 이렇게 그 노랑게 익는 것 있잖아요? 조그만하니?)

=1 # 조 수수.{조, 수수.}

=1 @ 수수?(수수?)

=1 # 예 수수쌀.{예, 수수쌀.}

=1 @ 수수쌀 그라고 고거보다 더 큼 거 키 큼 거 이르게.{수수?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것,  
키가 큰 것 이렇게.}

=1 # 망수수 망수수.{왕수수, 왕수수.}

=1 @ 왕수수라 구래요?(왕수수라고 그래요?)

=1 # 예 그건 콩바티다가 그냥 막.{예, 그건 콩밭에다가 그냥 막.}

=1 # 그 한주먹씩 가주구 땡기머서 여기저기 바티다 다 이쓰머 구차나니께.{그 한 주먹씩 =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밭에다 다 있으면 귀찮으니까.}

=1 # 한 쯔기로 쯔끔 모조리게 쯔 시머나두지 비쥬락 땡라구.{한 쪽으로 쯔끔 모조르게 쯔  
심어 놔두지, 빗자루 매려고.}



=1 # 비 땀라구 그거 하지 그 벼.{빗자루 땀려고 그것 하지 그 벼어.}

=1 # 그거 머 머글라구 하능 게 아니 비땀 쭈수비 지끄르 나내.{그것 뭐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빗자루 땀려고 수수빗자루 지금은 안해.}

=1 @ 쭈수 그거 쭈수라 구래요? 그걸요?{수수 그것 수수라고 그래요? 그걸요?}

=1 # 쭈수.{수수.}

=1 @ 그거뚜 먹 머찌요?{그것도 먹지요?}

=1 # 머거요.{먹어요.}

=1 @ 그저네 보면 또 쭈수가꼬 노:란 똥:그르망 거 그 머라 그러더라 그 쭈수도 아니구 진 지장인가?{그전에 보면 또 수수같고 노란 똥그란 것 그 뭐라고 그러더라 그 수수도 아니고 지장, 지장인가?}

=1 # 몰라 그렇 건 우리는 아내 아내봐서 몰라.{몰라 그런 것 우리는 안해 안해봐서 몰라.}

=1 @ 궁게 수수를 마니 하셔꾸나.{그러니까 수수를 많이 하셨구나.}

=1 @ 그럼 그 그 노넨 머 주로 그냥 벼만 심꼬?{그럼 그, 그 논에는 뭐 주로 그냥 벼만 심꼬?}

=1 # 예 벼만 심귀.{예, 벼만 심어.}

=1 # 보리 하고 벼:아구 저 그저니는 보리.{보라하고 벼하고 지어, 그전에는 보리.}

=1 # 아이고! 지금쓰미다 막 기양 투::디려 델라면 아이고 징그러.{아이고! 지금쭈미다 막 그냥 뚜드려 대려면 아이고, 징그러워.}

=1 # 나 도로캐 질 참:: 자랴.{나 도리깨질 참 잘해.}

=1 @ 아 그래요?{아, 그래요?}

=1 # 예 마당이다 너러 노코 그거 막 뚜디려서.{예, 마당에다 넣어 놓고 그것 막 뚜드려서.}

=1 # 두어가 서 너 가마~이 썩 뚜디르서.{두어 가[x마니x] 서 너 가마니 썩 두드려서.}

=1 # 지금 이르게 탈곡 해쓰머 얼마나 조커썩 그저니는 뚜디려 가꼬 마당.{지금 이렇게 탈곡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전에는 두드려갖고 마당.}

=1 # 마당이다 막: 널:뜨라니 우리 지비 여기가 아녀 저 우이 대바티 인는 저 저 이썩 다따 배서 팔고 내려와버런는디.{마당에다 막 뉘다랴게 우리 집이 여기가 아니야, 저 위에 대밭이 있는 저 저 있어, 답답해서 팔고 내려와 버렸는데.}

=1 @ 보리도 뚜두려요?{보리도 두드려요?}

=1 # 예~ 도르캐로.{예, 도리깨로.}

=1 # 그거 뚜딜라든 여르미 주거난다 그거 뚜디려 예:: 그거 뚜드려가꼬.{그것 두드려려면 여름에 죽어난다, 그거 뚜드려, 네, 그거 두드려갖고.}

=1 # 머 이: 이썩? 디리능 거라 지금 지금치름.{뭐 이, 있어? 부치는 거나 지금 지금처럼.}

=1 # 섰풍기래도 이르게 쿵거 마니 이쓰면 큰 늑 사다노코 디리면 얼마나 조커썩.{섰풍기래도 이렇게 큰 것 많이 있으면 큰 늑 사다놓고 부치면 얼마나 좋겠어.}

=1 # 그:늑 막 머리다 이고 여날르구 저날르구 해가꼬.{그늑 막 머리에다 이고 이어 나르고 저 나르고 해갖고.}

=1 # 저 말리미 여 디동상이 가서 바람 부 바람 불기만 기다려.{저 산등성이 여기 뒷동산에 가서 바람 불, 바람 불기만 기다려.}

=1 # 바람부르머 그때 또 보리타작 하머는.{바람불면 그 때 또 보리타작 하머는.}

=1 @ 까불르야조 그거?{까불러야조, 그거?}

=1 # 디려 그르케 바가지가꾸 디리든 잘 랄러가 꺼끄러기.{날려 그렇게 바가지 가지고갖 날

리면 잘 날아가 꺼끄러기.}

=1 @ 월래 그르케 디려요? 아.{원래 그렇게 디려요(+날려요)? 아.}

=1 # 예 예.{예, 예.}

=1 # 바람 부르른 바가지 퍼가꾸 이르케 디리른 바라미 그때 데른.{바람 불면 바가지 퍼갓구 이렇게 날리면, 바람이 그때 되면.}

=1 @ 그저네보면 그 풍석 예.{그전에 보면 그 풍석, 예.}

=1 # 풍석 풍서기루 험믄디 그거 아나구 그냥 가서 디:려써.{풍석, 풍석으로 했는데 그것 안 하고 그냥 가서 날렸어.}

=1 # 게 두어 가마~이 썩.{두어 가마니 썩.}

=1 @ 보리타자가면 그 탐새기 마니 뒤지버 쓰나요?{보리타작하면 그 탐새기 뒤집어 쓰나요?}

=1 # 예 저어구 두어 가마~이 썩 그냥 뚜두려서 가주가 그 거 뚜두릴 릴도 아이고 징그러 아이구 더우꼬.{예, 겨하고 두어 가마니 썩 그냥 두드려서 가지고 가서 그것 두드릴 일도 아이고 징그러워, 아이고, 덥고.}

=1 @ 글 탐새기라 고자나요 마 그양 그 까시 꺼끄래기.{그걸 탐새기라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그 가시 꺼끄래기.}

=1 # 예 꺼끄럭.{예, 꺼끄러기.}

=1 # 지그 매덜 그거 하라면 주거 아난다고 도망가 시집 안 산다 그럴꺼.{지금 애들 그것 하라고 하면 죽어, 안한다고 도망가 시집 안 산다고 그럴꺼야.}

=1 # 지금 뚜두리라고 그래바 그 어트게 하 모다지.{지금 두드리라고 그래봐 그 어떻게 해 못하지.}

=1 @ 그래 그거 해 해보니까 그 좀 시시 그 심드러쪄?{그래 그것 해보니까 그 좀 힘힘, 그 힘들었지요?}

=1 # 히::잉 아이고 보리 하기가 제일 심드러유 그거 벼다가.{잉, 아이고 보리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것 베어다가.}

=1 # 모가지 하나하나 또 다:: 흘테노코 따야지.{모가지 하나하나 또 다 벼훅이를 놓고 따야지.}

=1 # 그라다가 기계가 나와가꾸.{그러다가 기계가 나와서.}

=1 # 탈:공만 해저도 살 거때.{탈곡만 해줘도 살 것데.}

=1 # 보리 모가지는 따구 훅꾸 인자 안뚜두리고 인자 탈곡 기계로다가 인자.{보리 모가지 따고, 훅고 인제 안 뚜드리고 이제 탈곡 기계로다가 인제.}

=1 # 보리가 나 보리 밥쭈능 거 그검만 나와두 살 거떠라구 그른디 지그른 머.{보리가 나 보리 바수는 것 그것만 나와도 살것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뭐.}

=1 # 지금 보니까 저 오디여 내가 놀로가서.{지금보니까 저 어디여 내가 놀러가서.}

=1 # 저 아랜 녀기루 해밀 해남 해남쪄기 그 보리 마니 하더라구유 보리 마니 하 그라 해남 고기 그냥.{저 아래 녀으로 해밀(+해남), 해남 쪽에 그 보리 많이 하더라고요 보리 많이 해, 그래서 해남 거기 그냥.}

=1 # 바티서 일:번 그냥 기계 다러가꾸 나라처럼 막 벼 비더만.{밭에서 금방 그냥 기계 달아 갓고 나락처럼 막 벼 베더만.}

=1 # 그람 보리 에 보리알루 나오데 그라구션 보리때는.{그러면 보리, 예, 보리알로 나오데 그러고서는 보리대는.}

=1 # 그렇게 그 자리서 불질러버려뎌 노빠다기다 노쿠.{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불질러버렸어  
논바닥에다 놓고.}

=1 # 지금 다 그르케 고기는 마니 하더라고요 지금도 보리.{지금 다 그렇게 거기는 많이 하  
더라고요 지금도 보리.}

=1 @ 이이 충청도는 보니까 보리농사 아주 지금 아나나요?(이 충청도는 보니까 보리농사,  
아주 [x안 하나요?x] 지금 안하나요?)

=1 # 아:내요.{안해요.}

=1 # 안 하 안 저 여기 싸람덜 안 저.{안해 안 지어 여기 사람들 안 지어.}

=1 # 게을뤄서 안 진는지 어째서 안 진는지.{게을러서 안 짓는지 어째서 안 짓는지.}

=1 # 맨:: 노니다두 하구 김::나게 해찌 여기두.{맨 논에다도 하고 많이 했지, 여기도.}

=1 @ 얼추 엔나레 다 해쥬? 그거.{얼추 옛날에 다 했지요? 그것}

=1 # 다 해쥬 근데 지끄른 아내유.{다 했지요 근데 지금은 안해요.}

=1 # 바더들.{받아들.}

{3초}

=1 @ 엔나리 그러면 여길 이걸 머라고 하셔찌 여기?(옛날에 그러면 여기를 이걸 뭐라고 하  
셨지지요 여기?)

=1 # 손톱.{손톱.}

=1 @ 멀로 까까쥬요? 소토븐?(뭘로 깎았어요? 손톱은?)

=1 # 가:위로 까까쥬요.{가위로 깎았지요.}

=1 @ 가워루요?(가위로요?)

=1 # 가새로.{가새로.}

=1 @1 할머니 이거요 다시 머라고 하신다구요?(할머니 이거여 다시 뭐라고 하신다고요?)

=1 # 손톱.{손톱.}

=1 @1 이거 금 말고 이거요 이거이거이거.{이것 금 말고 이거요, 이것 이것 이것.}

=1 # 발꼬락?(발가락?)

=1 @1 아니 손톱이어요?(아니, 손톱이어요?)

=1 # 손톱 발톱 그래찌 그거.{손톱 발톱 그랬지, 그것.}

=1 @1 다시 한번만 해보세요.{다시 한번만 해보세요.}

=1 # 손톱 이걸 발톱.{손톱, 이걸 발톱.}

=1 @ 그람 머 이런 막 저 이런 잔 잔치래기 거룻게 막 싸여인능 걸 뭐라 구러나요?(그럼  
뭐 이런 막 저 이런 부스러기 같은 것 막 쌓여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1 # 뿌시르기?(부스러기?)

=1 # 뿌시레기 뿌시리기 뿌시리기 싸여따고.{부스러기 부스러기 부스러기 쌓였다고.}

=1 @ 그라고 인제 머기는 인제 아까 마란 그 타자갈 때 먼지는 탑새기라고 그러나요? 탑새  
기?(그리고 인제 먹이는 인제 아까 말한 그 타작할 때 먼지는 탑새기라고 그러나요? 탑새  
기?)

=1 # 예.{예.}

=1 # 탑새기.{탑새기.}

=1 @1 할머니 그 때 지지겍찌라고 하셔 가주고.{할머니 그 때 지지겍찌라고 하셔 갖고.}

=1 # 지지겍찌는 나무여서 떠러 하는 다 지지겍찌여.{지지겍찌는 나무에서 떨어 하는, 다 지  
지겍찌(+나무 부스러기 껌질)여.}

=1 @1 그거 말고 그냥 이렇 걸 부스래기?{그것 말고 그냥 이런 것을 부스러기?}

=1 # 이~ 탐새기 탐새기 그래.{응, 탐새기, 탐새기 그래.}

=1 @1 함범만 해보세요 할머니.{한번만 해보세요, 할머니.}

=1 # 탐새기?{탐새기?}

=1 @1 그거 말고 아까 떠러징 거.{그것 말고 아까 떨어진 것.}

=1 # 부시르기.{부스러기.}

=1 @ 아이고 말씀 잘하시네 정와카게 기억력 조으시고.{아이고, 말씀을 잘하시네 정확하게 기억력 좋으시고.}

=1 @ 절머쓸 때 아주 그 기억력 조으셔다고 그러게써요?{젊었을 때 아주 그 기억력 좋으셨다고 그랬겠어요?}

=1 # 예.{예.}

=1 @ 대다나셔.{대단하셔.}

=1 # 선생이미 그라자내두 너 똥또라다.{선생님이 그렇지 않아도 너 똥똥하다.}

=1 # 똥또라다구 하구 똥또란디.{똥똥하다고 하고 똥똥한데.}

=1 # 해찰 좀 하지 말고 공부 하 에~ 해찰.{해찰 좀 하지 말고 공부해 앵, 해찰.}

=1 # 공부랄 하다가 해찰을 마니 해써 해찰 좀 하지말고 공부야.{공부를 하다가 해찰을 마니 했어, 해찰 좀 하지말고 공부해.}

=1 @ 여기는 이런 말 쓰나요? 거 그 아간 할래란 마른 쓴다고 해꼬.{여기는 이런 말 쓰나요? 그 아간 할래(+까지)라는 말은 쓴다고 했고.}

=1 @ 그 다메 한:지라는 말 써요? 예드른 그 따란테 시집뽀낼 때 그 시어 시어머니가 따란테 그 머여 오탄지 해줘따고 할 때 자란쓰저?{그 다음에 한지라는 말 써요? 예를 들면 그 딸한테 시집보낼 때, 그 시어머니가 딸한테 그 뭐여 옷조차 해줬다고 할 때, 잘 안쓰죠?}

=1 # 예 안써유 잘.{예, 안써요 잘.}

=1 @ 저 보령가닝게 쓰는데 이 쪼근.{저 보령가니까 쓰는데 이 쪽은.}

=1 @ 아가는 할래라는 말 쓴다 그래져? 따랄.{아가는 할래라는 말 쓴다고 그랬지요? 딸할래.}

=1 @ 아이구 나는 그냥 그 따랄래 그 시집 다 보내따고 망내따랄래 할래라는 말?{아이고 나는 그냥 그 딸까지 그 시집 다 보냈다고 막내딸까지 할래라는 말?}

=1 # 할래 쓰주 시집 다 딸들 다 시집뽀내따구 딸까정 다 보내따구.{할래 쓰지요, 시집 다 딸들 다 시집 보냈다고 딸까지 다 보냈다고.}

=1 @ 에 딸까지 보내 예.{예, 딸까지 보내, 예.}

=1 @1 함번 해보세요 할머니 그 말씀 할래로.{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그 말씀 할래로.}

=1 # 할래?{할래?}

=1 @ 이르케 이케 해보세요 머냐른 그 나느~냥 그 보리 보리카 보리할래 농사 다 저바다고 할 때 어트게 해요?{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뭐냐면 그 나는 그냥 그 보리까지 보리할래 농사 다 지어봤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1 # 보리알 때.{보리할 때.}

=1 @ 아니 나는 궁게 농사를 마라자면 벼농사도 이꼬 콩농사 인는데 그라른 인제 보리농사 할래 저따고 할 때.{아니 나는 농사를, 말하자면 벼농사도 있고 콩농사 있는데 그러면 인제 보리농사할래 지었다고 할 때.}

=1 # 콩농사 벼농사 보리농사 그르케 다 지어따구유?{콩농사 벼농사 보리농사 그렇게 다 지

었다고요?)

=1 @ 그 때 할래라는 말 쓰능구먼 먼:먼까지 쓰시거든요 우리가 아이 나는 그 보리농사까지 저바썬 할 때 그 혹시 나는 보리농사할래 저바썬 그런 말 쓰시녕가요?(그 때 할래라는 말 쓰능구먼, 무엇무엇까지 뜻이거든요, 우리가 아이 나는 그 보리농사까지 지어왔어 할 때 그 혹시 나는 보리농사할래 지어왔어 그런 말 쓰시는가요?)

=1 # 그르치유 보리 머든지 할라든 이~ 내가 진는 농사 이게 할라든.{그렇지요 보리 뭐든지 하려면 잉, 내가 짓는 농사 이게 하려면.}

=1 # 야 이만저만 하니 이르게 할래?(야 이만저만 하니 이렇게 할래?)

=1 # 너 이거또 할래 그러지 느도 할래 이르게.{너 이것도 할래 그러지 너희도 할래 이렇게.}

=1 # 우리도 해썬게 느도 해 해볼래 이르게.{우리도 했으니까 너희도 해볼래 이렇게.}

=1 @ 그 다메 이런 말 쓰 아이구 내가 저기 저 저 지비 가봉개 그 지비 고기 마니 자바와 때 할 때 그른 말 쓰나여? 가봉개 가보니까.{그 다음에 이런 말 쓰[x쓰는지요x], 아이고 내가 저기 저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 고기 많이 잡아왔데 할 때 그런 말 쓰나요? 가봉개 가보니까.}

=1 # 가보니까 여기도 가보니까 여 야 그지비 가봉개.{가보니까 여기도 가보니까 야 그집에 가봉개.}

=1 # 고기도 마이 자바와꾸 머또 마니 해놔떠라 이르게 인자 그르케 하지.{고기도 많이 잡아왔고 뭇도 많이 해놔떠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지.}

=1 @ 봉개를 쓰는.{봉개(+보니까)를 쓰는.}

=1 @ 자세히 보니까 저 여자 참 이쁘데 할 때 자세히 보니까를 자세히 봉개라구 말쓰나요? 언능.{자세히 보니까 저 여자 참 이쁘데 할 때 자세히 보니까를 자세히 봉개라고 말 하시나요? 얼른.}

=1 # 예~ 자세히 봉개 보보보 보니까라구두 잘 아내.{예, 자세히 봉개 보보보, 보니까라고도 잘 안해.}

=1 # 야 봉개 그래두 갠찬터라 이라지.{야, 봉개(+보니까) 그래도 갠찬터라 이러지.}

## 1.2. 일생 의례

### 1.2.7.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

10220 @ 그 옛날 보니까 그 어른들 인제 도라가시자나요?(그 옛날에 보니까 그 어른들 인제 돌아가시잖아요?)

10220 #1 예.{예.}

10220 @ 그러든 그 장례를 할꺼 아니예요?(그러면 그 장례를 할 것 아니예요?)

10220 #1 예.{예.}

10220 @ 게 좀 혹시 그 옛날에 전통찌긴 장~여 절차를 아시능 거 이쓰면 좀 말씀좀.{그래서 좀 혹시 그 옛날에 전통적인 장례 절차를 아시는 것 있으면 좀 말씀 좀.}

10220 #1 장네 절차르류?{장례 절차를요?}

10220 @ 예.{예.}

10220 @ 그 상네.{상례.}

10220 #1 상~예.{상례.}

10220 @ 예 예드른 그 초종은 어트카고 스비라고 허지 염습 꺼통 거.{예 예를들면 초종은 어떻게 하고 습이라고 하지 염습 같은 것.}

10220 #1 습?{습?}

10220 @ 예 염습 한다고 하조.{예, 염습한다고 하조.}

10220 #1 연스비 아~이고 으一口미지 으一口 염 염.{염습이 아니고 염이지, 염 염 염.}

10221 #1 여멀 혈째 볼래 거그서 준비를 다 해 가주구 오지 염 허는씨 이 저 상포에서 지금 근디.{염을 할 제 본래 거기서 준비를 다 해 가지고 오지, 염 하는데서, 이 저 상포에서 지금 근데.}

10220 #1 그저~이는 에 여그서 상주 오설 다 준비애놔따가.{그전에는 음, 여기서 상주 옷을 다 준비해놔다가.}

10220 #1 그 날 내노키도 허구 그래 인자 그저~이는 그랜는다.{그 날 내놓기도 하고 그래 인제 그전에는 그랬는데.}

10221 #1 지그른 다 상포에서 마터서 다 하더만 그래이 지그른.{지금은 다 상포에서 말어서 다 하더구만 그래요 지금은.}

10220 @ 엔나려 공께 엔날.{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10220 #1 엔나레는 엔나레는 그 오설 다 지비서 주문 해놔요.{옛날에는, 옛날에는 그 옷을 다 집에서 주문해놔요.}

10220 #1 언::제 주문하능 게 윤다리 주무너야 조타고 하드먼그여 그게 윤다리.{언제 주문하는 것이, 윤달에 주문해야 좋다고 하더만 그래요, 그게 윤달에.}

10220 #1 그서 윤다리 마니들 허는디 삼베로다가.{그래서 윤달에 많이들 하는데 삼베로다가.}

10220 #1 아:: 한 사람 가는디 한 일곱 필 쟁도 드러가요 일곱 필.{한 사람 가는데 한 일곱 필 정도 들어가요, 일곱 필.}

10220 #1 한 피리 수무자 씨개서 일곱 피리 드러가는디.{한 필에 스무자 씌해서 일곱 필이 들어가는데.}

10220 #1 그 요어구 이부러구 요어구 속 오더구.{그 요하고 이불하고 요하고 속옷하고.}

10220 #1 또 이 장썩빠라고 이꾸 인자 이르게서 묶는 건까지 해서 이르게 일곱 피리 드러가요.{또 이 염포라고 입고 인제 이렇게 해서 묶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일곱 필이 들어가요.}

10220 #1 일곱 피리 드러가구.{일곱 필이 들어가고.}

10220 #1 그 인자 거기 염 허는 사례미 별또로 불루주 인자.{그 인제 거기 염하는 사람이 별도로 부르지요 인제.}

10220 #1 별또로 불려서 그거슬 허게 데는디 츠미 에.{별또로 불려서 그것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음.}

10220 #1 이 매장빠머녀 까러유 그걸 매장빠를 이르게 이르게 까러노머는.{이 매장빠 먼저 깔아요 그걸 매장빠를 이렇게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10221 #1 인자 그저니는 자루 해썩는다 그걸 양쿠 시방은.{인제 그전에는 자로 했었는데 그걸 양고 지금은.}

10220 #1 매장뻘을 깔구 그 대미 요럴 펴요 인자 요를 피구.{\*\*\*를 깔고 그 다음에 요를 펴요 인제 요를 펴고.}

10220 #1 피구 이르게 순서를 다 해서 한 쪼기다 노코서.{펴고 이렇게 순서를 다 해서 한 쪽에다 놓고서.}

10220 #1 시체를 인자 가따 그 요 위다 올리구서.{시체를 인제 갖다 그 요 위에다 올리고 서.}

10220 #1 죽:: 이르게 깔구선 노쿠서 거그서 오설 버끼고서.{죽 이렇게 깔고서는 놓고서 거기서 옷을 벗기고서.}

10220 #1 그르케서 외피지 인자 오설 오설 이피구.{그렇게해서 입히지 인제 옷을, 옷을 입히고.}

10220 #1 내내 이 발싸개 손싸개 허구.{내내 이 발싸개 손싸개 하고.}

10220 #1 이 머리 우이루 왜 거시기를 다 덮찌 인자 수마글.{이 머리 위로 왜 거시기를 다 덮찌 인제 수막을.}

10220 #1 수마글 더꼬 그르케 내내 츠미는 인자 거시기를 해요 그.{수막을 덮고 그렇게 내내 처음에는 인제 거시기를 해요 그.}

10220 #1 시끼고 따끼구 다 하여여 에 그르케 다 해서 허고.{씻기고 닦이고 다해야 해요, 음, 그렇게 다 해서 하고.}

10220 #1 그르케 순서이게 그르케서 으—플 하능 거조 그르케 가꾸 인자.{그렇게 순서있게 그렇게 해서 염을 하는거죠 그렇게 갖고 인제.}

10220 @ 그러면제 그 그 여미 끝나른 상주더른 염: 끝나고 상보글 입나요 미리 입나요 엔 나레는?{그러면 인제 그 그 염이 끝나면 상주들은 염 끝나고 상복을 입나요 미리 입나요, 옛날에는?}

10220 #1 염: 끝나야 입찌요 염: 끝나야 입찌 웁 그럼.{염 끝나야 입지요, 염 끝나야 입지요 웁 그럼.}

10220 @ 상보글 그러니까 좀 어느 촌수꺼지 이번나요 가까운 친척이?{상복을 그러니까 좀 어느 촌수까지 입었나요, 가까운 친척이?}

10220 #1 어 고종 고종이 고종도 고종허고 이모.{어, 고종, 고종이, 고종도 고종하고 이모.}

10220 @ 이종강개?{이종관계?}

10220 #1 에 이모네허고 내내 사춘더리랑은 다 이꾸 이종까지.{네, 이모네하고 내내 사춘들 이랑은 다 입고 이종까지.}

10220 #1 공 고모부두 이꾸 다 입떠라구유 그르케.{고, 고모부도 입고 다 입더라고요 그렇게.}

10220 @ 그러면 제 그 염 하구 소님도 바들 꺼 아니에여 문상 오신 분들.{그러면 인제 그 염하고 손님도 받을 것 아니에요 문상 오신 분들.}

10220 #1 인자 오설 다 입꼬 에 인자 손니물 바찌 인자.{인제 옷을 다 입고 음, 인제 손님을 받지 인제.}

10220 #1 그 저녁 썰을 지내구서 저녁 썰을 지내구서 손니물 받게 되지 인자.{그 저녁 썰을 지내고서 저녁 썰을 지내고서 손님을 받게 되지 인제.}

10220 #1 대개 오후에 허거 허거드너 내내 으를 혈찌기 그래서 볼래 사밀.{대개 오후에 하가, 하거든요, 내내 염을 할 때 그래서 본래 삼일.}

10220 #1 이틀간 놔 뒤따가 사밀썰 막빠지 손님마잠 먼디 손님까지 다 오야.{이틀간 놓아

두었다가 삼일째 막바지 손님 말하자면 먼 데 손님까지 다 와야.}

10220 #1 그 거시기를 허주 인제 으—멀 허지.{그 거시기를 하지요, 인제 엄을 하지.}

10220 #1 아 함 부니래두 아노무는 오 더락 기다리다 기다리던자 다 온대미.{아 한 분이래도 안오면 올 때까지 기다리다 기다리다 인제 다 온 다음에.}''

10220 @ 그저니 저히들 보니까 그 바린하기 저네 그 바메 그 대떠리라고 하나요? 그걸 하능.{그 전에 저히들 보니까 그, 발인하기 전에 그 밤에 그 대뜨리라고 하나요? 그것을 하는 것 [x같아요x].}

10220 #1 으~ 으~ 대떠리.{응, 응, 대뜨리.}

10220 @ 그걸 대떠리라 고조 그저?{그걸 대뜨리라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10220 #1 으~ 대떠리.{응, 대뜨리.}

10220 #1 그건 자 부랑민더리 와가주구 인자 칭구나 그런 사람드리 모여가주구서 대떠리를 허쥬 인자.{그건 인제 부랑민들이 와서 인제 칭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뜨리를 하지요 인제.}

10220 #1 그 메기는 사람드리 지금까지 사라 온 그 역싸도 예 이르게 메기고 또 인자 그. {그 메기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온 그 역사도 이렇게 메기고 또 인제 그.}

10220 #1 마라잠 재민는 우송꺼리두 허서나 그 사람더를 즐거게 해주기두 허구.{말하자면 재미는 웃음거리도 해서는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10220 #1 내내 그르케서 보내고.{내내 그렇게 해서 보내고.}

10220 #1 인자 그 사람덜 수란잔 썩 주구.{인제 그 사람들 술 한잔 썩 주고.}

10220 #1 바미 야시키면 인자 야식뚜 해서 대접 허고.{밤에 야식하면 인제 야식도 해서 대접하고.}

10220 @ 그러민제 그 마지망 날 운구 바린할 때 이짜나요? 그.{그럼 인제 그 마지막 날 운구 발인할 때 있잖아요? 그.}

10220 @ 이 동네는 걸 상여라 구라나요 행상이라 구라나요?{이 동네는 그걸 상여라고 그러나요, 행상이라고 그러나요?}

10220 #1 상여.{상여.}

10220 @ 상여 상여꺼지 인제 시신을 나올 때 그저네 그 바가지 거통 걸 론능가 보더라고요?{상여 상여까지 인제 시신을 나올 때 그전에 그 바가지 같은 것을 놓는가 보더라고요?}

10220 #1 에 바가지 바가지 바가지를 어퍼노치 내내 인제 무나키다가.{에, 바가지 바가지 바가지를 얹어놓지 내내 인제 문 앞에다가.}

10220 @ 근 왜 그러는거조 그거뇨?{왜 그러는거요 그것은요?}

10220 #1 그건 이 모든 여기 잡꾸릴 읍쨌다는 뜨스로 인자.{그건 이 모든 여기 잡꾸를 없앤다는 뜻으로 인제.}

10220 #1 이 방아~에는 자 그 시체가 떠난디.{이 방 안에 있는, 인제 그 시체가 떠난데.}

10220 #1 그저니는 왜 동토라 그우지 왜 그롱 거 이써가꼬 그레가꾸.{그전에는 왜 통토라고 그러지 왜 그런 것 있어서 그래서.}

10220 @ 동티난다구요?{동토난다구요?}

10220 #1 모든 규늘 다 자버가라는 뜨스로 인자 그르케서 방어를 올리는 거시지 인자 그게여.{모든 균을 다 잡아가라는 뜻으로 인제 그렇게 해서 방 안을 올리는 것이지 인제 그게요.}

10220 #1 에 각: 쏘리나면 자 올리구서 나가능거주 그러머선 자.{예, 각소리나면 인제 올리



고 나가는거죠 그러면서 인제.)

10220 #1 이케 네 구통이다가 네 구통이 이르케.{네 귀통이에다가 네 귀통이 이렇게.}

10220 #1 그 양조기루 이케 잡꾸서 시체를 잡꾸.{그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서 시체를 잡고.}

10220 #1 중방매개허자 중방매개허자 허구 이르케 네 구통이 한번 도라 이르케 방얼 방얼 그르케서.{중방막이하자 중방막이하자 하고 이렇게 네 귀통이 한 번 돌아 이렇게 방을 방을 그렇게 해서.}

10220 #1 모든 그 잡씨늘 싹 가주구 가능 거지 인자 도라가신 양바니 그케서.{모든 그 잡신을 싹 가지고 가는 거지 인제 돌아가신 양반이 그렇게 해서.}

10220 #1 산사라미 안저나게 살쭈 이케 그르케 해주구 떠나능 거여 그르케서 모든 잡꾸를 다가주구 가능 거여 인자.{산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떠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모든 잡꾸를 다갖고 가는 거야 인제.}

10220 @ 그러민제 시체를 이제 상이다 그 가따 모실 꺼 아녀여 그라구서는 제 그 무슨 제사 가통 걸 좀 지내저?{그럼 인제 시체를 이제 상여에다 그 갖다 모실 것 아니에요 그러고 인제 그 무슨 제사 같은 것을 좀 지내죠?}

10220 #1 바린제.{발인제.}

10220 @ 예: 그걸 어트게 바린제는 해썬요? 즘에는?{예, 그걸 어떻게 발인제를 했어요? 처음에는?}

10220 #1 바린제를 삼사실과 노쿠 떠걸 한 시루 해노치 인자.{발인제를 삼사실과 놓고 떡을 한 시루 해놓지요, 인제.}

10220 #1 떠걸 한 시루 해서 상 우이다 올리구 삼사실과 노쿠 그르케 허구서.{떡을 한 시루 해서 상 위에다 올리고 삼사실과 놓고 그렇게 하고서.}

10220 #1 내내 바린제 허는디 그 충익짜네요 충이꾸 그케구선자.{내내 발인제 하는데 그 축 읽잖아요, 축 읽고 그렇게 하고서 인제.}

10220 #1 거긴는 사람드린자 그 떠글 다 먹찌 인자.{거기 있는 사람들 인제 그 떡을 다 먹지 인제.}

10220 #1 그 사람더리 바리넨 사람드리 다 머거 인자 다 이르키 골고루 노나서.{그 사람들이 발인한 사람들이 다 먹어 인제 다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10220 #1 쌍 머거 읍썬게 게 마니는 안코 한 서너대썬 혈꺼야 아마 그게 스:데.{싹 먹어 없애는 게, 많이는 앓고 한 서너대썬 할꺼야 아마 그게 서 되.}

10220 #1 스데 스호빙가 해서 그르케 싹 거기서 나너 머거 읍썬버려요 그냥.{서 되 서 흡인가 해서 그렇게 거기서 나눠 먹어 없애버려요, 그냥.}

10220 #1 그르케 읍썬고 바루는 인자 바린제를 익지 인제 이코서 출발라능 거지.{그렇게 없애고 바로 인제 발인제를 읽지, 인제 읽고서 출발하는 거지.}

10220 @ 그럼 출발라면 바루 그 산소로 가나요 묘로 가나요 아니면 동네에서.{그럼 출발하면 바로 그 산소로 가나요 묘로 가나요 아니면 동네에서.}

10220 #1 아녀요 동네에::서 인자 또.{아니에요 동네에서 인제 또.}

10220 #1 여기서 아마 한: 거시기까지는 쟁쟁이 오래 시가늘 걸리면서 상여를 메기지 인자 또.{여기서 아마 한 거시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시간을 걸리면서 상여를 메기지 인제 또.}

10222 #1 슬픈 얘기도 허고 그 마라자머는 인자.{슬픈 얘기도 하고 그 말하자면은 인제.}

10222 #1 지금 가면 언제오나 해가면서 메기는 사라미 구성지게 잘 메겨요 그래서.{지금 가면 언제오나 해가면서 메기는 사람이 구성지게 잘 메겨요, 그래서.}

10220 @ 그 메기는 사람틀 그 머라구래요? 요령재비라 구라나요?{그 메기는 사람을 그 뭐라고 그래요? 요령잡이라 그러나요?}

10220 #1 응 요령재비.{응, 요령잡이.}

=1 #1 시분 지금두 함 분 사러인는디 서울까 이꼬서 지금 아놔요 알고 인는디.{\*\* 지금도 한 분 살아있는데 서울가 있고 지금 안 와요, 알고 있는데.}

=1 #1 그 체씨라고 잘 메겨쨌는디 그 어른 아직 시방 여든 여더링가 사러는디.{그 최씨라고 잘 메겼었는데, 그 어른 아직 지금 여든 여덟인가 살았는데.}

=1 #1 지금 사러인는디 도라가시던 아넌나봐요 도라가시면 이리 오능 거고.{지금 살아왔는데 돌아가시던 안했나 봐요, 돌아가시면 이리 오는 것이고.}

=1 @ 그 부니 그걸 재미깨 그걸 구성지게.{그 분이 그걸 재밋게 그걸 구성지게.}

10222 #1 구성지게 해가꾸 참 그 디다보는 사람두 그냥 눈무리 나올 쟁도로 그냥 참.{구성지게 해서 참 그 들여다보는 사람도 그냥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냥 참.}

10222 #1 자식뜨란티도 이르게 공을 드리구 가구.{자식들한테도 이렇게 공을 드리고 가고.}

10222 #1 그래서 영::워니 존 나라로 가시라구 그르케.{그래서 영원히 좋은 나라로 가시라고 그렇게.}

10222 #1 기원을 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내내 허지요.{기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내 하지요.}

10222 #1 그서 회심고기라구 인는디 우리는 잘 몰라요 회심고글.{그래서 회심곡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회심곡을.}

10222 @ 회심고글 하능 거 가떼요.{회심곡을 하는 것 같데요.}

10220 #1 예.{예.}

10220 @ 그면 동네 아피서 머 동네제도 지내나요? 그 떠나기 전네?{그러면 동네 앞에서 뭐 동네제도 지내나요? 그 떠나기 전에?}

10220 #1 에 인제 지그른 안터라구요 해쨌요.{네 인제 지금은 앓더라고요, 또 했어요.}

10220 @ 엔나레리너?{옛날에는요?}

10220 #1 예.{예.}

10220 #1 동네에서 길:짜라구 길:짜라구해서 제사를 지내쨌쨌요.{동네에서 길제라고 길제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쨌어.}

10220 #1 경로당 츠기서 노인더리 나와서 지내주구 그르케서 떠나쨌유.{경로당 측에서 노인들이 나와서 지내주고 그렇게 해서 떠났지요.}

10220 @ 그럼제 그 떠나서 산소꺼지 가는 동아네.{그럼 인제 그 떠나서 산소까지 가는 동안에.}

10220 #1 중가니서 함번 쉬지 또 중가니서 쉬어가꾸.{중간에서 한 번 쉬지 또 중간에서 쉬어서.}

10220 #1 귀경꾼덜두 이씨면 술도 한 잔씩 대저버구.{구경꾼들도 있으면 술도 한 잔씩 대접하고.}

10220 #1 또 이르게 먼:: 디서 손니미 오신 오시는 손님두 인자 여기서 몬 만나쓰믄.{또 이렇게 먼 데서 손님이 오신, 오시는 손님도 인제 여기서 못 만났으면.}

10220 #1 중가니서 거그서 인사를 허개끔 자리를 만드러주지 또 인자 거기서 해서.{중간에서 거기서 인사를 하게 자리를 만들어주지 또 인제 거기서 해서.}

10220 #1 상이랑 도짜리랑 상에다 가주 가가꾸유 그르케서 수 란 잔씩 대저버구.{상이랑 돛

자리랑 상에다 갖고 가갖고요, 그렇게 해서 술 한 잔씩 대접하고.}

10220 #1 그 근방이 인는 사람들 인자 다 게 만족카게 메기구 그르구서.{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 인제 다 그렇게 만족하게 먹이고 그러고서.}

10220 #1 그저니는 고기를 해서 이캐서 돼지고기어구 짐치어구 이르게 꺾:서.{그전에는 고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꺾서.}

10220 #1 그르캐서 가져가서 이케 하나씩 노나주구 그래씨유 수란주루.{그렇게해서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그랬어요 술안주로.}

10220 @ 그래씨요?{그랬어요?}

10220 #1 네.{예.}

10220 @ 그 보면 저히들 어려쓰른 산소꺼지는 여자분더른?{그 보면 저희들 어렸을 때 산소까지는 여자분들은?}

10220 #1 안가씨지유 그저니는 그저니는 안가씨씨요.{안갔었지요 그전에는 그전에는 안갔어요.}

10220 @ 그러치요.{그렇지요.}

10221 #1 근디 지그른 다 가요 인자 개방.{근데 지금은 다 가요 인제, 개방.}

10221 @ 지그른 다 가능케벼.{지금은 다 가는가봐.}

10221 #1 예 다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보구 다: 디다보고 다해요 인자 거기두 인자.{예, 다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보고 다 들여다보고 다해요 인제 거기도 인제.}

10220 #1 지사가 이찌 또 인자 지사가 마라자른 인자 산소릴.{지관이 있지 또 인제 지사가 말하자면 인제 산소를.}

10220 #1 좌를 어디루 쓰라고 인자 다 이걸 거시기를 베아줘요 또 해져요 거기서 지사가. {좌향을 어디로 쓰라고 인제 다 이걸 거시기를 보여줘요 또 해줘요 거기서 지관이.}

10220 #1 지사가 다: 혀서 지그른 왜 저 서파늘 쓰자내요 그저니는 이르게 나무루 짜서 해 씨꺼든.{지관이 다해서 지금은 왜 저 석관을 쓰잖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짜서 했었거든.}

10220 #1 나무루 나무루 짜서 해썬는디.{나무로 나무로 짜거 했었는데.}

10220 #1 지그른 시대 무놉가 발팔대가꾸 참 돌로 해서 야무지게 자립떠다.{지금은 시대 문화가 발달해서 참 돌로 해서 야무지게 잘합디다.}

10220 #1 서파는 서판 짜서 인자 좌는 무신 좌로 인자 그 산 날대로에서.{석관은 석관 짜서 인제 좌향은 무슨 좌를 인제 산 날대로 해서.}

10220 #1 그 좌르 래서 이르게 딱 해주문 시체를 쓰게 되조.{그 좌향을 해서 이렇게 딱 해주면 시체를 쓰게 되조.}

10220 @ 고 좌를 자바주는 사라믄?{그 좌향을 잡아주는 사람을?}

10220 #1 지사.{지관.}

10220 @ 지사.{지관.}

10220 #1 예 지사 지사니미라구 그러지유.{예, 지관, 지관님이라고 그러지요.}

10220 @ 그런 분드리 동네에 그도 함 분씩 개선나요?{그런 분들이 동네에 그래도 한 분씩 계셨나요?}

10220 #1 예 나두 땡기며 더러 해씨요.{예, 나도 다니며 더러 했어요.}

10220 @ 그러면 그 정말 그 조은 메짜리 자부면 그케 그 발복도 하구 그러나요?{그러면 그 정말 그 좋은 묘자리 잡으면 그렇게 그 발복도 하고 그러나요?}

10220 #1 발보기라녀?{발복이라니요?}

=1 @ 그 머 거기서 잘 출세하는 사람 나오고 부자두 되고.{그 뭐 거기서 잘 출세하는 사람 나오고, 부자도 되고.}

=1 #1 그저니는 그저니는 그래따고 마~이 드런는디유.{그전에는 그전에는 그랬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1 #1 그건 다 거시기유.{그건 다 거시기예요.}

=1 #1 마러기 조아서 입땀 존 사람드리 그리케 해서.{말하기 좋아서 입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1 #1 거시기능 거지 그릉 거 읍sey 내가 생가가기는 읍따 구래요 그케.{거시기 하는거지 그런 것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그래요 그케.}

=1 @ 그저닌제 드리보며는 그 무슨 머 묘자리가 가재라고저 까재 이 동네 까재라고 그러나요?{그전에 인제 들어 오면은 그 무슨 뭐 묘자리가 가재라고 그러죠 까재 이 동네 까재라고 그러나요?}

=1 @ 그 가재열 거튼 디 쓰면 신체를 고 여기다 썬는데.{그 가재혈 같은 데 있으면 시체를 그 여기다 썬는데.}

=1 @ 나중에 밀내할라고 보면 저 만큼 가 이따고 그런 소문도 들리고 그러더라구유.{나중에 먼레(+이장)하려고 보면 저만큼 가 있다고 그런 소문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1 #1 그런 소문두 그저니는 드런는디.{그런 소문도 그전에는 들었는데.}

=1 #1 지그른 하::두 철뚜철미어게 자래 논는 통이 그저니는.{지금은 하도 철두철미하게 잘 해 놓는 통에 그전에는.}

=1 #1 이~ 여수나 이런 거떠리 머글 끼시 읍sey 파때유 파서 그냥.{잉 여우나 이런 것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봤대요, 파서 그냥.}

=1 #1 파먹고 그래따 시체를 그른디.{파 먹고 그랬대 시체를 그른데.}

=1 #1 그저니는 머글 끼이 읍짜내유 그래가꾸 인제 여수가 파구 그른디 시방은.{그전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여우가 파고 그랬는데 지금은.}

=1 #1 이 서파늘 써가꼬 다재비를 야부지게 해노차내요 그래가꼬서.{이 석관을 써서 달구질을 야무지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1 #1 그런니른 읍sey 읍sey 그래서.{그런 일은 없어요 없어 그래서.}

=1 #1 그건 낭서리라구 봐요 내내 그 뭐이가 이꾸 뭐이가 이따는 거슨.{그건 낭설이라고 봐요, 내내 그 똥이 있고 똥이 있다는 것은.}

10220 @ 그 그저니는 궁게 사람드리 실제 그 산소를 사비나 팽이 가통 걸로 파짜나요 지그른 줌.{그 그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 그 산소를 삼이나 팽이 같은 것으로 봤잖아요 지금은 줌.}

10220 #1 포크레이누 다하지 인자 포크레이로 다 해노면 와서 판파나게 고 고치기면 허구 거시기 허지.{포크레이인으로 다하지 인제 포크레이인으로 다 해놓으면 와서 판판하게 고치기만 하고 거시기하지.}

10220 #1 뽕뜨더게 사라미 혀서나 서판쓰기 조케.{반듯하게 사람이 해서는 석관을 쓰기 좋게.}

10220 #1 해노치 일절 멀 사비나 거시기로 안 파요 인자 떼나 이피구.{해놓지 일절 뭘 삼이나 거시기로 안 파요, 인제 떼나 입히고.}

10220 #1 소시랑이루 인자 떼나 이피구 저기 어서 이르게 보기 조케 미와자거비나 허지유 인자.{쇠시랑으로 인제 떼나 입히고 저기 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미화작업이나 하지요, 인제.}

10220 @ 그러민제 그 과늘 느코 이걸 호글 메울꺼 아니예요 메워서 그걸 반능 걸?{그럼 인

제 그 관을 넣고 이걸 흙을 메울 것 아니에요 메워서 그걸 밟는 걸?)

10220 #1 그걸 그 지방마두 답떠라구유 그게 지방 지방이 쓰는 방식기 답꾸.{그것을 그 지방마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지방이 쓰는 방식이 다르고.}

10220 #1 저 경기도 싸라미 여그 와서 인자 우리 장모 쓸찌기 봐떠니.{저 경기도 사람이 여기 와서 인제 우리 장모 쓸 때 봤더니.}

10220 #1 그 때 처나미 저 서울써 인는디 모시구 완는디.{그 때 처남이 저 서울에서 있는데 모시고 왔는데.}

10220 #1 그 사람더른 막 달구지라고 허더마류 달구지라구 허는디.{그 사람들 막 달구지라고 하더구먼요, 달구지라고 하는데.}

10220 #1 이케 뽕뽕 도라가므 이르게 그 모이 아니서 밭떠라구 이케 냥.{이렇게 뽕뽕 돌아가면 이렇게 그 묘 안에서 밭더라고 이렇게 그냥.}

10220 #1 여나므니 이르게 북푸북 치구 풍물 치구 그러면서 밭벼요.{여남은 사람이 이렇게 북, 북 치고 풍물 치고 그러면서 밭아요.}

10220 #1 바:꼬 이르게서 이케 다디더면 그래 이거슬 땅을.{밭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지더면서 그래 이것을 땅을.}

10220 @ 여기는 글 대개 다지오라구라는데.{여기는 그걸 대개 다지오(+달구질)라고 그러는데.}

10220 #1 다지오?{다지오?}

10220 #1 그 달 달구지라 구더라구 그 사람더른 달구지 근디.{그 달구지라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달구지 그런데.}

10220 @ 이 동네서는 그렇 거 안나서썬요?{이 동네에서는 그런 것 안하썬어요?}

10221 #1 아내유 여기는 그능 건 읍꾸.{안해요 여기는 그런 것은 없고.}

10221 #1 포크랭이루 포크랭이 놀러 버려.{포크레인으로 포크레인이 놀러 버려.}

10220 @ 아니 그저네 포크렌 업쓸 때는?{아니 그전에 포크레인 없을 때는?}

10220 #1 밭벼썬요 그냥 이케.{밭았어요 그냥 이렇게.}

10220 @ 그 밤능 걸 머라 그래여?{그 밭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10220 #1 보긴더리 보기드리 이케 보긴더리 이케 뽕뽕 도라가며 밭벼썬여 여기.{복인들이, 복인들이 이렇게, 복인들이 이렇게 뽕뽕 돌아가며 밭았어요, 여기.}

10220 @ 보긴드리요?{복인들이요?}

10220 #1 예.{예.}

10220 @ 그리고 그럼 밭꼬 그렇게 그러군제 봉분을 쓸꺼 아녀요 그리고 인제 떼를 이피고 그러는 거머는구뇨.{그리고 그럼 밭고 그러니까 그럼 인제 봉분을 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인제 떼를 입히고 그러는 것이구먼요.}

10220 #1 예 봉부 봉부늘 쓰는디 그.{예, 봉분, 봉분을 쓰는데 그.}

10220 #1 머여 저 청실 홍실리찌 청실 홍실 그거슬 그 우이다 올리지 마라자른 자기 그.{뭐여, 저 청실 홍실있지 청실 홍실 그것을 그 위에다 올리지 말하자면 자기 그.}

10220 #1 가심 우이다가 올려주구서 더퍼주구 그른디 그저니는 그 느믈.{가슴 위에다가 올려주고서 덮어주고 그런데 그전에는 그 놈을}

10220 #1 가주구와서 사무제까지 지사를 지:내구.{가지고 와서 삼우제까지 제사를 지내고.}

10220 #1 탈봉날 거그 거시기다 무던는디.{탈복날 거기 거시기다 묻었는디.}

10220 #1 지그른 그냥 거기다 바루 가서 너버리더라구.{지금은 그냥 거기다 바로 가서 넣어버리더라고.}



## 제2편 어휘

### 2.1. 농경

#### 2.1.1. 경작

20101 벼	20101 나락(+열매), 벼:(+식물), 벼(+열매), 벼:(+식물), 이사기(+열매),이삭(+열매)
20102 이삭	20102 나랑모가지라구하구, 뽕모가지
20103 벼씨	20103 씨:종자, 찢:나락, 종자라구라지
20104 못자리	20104 모짜리(+‘모판’과 혼용)
20105 모판	20105 모짜리판
20106 쟁기	20106 쟁기
20107 보습	20107 보습
20108 벼	20108 *(+따로 구별하지 않음)
20108-0-1 -이	20108-1 *(+따로 구별하지 않음)
20109 극쟁이	20109 그쟁이라구두하구, 글:쟁이, 꼬쟁이라구지, 끝:쟁이
20110 씨레	20110 쓰:레
20111 번지	20111 번지
20112 모내기	20112 모내기한다구하구, 모심는다
20113 흙덩어리	20113 쟁기빠비라거더하고, 흑:땡어리
20114 고무래	20114 고모래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20114-1 고모래
20114-2 고무래(재 용도)	20114-2 고모래
20114-3 고무래(흙 용도)	20114-3 고모래지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20114-4 *(+따로 이름이 없음)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20114-5 *(+따로 이름이 없음)
20115 쇠스랑	20115 소시랑이네
20116 곡괭이	20116 꼬괭이
20117 괭이	20117 화괭이
20118 삽	20118 삽
20119 호미	20119 호맹이

20120 농기구	20120 농:기구, 연:장
20121 김	20121 지심
20122 김매다	20122 김맨다구하드라구(+논의 풀을 땔 때), 반매러간다그랴(+밭의 풀을 땔 때), 풀맨다고(+밭의 풀을 땔 때)
20123 애벌 매다	20123 아시매고
20123-1 두벌 매다	20123-1 두벌매고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20123-2 만물아구
20124 논두둑	20124 논뚜렁
20125 밭둑	20125 밭:뚝
20126 밭두둑	20126 두덕쩌따그라지, 바뚜덩맹드러따구래요
20127 밭고랑	20127 고랑, 고를, 바꼬를, 밭:꼬랑, 밭고랑
20128 밭이랑	20128 반니랑, 이랑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쩌다/파다	20128-1 맨드러, 친다
20128-2 이랑밟기	20128-2 보리밤능거, 보리밥밤능거
20129 보리	20129 보리아녀
20129-1 가을보리	20129-1 갈:보리
20129-2 봄보리	20129-2 봄:보리
20130 보리쌀	20130 보리쌀
20131 가을갈이	20131 갈:가리
20132 꺾부기	20132 꺾테기, 꺾부기
20133 두엄	20133 디엄, 퇴비
20134 거름	20134 거르미라구두하구그라지

##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20201 추수한다구라자냐
20202 벼단	20202 벼따밭
20202-1 벼단(한 줌정도)	20202-1 *
20202-2 벼단(타작할 정도)	20202-2 벼따니라구라지냥
20202-3 벼단(한 아름정도)	20202-3 벼따밭, 벼춤건저놔따구
20203 가리(積)	20203 콩까리(+곡식에 따라 구별하여 부름)
20204 가리다(積)	20204 벼까리싸따구랴, 콩까리싸놔따구
20205 벼가리	20205 벼까리릴, 벼통가리, 벼통거리, 벼까리, 벼통거리

20206 난가리

20207 타작

20208 벼훑이

20208-1 그네

20209 개상

20209-1 자리개

20209-2 자리개질

20210 도리깨

20210-1 도리깨장부

20210-2 도리깨열

20210-3 도리깨꼭지

20211 벧짚

20211-0-1 -을

20211-0-2 -에

20212 새 패기

20213 쪽정어

20214 터

20215 까끄라기

20216 풍구

20217 원두막

20218 허수아비

20219 흥년

20220 머슴

20221 낚

20221-0-1 -을

20221-1 (낚을) 사다/얻다/부리다

20222 품앗이

20223 품삯

20223-0-1 -으로

20206 베까리

20207 타작

20208 흘치기라구랑거(+?제), 흘치개라구하나(+?제)

20208-1 흘테라구(+쇠로 되어 있음)

20209 \*(+‘20209-1~2’를 미루어 보아 ‘개상’으로  
불리웠을 것임)

20209-1 개상끄닐티지머(+?제), 자리개

20209-2 개상지라능경가, 자리개지리라구두하데

20210 도루케네

20210-1 도리깨장치, 도리케막떼기(+?제)

20210-2 도리깨열

20210-3 꼬다리, 도리케꼭따리

20211 지푸라기, 지푸래기라구두, 집, 지풀때기

20211-0-1 지푸래기를

20211-0-2 베찌비다

20212 지보출기가자라, 호출기

20213 빈:깍떼기, 빈깍떼기라고그랄테지머, 빈깍쥬,  
빈대(+다), 빈대공, 쪽:쟁이(+소), 쪽쟁이

20214 티드르따구라(+눈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냐의  
의미 차이 없음)

20215 꺼끄럭

20216 풍구네

20217 마겨막, 원두막

20218 허세비(+다), 허수아비(+소)

20219 승년

20220 머심

20221 노벼, 노벼, 일꾼

20221-0-1 노블부리는

20221-1 노브더와라, 부린다구두하구

20222 푸마시

20223 품삯

20223-0-1 품싸기로

###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20302 디덜방아

20301 방아

20302 드들뺑아네



20303 방앗공이  
 20304 방아확  
 20305 물레방아  
 20306 연자방아  
 20307 절구  
 20308 절구통  
 20309 절굿공이  
 20310 절구질  
 20311 겨  
 20312 보릿겨  
 20313 왕겨  
 20314 등겨  
 20315 검불  
 20316 껍질

20303 \*  
 20304 \*  
 20305 물레방아, 물방아라고  
 20306 메뜰방아라구라나(+?제)  
 20307 (+‘절구통’과 ‘절굿공이’를 구분하여 일컬음)  
 20308 나무도고통이네(+나무), 도고통, 확:또기여(+돌)  
 20309 도고때, 도구때, 메갱이, 머경이  
 20310 도구질, 메갱이지란다구하구  
 20311 저  
 20312 보리썩  
 20313 맵썩, 왕저  
 20314 등개가(+왕겨와 혼용), 쌀썩  
 20315 검불, 북떠기라구두하구  
 20316 껍떼기라구두하구, 껍쭈래기가, 껍쭈(+다)

## 2.1.4. 곡물

20401 곡식  
 20402 찹쌀  
 20403 맵쌀  
 20404 쌀보리  
 20405 조  
 20406 차조  
 20407 메조  
 20408 좁쌀  
 20409 작다  
 20410 조이삭  
 20411 수수  
 20411-1 붉은색 수수  
 20411-2 장목수수  
 20411-3 찰수수  
 20411-4 메수수  
 20412 수수깥  
 20413 옥수수  
 20413-1 찰옥수수  
 20413-2 메옥수수

20401 곡썩, 곡썩  
 20402 찹쌀  
 20403 메베는맵쌀, 메쌀  
 20404 쌀보리  
 20405 조라구두하구  
 20406 차조  
 20407 메조  
 20408 스늑쌀, 좁쌀  
 20409 작지, 잘지, 짹썩:, 썩까냐, 썩깐썩까  
 20410 수송모가지, 좁쌀모가지  
 20411 왕:수수네  
 20411-1 \*  
 20411-2 \*  
 20411-3 찰쭈수  
 20411-4 메쭈수  
 20412 쭈수때  
 20413 옥쭈수  
 20413-1 차록쭈수  
 20413-2 메옥쭈수(+?제)

20414 귀리  
 20415 메밀  
 20416 콩  
 20417 콩깍지  
 20418 메주  
 20419 매달다  
 20420 띄우다  
 20421 곰팡이  
 20422 강낭콩  
 20423 콩기름  
 20424 깨  
 20424-1 참깨  
 20424-2 들깨  
 20425 고소하다

20414 \*  
 20415 메물  
 20416 콩여  
 20417 깍지는  
 20418 메주, 메주뎡어리  
 20419 매다러  
 20420 쟁거  
 20421 곰팡이  
 20422 강낭콩이네, 강냉이콩  
 20423 콩기름  
 20424 꿔만  
 20424-1 창꿔  
 20424-2 들꿔  
 20425 꼬수꾸

## 2.1.5. 채소

20501 채소  
 20502 나물  
 20502-1 나물(밭, 재료)  
 20502-2 나물(밭, 반찬)  
 20502-3 나물(들, 재료)  
 20502-4 나물(들, 반찬)  
 20502-5 나물(산, 재료)  
 20502-6 나물(산, 반찬)  
 20503 푸성귀  
 20504 다듬다  
 20505 반찬  
 20506 무  
 20507 썰다  
 20508 무청  
 20509 시래기  
 20510 무말랭이  
 20511 장다리무  
 20512 배추  
 20513 고갱이

20501 채소, 채수  
 20502 나물  
 20502-1 \*  
 20502-2 \*  
 20502-3 들라물  
 20502-4 \*  
 20502-5 산나물  
 20502-6 \*  
 20503 푸성가리  
 20504 다듬는다  
 20505 반찬명는다구  
 20506 무수  
 20507 쓴다구하구, 짭른다  
 20508 무수이비라구, 무수입:썰기  
 20509 씨라구, 씨래기  
 20510 무:말랭이  
 20511 공다리  
 20512 배차(+다), 배추  
 20513 꼬갱이라구두, 배차꼬갱이, 배차속,

소깡이, 소꼬깡이, 속:

20514 오이  
20515 오이지  
20516 오이소박이  
20517 가지(茄子)  
20518 호박  
20519 고구마  
20520 감자  
20520-1 잘다  
20521 우엉  
20522 파  
20523 고추  
20524 시금치  
20525 미나리  
20526 부추  
20527 상추  
20528 마늘  
20529 생강  
20530 냉이  
20531 달래  
20532 도라지  
20533 더덕

20514 오이  
20515 오이장아치  
20516 소배기담는다구, 오이소배기  
20517 이가지네  
20518 이계호박  
20519 감자, 고고마  
20520 하지감자, 하지깎자  
20520-1 잘다  
20521 우엉  
20522 파  
20523 꼬:추  
20524 시금치야  
20525 미나리  
20526 정구지  
20527 상추  
20528 마::늘  
20529 생강, 상:  
20530 나싱개, 냉이  
20531 달래다  
20532 도라지  
20533 더덕

## 2.2. 음식

###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20602 찬밥  
20602-1 더운밥  
20603 조밥  
20604 누룽지  
20605 눌은밥  
20606 숯늬  
20607 뜨물

20601 쌀바비라하지  
20602 참밥  
20602-1 더움바비라하지, 따숨밥  
20603 쭈수밥, 조밥  
20604 감밥  
20605 누룽밥  
20606 숯니미라구라자나  
20607 뜸물

20608 김(蒸氣)	20608 기:미라구라지, 쌀뜸물
20609 갱죽(羹粥)	20609 씨라구죽, 씨래기죽
20610 싱겁다	20610 싱겁따
20611 국수	20611 국쭈
20612 칼국수	20612 칼국쭈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20612-1 기계국쭈
20613 건더기	20613 건디기
20613-1 국물	20613-1 궁물
20614 고명	20614 꼬미, 꾸미
20615 꾸미	20615 고기꾸미
20616 미역	20616 미역
20617 김(海苔)	20617 김:
20618 수제비	20618 수지비
20619 끼니	20619 꼬니를걸리따고
20620 미음	20620 미염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20620-1 끄려따(+죽을~), 썬따고하지(+다, 미음을~)
20621 엿기름	20621 여찌름, 여절금(+다)
20622 식혜(食醢)	20622 시케
20623 식혜(食?)	20623 *
20624 달다(甘)	20624 달다
20625 가루	20625 가루
20625-0-1 -에	20625-0-1 가루다
20625-0-2 -을	20625-0-2 가루덜맨틀자나
20625-0-3 -도	20625-0-3 밀까루두
20626 밀가루	20626 밀까루
20627 밀기울	20627 밀찌울겍떼기, 지울
20628 미숫가루	20628 미스가루, 미쭈까루

##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20701 간장
20702 된장	20702 텐:장
20703 고춧가루	20703 고추까루
20704 고추장	20704 꼬치장도
20705 소금	20705 소곰
20706 김치	20706 짐치

20707 김장  
 20708 깍두기  
 20709 나박김치  
 20710 담그다  
 20710-0-1 -고  
 20710-0-2 -어라  
 20711 양념  
 20712 버무리다  
 20713 버섯  
 20713-0-1 -이  
 20714 콩나물(재료)  
 20714-1 콩나물(반찬)  
  
 20714-2 숙주(나물)  
 20715 두부  
 20716 비지  
 20716-1 비지떡  
 20717 달걀  
 20718 가래떡  
 20719 시루떡  
 20720 송편  
 20721 빗다  
 20722 흰떡  
 20723 고물  
 20724 팔죽  
 20725 새알심  
 20726 백설기  
 20727 튀밥  
 20728 술  
 20729 막걸리  
 20730 소주  
 20731 부침개

20707 짐장  
 20708 깍뚜기  
 20709 나박집치  
 20710 담는다구하구  
 20710-0-1 당구고이따구  
 20710-0-2 김장다머라  
 20711 양념  
 20712 버므린다  
 20713 버서, 버설아녀  
 20713-0-1 버서시  
 20714 콩나물  
 20714-1 콩나물무치미라구라나(+?제),  
                     콩나물무칭거시(+다)  
 20714-2 축쭈나물  
 20715 두부네  
 20716 비지  
 20716-1 비지떡기라고하뵤하  
 20717 다걀나따, 달기알  
 20718 가래떡, 신탕  
 20719 시루떡  
 20720 송편  
 20721 맨든다구도하구, 비진다우두하구  
 20722 고사시루, 신탕  
 20723 고물, 기피꼬물, 콩꾸물  
 20724 파:쭈기네  
 20725 시알시미  
 20726 백썰기, 신탕:무리(+다)  
 20727 티밥  
 20728 술  
 20729 마걸리  
 20730 소주  
 20731 부칭개

###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20801 부뚜막

20802 가마솥  
 20802-0-1 -을  
 20802-0-2 -에  
 20803 아궁이  
 20803-0-1 -이  
 20804 그을음  
 20805 불쏘시개  
 20806 연기  
 20806-1 내(煙氣)  
 20807 그을리다  
 20808 부지깥이  
 20809 부삽  
 20810 넓다  
 20811 냄비  
 20812 그릇  
 20812-0-1 -을  
 20813 뚜껑  
 20814 주발 뚜껑  
 20815 사발 뚜껑  
 20816 술뚜껑  
 20817 밥주걱  
  
 20818 숟가락  
 20819 젓가락  
 20820 종지  
 20821 보시기  
 20822 뚝배기  
 20823 접시  
 20824 조리  
 20825 이남박  
 20826 바가지  
 20827 행주  
 20828 행구다  
 20829 설거지  
 20830 개숫물  
 20831 찌꺼기

20802 가마솥(+큰 것), 소판지라고하고(+작은 것), 솥:  
 20802-0-1 가마소솥  
 20802-0-2 가마소티  
 20803 아궁이, 아궁지, 아궁지꾸먹  
 20803-0-1 아궁지가  
 20804 끄름  
 20805 불쭈시개라고  
 20806 영기, 영지  
 20806-1 냉갈래  
 20807 끄실러서  
 20808 부지깥이, 부지땡이네  
 20809 불삽  
 20810 눈매옴따  
 20811 냄비네  
 20812 그릇, 그름  
 20812-1 그르글, 그르슬  
 20813 뚜껑  
 20814 노뚜껑, 시끼뚜껑  
 20815 사기뚜껑  
 20816 소뚜껑  
 20817 나무주걱, 노쭈걱, 밥쭈경(+‘경’은 오발음으로  
 생각됨), 주걱  
 20818 노쭈저, 수저  
 20819 저분  
 20820 종제기  
 20821 보취기(+소), 탕끼(+다)  
 20822 투가리  
 20823 접씨  
 20824 조랭이라구래씨그냥(+구,다), 조루, 조리  
 20825 함박  
 20826 바가지  
 20827 행주  
 20828 행구능거  
 20829 설거지  
 20830 자신물  
 20831 찌끄레기그연, 찌끄리기

20832 화로  
 20833 화룻불  
 20834 부젓가락  
 20834-0-1 -이  
 20834-1 불순가락  
 20835 다리쇠  
 20836 석쇠  
 20837 도시락  
 20838 바구니  
 20839 뒤주  
 20840 찬합  
 20841 강판  
 20842 개다리소반

20832 화루, 화리(+다)  
 20833 화리뿔다머와라  
 20834 불쩌까락  
 20834-0-1 불쩌가라기  
 20834-1 불싸비라구랴, 불쑤까라기라구두하구  
 20835 삼:바리  
 20836 적:싸  
 20837 도시라가녀  
 20838 바구니네, 바구리  
 20839 두지, 뒤지(+이중모음 ‘위’)  
 20840 차납  
 20841 강판두, 채:카를  
 20842 개다리상

## 2.3. 가옥

###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20902 벽  
 20903 다락  
 20904 벽장  
 20905 감추다  
 20906 흙  
 20907 돌쩌귀  
 20907-1 압짹  
 20907-2 수짹  
 20908 미단이  
 20909 여단이  
 20910 덧문  
 20911 열다  
 20912 문고리  
 20913 자물쇠  
 20914 갇히다

20901 아루땡(+소), 암:땡(+다)  
 20902 베랑뻑(+‘벽’과 구별하지 않음)  
 20903 다락  
 20904 벽짱  
 20905 감춘다두, 숨겨논다  
 20906 흙저따구  
 20907 돌:꾸기  
 20907-1 암:늪  
 20907-2 수늪  
 20908 미다지  
 20909 그냥무니라구(+‘여단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음)  
 20910 덧문  
 20911 열:고 단는다  
 20912 문꼬리네  
 20913 자물췌라고(+신,소), 자물통(+구,다)  
 20914 가쳐이찌

20915 열쇠  
 20916 잠그다  
 20917 구멍  
 20917-1 쥐구멍  
 20918 찢다  
 20919 구들  
 20920 흙받기  
 20921 흙손  
 20922 흙칼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20923 바르다  
 20924 장판  
 20925 종이  
 20926 도배  
 20927 구석  
 20928 굽도리  
 20929 깨끗하다  
 20930 문지방  
 20930-0-1 -에  
 20931 틈  
 20932 가장자리  
 20933 가운데  
 20934 시렁  
 20935 살강  
 20936 선반  
 20937 서랍  
 20938 경대  
 20939 거울  
 20940 걸다  
 20941 호룽

20915 세, 열쇠  
 20916 장군다구라지  
 20917 구멍, 구멍, 뭉꾸멍  
 20917-1 지구멍  
 20918 찢저따  
 20919 방꼬래  
 20920 흙빠지  
 20921 흙손  
 20922 흐칼  
 20922-1 지구대  
 20922-2 흙손  
 20923 발:른다  
 20924 장판  
 20925 조이  
 20926 데배  
 20927 구서기, 구석쟁이, 구텅이  
 20928 구트리, 굽뚜리  
 20929 깨까다다, 깨끄다다  
 20930 문지방, 문턱  
 20930-0-1 방문방이올라  
 20931 문틈세기, 트며틈, 틈세기  
 20932 가상사리, 끄트리  
 20933 가운데, 복판, 항:가운데  
 20934 실경  
 20935 살강  
 20936 선반  
 20937 서랍  
 20938 경대:  
 20939 거울, 밍경이라구두해써  
 20940 건다  
 20941 남포등, 남포뿔, 호룽, 호룽뿔

### 2.3.2. 건물

21001 지붕  
 21001-0-1 -에

21001 지붕  
 21001-0-1 지붕이올라



21002 기와  
 21003 기와집  
 21004 수키와  
 21005 암키와  
 21006 대들보  
 21007 서까래  
 21008 추녀  
 21009 처마  
 21010 오두막  
 21011 초가집  
 21012 이엉  
 21012-0-1 -에서  
 21013 용마름  
 21014 기스락  
 21015 낙숫물  
 21015-1 기스락물  
 21016 사닥다리  
 21017 용마루  
 21018 토방  
 21019 땃돌  
 21020 마루  
 21020-0-1 -에  
 21021 텃마루  
 21022 기둥  
 21023 주춧돌  
 21023-0-1 -을  
 21024 굴뚝

21002 기와, 기와짚  
 21003 기와지비라구라지  
 21004 양끼와, 소노시, 암:끼와라고  
 21005 대노시그리턴디, 수끼와는  
 21006 대들뽀, 상낭때, 상랑뽀  
 21007 가루짚질른다구, 서까래  
 21008 추녀끄티  
 21009 처마끝, 처매끝  
 21010 오도막쩍, 오두막쩍  
 21011 초가집  
 21012 나래여꺼따구랴, 으—ㅇ, 영:때기  
 21012-0-1 영이서  
 21013 용:마루, 용:마리  
 21014 지시랑미티라구두하  
 21015 낙쭈물  
 21015-1 지시랑물  
 21016 사다리  
 21017 용:마리(+‘용마름’과 구분하지 않고 불림)  
 21018 뜰광(+다), 토방이라구두하구  
 21019 대뜰  
 21020 마루, 마루짚(+다), 마룻  
 21020-0-1 마루짚이  
 21021 쪼각마루  
 21022 기둥, 기둥, 지둥, 지둥나무, 지둥나무  
 21023 주춧뜰, 주치뜰, 지치뜰  
 21023-0-1 주치뜰  
 21024 굴뚝, 굴뚝여

### 2.3.3. 마당

21101 뜰  
 21102 마당  
 21103 넓다  
 21103-0-1 -어서  
 21104 넓히다

21101 뜨랑이(+나무나 화초를 심지 못하는 곳),  
 뜰광(+나무나 화초를 심지 못하는 곳)  
 21102 마당이다나  
 21103 널붙따, 널따고  
 21103-0-1 널버서  
 21104 널피자

21105 곳간  
 21106 외양간  
 21107 마구간  
 21108 광  
 21109 헛간  
 21110 쓰레기  
 21111 장독대  
 21112 장독 뚜껑  
 21113 변소  
 21113-1 똥장군  
 21114 울타리  
 21115 담  
 21115-0-1 -에  
 21115-0-2 -도  
 21116 사립문  
 21117 뒤꼍  
 21117-0-1 -에  
  
 21118 바깥  
 21118-0-1 -에  
 21119 모퉁이  
 21120 모서리

21105 고간, 고파니나  
 21106 오양간  
 21107 말:구간, 말:구판  
 21108 골방(+한쪽에서 사람이 잘 수 있는 곳), 광:  
 21109 허간  
 21110 쓰레기, 씨레기  
 21111 장:광(+다), 장뚝때라구두(+소)  
 21112 벤데기, 장:광뚜껑, 장뚝때뚜껑  
 21113 디간, 변:소간(+소), 치간(+다)  
 21113-1 똥장군, 장:군  
 21114 울타리  
 21115 담, 담장  
 21115-0-1 담장이올라가따구라지  
 21115-0-2 담장도무너지고  
 21116 싸루문, 싸리문짝  
 21117 뒤꺼티, 디꼰, 딘마당  
 21117-0-1 뒤꺼시라구랴(+‘-이라고’, 이중모음 ‘위’),  
 디꺼테서  
 21118 바깥테, 배까티라고도  
 21118-0-1 바깥티, 배까티  
 21119 모링이, 모팅이도라간다구, 짐모퉁이  
 21120 모스리

####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21202 윗마을  
 21203 이웃  
 21203-0-1 -이  
 21203-0-2 -에  
 21204 마을가다  
 21205 우물  
  
 21206 두레박  
 21207 샘(泉)  
 21208 가(邊)

21201 마을, 한:동네, 한:부라기라고  
 21202 우똥네(+다), 위똥네  
 21203 이우지  
 21203-0-1 이우시조아  
 21203-0-2 이우시산다구, 이우테  
 21204 마실칸다고  
 21205 새암, 샘, 삼:(+다, 먹는 물, ‘우물’과 혼용),  
 삼:판다고, 우물(+소, 먹는 물)  
 21206 두름바기네, 두림박  
 21207 웅달삼  
 21208 바까상다리, 바까에, 받가상사리(+다)

21208-0-1 -을	21208-0-1 박가상사리를
21208-0-2 -에	21208-0-2 바까상사리, 바까에
21209 물지게	21209 물찌게네
21210 가게	21210 가게빵이, 가게찹
21211 싸다	21211 싸다
21212 비싸다	21212 비싸다
21213 흥정	21213 흥:정
21214 중매인(거간꾼)	21214 소개부치는사람, 소개쟁이, 중매쟁이라구라
21215 잔돈	21215 잔:돈
21216 에누리	21216 에누리해달라구
21217 거스름돈	21217 거실름돈, 거실름똥
21218 거스르다	21218 거실른다
21219 꾸다(借)	21219 꺾:온다
21219-0-1 -어야	21219-0-1 꾸야한다
21220 구두쇠	21220 구두세, 꼼꼼쟁이
21221 말기다	21221 매긴다
21222 나머지	21222 나무지똥, 낭거지
21223 덤	21223 덤:, 드:미로
21224 묶	21224 네목씨야(+‘-이야’)
21224-0-1 -을	21224-0-1 내모글챙겨따, 내목씨챙겨따
21225 빛	21225 빈
21225-0-1 -을	21225-0-1 비설
21225-0-2 -에	21225-0-2 비시
21226 이자(利子)	21226 이자
21227 심부름	21227 심부름
21228 두름	21228 한:두름, 한:두리미
21228-1 축	21228-1 한:축(+마른 오징어)
21228-2 꽤	21228-2 한:때
21228-3 접	21228-3 한저비여
21228-4 씹	21228-4 한:씹
21228-5 두름	21228-5 *(+구별하여 부르지 않음)
21228-6 단/뭇(작은 묶음)	21228-6 한다발
21228-7 단/뭇(서너 개 묶음)	21228-7 다바리라구, 한:모습(+?조), 한단
21228-8 툇	21228-8 한툇
21228-9 모습	21228-9 한모습
21229 켜레	21229 향켄레

21230 마지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21231 꾸러미  
 21232 그루  
 21233 포기  
 21234 저울  
 21235 자루(布袋)  
 21235-0-1 -을  
 21235-0-2 -에  
 21236 하나  
 21236-1 한-개  
 21236-2 한-되  
 21236-3 한-말  
 21237 둘  
 21237-1 두-개  
 21237-2 두-되  
 21237-3 두-말  
 21238 셋  
 21238-1 세-개  
 21238-2 세-되  
 21238-3 세-말  
 21239 넷  
 21239-1 네-개  
 21239-2 네-되  
 21239-3 네-말  
 21240 다섯  
 21240-1 다섯-개  
 21240-2 다섯-되  
 21240-3 다섯-말  
 21241 여섯  
 21241-1 여섯-개  
 21241-2 여섯-되  
 21241-3 여섯-말  
 21242 일곱  
 21242-1 일곱-개  
 21242-2 일곱-되

21230 두마지기  
 21230-1 한마지기는이백평  
 21231 한:줄, 항꾸리미  
 21232 항굴  
 21233 함포:기  
 21234 저울  
 21235 푸대, 푸대짜루, 한자루  
 21235-0-1 \*  
 21235-0-2 자루에다  
 21236 하나  
 21236-1 항:개  
 21236-2 한테  
 21236-3 함말  
 21237 둘:  
 21237-1 두개  
 21237-2 두테  
 21237-3 두말  
 21238 세엔  
 21238-1 세개  
 21238-2 세테  
 21238-3 세말  
 21239 니일  
 21239-1 네개  
 21239-2 네테  
 21239-3 니말  
 21240 다섯  
 21240-1 다섯개  
 21240-2 다때  
 21240-3 다선말  
 21241 여서  
 21241-1 여서개  
 21241-2 여서때  
 21241-3 여선말  
 21242 일고  
 21242-1 일고개  
 21242-2 일곱때

21242-3 일곱-말  
 21243 여덟  
 21243-1 여덟-개  
 21243-2 여덟-되  
 21243-3 여덟-말  
 21244 아홉  
 21244-1 아홉-개  
 21244-2 아홉-되  
 21244-3 아홉-말  
 21245 열  
 21245-1 열-개  
 21245-2 열-되  
 21245-3 열-말  
 21246 스물  
 21246-1 스무-개  
 21246-2 스무-되  
 21246-3 스무-말  
 21247 서른  
 21247-1 서른-개  
 21247-2 서른-되  
 21247-3 서른-말  
 21248 마흔  
 21248-1 마흔-개  
 21248-2 마흔-되  
 21248-3 마흔-말  
 21249 쉰  
 21249-1 쉰-개  
 21249-2 쉰-되  
 21249-3 쉰-말  
 21250 예순  
 21250-1 예순-개  
 21250-2 예순-되  
 21250-3 예순-말  
 21251 일흔  
 21251-1 일흔-개  
 21251-2 일흔-되

21242-3 일곱말  
 21243 여덟  
 21243-1 여덟개  
 21243-2 여덟때  
 21243-3 여덟말  
 21244 아홉  
 21244-1 아홉개  
 21244-2 아홉때  
 21244-3 아홉말  
 21245 열  
 21245-1 열:개  
 21245-2 열:때  
 21245-3 열:말  
 21246 수물  
 21246-1 수무개  
 21246-2 수무대  
 21246-3 수무말  
 21247 서른  
 21247-1 서른개  
 21247-2 서른대  
 21247-3 서른말  
 21248 마운  
 21248-1 마웅개  
 21248-2 마운대  
 21248-3 마움말  
 21249 시운  
 21249-1 시웅개  
 21249-2 시운대  
 21249-3 시운말  
 21250 예순  
 21250-1 예송개  
 21250-2 예순대  
 21250-3 예순말  
 21251 이:른  
 21251-1 이릉개  
 21251-2 이른대

21251-3 일흔-말

21252 여든

21252-1 여든-개

21252-2 여든-되

21252-3 여든-말

21253 아흔

21253-1 아흔-개

21253-2 아흔-되

21253-3 아흔-말

21254 백

21254-1 백-개

21254-2 백-되

21254-3 백-말

21255 이백

21256 한둘

21256-1 한두-개

21256-2 한두-되

21256-3 한두-말

21257 두셋

21257-1 두세-개

21257-2 두세-되

21257-3 두세-말

21258 두서너

21258-1 두서너-개

21258-2 두서너-되

21258-3 두서너-말

21259 서너

21259-1 서너-개

21259-2 서너-되

21259-3 서너-말

21260 네댓

21260-1 네댓-개

21260-2 네댓-되

21260-3 네댓-말

21261 대여섯

21261-1 대여섯-개

21251-3 이른말

21252 여든

21252-1 여든개

21252-2 여든대

21252-3 여든말

21253 아흔

21253-1 아웅개

21253-2 아은대

21253-3 아은말

21254 백::

21254-1 배개

21254-2 백때

21254-3 뱅:말

21255 이백

21256 한둘

21256-1 한두개

21256-2 한두대

21256-3 한두말

21257 두센

21257-1 두세개

21257-2 두세대는

21257-3 \*

21258 \*

21258-1 두서너개, 뒤서너개

21258-2 두서너너더때, 두서너대, 뒤:서너대

21258-3 두서너말, 뒤:서너말

21259 서너너덜, 센넨

21259-1 서너개, 서너너더개

21259-2 서너너더때, 서너대

21259-3 서너너덜말, 서너말

21260 네다섯

21260-1 너대개, 너더대개, 네다서개

21260-2 너더대때, 네다때

21260-3 너더댐말

21261 다서여섯

21261-1 대여서개

21261-2 대여섯-되  
 21261-3 대여섯-말  
 21262 예닐곱  
 21262-1 예닐곱-개  
 21262-2 예닐곱-되  
 21262-3 예닐곱-말  
 21263 일여덟  
 21263-1 일여덟-개  
 21263-2 일여덟-되  
 21263-3 일여덟-말  
 21264 여덟아홉  
 21264-1 여덟아홉-개  
 21264-2 여덟아홉-되  
 21264-3 여덟아홉-말  
 21265 여남은  
 21265-1 여남은-개  
 21265-2 여남은-되  
 21265-3 여남은-말

21261-2 대여서때  
 21261-3 대여선말  
 21262 대여섯, 여닐곱  
 21262-1 여닐곱개, 여서일고개  
 21262-2 여닐곱때, 여서일곱때  
 21262-3 여닐곱말, 여서일곱말  
 21263 \*  
 21263-1 일곱여덟개  
 21263-2 일곱여덟때  
 21263-3 일곱여덟말  
 21264 여더라옴  
 21264-1 여덟아오개  
 21264-2 여더라옴때  
 21264-3 여더라옴말  
 21265 \*  
 21265-1 여나몽개  
 21265-2 \*  
 21265-3 \*

## 2.4 의복

###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21302 길이  
 21303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21305 두렁이  
 21306 무늬  
 21307 고쟁이  
 21308 바지  
 21309 두루마기  
 21310 의복  
 21311 구겨저따

21301 치마  
 21302 기레기, 지레기  
 21303 저고리  
 21304 새똥저고리  
 21305 두렁지, 두렁이  
 21306 무네  
 21307 고쟁이, 소꼬쟁이  
 21308 바지  
 21309 두루마기, 두루매기라고하고  
 21310 옷:, 이보기  
 21311 구겨저따, 꾸게저따

21312 옷고름  
 21313 단추  
 21314 동정  
 21315 겹  
 21315-0-1 -에  
 21315-0-2 -을  
 21316 홀옷  
 21317 겹옷  
 21318 잠방이  
 21319 누더기  
 21320 거지  
 21321 구걸  
 21322 조끼  
  
 21323 내의  
 21324 껌입다  
 21325 소매  
 21326 주머니  
 21327 호주머니  
 21328 허리띠  
 21329 땡기  
 21330 도포  
 21331 샷갓  
 21331-0-1 -에  
 21332 고깔  
 21333 사모  
 21334 유건  
 21335 대님  
 21336 감발  
 21337 짚신  
 21338 미투리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걸다  
 21339 나막신  
 21340 설피

21312 오뜨름  
 21313 단추  
 21314 동전  
 21315 거죽, 겹, 겹때기, 겹때기  
 21315-0-1 거터  
 21315-0-2 거슬, 거터로(+‘-으로’)  
 21316 호겹때기, 호꺼시라고, 호돈  
 21317 저보시다, 겨본  
 21318 잠뱅이  
 21319 누테기  
 21320 거:지, 동냥아치  
 21321 동냥  
 21322 쪼끼여, 등거리(+저고리 안에 입는 것),  
 땀:바지랴(+저고리 안에 입는 것),  
 조끼는(+저고리 위에 입는 것)  
 21323 호뽕거리, 속뽕거리  
 21324 찌입찌  
 21325 소매  
 21326 주머니  
 21327 봉창이라구, 호주머니  
 21328 허리끄냉이, 혁띠, 허리띠, 허리끈  
 21329 땡기  
 21330 도포  
 21331 사까시네  
 21331-0-1 사까시  
 21332 돌:모, 꼬깔  
 21333 사모관대  
 21334 거니라구랴  
 21335 댄님  
 21336 \*  
 21337 짚썬  
 21338 미토리  
 21338-1 삼는다구, 댄는다구  
 21339 나무께네, 나뭇썸발, 나무께심발  
 21340 설피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21401 명주, 명지
21401-1 명주실	21401-1 명주실, 명지실
21402 목화	21402 모카(+식물), 모카떼(+식물)
21402-1 목화다래	21402-1 모카따래(+열매)
21403 무명	21403 명:, 무명
21403-1 무명실	21403-1 명:실, 무명실
21404 씨아	21404 씨알, 씨아시틀
21405 자새	21405 자:새
21406 물레	21406 물레자새라구랴, 물레여물레
21407 베	21407 베짖다구
21408 길쌈	21408 질쌘한다고, 길쌘한다구(+다)
21409 골무	21409 골무네
21410 반진고리	21410 반지꼬리, 바느질상자
21411 가위	21411 가이, 가세(+다)
21411-0-1 -을	21411-0-1 가세를
21411-0-2 -에	21411-0-2 가세에
21412 마르다(裁)	21412 뻥뽀다(+종이를 댈 때), 말르다(+옷감을 댈 때)
21412-0-1 -고	21412-0-1 말르구
21412-0-2 -어라	21412-0-2 말러라
21413 형겔	21413 흥거비로, 흥겔떼기, 형겔
21413-0-1 -을	21413-0-1 흥거블
21413-0-2 -에	21413-0-2 흥거베
21414 바늘	21414 바늘
21415 꿰다	21415 낀다
21415-0-1 -고	21415-0-1 끼구
21415-0-2 -어라	21415-0-2 끼라
21416 바느질	21416 바느질
21417 재봉틀	21417 자방트른
21418 끈	21418 꼬냉이
21419 노끈	21419 논나끈
21420 참바	21420 참바
21421 매듭	21421 매듭, 매드블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21421-1 맨는다구, 진는다구
21422 보자기	21422 보자기, 보제기

21423 이불  
 21424 숨  
 21425 포근하다  
 21426 훌이불  
 21427 겹이불  
 21427-1 숨이불  
 21428 누비이불  
 21429 베개  
 21430 베갯잇  
 21430-0-1 -에  
 21431 목침  
 21432 퇴침  
 21433 방석  
 21434 담요  
 21435 빨래하다  
 21436 빨랫방망이  
 21437 빨래터  
 21438 빨랫줄  
 21439 다리미  
 21439-1 다림질  
 21440 인두  
 21441 다듬잇방망이  
 21442 다듬잇돌  
 21443 다듬이질

21423 이불  
 21424 숨  
 21425 포그나다  
 21426 호겹떼기, 혼니불  
 21427 짐니불, 겹니불  
 21427-1 숨니불  
 21428 니비이불  
 21429 비개  
 21430 비개혼니불, 비갠니  
 21430-0-1 비갠니에  
 21431 목침  
 21432 테침  
 21433 방석  
 21434 퍼대기, 담노가  
 21435 빨래한다  
 21436 빨래뽕망이, 빨래방망이  
 21437 삼:터, 빨래터가, 내뜨리라  
 21438 빨래줄  
 21439 대리미네, 다리미  
 21439-1 다림질한다, 대림질하  
 21440 인두  
 21441 다디미뽕망이네  
 21442 다딤돌  
 21443 방망이질, 다딤질, 다디미질

## 2.5. 민속

###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21502 설  
 21503 설달 그믐날  
 21504 묵은세배  
 21505 올해  
 21505-0-1 -는

21501 설랄  
 21502 설라리  
 21503 그믐말, 스딸그믐날  
 21504 \*  
 21505 오래  
 21505-0-1 오래는

21505-1 작년  
 21505-2 재작년  
 21505-3 내년  
 21505-4 후년  
 21505-5 내후년  
 21506 작은설  
 21507 옷  
 21507-0-1 -을  
 21507-0-2 -에  
 21507-1 옷놀이  
 21508 옷가락  
 21508-1 도  
 21508-2 개  
 21508-3 걸  
 21508-4 옷  
 21508-5 모  
 21509 단동  
 21509-1 외동무니  
 21509-2 두동무니  
 21509-3 석동무니  
 21509-4 녁동무니  
 21509-5 막동  
 21509-6 단동무니  
 21510 보름  
 21510-1 삭망  
 21511 추석  
 21512 망월  
 21513 쥐불놀이  
 21514 자치기  
 21514-1 작은막대  
 21514-2 긴막대  
 21515 수수께끼  
 21516 호미씻이  
 21517 팽과리  
 21518 장구  
 21519 결두리

21505-1 재장년  
 21505-2 장년  
 21505-3 내년  
 21505-4 후년  
 21505-5 내후년  
 21506 자근설랄, 자근슬랄  
 21507 옷, 윗가락, 윗가락  
 21507-0-1 유슬  
 21507-0-2 유시루(+’-으로’)  
 21507-1 윗노리  
 21508 다윗까라기여  
 21508-1 도  
 21508-2 개  
 21508-3 걸  
 21508-4 윗, 사륙  
 21508-5 모나고  
 21509 \*  
 21509-1 한동, 한동무니  
 21509-2 두동  
 21509-3 세동무니, 세동문  
 21509-4 니동무니  
 21509-5 막똥, 막똥문  
 21509-6 \*  
 21510 보름날  
 21510-1 초하루보름  
 21511 파월보름, 추석, 추석날  
 21512 달마지, 달마지불로리라고  
 21513 지불로리  
 21514 자치기  
 21514-1 대푸  
 21514-2 대푸때, 대포때  
 21515 수수께끼  
 21516 \*(+백중놀이는 7월 보름에 달보며 노는 것)  
 21517 팽가리, 팽매기  
 21518 장구  
 21519 섯빚, 새차미라구라

21520 무당  
 21520-1 박수  
 21521 고수레  
 21521-1 고수레!  
 21522 점쟁이  
 21523 상여(喪輿)  
 21524 굴건  
 21525 제사  
 21526 제기  
 21527 귀신  
 21528 도깨비

21520 무당  
 21520-1 \*  
 21521 고시레  
 21521-1 고시레!  
 21522 점쟁이  
 21523 상에네상에  
 21524 굴간  
 21525 제사  
 21526 모끼(+다), 제기나(+소)  
 21527 귀신(+단모음 '위')  
 21528 도깨비라구래짜냐

##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21602 굴레  
 21603 명에  
 21604 길마  
 21605 부리망  
 21606 구유  
 21607 작두  
 21608 꼴  
 21609 여물  
 21610 쇠죽  
 21611 쇠죽바가지  
 21612 수레  
 21613 끌다  
 21613-0-1 -고  
 21614 바퀴  
 21615 새끼(繩)  
 21615-1 새끼(짐승의)  
 21616 망태기  
 21617 먹둥구미  
 21618 거적  
 21619 가마니  
 21619-1 가마니틀

21601 꼬삐(+?조), 고삐라구랴  
 21602 굴레  
 21603 명에  
 21604 짐빠지, 질:마지 질:마  
 21605 망이네  
 21606 구시  
 21607 작또  
 21608 깔:벼와라  
 21609 말른여물  
 21610 소죽  
 21611 남팍  
 21612 수레라구(+?제), 술래, 구름마라구라나  
 21613 끄러따  
 21613-0-1 끌고이따  
 21614 바꾸, 쓸레바끼  
 21615 새끼줄, 새끼줄  
 21615-1 새끼  
 21616 망탱이네, 망태기  
 21617 메:꾸리  
 21618 꺼적때기  
 21619 가마니  
 21619-1 가마니트려

21620 돛자리	21620 도짜리, 맨석짜리는(+띠와 짚을 섞어서 만듦)
21621 자리틀	21621 도짜리틀, 자리트리네
21621-1 (자리를) 짜다/치다/만들다/결다	21621-1 치네
21622 왕골	21622 왕굴
21623 삼태기	21623 삼태미여
21623-1 쪼 삼태기	21623-1 재삼태미(+재를 담을 때)
21623-2 싸리 삼태기	21623-2 싸리삼태미
21624 명석	21624 매빵석(+둥근 것), 명:석(+네모난 것)
21625 어레미	21625 얼기미
21625-1 고운체	21625-1 곤체, 풀체(+가장 고운 체)
21625-2 굵은체	21625-2 왕:군체, 얼근체, 엉군체라구라지
21626 대장장이	21626 대장까니인는사람
21627 대장간	21627 대장간
21628 풀무	21628 불무
21629 모루	21629 망치
21630 모루채	21630 바침쇠
21631 갈퀴	21631 갈키
21632 집게	21632 찌꺼
21633 장도리	21633 장도리
21633-1 노루발	21633-1 노루발
21634 톱	21634 톱
21634-0-1 -에	21634-0-1 토비
21635 도끼	21635 도끼라구두하구, 자구는, 도치(+다)
21636 자루(柄)	21636 자루여자루
21636-0-1 -을	21636-0-1 도끼짜루를
21636-0-2 -에	21636-0-2 자루에
21637 깔고리	21637 깔꼬리, 깔고리
21638 켜기	21638 켜알(+나무 조각), 켜기(+나무 조각), 배집(+형집)
21639 송곳	21639 송곤
21639-0-1 -에	21639-0-1 송고시
21640 뽕죽하다	21640 빼쫓가
21641 솟돌	21641 술딱
21641-0-1 -에	21641-0-1 술뚜기, 술뚜개
21642 맷돌	21642 맷뜰
21642-1 수쇠	21642-1 순썰
21642-1 암쇠	21642-2 암썰

21643 지게  
21644 발채  
21645 지게 작대기  
21646 막대기  
21647 몽둥이

21643 지개  
21644 바:작  
21645 지게작때기  
21646 작때기, 막때기  
21647 몽당이

###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21702 광주리  
21703 소쿠리  
21704 함지  
21705 풀비  
21705-1 귀알  
21706 독  
21706-0-1 -에  
21707 물독  
21708 항아리  
21709 단지  
21710 물동이

21711 찌리  
21712 옹기  
21713 표주박  
21714 키(箕)  
21715 떡살  
21716 다식판  
21717 시루  
21717-0-1 -을  
21717-0-2 -에  
21718 시룻밑  
21718-0-1 -에  
21719 시룻변  
21720 부싯돌  
21720-0-1 -을  
21721 부시

21701 비짜리, 비짜락(+다), 비찌락  
21702 팡우리, 팡주리라구두하구, 광주리라구두하구  
21703 소코리  
21704 함지박  
21705 풀빼  
21705-1 \*  
21706 독  
21706-0-1 짐치또기다  
21707 물단지  
21708 무랑아리, 항아리  
21709 단지  
21710 동이네동이, 물:똥이, 무롬배기여,  
옴박찌라구래씨, 무롬박찌  
21711 똥아리  
21712 옹:기그르기라구두하구  
21713 종구래기  
21714 치:  
21715 떡짜  
21716 다식틀, 다식파니라구두하구  
21717 시루, 떡씨루  
21717-0-1 시루를  
21717-0-2 시루에  
21718 시루밑  
21718-0-1 시루미시  
21719 시루뻘  
21720 부시톨  
21720-0-1 부시또럴  
21721 부시

21722 부싷깃  
 21723 담배  
 21724 담뱃대  
 21725 담배설대  
 21726 담배통  
 21727 물부리  
 21728 담배쌈지  
 21729 부채  
 21730 토시  
 21731 벼루  
 21732 가락지  
 21733 비녀  
 21734 참빗  
 21734-0-1 -을  
 21734-0-2 -에  
 21735 얼레빗  
 21736 세숫대야  
 21737 비누  
 21738 도투마리  
 21739 활대  
 21740 잉앗대  
 21741 부티  
 21742 도롱이

21722 부시찌벌(+?제)  
 21723 담배  
 21724 담배때  
 21725 대쫄기  
 21726 대꼬바리  
 21727 대뿌리(+?제)  
 21728 쌈지, 담배쌈지  
 21729 부채  
 21730 토시  
 21731 벼루뚝  
 21732 가락찌, 반지  
 21733 비녀  
 21734 참:빔  
 21734-0-1 챔비슬  
 21734-0-2 챔비시  
 21735 얼기빔  
 21736 대여, 세수때, 노때여네  
 21737 비누  
 21738 도토마리  
 21739 용두머리, 눈썹머리  
 21740 잉아때, 잉어때  
 21741 바디때, 바디띠  
 21742 도렁이

## 2.6. 인체

###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21802 이마빠기  
 21803 눈자위  
 21804 검은자위  
 21805 흰자위  
 21806 눈꺼풀

21801 이마  
 21802 마빡, 이마빠기라구두하구  
 21803 눈까위(+단모음 '위'), 눈까시  
 21804 거먹창  
 21805 신창  
 21806 눈뚜껑, 능깍떼기, 능꺼풀

21807 거적눈  
 21808 눈썹  
 21808-0-1 -이  
 21809 속눈썹  
 21809-0-1 -이  
 21810 눈두덩  
 21811 안경  
 21812 안경집  
 21813 돋보기  
 21814 주름살  
 21814-0-1 -이  
 21815 앳되다  
 21816 수염  
 21817 구레나룻  
 21817-0-1 -을  
 21818 코  
 21818-0-1 -이  
 21819 콧수염  
 21820 코딱지  
 21821 콧구멍  
 21821-0-1 -을  
 21821-0-2 -에  
 21822 콧물  
 21823 입술  
 21823-0-1 -에  
 21824 다물다  
 21825 어금니  
 21826 덧니  
 21827 휘파람  
 21828 침  
 21829 삼키다  
 21830 가래(痰)  
 21831 빨다  
 21832 혀  
 21833 혓바늘  
 21834 콧볼

21807 \*  
 21808 눈썹  
 21808-0-1 눈썹비  
 21809 송눈썹  
 21809-0-1 송눈썹비  
 21810 눈뚜더기  
 21811 양경  
 21812 양경집  
 21813 도빼기  
 21814 주름쌀  
 21814-0-1 주름싸리  
 21815 애따다  
 21816 시엄  
 21817 구렌나루  
 21817-0-1 구렌나루털  
 21818 코:  
 21818-0-1 코가  
 21819 코썸  
 21820 코딱찌  
 21821 코꾸먹  
 21821-0-1 코꾸머글  
 21821-0-2 코꾸멍이서, 코꾸머기서  
 21822 콤물  
 21823 입쓸  
 21823-0-1 입써리, 입써레  
 21824 다무려따, 오무린다구  
 21825 아금니  
 21826 종니, 던니  
 21827 휘빠람  
 21828 침  
 21829 생킨다  
 21830 가래  
 21831 뱀는다  
 21832 혀, 세빠다기라구, 셔빠닥, 혀빠닥  
 21833 서빠늘  
 21834 기뻐



21835 귀고리	21835 귀거리(+단모음 '위')
21835-1 귀걸이	21835-1 김마기
21836 귀지	21836 기뻐
21837 귀이개	21837 귀지개(+단모음 '위')
21838 소리	21838 소리가
21839 엇듣다	21839 여뜯는다
21840 귀청	21840 곰막, 김막, 기창
21841 귀밑	21841 김민
21841-0-1 -을	21841-0-1 김미테(+‘-에’), 김미시라고(+‘-이라고’)
21842 관자놀이	21842 *
21843 기미	21843 지미, 기미
21844 주근깨	21844 주궁깨
21845 턱	21845 터가리(+턱의 비칭), 턱, 테가리(+턱의 비칭)
21846 턱수염	21846 시염
21847 뺨	21847 볼, 볼태기라고아냐, 뺨대기라고하고, 뺨, 뺨
21847-1 볼	21847-1 보를
21848 가르마	21848 가르마다, 개로마니, 가로마다
21849 보조개	21849 보주개
21850 머리카락	21850 머리카락
21851 비듬	21851 비듬
21852 기계총	21852 이발총
21853 정수리	21853 쟁배기
21854 대머리	21854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21855 꼬시랑머리
21856 가르마	21856 가르마, 가르매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21856-1 갈른다, 탄다구(+다)
21857 가마	21857 가마
21857-1 가마(鼎)	21857-1 가마
21857-2 가마(轎)	21857-2 가마
21857-3 가마(질그릇)	21857-3 가마
21857-4 가마(가마니)	21857-4 가마
21858 뒤통수	21858 디통수
21859 뒷덜미	21859 목뿔기, 목뿔미
21860 목	21860 모가지, 목
21861 먹살	21861 멕싸리

## 2.6.2. 상체

21901 어깨  
 21902 밀치다  
 21903 겨드랑  
 21904 등  
 21905 가슴  
 21906 걸리다  
 21907 갈비뼈  
 21908 허파  
 21909 쓸개  
 21910 콩팥  
 21910-0-1 -에  
 21910-0-2 -을  
 21911 팔  
 21912 팔꿈치  
 21913 팔짱끼다  
 21914 손톱  
 21915 오른손  
 21916 왼손  
 21917 다르다  
 21917-0-1 -아서  
 21917-1 틀리다  
 21918 왼손잡이  
 21919 엄지손가락  
 21920 집게손가락  
 21921 가운데손가락  
 21922 약손가락  
 21923 새끼손가락  
 21924 생인손  
 21925 사마귀  
 21926 손아귀  
 21927 손목  
 21928 뺨  
 21929 허리

21901 어깨  
 21902 친다, 미러따  
 21903 저드랑이, 저드랭이, 저드랑미티  
 21904 등, 등어리(+’등’과 같음)  
 21905 가슴, 가시미  
 21906 절리다  
 21907 갈비때  
 21908 폐, 허파에  
 21909 썰개  
 21910 콩팥  
 21910-0-1 콩파시  
 21910-0-2 콩파슬  
 21911 팔뚝  
 21912 팔꾸머리, 팔꿈치  
 21913 팔짱짜따구라지, 팔짱껴따구  
 21914 손톱  
 21915 바루손, 오른손, 바른손  
 21916 엔:손, 오약손  
 21917 달릅따  
 21917-0-1 달뤄서  
 21917-1 틀려따  
 21918 오약짜비  
 21919 엄지송꼬락  
 21920 검지, 검지송꼬락  
 21921 중지, 가운데송꼬락  
 21922 약찌, 약찌송꼬락  
 21923 깨끼, 깨끼송꼬락  
 21924 생손알른다, 생송꼬락  
 21925 사마구, 사마기  
 21926 소나구지  
 21927 홀목  
 21928 뺨  
 21929 허리, 허리똥아리(+허리의 비칭),  
 허리똥어리(+허리의 비칭)

21930 지팡이  
 21931 옆구리  
 21932 간지럽다  
 21933 간지럼  
 21934 잔허리  
 21935 근육  
 21936 배꼽  
 21937 목물

21930 지팡이  
 21931 여꾸리  
 21932 간지름따고, 근지러, 간지럽따  
 21933 간지름  
 21934 제비허리, 개미잔당이, 개미허리  
 21935 그뉴기  
 21936 배꼽  
 21937 등모기, 등메기한다구

### 2.6.3. 하체

22001 복사뼈  
 22002 발가락  
 22003 발바닥  
 22004 발톱  
 22005 냄새  
 22006 고린내  
 22007 굳은살  
 22008 정강이  
 22009 종아리  
 22010 장딴지  
 22011 회초리  
 22012 무릎  
 22012-0-1 -을  
 22012-0-2 -에  
 22013 오금  
 22014 엉덩이  
 22015 궁둥이  
 22016 볼기  
 22017 멍  
 22018 멍울  
 22019 가랑이  
 22020 사이  
 22021 살  
 22021-0-1 -이  
 22021-0-2 -을

22001 복쌍뼈, 복쌍뼈  
 22002 발까락  
 22003 발빠닥  
 22004 발톱  
 22005 냄새  
 22006 꼬랑내  
 22007 굳살  
 22008 정쟁이  
 22009 종아리  
 22010 장딴지  
 22011 회차리  
 22012 무릅, 무릅팍  
 22012-0-1 무루벌  
 22012-0-2 무루베, 무루비  
 22013 오곰쟁이  
 22014 응덩이, 응등이  
 22015 궁덩이  
 22016 볼기만, 볼기 짹  
 22017 먹  
 22018 망우리, 몽오리  
 22019 가랭이, 가쟁이, 가리쟁이, 가르쟁이, 가레쟁이  
 22020 새버러저따구  
 22021 산  
 22021-0-1 사시  
 22021-0-2 사슬

22022 사타구니	22022 사타구리
22023 가래툫	22023 가래때
22023-0-1 -을	22023-0-1 *
22024 허벅다리	22024 허벅따리, 허벅찌
22025 넓적다리	22025 넓적따리
22026 가부좌(跏趺坐)	22026 양반자세, 양반다리여이게내내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	22026-1 발게고안는다, 양반다리한다

##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22101 고뿔장기
22102 기침	22102 기침, 지침
22103 채채기	22103 채치기
22104 사례	22104 사례들려따구
22104-1 (사례) 들리다/만나다/걸리다	22104-1 사례들려따, 사례걸려따
22105 딸꾹질	22105 곁떡절
22106 트림	22106 기트름
22107 콧보	22107 콧보
22108 천연두	22108 손님
22109 여드름	22109 여드름
22110 학질	22110 학절
22110-1 하루거리	22110-1 하루거리
22110-2 이틀거리	22110-2 *(+이틀거리는 앓지 앓았음)
22110-3 매일 앓는 학질	22110-3 메뉴리썸, 머누리썸, 메뉴리지썸
22111 홍역	22111 호녁
22112 볼거리	22112 항아리손님
22113 땀띠	22113 땀띠기
22114 두드러기	22114 두디리기
22115 버짐	22115 버듬
22115-1 마른버짐	22115-1 마른버듬
22115-2 진버짐	22115-2 물버듬
22115-3 도장 버짐	22115-3 도장뽕
22116 문둥이	22116 문:딩이
22116-1 문둥병	22116-1 문둥뽕, 문딩이뽕
22117부스럼	22117 부시름, 부실병, 부시름뽕, 부실멍나서, 부실뽕
22117-1 종기	22117-1 종:기

22118 고름  
 22119 곱기다  
 22120 난쟁이  
 22121 사팔뜨기  
 22122 언청이  
 22123 소경  
 22123-1 달달봉사  
 22124 애꾸  
 22125 눈곱  
 22126 다래끼  
 22126-1 다래끼(눈 위쪽)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22127 절름발이  
 22128 곱사등이  
 22129 귀머거리  
 22130 말더듬이  
 22131 병어리  
 22132 잠꾸러기  
 22133 졸리다  
 22134 하품  
 22135 졸음  
 22135-0-1 -을  
 22135-0-2 -에  
 22136 잠꼬대

22118 고름  
 22119 공간다  
 22120 난쟁이  
 22121 사팔떠기  
 22122 찌보, 얼청이  
 22123 봉사, 소경  
 22123-1 달달봉사  
 22124 애틸뱅이눈, 애꼬  
 22125 농꼽, 농꼽  
 22126 다리끼, 눈다리끼, 명다리끼  
 22126-1 누늬다리끼  
 22126-2 누나래다리끼, 아랫다리끼라고  
 22127 절름바리  
 22128 곱새라구라데, 곱싸등이  
 22129 기머거리  
 22130 밤병어리  
 22131 병어리  
 22132 장꾸리기, 장꾸러기  
 22133 졸린다  
 22134 하품  
 22135 조름, 조르미  
 22135-0-1 조루물이지지모단다  
 22135-0-2 \*  
 22136 잠꼬대

## 2.7. 육아

22201 입덧  
 22201-0-1 -을  
 22202 갓난아이  
 22203 어린아이  
 22204 경기(驚氣)하다  
 22205 눅히다  
 22206 계집아이

22201 입땀  
 22201-0-1 입떠슬  
 22202 갓난애기, 간난애기  
 22203 애털, 깽이(+돌 안된 아이들), 어린내털  
 22204 정끼나따고  
 22205 니퍼논는다, 녀:뇌라  
 22206 방치털, 기지배, 지지배야

22207 예쁘다  
 22208 사내아이  
 22209 아우  
 22209-1 아우보다  
 22209-2 아우 타다  
 22210 야위다  
 22211 쌍둥이  
 22212 오줌  
 22213 똥  
 22214 기저귀  
 22215 뉘다(排便)  
 22216 방귀  
 22216-1 꺾다  
 22217 구린내  
 22218 구리다  
 22219 포대기  
 22220 지지개  
 22220-1 지지개를 켜다/하다/쓰다/꺾다  
 22221 거짓말  
 22222 남부끄럽다  
 22223 겁쟁이  
 22224 불쌍하다  
 22225 죄암죄암  
 22226 곤지곤지  
 22227 따로따로  
 22228 도리도리  
 22229 짹짹  
 22230 부라부라  
  
 22231 걸음마  
 22232 아장아장  
 22233 넘어지다  
 22234 곤두박질  
 22235 안기다  
 22236 바람개비  
 22237 호드기

22207 이쁘다구  
 22208 머시매, 야:히들(+남녀 모두), 애덜(+남녀 모두)  
 22209 동상, 동생, 아오다고(+소)  
 22209-1 동생본다  
 22209-2 아수탄다  
 22210 야위따고  
 22211 쌍둥이, 쌍둥이나따고  
 22212 오주물  
 22213 똥  
 22214 기저구, 기저기  
 22215 오줌녀:취라  
 22216 방기피능거, 방구깁다  
 22216-1 깁다구  
 22217 구룬내, 꾸린내나, 구린내  
 22218 구리다  
 22219 퍼대기  
 22220 지지개  
 22220-1 지지개쓴다구  
 22221 구짐말, 그짐말  
 22222 남부끄럽따구  
 22223 겁쟁이  
 22224 불쌍하다  
 22225 잠자, 재암재미  
 22226 지깅지깅  
 22227 섬마섬마  
 22228 도리도리  
 22229 깡죽깡죽, 깡세기깡세기, 짹짹  
 22230 불무불무(+좌우로 흔드는 것),  
                   들깡달깡(+앞뒤로 흔드는 것)  
 22231 거름마  
 22232 띠똥띠똥, 아장아장  
 22233 너머저따  
 22234 군두박질, 군두배기해따고, 군두백질해따  
 22235 앵:기지  
 22236 바람개비, 팔랑개비  
 22237 호띠기

22238 숨바꼭질  
 22239 소꿉놀이  
 22240 사금파리  
 22241 연  
 22241-1 방패연  
 22241-2 가오리연  
 22242 걸리다  
 22243 고누  
 22244 땅뽕기  
 22245 팽이  
 22246 딱지치기  
 22247 구슬  
 22248 그네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22249 밀신개  
 22250 굴렁쇠  
 22251 굴리다  
 22251-0-1 -고  
 22251-0-2 -어야  
 22252 자전거  
 22253 목말  
 22254 말타기  
 22255 달음박질  
 22256 썰매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22256-2 송곳  
 22257 엄살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22258 부아

22238 숨바꼭질  
 22239 바뀔사리  
 22240 새금파리  
 22241 연:  
 22241-1 방패연  
 22241-2 꼬리연, 가오리연  
 22242 앵킨다, 걸런네  
 22243 고니, 네박꼬니, 사발고니  
 22244 땅뽕끼  
 22245 팽이네, 뽕이여  
 22246 딱찌치기  
 22247 다마, 구슬치기라고  
 22248 근디(+다), 그네라고(+소)  
 22248-1 타루가자(+다), 띠루가자  
 22249 발과나녀  
 22250 굴레바끼, 둥굴패  
 22251 굴리구가자냐, 궁굴리구, 둥굴려라  
 22251-0-1 궁굴리구맹긴다  
 22251-0-2 둥굴리야  
 22252 자장구바퀴(+다), 자장구, 자장구바키  
 22253 몽말탄다  
 22254 몽말타기, 말타기  
 22255 다람질, 당막찌란다  
 22256 썰매  
 22256-1 썰매탄다른  
 22256-2 송곤  
 22257 엄살  
 22257-1 떤다고(+다), 엄살부린다구, 피우지마러  
 22258 부애난다

## 2.8. 친족

22301 아버지  
 22301-1 아버지(호칭)

22301 우리아부지다  
 22301-1 아부지

22302 어머니  
 22302-1 어머니(호칭)  
 22303 할아버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22304 할머니  
 22304-1 할머니(호칭)  
 22305 남편  
 22305-1 남편(호칭)  
  
 22306 아내  
 22306-1 아내(호칭)  
 22307 형  
 22307-1 형(호칭)  
 22308 아우  
 22308-1 아우(호칭)  
 22309 누나  
 22309-1 누나(호칭)  
 22310 누이  
 22310-1 누이(호칭)  
 22311 자식  
 22312 말아들  
 22313 막내  
 22314 오라버니  
 22314-1 오라버니(호칭)  
 22315 오빠  
 22315-1 오빠(호칭)  
 22316 언니  
 22316-1 언니(호칭)  
 22317 아비  
  
 22317-1 아비(호칭)  
 22318 어미  
  
 22318-1 어미(호칭)  
 22319 손자

22302 어머니다  
 22302-1 엄마, 어머니  
 22303 하라부지다  
 22303-1 하라부지  
 22304 우리할머니  
 22304-1 할머니  
 22305 남편  
 22305-1 여보, 상뉴니하라부지(+늙었을 때는 손자  
 이름으로 부름), 정시가부지(+자식이 생기면  
 자식 이름으로 부름)  
 22306 내아내, 부인, 시꾸, 내마느라  
 22306-1 여보  
 22307 성님, 우리형님  
 22307-1 형님  
 22308 아오, 동생  
 22308-1 야, 동생이리좁와봐, 아오님이리좁와  
 22309 우리누나다, 우리누님  
 22309-1 누님, 누나  
 22310 내동생이야, 여동생, 뉘동생  
 22310-1 \*(+누이의 이름을 부름)  
 22311 내자식딸  
 22312 장손, 마다들  
 22313 막똥이, 망내둥이  
 22314 오라번님  
 22314-1 오라번님  
 22315 우리오빠, 오빠  
 22316 언니  
 22316-1 형님, 형, 언니, 성이라구래써  
 22317 애비  
 22317-1 애비야(+아이가 있을 때),  
 야(+아이가 없을 때)  
 22318 메누리, 우리메누래기  
 22318-1 에미야(+아이가 있을 때),  
 야(+아이가 없을 때)  
 22319 손자  
 22320 손녀



22320 손녀	22321 내사오여
22321 사위	22321-1 여보게나, 여보게
22321-1 사위(호칭)	22322 예손자
22322 외손자	22323 예손네
22323 외손녀	22324 꾸진다(+소), 혼내킨다(+다), 야단친다
22324 꾸짖다	22324-0-1 꾸진다고
22324-0-1 -고	22324-1 꾸중든는다
22324-1 나무라다	22325 총각
22325 총각	22326 삭:씨(+지칭, 호칭), 처녀(+지칭, 호칭), 아가씨라구(+다, 지칭, 호칭)
22326 처녀	22327 혼인
22327 혼인	22327-1 홀례식
22327-1 혼인식	22328 홀례잔치
22328 혼인 잔치	22329 장가가고
22329 장가가다	22329-1 시집간다고
22329-1 시집가다	22330 혼사예물, 혼수감
22330 혼숫감	22331 함:
22331 함	22332 겹싸둔
22332 겹사돈	22333 새각씨, 새새택
22333 새색시	22333-1 새택
22333-1 새색시(호칭)	22334 시아버니
22334 시아버지	22334-1 아번님
22334-1 시아버지(호칭)	22335 시어머니
22335 시어머니	22335-1 어머니
22335-1 시어머니(호칭)	22335-2 어머님
22336 비위	22336 비우를
22337 아주버니	22337 시아주버니
22337-1 아주버니(호칭)	22337-1 아주버님
22338 서방님	22338 시동생, 소나래서방니미여
22338-1 서방님(호칭)	22338-1 서방님
22339 도련님	22339 아래시동생
22339-1 도련님(호칭)	22339-1 삼촌, 도련님
22340 형님	22340 성님, 우리형님, 소누이동세
22340-1 형님(호칭)	22340-1 형님
22341 시누이	22341 시누
22341-1 시누이(호칭)	22341-1 자그나씨

22341-2 아가씨	22341-2 아가씨여
22341-3 아가씨(호칭)	22341-3 아가씨
22342 올케	22342 올케
22342-1 올케(호칭)	22342-1 올케
22343 매형	22343 마양, 매양
22343-1 매형(호칭)	22343-1 마양
22344 매제	22344 매제
22344-1 매제(호칭)	22344-1 매제
22345 큰아버지	22345 크나부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22345-1 크나부지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22345-2 자그나부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22345-3 세째짜그나부지
22346 큰어머니	22346 크너머니
22346-1 큰어머니(호칭)	22346-1 큰엄니, 크너머니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22346-2 자근엄니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22346-3 세째짜근엄니
22347 큰집	22347 큰집
22348 작은아버지	22348 우리자그나부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22348-1 자그나부지
22349 작은어머니	22349 자그너머니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22349-1 자그매, 자근어머니
22350 삼촌	22350 삼촌
22350-1 삼촌(호칭)	22350-1 삼촌
22351 아저씨	22351 당숙으른, 아자씨라구두하구
22351-1 아저씨(호칭)	22351-1 당숙으른, 아저씨
22352 아주머니	22352 사춘고모, 아주머니라고(+사이가 멀 때)
22352-1 아주머니(호칭)	22352-1 고모
22353 조카	22353 조카
22354 조카딸	22354 우리조카딸
22355 고모	22355 고모
22355-1 고모(호칭)	22355-1 고몬님
22356 고모부	22356 고모보
22356-1 고모부(호칭)	22356-1 고모부
22357 고종	22357 고종사춘
22358 이모	22358 이모덜
22358-1 이모(호칭)	22358-1 이몬님, 이모

22359 이모부	22359 이모보
22359-1 이모부(호칭)	22359-1 이모부
22360 이중	22360 이중사춘
22361 외삼촌	22361 오삼촌, 웨삼춘덜
22361-1 외삼촌(호칭)	22361-1 오삼춘
22362 외숙모	22362 예송모, 웨송모
22362-1 외숙모(호칭)	22362-1 송모
22363 외중	22363 외중들(+단모음 '외')
22364 외할아버지	22364 웨하라부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22364-1 하라부지
22365 외할머니	22365 웨할무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22365-1 할머니
22366 장인	22366 쟁인으른, 빈장으른
22366-1 장인(호칭)	22366-1 아번님
22367 장모	22367 장모
22367-1 장모(호칭)	22367-1 장몬님, 어머니
22368 처남	22368 처남
22368-1 처남(호칭)	22368-1 형님(+나이가 많은 처남을 부를 때)
22369 처남택	22369 처나무택
22369-1 처남택(호칭)	22369-1 처나무택
22370 홀아비	22370 호래비
22371 홀어미	22371 호래미
22372 계모	22372 서모, 스모
22372-1 계부	22372-1 이부다부지, 이부다비
22373 아저씨	22373 이운아자씨
22373-1 아저씨(호칭)	22373-1 아자씨
22374 아주머니	22374 아주머니
22374-1 아주머니(호칭)	22374-1 아주머니:
22375 사나이	22375 사내라구두하구
22376 영감	22376 영감, 지아부지
22376-1 할망구	22376-1 할망탱이, 저할망구
22377 나이	22377 나이
22377-0-1 -를	22377-0-1 나이럴
22378 환갑	22378 향갑
22378-1 환갑 잔치	22378-1 향갑잔치
22379 사투리	22379 사토리

## 2.9. 동물

###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22401 물꼬기털
22402 민물고기	22402 뱀물꼬기
22403 피라미	22403 치러, 피리미, 피레미
22404 지느러미	22404 날개미
22405 아가미	22405 아감지
22406 창자	22406 창세기, 창자
22407 송사리	22407 송사리
22408 헤엄	22408 시엄
22409 메기	22409 미:기
22410 자라	22410 자라
22411 거북	22411 거부기
22412 미꾸라지	22412 미끄레미, 뱀물꼬기
22413 개구리	22413 개고리
22414 올챙이	22414 올챙이
22415 두꺼비	22415 두께비, 두꺼비
22416 거머리	22416 *
22417 다슬기	22417 다실개
22418 우렁이	22418 우렁
22419 고둥	22419 고둥(+?제)
22420 달팽이	22420 달팽이네
22421 새우	22421 새오아녀
22421-1 새우(민물 대)	22421-1 대우, 뱀물새오
22421-2 새우(민물 소)	22421-2 새우
22421-3 새우(바다 대)	22421-3 대하, 바단새오
22422-4 새우(바다 소)	22421-4 새우
22422 새우젓	22422 새오젓
22422-0-1 -이	22422-0-1 새오저시
22423 가재	22423 가재
22424 갈치	22424 갈치
22425 고등어	22425 고등어, 고등어
22426 가오리	22426 가오리

22427 가자미  
 22428 멸치  
 22429 명태  
 22429-1 동태  
 22429-2 황태  
 22429-3 노가리  
 22429-4 북어  
 22429-5 생태  
 22430 조기  
 22431 도미  
 22432 뱀장어  
 22433 낚시  
 22434 미끼  
 22435 낚싯대  
 22436 얼레  
 22437 조개  
 22438 소라

22427 광어, 가재미  
 22428 멸치  
 22429 명:태  
 22429-1 동태  
 22429-2 황태  
 22429-3 노가리  
 22429-4 부거  
 22429-5 생명태  
 22430 조기  
 22431 도미  
 22432 장어  
 22433 깔끄리  
 22434 낙씨뺨  
 22435 낙씨때  
 22436 자:새  
 22437 조개  
 22438 소라

##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22502 날벌레  
 22503 파리  
 22503-1 쉬파리  
 22504 쉬슬다  
 22505 가시  
 22506 진딧물  
 22506-1 (진딧물이) 끼다/얹다/생기다  
 22507 잠자리  
 22508 방아깨비  
 22508-1 암컷  
 22508-2 수컷  
 22509 메뚜기  
 22510 여치  
 22511 사마귀  
 22512 벌

22501 벌걱찌  
 22502 곤충벌레  
 22503 파리네  
 22503-1 왕:파리, 쉬파리라고  
 22504 알시러따, 쉬시러따  
 22505 게자리  
 22506 뚝무리(+다), 뜨물(+다), 진디벌레, 진디무리  
 22506-1 시러서  
 22507 잠자리, 자마리  
 22508 땅개, 방아땅개  
 22508-1 암땅개  
 22508-2 수땅개  
 22509 메뚜기, 머뚜기  
 22510 으—르치, 열:치  
 22511 사마기  
 22512 벌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22512-1 키운다, 벌:친다구라지(+다)
22513 땅벌	22513 땅뻘
22514 나비	22514 나비
22515 하루살이	22515 하루살이
22516 풍뎡이	22516 풍덩이
22517 모기	22517 모기
22518 장구벌레	22518 시금창게자리
22519 매미	22519 매미
22520 개똥벌레	22520 개똥벌레
22521 반딧불	22521 반디뿔
22522 거미	22522 거미네
22523 굴뚝이	22523 굴방이
22524 구더기	22524 구디기라구도하구
22525 노래기	22525 노내기, 노나깍씨
22526 그리마	22526 설렁벌레, 설렁이벌레
22527 지네	22527 지네
22528 개미	22528 개미
22529 바구미	22529 바기미
22530 진드기	22530 찢디기
22531 벼룩	22531 벼룩, 베룩
22532 이	22532 이
22532-1 서캐	22532-1 서캐
22532-2 빈대	22532-2 빈대
22533 송충이	22533 송칭이
22534 귀뚜라미	22534 기뜨레미
22535 누에	22535 니여
22536 고치	22536 니여꼬추, 니여꼬치
22537 번데기	22537 뽕디기
22538 지렁이	22538 지렁이
22539 회충(蛔蟲)	22539 헤, 헤충
22540 소금쟁이	22540 소곰벌레
22541 방개	22541 방개네

### 2.9.3. 가축

22601 가축	22601 가축메긴다구하지
----------	----------------

22602 암소	22602 암:소
22603 송아지	22603 송아치두인네, 송아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22604 음매이루와
22605 황소	22605 황:소
22606 길들이다	22606 기를잘드리야야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22606-1 이라찌찌찌찌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22606-2 와::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라)	22606-3 이리(+끈을 오른쪽으로 잡아 당기며)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라)	22606-4 조조조조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리나라)	22606-5 이루와:디로도라
22607 쇠고기	22607 소고기
22608 고기(肉)	22608 고기뎡어리
22609 들치	22609 들치
22610 꼬리	22610 꼬랭이, 꼬리
22611 망아지	22611 망아지라구라
22612 당나귀	22612 당나귀(+이중모음 '위')
22613 갈기	22613 갈기머리
22614 돼지	22614 대지, 돼지
22614-1 멧돼지	22614-1 메떼지
22615 주둥이	22615 아가리, 아가지, 주덩이
22616 돼지 머리	22616 대지머리털, 대지대가리
22617 돼지우리	22617 우리, 대지막
22617-1 오래오래	22617-1 굴굴굴굴(+큰 돼지에 게), 오래오래오래오래(+어린 돼지에 게)
22618 개(犬)	22618 개
22618-1 수캐	22618-1 수깨, 수캐
22618-2 암캐	22618-2 양캐
22619 강아지	22619 강아지
22620 염소	22620 염:소
22621 고양이	22621 고양이, 나비아
22621-1 수고양이	22621-1 수코양이
22621-2 암고양이	22621-2 양코양이
22622 토끼	22622 토끼
22623 거위(鵞)	22623 때깨우
22624 암탉	22624 암탉
22625 병아리	22625 병아리

22626 모으다  
 22627 수탉  
 22627-0-1 -이  
 22628 벼슬(鷄冠)  
 22629 부리  
 22630 모이  
 22630-0-1 -을  
 22630-1 모이다  
 22631 닭털  
 22632 닭똥  
 22633 어리  
 22634 닭장  
 22635 둥우리  
 22636 날개  
 22637 깃  
 22637-0-1 -을

22626 모이지  
 22627 수탉, 장:닭  
 22627-0-1 장다기, 수따기울먼  
 22628 벼실  
 22629 주당이라고, 주등빼기  
 22630 모시  
 22630-0-1 모시를  
 22630-1 모인다  
 22631 닭털  
 22632 닭똥  
 22633 통가리, 둥구리, 닭똥구리  
 22634 닭쩍, 닭짹이라구  
 22635 알통어리, 닭통어리  
 22636 날개  
 22637 깃, 기털, 기틀, 터레기  
 22637-0-1 기터를뽀바따, 꿩기트를뽀바따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22702 살쾡이  
 22703 여우  
 22704 원숭이  
 22705 사슴  
 22706 노루  
 22706-0-1 -이  
 22706-0-2 -를  
 22707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22709 족제비  
 22710 뱀  
 22711 도마뱀  
 22712 구렁이  
 22713 살모사  
 22714 생쥐  
 22715 박쥐

22701 호랑이  
 22702 살가지  
 22703 여:우, 여:수  
 22704 원sing이, 원숭이  
 22705 사슴  
 22706 노루  
 22706-0-1 노루가  
 22706-0-2 노루를  
 22707 고손도시  
 22708 땅뚱지기, 두디기, 땅뚱지기여  
 22709 족찌비  
 22710 뱀:  
 22711 동아뱀미네, 동아뱀  
 22712 능그렁이, 능구렁이  
 22713 살모사  
 22714 생:지  
 22715 박찌벌레, 박쥐



22716 거꾸로  
 22717 다람쥐  
 22718 새(鳥)  
 22719 콩지  
 22720 술개  
 22721 독수리  
 22722 제비(燕)  
 22723 두루미  
 22724 소쩍새  
 22725 평  
 22726 장끼  
 22727 까투리  
 22727-1 꺼병이  
 22728 종달새  
 22729 빠꾸기  
 22730 기러기  
 22731 뜰부기  
 22732 올빼미  
 22733 까치  
 22734 딱따구리  
 22735 덧  
 22735-0-1 -을  
 22736 올가미

22716 꺼꿀루  
 22717 다람지  
 22718 날짐성, 새  
 22719 콩탱이(+다), 콩딩이, 콩지  
 22720 호루개미  
 22721 독:쭈리  
 22722 제비  
 22723 황새  
 22724 서쪽새  
 22725 평  
 22726 쟁끼  
 22727 양평, 까토리  
 22727-1 평새끼  
 22728 종달새  
 22729 빠꼭새  
 22730 기로기  
 22731 뜰북새  
 22732 올빼미여  
 22733 까치  
 22734 딱따구리  
 22735 둔  
 22735-0-1 도솔  
 22736 올개미

## 2.10. 식물

###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22802 철쭉꽃  
 22803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22805 봉선화  
 22806 파리

22801 진달래꽃  
 22802 철쭉꽃, 철찌는, 철찌꽃  
 22803 머심들레  
 22804 맨드래미  
 22805 봉숭아  
 22806 파리나무(+식물), 파루(+열매)

22807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22809 시들다  
 22810 질경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22811 빨기  
 22812 비름  
 22813 쇠비름  
 22814 씬바귀  
 22815 고들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22816 고사리  
 22817 고비  
 22818 도깨비바늘  
 22819 도꼬마리  
 22820 억새  
 22821 갈대  
 22822 이끼  
 22823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22825 수세미  
 22826 덩굴  
 22827 덩불  
 22827-1 가시덤불  
 22828 잔디

22807 해바라기  
 22808 끈콩오리  
 22809 시든다  
 22810 뱀짱이, 질갱이라구두하구, 질갱이라구두하구  
 22810-1 뱀짱이라구라  
 22810-2 질갱이반찬, 뱀짱이 텐장이다박은  
 장아치라구라지

22811 빨기  
 22812 비름, 비듬이라구두하구  
 22813 세비름, 세비듬  
 22814 씬바구, 씬바구나물두, 씬바운  
 22815 고들배기, 꼬들빼기  
 22815-1 꼬들빼기  
 22815-2 고들빼기반찬  
 22816 고사리네  
 22817 세침, 회침  
 22818 도동놈까시  
 22819 도꼬마리  
 22820 억췌  
 22821 갈땡게배  
 22822 잉끼  
 22823 아주까리  
 22824 땡땡이넝쿨  
 22825 쭈시미네  
 22826 넝쿨리  
 22827 더푸리, 덤부리, 덤풀  
 22827-1 까시덤푸리여  
 22828 잔디, 잔디기, 잔테, 잔테기풀

## 2.10.2. 나무

22901 소나무  
 22902 솔방울  
 22903 관솔  
 22904 솔가리  
 22905 그르모으다

22901 소나무  
 22902 솔땡울  
 22903 관솔  
 22904 솔까루  
 22905 긍는다

22906 뽕나무  
 22907 오디  
 22908 도토리  
 22909 떡갈나무  
 22910 상수리  
 22911 옷  
 22911-0-1 -으로  
 22912 버드나무  
 22913 느티나무  
 22914 그림자  
 22914-1 그늘  
 22915 숲  
 22915-0-1 -을  
 22915-0-2 -에  
 22916 시원하다  
 22917 찢레  
 22918 칩  
 22918-0-1 -에  
 22919 가지(枝)  
 22920 끝  
 22920-0-1 -이  
 22920-0-2 -에  
 22920-0-3 -을  
 22921 삭정이  
 22921-1 삭정이를 따다/썬다/하다  
 22922 나무  
 22922-0-1 -을  
 22922-0-2 -에  
 22923 나무하다  
 22924 그루터기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22925 등걸  
 22926 장작  
 22927 패다  
 22928 부스러기  
 22929 숯

22906 뽕나무라구라지  
 22907 오두개  
 22908 도토리  
 22909 떡도토리나무가  
 22910 황:수리  
 22911 온:  
 22911-0-1 오시루  
 22912 버들나무  
 22913 느티나무  
 22914 그림자  
 22914-1 그늘  
 22915 숲  
 22915-1 수블  
 22915-2 수베  
 22916 서:냐  
 22917 찢레  
 22918 칩  
 22918-0-1 치기  
 22919 가지라고  
 22920 꼬트리  
 22920-0-1 꼬시  
 22920-0-2 나무꼬시, 꼬테  
 22920-0-3 꼬틀, 꼬슬  
 22921 삭짱가지(+다), 삭쟁이, 삭쟁이  
 22921-1 끈는다구  
 22922 나무, 낭구나  
 22922-0-1 나무를, 낭구를  
 22922-0-2 나무에  
 22923 나무해온다  
 22924 등거리, 등그럭  
 22924-1 베꼭씨라구라, 베꼭  
 22925 나무뚱거리(+?제)  
 22926 장적  
 22927 팬다  
 22928 지지겍찌, 지지겍찌  
 22929 숯

22929-0-1 -이  
 22929-0-2 -을  
 22929-0-3 -에  
 22930 불잉걸  
 22931 싹  
 22932 잎  
 22932-0-1 -을  
 22932-1 잎사귀  
 22933 가랑잎  
 22934 뿌리

22929-0-1 수시마나다  
 22929-0-2 수설맨트리  
 22929-0-3 수시  
 22930 응거리, 엉거리  
 22931 싹  
 22932 입싸구, 입쌔, 입쌔기, 이비라고  
 22932-0-1 이벌  
 22932-1 큰넙쌔기  
 22933 가랑넙  
 22934 뿌랭이는, 뿌리

###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23002 돌배  
 23003 복숭아  
 23004 꽃감  
 23005 홍시  
 23006 고욤  
 23007 살구  
 23008 앵두  
 23009 자두  
 23010 오얏  
 23010-0-1 -을  
 23011 석류  
 23012 모과  
 23013 과일  
 23014 꼭지  
 23015 밤  
 23015-1 밤송이  
 23015-2 꽃밤  
 23015-3 알밤  
 23015-4 쌍동밤  
 23016 보늬  
 23017 호두  
 23018 가래(楸子)

23001 능그미라고  
 23002 아그배  
 23003 복숭아아너  
 23004 꼬감  
 23005 홍수감  
 23006 고염  
 23007 살구  
 23008 앵두  
 23009 자도  
 23010 오얏(+벚꽃 열매를 가리킴)  
 23010-0-1 오야슬판다(+벚꽃 열매를 가리킴)  
 23011 성뉴  
 23012 모가  
 23013 과일  
 23014 꼭찌  
 23015 밤:  
 23015-1 밤:송이  
 23015-2 쌍밤  
 23015-3 알톨바미여  
 23015-4 쌍밤톨  
 23016 비늘, 밤빼늘  
 23017 호도  
 23018 \*

23019 개암  
 23020 머루  
 23021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23023 으름  
 23024 참외  
 23025 딸기  
 23025-1 딸기(밭, 재배)  
 23025-2 딸기(밭, 야생)  
 23025-3 딸기(들, 재배)  
 23025-4 딸기(들, 야생)  
 23025-5 딸기(산, 재배)  
 23025-6 딸기(산, 야생)  
 23026 뱀딸기  
 23027 마름(菱)

23019 개금, 깨그미라구두  
 23020 머:루  
 23021 다래  
 23022 명감나무  
 23023 으름  
 23024 차메, 차무  
 23025 딸기, 딸구  
 23025-1 딸기라구라지  
 23025-2 \*  
 23025-3 딸기여그냥  
 23025-4 \*  
 23025-5 딸기여  
 23025-6 산딸기  
 23026 밤:딸구, 밤:딸기가치  
 23027 마름

## 2.11. 자연

###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23102 기슭  
 23102-0-1 -에  
 23103 골짜기  
 23104 메아리  
 23105 고함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23106 묘  
 23107 뗏자리  
 23107-1 광중  
 23108 구덩이  
 23109 비탈  
 23110 가파르다  
 23111 언덕

23101 상꼭때기  
 23102 웅등이라구라나(+?제)  
 23102-0-1 \*  
 23103 골탕, 상꿀짜, 산골탕이, 골탱이, 골팅이  
 23104 메아리(+소), 사눌림(+다)  
 23105 궤암질러따고, 고암질러따구  
 23105-1 질른다구  
 23106 모이, 모이똥  
 23107 모이짜리, 묘짜리를  
 23107-1 내관, 내광  
 23108 구탱이파서, 웅등이, 웅덩이  
 23109 비탈, 비탈기, 빼알덩이가서, 빼탈저서, 산빼알  
 23110 빼탈저따고  
 23111 언덕

23112 낭떠러지

23113 들(野)

23113-0-1 -에

23114 벌

23115 갈림길

23116 헤어지다

23117 바위

23117-0-1 -을

23117-0-2 -에

23118 돌(石)

23118-0-1 -을

23118-0-2 -에

23119 자갈

23120 모래

23120-0-1 -를

23121 진흙

23121-1 찰흙

23112 깔꾸매기, 깔꾸막, 낭때기두, 낭떠러지,

빙애길(+’벼랑’의 고행), 빙애(+’벼랑’의 고행)

23113 들판, 들루

23113-0-1 들파니나간다그라지

23114 벌따기

23115 갈래길

23116 갈리스자, 갈리지자고, 헤어지자

23117 바우똥, 바위(+단모음 ‘위’)

23117-0-1 바위덜, 바우또글

23117-0-2 바우또리, 바우에

23118 돌망이, 돌

23118-0-1 도를

23118-0-2 도레마자따

23119 자갈, 잔자갈

23120 자갈까루, 모래

23120-0-1 모래를

23121 지늑

23121-1 차륵

##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23202 거품

23203 개운하다

23204 도랑

23204-1 봇도랑

23205 독

23206 잠기다

23207 개울

23208 내(川)

23209 미역 감다

23210 발가숭이

23211 목욕하다

23212 수채

23213 개골창

23214 시궁창

23201 물

23202 거품

23203 개오나다

23204 고랑탱이, 고랑여, 물꼬랑이서

23204-1 물똥, 물또랑

23205 뚝싸따구하구

23206 쟁겨따

23207 개울또랑이라구

23208 냄물

23209 먹:잠는다구

23210 뺨개둥이, 뺨가둥이

23211 모욕한다

23212 수채

23213 갯골창

23214 시금창

23215 웅덩이  
 23216 수렁  
 23217 늪  
 23217-0-1 -에  
 23218 배(船)  
 23219 나루터  
 23220 돛  
 23220-0-1 -에  
 23221 돛대  
 23222 돛배  
 23223 돛 줄  
 23224 닻 줄  
 23225 거루  
 23226 상앗대  
 23227 개(필)  
 23228 물  
 23228-0-1 -으로  
 23229 밀물  
 23230 썰물  
 23231 가라앉다  
 23232 그물  
 23233 해녀

23215 웅덩이, 응등물, 응덩이물  
 23216 수랑  
 23217 느비라고허지, 엉구렁창이빠전나, 구렁창  
 23217-0-1 느비빠저따고해야허  
 23218 배  
 23219 나루터  
 23220 돛  
 23220-0-1 \*  
 23221 도때  
 23222 도판배  
 23223 도쭈리지  
 23224 배쭈를  
 23225 쪼각빠  
 23226 사때  
 23227 개빨  
 23228 육썸를간다고  
 23228-0-1 \*  
 23229 조숨물(+?조)  
 23230 사리(+?조)  
 23231 가라안저따  
 23232 그물  
 23233 해녀

### 2.11.3. 시후

23301 새벽  
 23302 새벽밥  
 23303 아침  
 23304 아침밥  
 23305 점심  
 23306 저녁  
 23307 설핏하다  
 23308 노을  
 23308-0-1 -을  
 23309 불그레하다  
 23310 해거름

23301 새벽(+오전 3시부터 4시까지를 말함), 새비기  
 23302 새벽밥  
 23303 아침  
 23304 아침밥  
 23305 줌:신, 점:신  
 23306 저녁기  
 23307 어설프타면  
 23308 북썰떠따고라지북썰  
 23308-0-1 \*  
 23309 빨가나다, 빨거나다, 벌거나자나  
 23310 해거름

23311 땅거미  
 23312 봄  
 23313 여름  
 23314 더위  
 23315 추위  
 23316 가을  
 23316-0-1 -에  
 23317 겨울  
 23317-0-1 -에  
 23318 얼음  
 23319 오늘  
 23320 내일  
 23321 모레  
 23322 글피  
 23323 그글피  
 23324 어제  
 23325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23327 훗날  
 23328 하룻날  
 23329 이튿날  
 23330 사흘날  
 23331 나흘날  
 23332 다섯날  
 23333 엿새날  
 23334 이렛날  
 23335 여드렛날  
 23336 아흐렛날  
 23337 열흘날  
 23338 하루  
 23339 이틀  
 23340 사흘  
 23341 나흘  
 23342 다섯  
 23343 엿새  
 23344 이레

23311 땅검저따  
 23312 봄  
 23313 여름  
 23314 더위가(+단모음 '위'), 더우가  
 23315 취이가  
 23316 가을  
 23316-0-1 가으리  
 23317 겨울  
 23317-0-1 겨우리, 울껴레는, 울:겨리는  
 23318 여름  
 23319 오늘  
 23320 내일  
 23321 모리  
 23322 글피  
 23323 그글피  
 23324 어제  
 23325 그저끼  
 23326 그끄저끼  
 23327 훈날  
 23328 초하룻날  
 23329 이튿날  
 23330 사흘날  
 23331 나흘날  
 23332 다쎌날  
 23333 여쎌날  
 23334 이렌날  
 23335 여드렌날  
 23336 아으렌날  
 23337 여를랄  
 23338 하루  
 23339 이틀  
 23340 사을  
 23341 나을  
 23342 달쎌  
 23343 열쎌  
 23344 이레



23345 여드레  
 23346 아흐레  
 23347 열흘  
 23348 한나절  
 23348-1 반나절  
 23349 그믐  
 23349-1 그믐께  
 23350 지금  
 23351 아직  
 23352 이제  
 23353 이미  
 23354 요즈음  
 23355 금방

23345 여드레  
 23346 아흐레  
 23347 여를  
 23348 한나잘  
 23348-1 반:나잘  
 23349 그믐날  
 23349-1 그믐끼  
 23350 지금, 지끄밍게  
 23351 안직 안대서, 아직  
 23352 인자  
 23353 이미너는  
 23354 요조미, 요조매, 요죤  
 23355 금방, 망금

####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23401-0-1 -이  
 23401-0-2 -을  
 23402 따스하다  
 23403 아지랑이  
 23404 응달  
 23405 양달  
 23406 비(雨)  
 23407 가랑비  
 23408 이슬비  
 23409 안개  
 23410 눈개  
 23411 무지개  
 23412 소나기  
 23413 갑자기  
 23414 홍수  
 23415 번개  
 23416 천둥  
 23417 벼락  
 23418 무섭다

23401 해뻔(+실제는 '뻔'으로 말하고 있음)  
 23401-0-1 해뻔시(+실제는 '베시'로 말하고 있음)  
 23401-0-2 해뻔설  
 23402 따쉬저따  
 23403 아지랭이  
 23404 음지, 응::달  
 23405 양달, 양지  
 23406 비  
 23407 가랑비  
 23408 이슬비  
 23409 앙개  
 23410 \*  
 23411 무지개  
 23412 쏘나기, 쏘내기가  
 23413 갑짜기 쏘내기가막  
 23414 홍수  
 23415 병개  
 23416 천둥  
 23417 벼락  
 23418 무서워서

23419 함박눈  
 23420 싸락눈  
 23421 발자국  
 23422 진눈깨비  
 23423 우박  
 23424 고드름  
 23425 햇무리  
 23426 달무리  
 23427 둥글다  
 23428 은하수  
 23429 금성  
 23430 가뭄  
 23431 마르다  
 23431-0-1 -어서  
 23432 위  
 23433 아래  
 23434 왼쪽  
 23435 오른쪽  
 23436 걸  
 23436-0-1 -에  
 23437 회오리바람  
 23438 북풍  
 23439 남풍  
 23440 동풍  
 23441 서풍

23419 함방눈  
 23420 싸래기눈, 싸라기눈  
 23421 눈:빨짝, 발짜구가, 발짜꾸  
 23422 진두깨비  
 23423 우:박  
 23424 고드름  
 23425 햇무리  
 23426 달무리저파  
 23427 뚱구라나지머, 뚱구러나  
 23428 으나수  
 23429 칠썩별(+?조)  
 23430 가뭄미, 가뭄  
 23431 말르지  
 23431-0-1 잘:말:리서  
 23432 우에, 우이  
 23433 아래  
 23434 엔쪽, 왼쪽(+단모음 '외')  
 23435 바루쪽, 오른쪽  
 23436 저티루와안저라  
 23436-0-1 내저테와, 저티  
 23437 소소리바람  
 23438 북풍  
 23439 남풍, 마파람  
 23440 동풍  
 23441 서풍

=2 간질밤매기른(+간질밥 먹이다:간지름을 태우다)  
 =2 거찌리  
 =2 걸트려따구  
 =2 괴짜  
 =2 그이  
 =2 꼬맹거  
 =2 나락찌  
 =2 나락통아리  
 =2 널벅찌(+김장 씻는 큰 그릇)  
 =2 느다듬씨라구라

=2 놀판지로  
 =2 댄님친다  
 =2 덜처안저따  
 =2 두개엄버간다  
 =2 두톨배기(+밤톨이 두 개)  
 =2 디엄허쳐따고하자나  
 =2 띠뽕(+띠 뿌리)  
 =2 먼제와따(+먼저 왔다)  
 =2 멀국짐치  
 =2 먹:싸리(+꼭식 담는 것)  
 =2 모딩모덕  
 =2 물방아깁  
 =2 밀때방석  
 =2 바:라구가 마니나  
 =2 바탄쪼가리  
 =2 방주관니리라고하고(+시체를 묻는 일 전체를 일컬음)  
 =2 방콩  
 =2 보까(+웃놀이에서 말이 포개짐)  
 =2 복는다구르지(+웃놀이에서 말이 포개짐)  
 =2 부어겨  
 =2 부터다려  
 =2 불끄름자  
 =2 비치적비치적  
 =2 뽕지리감  
 =2 뽕근거뚜이꾸  
 =2 살강빨  
 =2 샤:니는  
 =2 성냥(+성냥)  
 =2 세개엄버따구하구  
 =2 세톨배기(+밤톨아 세 개)  
 =2 솔갱이  
 =2 수평아리  
 =2 시근밥  
 =2 시영버들  
 =2 쌍저서간다  
 =2 쌍지퍼서간다구

=2 쏘대따  
 =2 씨러다(+쓸다)  
 =2 아랜넙썰  
 =2 알맹이가  
 =2 암:평아리  
 =2 압찌락  
 =2 에톨배기(+밤톨이 한 개)  
 =2 열맹이루  
 =2 웅:딩이  
 =2 운넙썰  
 =2 웨떼기  
 =2 인나무  
 =2 잉끼썬따  
 =2 장팡끄르기네  
 =2 장적뿔너라  
 =2 저껴비다(+겹겹이다)  
 =2 저꿍  
 =2 지까리여다가  
 =2 찜장  
 =2 쪽떼기(+줄기)  
 =2 쪽찌(+줄기)  
 =2 찢끄미어썬(+질색하다)  
 =2 찰보리가  
 =2 콩꾸투리  
 =2 큰널비기라구두하구(+김장 씻는 큰 그릇)  
 =2 큰놈 빼미  
 =2 판대기(+김장 씻는 큰 그릇)  
 =2 펴퍼난  
 =2 핀다구하구(+깎부기 핀다)  
 =2 한::몽치더러  
 =2 한:몽탕이  
 =2 한춤썬(+한 춤썬)  
 =2 향뀌미라구라당가  
 =2 홀태질  
 =2 후딱나와  
 =2 흑썬지란다



## 제3편 음운

### 3.1. 음운 체계

####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31001-0-1 테가
31001-0-2 테(輪)-보다	31001-0-2 테보다
31002-0-1 태(胎)-이/가	31002-0-1 태가
31002-0-2 태(胎)-보다	31002-0-2 태보다
31003-0-1 떼(群)-이/가	31003-0-1 떼가
31003-0-2 떼(群)-보다	31003-0-2 떼보다
31004-0-1 때(時)-이/가	31004-0-1 때가
31004-0-2 때(時)-보다	31004-0-2 때보다
31005-0-1 틀(機)-이/가	31005-0-1 트리
31005-0-2 틀(機)-보다	31005-0-2 틀보다
31006-0-1 털(毛)-이/가	31006-0-1 터리
31006-0-2 털(毛)-보다	31006-0-2 털보다
31007-0-1 글(文)-이/가	31007-0-1 그리
31007-0-2 글(文)-보다	31007-0-2 글보다
31008-0-1 걸(옷)-이/가	31008-0-1 거리
31008-0-2 걸(옷)-보다	31008-0-2 걸보다
31009-0-1 기(旗)-이/가	31009-0-1 기가
31009-0-2 기(旗)-보다	31009-0-2 기:보다
31010-0-1 귀(耳)-이/가	31010-0-1 기가
31010-0-2 귀(耳)-보다	31010-0-2 기보다
31011-0-1 시(生時)-이/가	31011-0-1 시가
31011-0-2 시(生時)-보다	31011-0-2 시보다
31012-0-1 쉬(蠅卵)-이/가	31012-0-1 쉬:가
31012-0-2 쉬(蠅卵)-보다	31012-0-2 시:보다
31013-0-1 쇠(鐵)-이/가	31013-0-1 세가
31013-0-2 쇠(鐵)-보다	31013-0-2 세보다
31014-0-1 외:국(外國)-이/가	31014-0-1 예구기

31014-0-2 외:국(外國)-보다  
 31015-0-1 왜 국(倭國)-이/가  
 31015-0-2 왜 국(倭國)-보다  
 31016 쉬:다(休)  
 31017 쇠:다(설을~)  
 31018 베(布)  
 31019 배(船)  
 31020 배(腹)  
 31021 (떡)매  
 31022 매(鞭)  
 31023 매:다(擔)  
 31024 매:다(繫)  
 31025 떼:다(分離)  
 31026 때:다(炊)  
 31027 베:다(切斷)  
 31028 배:다(孕胎)  
 31029 세:다(算)  
 31030 새:다(漏泄)  
 31031 뒤(後)  
 31032 되(升)  
 31033 게:(蟹)  
 31034 개:(犬)

31014-0-2 에국보다  
 31015-0-1 애구기  
 31015-0-2 애국보다  
 31016 시:고이따  
 31017 세:고이따  
 31018 베  
 31019 배  
 31020 배  
 31021 매  
 31022 매  
 31023 매:고이따, 미:능거  
 31024 매:고이따  
 31025 떼:고이따  
 31026 볼때고이따  
 31027 비고이따  
 31028 배:고이따  
 31029 세:고이따  
 31030 새:구이따  
 31031 디  
 31032 데  
 31033 그이  
 31034 개

###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31035-0-2 여럿(多)-보다  
 31035-0-3 여럿(多)-을/를  
 31036-0-1 물결(波)-이/가  
 31036-0-2 물결(波)-보다  
 31036-0-3 물결(波)-을/를  
 31037-0-1 예:의(禮儀)-이/가  
 31037-0-2 예:의(禮儀)-보다  
 31037-0-3 예:의(禮儀)-을/를  
 31038-0-1 계:획(計劃)-이/가  
 31038-0-2 계:획(計劃)-보다

31035-0-1 여러시  
 31035-0-2 여럿보다  
 31035-0-3 여러슬  
 31036-0-1 물껴리  
 31036-0-2 물결보다  
 31036-0-3 물껴를  
 31037-0-1 예이가  
 31037-0-2 예이보다  
 31037-0-3 예:를  
 31038-0-1 계:에기, 계:으기  
 31038-0-2 계:엑쁘다, 계:억쁘다

31038-0-3 계:획(計劃)-을/를  
 31039-0-1 규칙(規則)-이/가  
 31039-0-2 규칙(規則)-보다  
 31039-0-3 규칙(規則)-을/를  
 31040-0-1 휴일(休日)-이/가  
 31040-0-2 휴일(休日)-보다  
 31040-0-3 휴일(休日)-을/를  
 31041-0-1 교통(交通)-이/가  
 31041-0-2 교통(交通)-보다  
 31041-0-3 교통(交通)-을/를  
 31042-0-1 효:자(孝子)-이/가  
 31042-0-2 효:자(孝子)-보다  
 31042-0-3 효:자(孝子)-을/를  
 31043-0-1 웬일(何事)-이/가  
 31043-0-2 웬일(何事)-보다  
 31043-0-3 웬일(何事)-을/를  
 31044-0-1 궤:(궤)(櫃)-이/가  
 31044-0-2 궤:(궤)(櫃)-보다  
 31044-0-3 궤:(궤)(櫃)-을/를  
 31045-0-1 왜란(倭亂)-이/가  
 31045-0-2 왜란(倭亂)-보다  
 31045-0-3 왜란(倭亂)-을/를  
 31046-0-1 헛대(鷄架)-이/가  
 31046-0-2 헛대(鷄架)-보다  
 31046-0-3 헛대(鷄架)-을/를  
 31047-0-1 원망(怨望)-이/가  
 31047-0-2 원망(怨望)-보다  
 31047-0-3 원망(怨望)-을/를  
 31048-0-1 권:투(拳鬪)-이/가  
 31048-0-2 권:투(拳鬪)-보다  
 31048-0-3 권:투(拳鬪)-을/를  
 31049-0-1 의논(議論)-이/가  
 31049-0-2 의논(議論)-보다  
 31049-0-3 의논(議論)-을/를  
 31050-0-1 무늬(紋)-이/가  
 31050-0-2 무늬(紋)-보다

31038-0-3 계:에글, 계:으글, 계:어글  
 31039-0-1 규칙기  
 31039-0-2 규칙보다, 규칙뿐다  
 31039-0-3 규칙글  
 31040-0-1 슈:이리  
 31040-0-2 쉬일보다  
 31040-0-3 쉬이를  
 31041-0-1 교통이  
 31041-0-2 교통보다  
 31041-0-3 교통을  
 31042-0-1 쇼자가, 효자가  
 31042-0-2 효자보다  
 31042-0-3 효자를  
 31043-0-1 웬니리  
 31043-0-2 웬닐보다  
 31043-0-3 웬니를  
 31044-0-1 궤:가  
 31044-0-2 궤:보다  
 31044-0-3 궤:를  
 31045-0-1 에라니  
 31045-0-2 에란보다  
 31045-0-3 에라늘, 외라늘  
 31046-0-1 회가  
 31046-0-2 회보다  
 31046-0-3 회를  
 31047-0-1 원망이  
 31047-0-2 원망보다  
 31047-0-3 원망을  
 31048-0-1 권투가  
 31048-0-2 권토보다  
 31048-0-3 권토를  
 31049-0-1 으노니  
 31049-0-2 은:보다  
 31049-0-3 으노늘  
 31050-0-1 무네가  
 31050-0-2 무네보다

31050-0-3 무늬(紋)-을/를  
 31051-0-1 왕(王)-이/가  
 31051-0-2 왕(王)-보다  
 31051-0-3 왕(王)-을/를  
 31052-0-1 과자(菓子)-이/가  
 31052-0-2 과자(菓子)-보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31050-0-3 무네를  
 31051-0-1 왕:이  
 31051-0-2 왕보다  
 31051-0-3 왕:을  
 31052-0-1 과자가  
 31052-0-2 과자보다  
 31052-0-3 과자를

### 3.1.3. 장모음·성조

31053-0-1 일(一)-이/가  
 31053-0-2 일(一)-보다  
 31054-0-1 일:(事)-이/가  
 31054-0-2 일:(事)-보다  
 31055-0-1 매(鞭)-이/가  
 31055-0-2 매(鞭)-보다  
 31056-0-1 매:(驚)-이/가  
 31056-0-2 매:(驚)-보다  
 31057-0-1 밤(夜)-이/가  
 31057-0-2 밤(夜)-보다  
 31058-0-1 밤:(栗)-이/가  
 31058-0-2 밤:(栗)-보다  
 31059-0-1 눈(眼)-이/가  
 31059-0-2 눈(眼)-보다  
 31060-0-1 눈:(雪)-이/가  
 31060-0-2 눈:(雪)-보다  
 31061-0-1 말(馬)-이/가  
 31061-0-2 말(馬)-보다  
 31062-0-1 말(斗)-이/가  
 31062-0-2 말(斗)-보다  
 31063-0-1 말:(言)-이/가  
 31063-0-2 말:(言)-보다  
 31064-0-1 손(客)-이/가  
 31064-0-2 손(客)-보다  
 31065-0-1 손(手)-이/가  
 31065-0-2 손(手)-보다

31053-0-1 이리  
 31053-0-2 사면 일보다 크다  
 31054-0-1 이리  
 31054-0-2 일보다  
 31055-0-1 매가  
 31055-0-2 매보다  
 31056-0-1 매가  
 31056-0-2 매:보다  
 31057-0-1 바미  
 31057-0-2 밤보다  
 31058-0-1 바:미  
 31058-0-2 밤:보다  
 31059-0-1 누니  
 31059-0-2 눈보다  
 31060-0-1 누:니  
 31060-0-2 눈:보다  
 31061-0-1 마리  
 31061-0-2 말보다  
 31062-0-1 마리  
 31062-0-2 말보다  
 31063-0-1 마:리  
 31063-0-2 말:보다  
 31064-0-1 소니  
 31064-0-2 손::보다  
 31065-0-1 손보다  
 31065-0-2 소::니



31066-0-1 손:(孫)-이/가  
 31066-0-2 손:(孫)-보다  
 31067-0-1 배(梨)-이/가  
 31067-0-2 배(梨)-보다  
 31068-0-1 배:(倍)-이/가  
 31068-0-2 배:(倍)-보다  
 31069-0-1 벌(罰)-이/가  
 31069-0-2 벌(罰)-보다  
 31070-0-1 벌:(蜂)-이/가  
 31070-0-2 벌:(蜂)-보다  
 31071-0-1 솔(松)-이/가  
 31071-0-2 솔(松)-보다  
 31072-0-1 솔:(刷)-이/가  
 31072-0-2 솔:(刷)-보다  
 31073-0-1 줄(鉉)-이/가  
 31073-0-2 줄(鉉)-보다  
 31074-0-1 줄:(연장)-이/가  
 31074-0-2 줄:(연장)-보다  
 31075-0-1 돌:(石)-이/가  
 31075-0-2 돌:(石)-보다  
 31076-0-1 담(牆)-이/가  
 31076-0-2 담(牆)-보다  
 31077-0-1 담:(膽)-이/가  
 31077-0-2 담:(膽)-보다  
 31078-0-1 들:(野)-이/가  
 31078-0-2 들:(野)-보다  
 31079-0-1 달-(懸)-더라  
 31080-0-1 달-(甘)-더라  
 31081-0-1 달:-(熱)-더라  
 31082-0-1 갈-(換)-더라  
 31083-0-1 갈-(磨)-더라  
 31084-0-1 갈:-(耕)-더라  
 31085-0-1 걷-(收)-더라  
 31086-0-1 걷:-(步)-더라  
 31087-0-1 적-(晷)-더라  
 31088-0-1 적:-(小)-더라

31066-0-1 소니  
 31066-0-2 손보다  
 31067-0-1 배가  
 31067-0-2 배:보다  
 31068-0-1 배가  
 31068-0-2 배보다  
 31069-0-1 버리, 뷔리  
 31069-0-2 뵈보다  
 31070-0-1 뵈:리  
 31070-0-2 뵈:보다  
 31071-0-1 소리  
 31071-0-2 솔보다  
 31072-0-1 소:리  
 31072-0-2 솔:보다  
 31073-0-1 주리  
 31073-0-2 줄보다  
 31074-0-1 주:리  
 31074-0-2 줄:보다  
 31075-0-1 도:리  
 31075-0-2 돌:보다  
 31076-0-1 다:미  
 31076-0-2 담:보다  
 31077-0-1 다미  
 31077-0-2 담보다  
 31078-0-1 드리  
 31078-0-2 들:보다  
 31079-0-1 달더라  
 31080-0-1 달더라  
 31081-0-1 달:더라  
 31082-0-1 갈더라  
 31083-0-1 갈더라  
 31084-0-1 갈:더라  
 31085-0-1 도늘거떠라  
 31086-0-1 걸떠라  
 31087-0-1 적떠라  
 31088-0-1 적:떠라, 즉:떠라

## 3.2. 음운 과정

### 3.2.1. 활용

32001-0-1 막-(防)[ㄱ]-지	32001-0-1 막찌
32001-0-2 막-(防)[ㄱ]-고	32001-0-2 막꼬
32001-0-3 막-(防)[ㄱ]-더라	32001-0-3 막떠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32001-0-4 마그니까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32001-0-5 마견따
32002-0-1 흐르-(流)[ㅡ]-지	32002-0-1 흐르지, 흘르지
32002-0-2 흐르-(流)[ㅡ]-고	32002-0-2 흐르고, 흘르고
32002-0-3 흐르-(流)[ㅡ]-더라	32002-0-3 흘르더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32002-0-4 흘르니까
32002-0-5 흐르-(流)[ㅡ]-아/어(왔/었다)	32002-0-5 흘렀따
32003-0-1 오-(來)[ㅇ]-지	32003-0-1 오지
32003-0-2 오-(來)[ㅇ]-고	32003-0-2 오고
32003-0-3 오-(來)[ㅇ]-더라	32003-0-3 오더라
32003-0-4 오-(來)[ㅇ]-으니까	32003-0-4 오니까
32003-0-5 오-(來)[ㅇ]-아/어(왔/었다)	32003-0-5 완따
32004-0-1 듣-(聞)[ㄷ 변]-지	32004-0-1 듣찌
32004-0-2 듣-(聞)[ㄷ 변]-고	32004-0-2 득꼬
32004-0-3 듣-(聞)[ㄷ 변]-더라	32004-0-3 듣떠라
32004-0-4 듣-(聞)[ㄷ 변]-으니까	32004-0-4 드르니까
32004-0-5 듣-(聞)[ㄷ 변]-아/어(왔/었다)	32004-0-5 드리따
32005-0-1 많-(多)[ㄴ]-지	32005-0-1 만:치
32005-0-2 많-(多)[ㄴ]-고	32005-0-2 망:코
32005-0-3 많-(多)[ㄴ]-더라	32005-0-3 만터라
32005-0-4 많-(多)[ㄴ]-으니까	32005-0-4 마느니까
32005-0-5 많-(多)[ㄴ]-아/어(왔/었다)	32005-0-5 마내따
32006-0-1 맡-(任)[ㄷ]-지	32006-0-1 맡찌
32006-0-2 맡-(任)[ㄷ]-고	32006-0-2 막꼬
32006-0-3 맡-(任)[ㄷ]-더라	32006-0-3 맡떠라
32006-0-4 맡-(任)[ㄷ]-으니까	32006-0-4 마트니까
32006-0-5 맡-(任)[ㄷ]-아/어(왔/었다)	32006-0-5 마터따
32007-0-1 알-(知)[ㄹ]-지	32007-0-1 알:지

32007-0-2 알:-(知)[ㄹ]-고	32007-0-2 알:고
32007-0-3 알:-(知)[ㄹ]-더라	32007-0-3 알:더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32007-0-4 아:르닝까
32007-0-5 알:-(知)[ㄹ]-아/어(왔/었다)	32007-0-5 아러따
32008-0-1 감:-(閉眼)[ㄱ]-지	32008-0-1 감:찌
32008-0-2 감:-(閉眼)[ㄱ]-고	32008-0-2 강:꼬
32008-0-3 감:-(閉眼)[ㄱ]-더라	32008-0-3 감:떠라
32008-0-4 감:-(閉眼)[ㄱ]-으니까	32008-0-4 가무닝까
32008-0-5 감:-(閉眼)[ㄱ]-아/어(왔/었다)	32008-0-5 가:머따
32009-0-1 벗:-(脫)[ㅍ]-지	32009-0-1 받지
32009-0-2 벗:-(脫)[ㅍ]-고	32009-0-2 벅꼬
32009-0-3 벗:-(脫)[ㅍ]-더라	32009-0-3 받떠라
32009-0-4 벗:-(脫)[ㅍ]-으니까	32009-0-4 버스닝까
32009-0-5 벗:-(脫)[ㅍ]-아/어(왔/었다)	32009-0-5 버선타
32010-0-1 옹:-(可)[ㅇ]-지	32010-0-1 올치
32010-0-2 옹:-(可)[ㅇ]-고	32010-0-2 올코
32010-0-3 옹:-(可)[ㅇ]-더라	32010-0-3 올터라
32010-0-4 옹:-(可)[ㅇ]-으니까	32010-0-4 오로닝까
32010-0-5 옹:-(可)[ㅇ]-아/어(왔/었다)	32010-0-5 오랄따
32011-0-1 입:-(着衣)[ㅍ]-지	32011-0-1 입찌
32011-0-2 입:-(着衣)[ㅍ]-고	32011-0-2 익꼬
32011-0-3 입:-(着衣)[ㅍ]-더라	32011-0-3 입떠라
32011-0-4 입:-(着衣)[ㅍ]-으니까	32011-0-4 이브니~까
32011-0-5 입:-(着衣)[ㅍ]-아/어(왔/었다)	32011-0-5 이버따
32012-0-1 바꾸:-(換)[ㅌ]-지	32012-0-1 바꾸지
32012-0-2 바꾸:-(換)[ㅌ]-고	32012-0-2 바꾸고
32012-0-3 바꾸:-(換)[ㅌ]-더라	32012-0-3 바꾸더라
32012-0-4 바꾸:-(換)[ㅌ]-으니까	32012-0-4 바꾸닝까
32012-0-5 바꾸:-(換)[ㅌ]-아/어(왔/었다)	32012-0-5 바뀔따
32013-0-1 덮:-(覆)[ㅍ]-지	32013-0-1 덮찌
32013-0-2 덮:-(覆)[ㅍ]-고	32013-0-2 덕꼬
32013-0-3 덮:-(覆)[ㅍ]-더라	32013-0-3 덮떠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32013-0-4 더푸닝까
32013-0-5 덮:-(覆)[ㅍ]-아/어(왔/었다)	32013-0-5 더펼따
32014-0-1 묻:-(問)[ㅁ 변]-지	32014-0-1 묻찌
32014-0-2 묻:-(問)[ㅁ 변]-고	32014-0-2 묵꼬

32014-0-3	물:- (問)[ㄷ 변]-더라	32014-0-3	물떠라
32014-0-4	물:- (問)[ㄷ 변]-으니까	32014-0-4	무루니~까
32014-0-5	물:- (問)[ㄷ 변]-아/어(왔/었다)	32014-0-5	무럴따
32015-0-1	낫:- (癒)[ㅅ 변]-지	32015-0-1	날찌
32015-0-2	낫:- (癒)[ㅅ 변]-고	32015-0-2	낙꼬
32015-0-3	낫:- (癒)[ㅅ 변]-더라	32015-0-3	날떠라
32015-0-4	낫:- (癒)[ㅅ 변]-으니까	32015-0-4	나스닝까
32015-0-5	낫:- (癒)[ㅅ 변]-아/어(왔/었다)	32015-0-5	나설따
32016-0-1	닫:- (閉)[ㄷ]-지	32016-0-1	닫찌
32016-0-2	닫:- (閉)[ㄷ]-고	32016-0-2	닫꼬
32016-0-3	닫:- (閉)[ㄷ]-더라	32016-0-3	닫떠라
32016-0-4	닫:- (閉)[ㄷ]-으니까	32016-0-4	다드니~까
32016-0-5	닫:- (閉)[ㄷ]-아/어(왔/었다)	32016-0-5	다더따
32017-0-1	쫓:- (追)[ㅈ]-지	32017-0-1	쫓찌
32017-0-2	쫓:- (追)[ㅈ]-고	32017-0-2	쫓꼬
32017-0-3	쫓:- (追)[ㅈ]-더라	32017-0-3	쫓떠라
32017-0-4	쫓:- (追)[ㅈ]-으니까	32017-0-4	쫓즈니~까
32017-0-5	쫓:- (追)[ㅈ]-아/어(왔/었다)	32017-0-5	쫓차따
32018-0-1	베:- (枕)[ㅂ]-지	32018-0-1	비:지
32018-0-2	베:- (枕)[ㅂ]-고	32018-0-2	비:고
32018-0-3	베:- (枕)[ㅂ]-더라	32018-0-3	비더라
32018-0-4	베:- (枕)[ㅂ]-으니까	32018-0-4	비:닝까
32018-0-5	베:- (枕)[ㅂ]-아/어(왔/었다)	32018-0-5	별:따
32019-0-1	깨:- (破)[ㄱ]-지	32019-0-1	깨:지
32019-0-2	깨:- (破)[ㄱ]-고	32019-0-2	깨:고
32019-0-3	깨:- (破)[ㄱ]-더라	32019-0-3	깨:더라
32019-0-4	깨:- (破)[ㄱ]-으니까	32019-0-4	깨닝까
32019-0-5	깨:- (破)[ㄱ]-아/어(왔/었다)	32019-0-5	꽤따
32020-0-1	펴:- (伸)[ㅍ]-지	32020-0-1	피지
32020-0-2	펴:- (伸)[ㅍ]-고	32020-0-2	피:고
32020-0-3	펴:- (伸)[ㅍ]-더라	32020-0-3	피더라
32020-0-4	펴:- (伸)[ㅍ]-으니까	32020-0-4	피닝까
32020-0-5	펴:- (伸)[ㅍ]-아/어(왔/었다)	32020-0-5	펼따
32021-0-1	밝:- (明)[ㄹ]-지	32021-0-1	박지
32021-0-2	밝:- (明)[ㄹ]-고	32021-0-2	박꼬
32021-0-3	밝:- (明)[ㄹ]-더라	32021-0-3	박떠라

32021-0-4 밝-(明)[ㄹ]-으니까	32021-0-4 말그니까
32021-0-5 밝-(明)[ㄹ]-아/어(왔/었다)	32021-0-5 말거따
32022-0-1 삶:-(烹)[ㄹ]-지	32022-0-1 찜:찌
32022-0-2 삶:-(烹)[ㄹ]-고	32022-0-2 찜:꼬
32022-0-3 삶:-(烹)[ㄹ]-더라	32022-0-3 찜:떠라
32022-0-4 삶:-(烹)[ㄹ]-으니까	32022-0-4 쌀무니까
32022-0-5 삶:-(烹)[ㄹ]-아/어(왔/었다)	32022-0-5 쌀먼따
32023-0-1 읊:-(吟)[ㄹ]-지	32023-0-1 읊:찌
32023-0-2 읊:-(吟)[ㄹ]-고	32023-0-2 읊:꼬
32023-0-3 읊:-(吟)[ㄹ]-더라	32023-0-3 읊:더라
32023-0-4 읊:-(吟)[ㄹ]-으니까	32023-0-4 읊:프니까
32023-0-5 읊:-(吟)[ㄹ]-아/어(왔/었다)	32023-0-5 *
32024-0-1 밟:-(踏)[ㄹ]-지	32024-0-1 밟:찌
32024-0-2 밟:-(踏)[ㄹ]-고	32024-0-2 밟:꼬
32024-0-3 밟:-(踏)[ㄹ]-더라	32024-0-3 밟:떠라
32024-0-4 밟:-(踏)[ㄹ]-으니까	32024-0-4 밟:부니~까
32024-0-5 밟:-(踏)[ㄹ]-아/어(왔/었다)	32024-0-5 밟:버따
32025-0-1 하-(爲)[ㅏ 변]-지	32025-0-1 하:지
32025-0-2 하-(爲)[ㅏ 변]-고	32025-0-2 하:고
32025-0-3 하-(爲)[ㅏ 변]-더라	32025-0-3 하:더라
32025-0-4 하-(爲)[ㅏ 변]-으니까	32025-0-4 하:닝까
32025-0-5 하-(爲)[ㅏ 변]-아/어(왔/었다)	32025-0-5 해따
32026-0-1 맺:-(結)[ㅓ]-지	32026-0-1 맺:찌
32026-0-2 맺:-(結)[ㅓ]-고	32026-0-2 맺:꼬
32026-0-3 맺:-(結)[ㅓ]-더라	32026-0-3 맺:더라
32026-0-4 맺:-(結)[ㅓ]-으니까	32026-0-4 매지닝까, 열매를 매닝까(+?조)
32026-0-5 맺:-(結)[ㅓ]-아/어(왔/었다)	32026-0-5 매:니 매지따구라
32027-0-1 없:-(無)[ㅓ]-지	32027-0-1 업:찌
32027-0-2 없:-(無)[ㅓ]-고	32027-0-2 업:꼬
32027-0-3 없:-(無)[ㅓ]-더라	32027-0-3 업:떠라, 읊:떠라
32027-0-4 없:-(無)[ㅓ]-으니까	32027-0-4 업:쓰닝까
32027-0-5 없:-(無)[ㅓ]-아/어(왔/었다)	32027-0-5 업:써따
32028-0-1 앉:-(坐)[ㅓ]-지	32028-0-1 안:찌
32028-0-2 앉:-(坐)[ㅓ]-고	32028-0-2 안:꼬
32028-0-3 앉:-(坐)[ㅓ]-더라	32028-0-3 안:떠라
32028-0-4 앉:-(坐)[ㅓ]-으니까	32028-0-4 안:지닝까

32028-0-5 앉-(坐)[ㅅ]-아/어(앉/었다)	32028-0-5 앉절따
32029-0-1 비비-(刮)[ㅣ]-지	32029-0-1 비비지
32029-0-2 비비-(刮)[ㅣ]-고	32029-0-2 비비고
32029-0-3 비비-(刮)[ㅣ]-더라	32029-0-3 파리가 소늘 비비더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32029-0-4 비비닝까
32029-0-5 비비-(刮)[ㅣ]-아/어(앉/었다)	32029-0-5 비별따
32030-0-1 흐-(消)[ㅡ]-지	32030-0-1 흐:지
32030-0-2 흐-(消)[ㅡ]-고	32030-0-2 흐고
32030-0-3 흐-(消)[ㅡ]-더라	32030-0-3 흐더라
32030-0-4 흐-(消)[ㅡ]-으니까	32030-0-4 흐니~까
32030-0-5 흐-(消)[ㅡ]-아/어(앉/었다)	32030-0-5 부럴 꺾따
32031-0-1 꺾-(折)[ㄱ]-지	32031-0-1 꺾찌
32031-0-2 꺾-(折)[ㄱ]-고	32031-0-2 꺾꼬
32031-0-3 꺾-(折)[ㄱ]-더라	32031-0-3 꺾떠라
32031-0-4 꺾-(折)[ㄱ]-으니까	32031-0-4 꺾끄닝까
32031-0-5 꺾-(折)[ㄱ]-아/어(앉/었다)	32031-0-5 꺾꺼따
32032-0-1 신:-(履)[ㄴ]-지	32032-0-1 신:찌
32032-0-2 신:-(履)[ㄴ]-고	32032-0-2 신:꼬
32032-0-3 신:-(履)[ㄴ]-더라	32032-0-3 신:떠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32032-0-4 신느니까
32032-0-5 신:-(履)[ㄴ]-아/어(앉/었다)	32032-0-5 신너따
32033-0-1 보-(視)[ㅇ]-지	32033-0-1 보지
32033-0-2 보-(視)[ㅇ]-고	32033-0-2 보고
32033-0-3 보-(視)[ㅇ]-더라	32033-0-3 보더라
32033-0-4 보-(視)[ㅇ]-으니까	32033-0-4 보닝까
32033-0-5 보-(視)[ㅇ]-아/어(앉/었다)	32033-0-5 받따
32034-0-1 추-(舞)[ㅈ]-지	32034-0-1 추지
32034-0-2 추-(舞)[ㅈ]-고	32034-0-2 추고
32034-0-3 추-(舞)[ㅈ]-더라	32034-0-3 추더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32034-0-4 추닝까
32034-0-5 추-(舞)[ㅈ]-아/어(앉/었다)	32034-0-5 취따
32035-0-1 피우-(吸煙)[ㅍ]-지	32035-0-1 피우고
32035-0-2 피우-(吸煙)[ㅍ]-고	32035-0-1 피우지
32035-0-3 피우-(吸煙)[ㅍ]-더라	32035-0-3 피우더라
32035-0-4 피우-(吸煙)[ㅍ]-으니까	32035-0-4 피우니~까
32035-0-5 피우-(吸煙)[ㅍ]-아/어(앉/었다)	32035-0-5 피윔따, 피얼따

32036-0-1 서-(立)[ㄱ]-지	32036-0-1 서:지, 스지
32036-0-2 서-(立)[ㄱ]-고	32036-0-2 서고, 스고
32036-0-3 서-(立)[ㄱ]-더라	32036-0-3 서더라, 스더라
32036-0-4 서-(立)[ㄱ]-으니까	32036-0-4 스니까
32036-0-5 서-(立)[ㄱ]-아/어(왔/었다)	32036-0-5 잘선타
32037-0-1 기-(匍腹)[ㅣ]-지	32037-0-1 기:지
32037-0-2 기-(匍腹)[ㅣ]-고	32037-0-2 기:고
32037-0-3 기-(匍腹)[ㅣ]-더라	32037-0-3 기더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32037-0-4 기니까
32037-0-5 기-(匍腹)[ㅣ]-아/어(왔/었다)	32037-0-5 겨따
32038-0-1 이-(戴)[ㅣ]-지	32038-0-1 이:지
32038-0-2 이-(戴)[ㅣ]-고	32038-0-2 이고
32038-0-3 이-(戴)[ㅣ]-더라	32038-0-3 이더라
32038-0-4 이-(戴)[ㅣ]-으니까	32038-0-4 이니까
32038-0-5 이-(戴)[ㅣ]-아/어(왔/었다)	32038-0-5 잘여따
32039-0-1 아니-(否)[ㅣ]-지	32039-0-1 아니지
32039-0-2 아니-(否)[ㅣ]-고	32039-0-2 아니고
32039-0-3 아니-(否)[ㅣ]-더라	32039-0-3 아니더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32039-0-4 아니니까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32039-0-5 아녘따
32040-0-1 되-(升)[ㄴ]-지	32040-0-1 테지
32040-0-2 되-(升)[ㄴ]-고	32040-0-2 테고
32040-0-3 되-(升)[ㄴ]-더라	32040-0-3 테더라
32040-0-4 되-(升)[ㄴ]-으니까	32040-0-4 테니까
32040-0-5 되-(升)[ㄴ]-아/어(왔/었다)	32040-0-5 텔따
32041-0-1 있-(有)[ㅍ]-지	32041-0-1 일찌
32041-0-2 있-(有)[ㅍ]-고	32041-0-2 익꼬
32041-0-3 있-(有)[ㅍ]-더라	32041-0-3 일떠라
32041-0-4 있-(有)[ㅍ]-으니까	32041-0-4 이쓰니까
32041-0-5 있-(有)[ㅍ]-아/어(왔/었다)	32041-0-5 이써따
32042-0-1 놓-(放)[ㅎ]-지	32042-0-1 노치
32042-0-2 놓-(放)[ㅎ]-고	32042-0-2 노코
32042-0-3 놓-(放)[ㅎ]-더라	32042-0-3 노터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32042-0-4 노니까, 노니까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32042-0-5 놔따
32043-0-1 훑-(扱)[ㅈ]-지	32043-0-1 훑찌

32043-0-2 홀-(扱)[ㅅ]-고	32043-0-2 홀꼬
32043-0-3 홀-(扱)[ㅅ]-더라	32043-0-3 홀떠라
32043-0-4 홀-(扱)[ㅅ]-으니까	32043-0-4 홀트니까
32043-0-5 홀-(扱)[ㅅ]-아/어(왔/었다)	32043-0-5 홀터따
32044-0-1 곱:-(麗)[ㅂ 변]-지	32044-0-1 곱:지
32044-0-2 곱:-(麗)[ㅂ 변]-고	32044-0-2 곱꼬
32044-0-3 곱:-(麗)[ㅂ 변]-더라	32044-0-3 곱떠라
32044-0-4 곱:-(麗)[ㅂ 변]-으니까	32044-0-4 곱:닝까
32044-0-5 곱:-(麗)[ㅂ 변]-아/어(왔/었다)	32044-0-5 곱와따
32045-0-1 쥐:-(握)[ㄱ]-지	32045-0-1 쥐:지
32045-0-2 쥐:-(握)[ㄱ]-고	32045-0-2 쥐:고, 지고
32045-0-3 쥐:-(握)[ㄱ]-더라	32045-0-3 지더라
32045-0-4 쥐:-(握)[ㄱ]-으니까	32045-0-4 지닝까
32045-0-5 쥐:-(握)[ㄱ]-아/어(왔/었다)	32045-0-5 저따, 췌따
32046-0-1 가-(去)[ㅈ]-지	32046-0-1 가지
32046-0-2 가-(去)[ㅈ]-고	32046-0-2 가고
32046-0-3 가-(去)[ㅈ]-더라	32046-0-3 가더라
32046-0-4 가-(去)[ㅈ]-으니까	32046-0-4 가닝까
32046-0-5 가-(去)[ㅈ]-아/어(왔/었다)	32046-0-5 가따

### 3.1.2. 일반 항목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32047-0-1 먹꼬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47-0-2 머거서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32048-0-1 뜯꼬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48-0-2 뜨더서
32049-0-1 같-(如)-지, -고, -더라	32049-0-1 각꼬
32049-0-2 같-(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49-0-2 가터서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32050-0-1 약꼬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0-0-2 야터서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32051-0-1 흩꼬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1-0-2 흐터서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32052-0-1 날:고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2-0-2 날러서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32053-0-1 울:고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3-0-2 우러서



32054-0-1 일:-(洵)-지, -고, -더라	32054-0-1 일:고
32054-0-2 일:-(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4-0-2 이려서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32055-0-1 얼:고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5-0-2 어려서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32056-0-1 녕:꼬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6-0-2 너머서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32057-0-1 숨꼬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7-0-2 수머서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32058-0-1 식꼬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8-0-2 시:워서, 시어서
32059-0-1 눅:-(臥)-지, -고, -더라	32059-0-1 눅꼬
32059-0-2 눅:-(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9-0-2 누워서
32060-0-1 김:-(縫)-지, -고, -더라	32060-0-1 각꼬, 김꼬
32060-0-2 김:-(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0-0-2 겨:서, 기워서
32061-0-1 밭:-(憎)-지, -고, -더라	32061-0-1 미꼬
32061-0-2 밭:-(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1-0-2 미워서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32062-0-1 눅꼬, 눅꼬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2-0-2 노파서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32063-0-1 직고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3-0-2 저:서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32064-0-1 북꼬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4-0-2 뵈:서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32065-0-1 운꼬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5-0-2 우서서
32066-0-1 짓:-(吠)-지, -고, -더라	32066-0-1 직꼬
32066-0-2 짓:-(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6-0-2 지서서
32067-0-1 꽃:-(插)-지, -고, -더라	32067-0-1 꼭꼬
32067-0-2 꽃:-(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7-0-2 꼬바서
32068-0-1 낳:-(産)-지, -고, -더라	32068-0-1 얘기를 라코
32068-0-2 낳:-(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8-0-2 나서
32069-0-1 땅:-(辯)-지, -고, -더라	32069-0-1 딱고
32069-0-2 땅:-(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9-0-2 따:서
32070-0-1 끊:-(切)-지, -고, -더라	32070-0-1 끄꼬
32070-0-2 끊:-(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70-0-2 끄너서
32071-0-1 괜:-(無妨)-지, -고, -더라	32071-0-1 괜창코
32071-0-2 괜:-(無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71-0-2 괜차내서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32072-0-1 일꼬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72-0-2 일거서
32073-0-1 뿔-(漣)-지, -고, -더라	32073-0-1 뿔:꼬
32073-0-2 뿔-(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73-0-2 뿔:버서
32074-0-1 옮-(遷)-지, -고, -더라	32074-0-1 옮:꼬
32074-0-2 옮-(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74-0-2 올마서
32075-0-1 뚫-(貫)-지, -고, -더라	32075-0-1 뜰꼬
32075-0-2 뚫-(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75-0-2 뜨러서
32076-0-1 꿇-(跪)-지, -고, -더라	32076-0-1 꿇꼬
32076-0-2 꿇-(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76-0-2 꾸러서
32077-0-1 닳-(抗 연필 심이)-지, -고, -더라	32077-0-1 달꼬
32077-0-2 닳-(抗 연필 심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77-0-2 다러서
32078-0-1 닳-(煎 술에서 장이)-지, -고, -더라	32078-0-1 달:꼬
32078-0-2 닳-(煎 술에서 장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78-0-2 다러서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32079-0-1 짜고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79-0-2 짜:서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32080-0-1 말:꼬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0-0-2 마러서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32081-0-1 쓰고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1-0-2 써서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32082-0-1 오르꼬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2-0-2 올라서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32083-0-1 바뿌꼬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3-0-2 밥빠서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32084-0-1 고푸꼬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4-0-2 고파서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32085-0-1 쏘고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5-0-2 쏙:서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32086-0-1 꾸고, 꾸구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6-0-2 꺾서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32087-0-1 머물루고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7-0-2 머물러서, 멈무러서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32088-0-1 다듬꼬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8-0-2 다드머서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32089-0-1 견디고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9-0-2 견더서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32090-0-1 말리고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0-0-2 말려서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32091-0-1 끼고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1-0-2 끼서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32092-0-1 마시고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2-0-2 마셔서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32093-0-1 세고, 세고, 심 씨고, 히미세고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3-0-2 셔서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32094-0-1 포개고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4-0-2 포개서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32095-0-1 두드리고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5-0-2 두드리서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32096-0-1 키고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6-0-2 켜서
32097-0-1 쉼:-(바람을)-지, -고, -더라	32097-0-1 켜고, 켜고
32097-0-2 쉼:-(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7-0-2 쉼:서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32098-0-1 시고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8-0-2 셔서
32099-0-1 쉬:-(饅)-지, -고, -더라	32099-0-1 쉬고
32099-0-2 쉬:-(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9-0-2 셔:서
32100-0-1 희-(白)-지, -고, -더라	32100-0-1 시고
32100-0-2 희-(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0-0-2 셔서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32101-0-1 볶고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1-0-2 보까서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32102-0-1 양:꼬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2-0-2 아:너서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32103-0-1 묵꼬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3-0-2 무더서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32104-0-1 불:고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4-0-2 부러서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32105-0-1 빨:고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5-0-2 빠러서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32106-0-1 죽꼬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6-0-2 주거서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32107-0-1 격꼬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7-0-2 거러서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32108-0-1 가물고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8-0-2 가무리서, 가무리서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32109-0-1 졸:고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9-0-2 조라서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32110-0-1 쓸고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0-0-2 쓰러서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32111-0-1 강:꼬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1-0-2 가머서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32112-0-1 더둥꾸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2-0-2 더드머서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32113-0-1 국꼬, 국꾸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3-0-2 귀:서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32114-0-1 무걱꼬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4-0-2 무거서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sup>3</sup>	2115-0-1 익꼬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5-0-2 이어서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32116-0-1 빅꼬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6-0-2 비서서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32117-0-1 꺼먹꼬, 꺼꼬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7-0-2 꺼머서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32118-0-1 늑꼬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8-0-2 너어서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32119-0-1 곡꼬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9-0-2 과서
32120-0-1 얹-(載)-지, -고, -더라	32120-0-1 엉꼬
32120-0-2 얹-(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0-0-2 언저서
32121-0-1 귀찮-(囑)-지, -고, -더라	32121-0-1 귀창코
32121-0-2 귀찮-(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1-0-2 귀차내서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32122-0-1 발르고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2-0-2 발러서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32123-0-1 막꼬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3-0-2 말거서
32124-0-1 굵-(膿)-지, -고, -더라	32124-0-1 곶:꼬
32124-0-2 굵-(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4-0-2 골마서
32125-0-1 굵-(太)-지, -고, -더라	32125-0-1 국꼬
32125-0-2 굵-(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5-0-2 굴거서

32126-0-1	옅:- (薄)-지, -고, -더라	32126-0-1	으ㅡ르:꼬, 열꼬
32126-0-2	옅:- (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6-0-2	으ㅡ르버서, 열버서
32127-0-1	쑤-(春)-지, -고, -더라	32127-0-1	실코
32127-0-2	쑤-(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7-0-2	시러서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32128-0-1	일코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8-0-2	이러서
32129-0-1	핥-(舐)-지, -고, -더라	32129-0-1	할코
32129-0-2	핥-(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9-0-2	할터서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32130-0-1	짧꼬, 짹꼬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0-0-2	짧버서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32131-0-1	놀래고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1-0-2	놀래서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32132-0-1	자고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2-0-2	자서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32133-0-1	모타고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3-0-2	모태서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32134-0-1	몰르고
32134-0-2	모르-(不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4-0-2	몰라서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32135-0-1	아푸고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5-0-2	아퍼서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32136-0-1	크고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6-0-2	커서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32137-0-1	꼬:고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7-0-2	파:서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32138-0-1	쭈고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8-0-2	쭈:서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32139-0-1	마추고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9-0-2	마춰서
32140-0-1	테우-(燂)-지, -고, -더라	32140-0-1	테우고
32140-0-2	테우-(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0-0-2	테워서
32141-0-1	이:- (盞, 지붕을)-지, -고, -더라	32141-0-1	이:고
32141-0-2	이:- (盞,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1-0-2	여:서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32142-0-1	갈기고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2-0-2	갈겨서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32143-0-1	기다리고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3-0-2	기다려서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32144-0-1 세:고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4-0-2 셔:서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32145-0-1 빼고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5-0-2 빼:서
32146-0-1 켜-(搥을)-지, -고, -더라	32146-0-1 키고
32146-0-2 켜-(搥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6-0-2 켜서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32147-0-1 테:고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7-0-2 테:서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32148-0-1 쉬:고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8-0-2 셔:서
32149-0-1 할퀴-(搔)-지, -고, -더라	32149-0-1 할키고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9-0-2 할켜서
32150-0-1 눈:-(燠)-지, -고, -더라	32150-0-1 놀꼬
32150-0-2 눈:-(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0-0-2 누리서
32151-0-1 깨달-(覺)-지, -고, -더라	32151-0-1 깨달꼬
32151-0-2 깨달-(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1-0-2 깨다려서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32152-0-1 마리고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2-0-2 마려서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32153-0-1 부꾸리꼬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3-0-2 부꾸려서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32154-0-1 가까꼬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4-0-2 가까워서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32155-0-1 기꼬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5-0-2 기퍼서
32156-0-1 긋:-(劃)-지, -고, -더라	32156-0-1 극꼬
32156-0-2 긋:-(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6-0-2 그어서, 그쳐서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32157-0-1 씹꼬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7-0-2 씹서서
32158-0-1 쫓-(搗)-지, -고, -더라	32158-0-1 찌꼬
32158-0-2 쫓-(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8-0-2 찌:서
32159-0-1 감-(搔)-지, -고, -더라	32159-0-1 각꼬, 갈그고
32159-0-2 감-(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9-0-2 갈가서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32160-0-1 궁:꼬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0-0-2 굴머서
32161-0-1 닮:-(似)-지, -고, -더라	32161-0-1 당:꾸
32161-0-2 닮:-(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1-0-2 달머서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32162-0-1	싫:코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2-0-2	싫:서
32163-0-1	끓-(𩪖)-지, -고, -더라	32163-0-1	끓:코
32163-0-2	끓-(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3-0-2	끓:서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32164-0-1	붓:코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4-0-2	붓:서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32165-0-1	타고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5-0-2	타서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32166-0-1	말르고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6-0-2	말려서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32167-0-1	쓰고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7-0-2	써서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32168-0-1	슬푸고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8-0-2	슬퍼서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32169-0-1	기뿌고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9-0-2	기뻐서
32170-0-1	쏘-(蜚, 벌이)-지, -고, -더라	32170-0-1	쏘고
32170-0-2	쏘-(蜚, 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0-0-2	썩:서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32171-0-1	주고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1-0-2	줘서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32172-0-1	키우고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2-0-2	키워서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32173-0-1	가두고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3-0-2	가둬서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32174-0-1	부시고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4-0-2	부셔서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32175-0-1	나누고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5-0-2	나눠서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32176-0-1	소기고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6-0-2	소겨서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32177-0-1	끼:코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7-0-2	껴:서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32178-0-1	티고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8-0-2	터:서
32179-0-1	괴:-(淳)-지, -고, -더라	32179-0-1	고이코
32179-0-2	괴:-(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9-0-2	고여서

32180-0-1	여위-(羶)-지, -고, -더라	32180-0-1	야우고
32180-0-2	여위-(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0-0-2	야워서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32181-0-1	매오꼬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1-0-2	매워서
32182-0-1	뀌:-(屁)-지, -고, -더라	32182-0-1	끼고
32182-0-2	뀌:-(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2-0-2	껴:서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32183-0-1	고치고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3-0-2	고쳐서
32184-0-1	싣:-(載)-지, -고, -더라	32184-0-1	싣:코
32184-0-2	싣:-(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4-0-2	시러서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32185-0-1	억:꼬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5-0-2	어더서
32186-0-1	빻-(粉碎)-지, -고, -더라	32186-0-1	빻구고
32186-0-2	빻-(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6-0-2	빻귀서
32187-0-1	파랑-(碧)-지, -고, -더라	32187-0-1	파라코
32187-0-2	파랑-(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7-0-2	파래서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32188-0-1	달르고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8-0-2	달뒹서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32189-0-1	푸고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9-0-2	퍼:서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32190-0-1	누코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0-0-2	뉘서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32191-0-1	드롭꼬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1-0-2	드:러워서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32192-0-1	거두고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2-0-2	거뒹서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32193-0-1	끓꼬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3-0-2	끄러서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32194-0-1	이기고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4-0-2	이겨서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32195-0-1	부시고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5-0-2	부셔서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32196-0-1	자빠지고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6-0-2	자빠져서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32197-0-1	이르키고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7-0-2	이르켜서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32198-0-1 당기고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8-0-2 당겨서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32199-0-1 버리고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9-0-2 버려서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32200-0-1 훔치고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0-0-2 훔쳐서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32201-0-1 지고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1-0-2 저:서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32202-0-1 예고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2-0-2 예워서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32203-0-1 사기고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3-0-2 사겨서
32204-0-1 썩-(腐)-지, -고, -더라	32204-0-1 썩꼬
32204-0-2 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4-0-2 썩겨서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32205-0-1 질:고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5-0-2 지러서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32206-0-1 까불고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6-0-2 까부러서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32207-0-1 드물고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7-0-2 드므러서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32208-0-1 줄고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8-0-2 주러서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32209-0-1 상:꼬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9-0-2 시머서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32210-0-1 쓰다듬꼬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0-0-2 쓰다드머서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32211-0-1 싸나고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1-0-2 싸나워서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32212-0-1 가볍꼬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2-0-2 가벼워서
32213-0-1 젓:-(撈)-지, -고, -더라	32213-0-1 저꼬
32213-0-2 젓:-(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3-0-2 저어서, 저서서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32214-0-1 두꺼꼬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4-0-2 두꺼워서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32215-0-1 물르고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5-0-2 물러서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32216-0-1 분지리고, 분질고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6-0-2 분지려서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32217-0-1 배오구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7-0-2 배워서
32218-0-1 다리-(熨)-지, -고, -더라	32218-0-1 대리고, 다리고
32218-0-2 다리-(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8-0-2 다려서, 대려서
32219-0-1 후비-(窆, 귀를)-지, -고, -더라	32219-0-1 후비고
32219-0-2 후비-(窆, 귀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19-0-2 후벼서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32220-0-1 아:리고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0-0-2 아:려서
32221-0-1 그리-(畫)-지, -고, -더라	32221-0-1 그리고
32221-0-2 그리-(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1-0-2 그려서
32222-0-1 저리-(癡)-지, -고, -더라	32222-0-1 절리고
32222-0-2 저리-(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2-0-2 절려서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32223-0-1 불리고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3-0-2 불려서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32224-0-1 뜨십꼬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4-0-2 뜨셔서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32225-0-1 꼬리고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5-0-2 꼬려서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32226-0-1 니비고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6-0-2 니벼서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32227-0-1 꾸기고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7-0-2 꾸겨서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32228-0-1 비:고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8-0-2 벼:서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32229-0-1 시키고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9-0-2 시켜서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32230-0-1 매:고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0-0-2 매:서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32231-0-1 매:고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1-0-2 매:서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32232-0-1 뛰고(+단모음 '위')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2-0-2 떠서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32233-0-1 당꼬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3-0-2 다머서

32234-0-1 가렴-(癢)-지, -고, -더라	32234-0-1 개릭꼬
32234-0-2 가렴-(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4-0-2 개려워서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32235-0-1 때리고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5-0-2 때려서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32236-0-1 어둡꼬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6-0-2 어둡서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32237-0-1 작꼬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7-0-2 자버서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3	2238-0-1 차고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8-0-2 차서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32239-0-1 모지라고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9-0-2 모지래서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32240-0-1 블루구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0-0-2 불러서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32241-0-1 따르고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1-0-2 따러서
32242-0-1 쪼:- (啄)-지, -고, -더라	32242-0-1 족꼬
32242-0-2 쪼:- (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2-0-2 조아서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32243-0-1 두고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3-0-2 뒹서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32244-0-1 시키고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4-0-2 시켜서
32245-0-1 지라-(漏, 오줌을)-지, -고, -더라	32245-0-1 지리고
32245-0-2 지라-(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5-0-2 지려서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32246-0-1 던지고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6-0-2 던져서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32247-0-1 모이고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7-0-2 모여서
32248-0-1 만지-(搦)-지, -고, -더라	32248-0-1 만지고
32248-0-2 만지-(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8-0-2 만져서
32249-0-1 쪼:- (囓)-지, -고, -더라	32249-0-1 켜:고
32249-0-2 쪼:- (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9-0-2 켜:서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32250-0-1 비틀고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0-0-2 비트러서
32251-0-1 돕:- (助)-지, -고, -더라	32251-0-1 돕꼬, 독꼬
32251-0-2 돕:- (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1-0-2 도와서

32252-0-1 씹-(咀)-지, -고, -더라	32252-0-1 씹꼬
32252-0-2 씹-(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2-0-2 씹버서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32253-0-1 미끄러꼬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3-0-2 미끄러서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32254-0-1 닥꼬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4-0-2 다:서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32255-0-1 눌러꼬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5-0-2 눌러서
32256-0-1 주무르-(揉)-지, -고, -더라	32256-0-1 주물르꼬
32256-0-2 주무르-(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6-0-2 주물러서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32257-0-1 미:꼬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7-0-2 며:서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32258-0-1 꼬숙꼬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8-0-2 꼬좌서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32259-0-1 네리고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9-0-2 내려서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32260-0-1 굴르꼬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0-0-2 굴러서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32261-0-1 맨들꼬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1-0-2 맨드러서
32262-0-1 늙-(老)-지, -고, -더라	32262-0-1 늑꼬
32262-0-2 늙-(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2-0-2 늑거서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32263-0-1 알꼬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3-0-2 아러서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32264-0-1 딸고, 따르꼬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4-0-2 따러서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32265-0-1 사고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5-0-2 사서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32266-0-1 치:꼬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6-0-2 처:서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32267-0-1 뿌러지꼬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7-0-2 뿌러져서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32268-0-1 다치꼬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8-0-2 다쳐서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32269-0-1 느리고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9-0-2 느려서

32270-0-1 무치-(和,나물을)-지, -고, -더라	32270-0-1 무치고
32270-0-2 무치-(和,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0-0-2 무쳐서
32271-0-1 죄:-(縮)-지, -고, -더라	32271-0-1 죄이고
32271-0-2 죄:-(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1-0-2 죄여서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32272-0-1 팔:고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2-0-2 팔러서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32273-0-1 뽑꼬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3-0-2 뽑바서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32274-0-1 디지고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4-0-2 디저서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32275-0-1 마추고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5-0-2 마춰서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32276-0-1 저리고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6-0-2 저려서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32277-0-1 히:고, 쉬:고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7-0-2 셔:서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32278-0-1 죽꼬
32278-0-2 줍:-(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8-0-2 주워서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32279-0-1 뺏꼬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9-0-2 빼서서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32280-0-1 기울고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0-0-2 기우러서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32281-0-1 아깝꼬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1-0-2 아까워서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32282-0-1 방각꼬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2-0-2 방가워서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32283-0-1 찌:고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3-0-2 찌:서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32284-0-1 노리고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4-0-2 노려서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32285-0-1 푸리고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5-0-2 푸려서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32286-0-1 서들고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6-0-2 서드러서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32287-0-1 스텔고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7-0-2 스트러서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32288-0-1 게을르고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88-0-2 게을러서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32289-0-1 따따다고, 뜨뜨다고, 따습꼬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89-0-2 따따대서, 뜨뜨대서, 따썩서
32290-0-1 춥-(寒)-지, -고, -더라	32290-0-1 축꼬
32290-0-2 춥-(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90-0-2 춹:서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32291-0-1 뜨겁꼬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91-0-2 뜨거워서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32292-0-1 미지그나고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92-0-2 미지그내서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32293-0-1 차구꼬, 차고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93-0-2 차거워서, 차서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32294-0-1 북꼬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94-0-2 불거워서
32295-0-1 알밋-(憎)-지, -고, -더라	32295-0-1 알미우꼬
32295-0-2 알밋-(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95-0-2 알미워서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32296-0-1 비스다고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96-0-2 비스대서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32297-0-1 *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97-0-2 *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32298-0-1 서럭꼬, 스�럭꼬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98-0-2 서러워서, 스러워서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32299-0-1 까다라오꼬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99-0-2 까다라워서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32300-0-1 예로꼬, 예로오꼬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0-0-2 예로워서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32301-0-1 아시우꼬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1-0-2 아시워서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32302-0-1 단다나고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2-0-2 단다내서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32303-0-1 늑꼬
32303-0-2 늦-(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3-0-2 느저서
32304-0-1 남:- (餘)-지, -고, -더라	32304-0-1 낭꼬
32304-0-2 남:- (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4-0-2 나머서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32305-0-1 냉:기고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5-0-2 냉:겨서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32306-0-1 너머티리고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6-0-2 너머티려서
32307-0-1 꾸그러뜨리-(使𪗇)-지, -고, -더라	32307-0-1 꾸부르티리고
32307-0-2 꾸그러뜨리-(使𪗇)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7-0-2 꾸부르티려서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32308-0-1 저누고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8-0-2 저눠서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32309-0-1 에우구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9-0-2 에워서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32310-0-1 문지르고, 문질르고(+‘비비다’는 제자리에서 하는 것)
32310-0-2 문지르-(摩)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0-0-2 문질러서, 문지려서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32311-0-1 가르치고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1-0-2 가르쳐서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32312-0-1 갈키고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2-0-2 갈켜서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32313-0-1 고누고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3-0-2 고놉서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32314-0-1 고누고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4-0-2 고놉서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32315-0-1 달래고, 달개고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5-0-2 달래서, 달개서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32316-0-1 번보고
32316-0-2 본받-(效)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6-0-2 번바서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32317-0-1 어질고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7-0-2 어지려서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32318-0-1 달리고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8-0-2 달려서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32319-0-1 우기고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9-0-2 우겨서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32320-0-1 중얼그리고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0-0-2 중얼그려서
32321-0-1 지껄이-(騷)-지, -고, -더라	32321-0-1 지끄리고
32321-0-2 지껄이-(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1-0-2 지끄려서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32322-0-1 다니고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2-0-2 다녀서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32323-0-1 떠러티리고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3-0-2 떠러티려서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32324-0-1 깨:고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4-0-2 깨:서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32325-0-1 시고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5-0-2 셔:서
32326-0-1 솟-(湧)-지, -고, -더라	32326-0-1 소꼬
32326-0-2 솟-(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6-0-2 소사서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32327-0-1 조코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7-0-2 조아서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32328-0-1 빨가코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8-0-2 빨개서
32329-0-1 끝:-(曳)-지, -고, -더라	32329-0-1 끝코
32329-0-2 끝:-(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9-0-2 끄러서
32330-0-1 얇:-(薄)-지, -고, -더라	32330-0-1 (+'32126 얇:-'과 같은 항목)
32330-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30-0-2 (+'32126 얇:-'과 같은 항목)
32331-0-1 하얗-(白)-지, -고, -더라	32331-0-1 하야코
32331-0-2 하얗-(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31-0-2 하야내서

###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32332-0-1 구기
32332-0-2 국(羹)-을/를	32332-0-2 구글
32332-0-3 국(羹)-에(서)	32332-0-3 구게
32332-0-4 국(羹)-으로	32332-0-4 구그로
32332-0-5 국(羹)-도	32332-0-5 국또
32333-0-1 논(沍)-이/가	32333-0-1 노니
32333-0-2 논(沍)-을/를	32333-0-2 노늘
32333-0-3 논(沍)-에(서)	32333-0-3 노네
32333-0-4 논(沍)-으로	32333-0-4 노느로, 노니로
32333-0-5 논(沍)-도	32333-0-5 논도
32334-0-1 쌀(米)-이/가	32334-0-1 싸리
32334-0-2 쌀(米)-을/를	32334-0-2 싸를
32334-0-3 쌀(米)-에(서)	32334-0-3 싸레
32334-0-4 쌀(米)-으로	32334-0-4 쌀로
32334-0-5 쌀(米)-도	32334-0-5 쌀도
32335-0-1 봄(春)-이/가	32335-0-1 보미



32335-0-2 봄(春)-을/를  
 32335-0-3 봄(春)-에(서)  
 32335-0-4 봄(春)-으로  
 32335-0-5 봄(春)-도  
 32336-0-1 집(家)-이/가  
 32336-0-2 집(家)-을/를  
 32336-0-3 집(家)-에(서)  
 32336-0-4 집(家)-으로  
 32336-0-5 집(家)-도  
 32337-0-1 옷(衣)-이/가  
 32337-0-2 옷(衣)-을/를  
 32337-0-3 옷(衣)-에(서)  
 32337-0-4 옷(衣)-으로  
 32337-0-5 옷(衣)-도  
 32338-0-1 방(房)-이/가  
 32338-0-2 방(房)-을/를  
 32338-0-3 방(房)-에(서)  
 32338-0-4 방(房)-으로  
 32338-0-5 방(房)-도  
 32339-0-1 낮(晝)-이/가  
 32339-0-2 낮(晝)-을/를  
 32339-0-3 낮(晝)-에(서)  
 32339-0-4 낮(晝)-으로  
 32339-0-5 낮(晝)-도  
 32340-0-1 낮(顔)-이/가  
 32340-0-2 낮(顔)-을/를  
 32340-0-3 낮(顔)-에(서)  
 32340-0-4 낮(顔)-으로  
 32340-0-5 낮(顔)-도  
 32341-0-1 부엌(廚)-이/가  
 32341-0-2 부엌(廚)-을/를  
 32341-0-3 부엌(廚)-에(서)  
 32341-0-4 부엌(廚)-으로  
 32341-0-5 부엌(廚)-도  
 32342-0-1 밭(田)-이/가  
 32342-0-2 밭(田)-을/를  
 32342-0-3 밭(田)-에(서)

32335-0-2 보믈  
 32335-0-3 보미  
 32335-0-4 보브로  
 32335-0-5 봄도  
 32336-0-1 지비  
 32336-0-2 지블  
 32336-0-3 지배  
 32336-0-4 지브로  
 32336-0-5 집또  
 32337-0-1 오시  
 32337-0-2 오슬  
 32337-0-3 오:테, 오시  
 32337-0-4 오스로  
 32337-0-5 온또  
 32338-0-1 방이  
 32338-0-2 방을  
 32338-0-3 방에  
 32338-0-4 방으로  
 32338-0-5 방도  
 32339-0-1 나시  
 32339-0-2 나슬  
 32339-0-3 나지 해라  
 32339-0-4 나지로  
 32339-0-5 난또  
 32340-0-1 나시  
 32340-0-2 나슬  
 32340-0-3 나세  
 32340-0-4 나스로  
 32340-0-5 난또  
 32341-0-1 뷔:기  
 32341-0-2 버글  
 32341-0-3 부어케, 뷔:게 가서가주와 그라지  
 32341-0-4 뷔:크로  
 32341-0-5 뷔또  
 32342-0-1 마티  
 32342-0-2 마슬  
 32342-0-3 마테

32342-0-4 밭(田)-으로  
 32342-0-5 밭(田)-도  
 32343-0-1 앞(前)-이/가  
 32343-0-2 앞(前)-을/를  
 32343-0-3 앞(前)-에(서)  
 32343-0-4 앞(前)-으로  
 32343-0-5 앞(前)-도  
 32344-0-1 녀(魂)-이/가  
 32344-0-2 녀(魂)-을/를  
 32344-0-3 녀(魂)-에(서)  
 32344-0-4 녀(魂)-으로  
 32344-0-5 녀(魂)-도  
 32345-0-1 흙(土)-이/가  
 32345-0-2 흙(土)-을/를  
 32345-0-3 흙(土)-에(서)  
 32345-0-4 흙(土)-으로  
 32345-0-5 흙(土)-도  
 32346-0-1 여덟(八)-이/가  
 32346-0-2 여덟(八)-을/를  
 32346-0-3 여덟(八)-에(서)  
 32346-0-4 여덟(八)-으로  
 32346-0-5 여덟(八)-도  
 32347-0-1 돌(週歲)-이/가  
 32347-0-2 돌(週歲)-을/를  
 32347-0-3 돌(週歲)-에(서)  
 32347-0-4 돌(週歲)-으로  
 32347-0-5 돌(週歲)-도  
 32348-0-1 값(價)-이/가  
 32348-0-2 값(價)-을/를  
 32348-0-3 값(價)-에(서)  
 32348-0-4 값(價)-으로  
 32348-0-5 값(價)-도  
 32349-0-1 속:(內)-이/가  
 32349-0-2 속:(內)-을/를  
 32349-0-3 속:(內)-에(서)  
 32349-0-4 속:(內)-으로  
 32349-0-5 속:(內)-도

32342-0-4 바트로, 바티로 지나댕겨  
 32342-0-5 받또  
 32343-0-1 아피  
 32343-0-2 아블  
 32343-0-3 아페  
 32343-0-4 아프로 가  
 32343-0-5 압또  
 32344-0-1 너기  
 32344-0-2 너글 쪽빠가씨  
 32344-0-3 너기  
 32344-0-4 그런 너그로  
 32344-0-5 녀또  
 32345-0-1 호기  
 32345-0-2 호글 가꼬  
 32345-0-3 호게서  
 32345-0-4 호그로  
 32345-0-5 흑또  
 32346-0-1 여더리  
 32346-0-2 여더를  
 32346-0-3 여더레  
 32346-0-4 \*  
 32346-0-5 여덜도  
 32347-0-1 도리  
 32347-0-2 도를  
 32347-0-3 도리  
 32347-0-4 \*  
 32347-0-5 \*  
 32348-0-1 갑씨  
 32348-0-2 가블, 갑쓸 처  
 32348-0-3 이 갑씨 쥐, 이 가비 쥐도 갠찬냐  
 32348-0-4 이 갑쓰로  
 32348-0-5 갑또 비싸다 머, 갑씨도  
 32349-0-1 소기  
 32349-0-2 소글 끄려따  
 32349-0-3 소게 너라  
 32349-0-4 소그로 생가개라  
 32349-0-5 속또 조타

32350-0-1 돈:(錢)-이/가

32350-0-2 돈:(錢)-을/를

32350-0-3 돈:(錢)-에(서)

32350-0-4 돈:(錢)-으로

32350-0-5 돈:(錢)-도

32351-0-1 발(足)-이/가

32351-0-2 발(足)-을/를

32351-0-3 발(足)-에(서)

32351-0-4 발(足)-으로

32351-0-5 발(足)-도

32352-0-1 짐(荷物)-이/가

32352-0-2 짐(荷物)-을/를

32352-0-3 짐(荷物)-에(서)

32352-0-4 짐(荷物)-으로

32352-0-5 짐(荷物)-도

32353-0-1 입(口)-이/가

32353-0-2 입(口)-을/를

32353-0-3 입(口)-에(서)

32353-0-4 입(口)-으로

32353-0-5 입(口)-도

32354-0-1 낫(鎌)-이/가

32354-0-2 낫(鎌)-을/를

32354-0-3 낫(鎌)-에(서)

32354-0-4 낫(鎌)-으로

32354-0-5 낫(鎌)-도

32355-0-1 강(江)-이/가

32355-0-2 강(江)-을/를

32355-0-3 강(江)-에(서)

32355-0-4 강(江)-으로

32355-0-5 강(江)-도

32356-0-1 젖(乳)-이/가

32356-0-2 젖(乳)-을/를

32356-0-3 젖(乳)-에(서)

32356-0-4 젖(乳)-으로

32356-0-5 젖(乳)-도

32357-0-1 꽃(花)-이/가

32357-0-2 꽃(花)-을/를

32350-0-1 도니

32350-0-2 도늘 자주구와라

32350-0-3 도네

32350-0-4 도느로

32350-0-5 돈도 조치만

32351-0-1 바리

32351-0-2 바를

32351-0-3 바리

32351-0-4 발로 차따구라지

32351-0-5 발도

32352-0-1 지미

32352-0-2 지물 치워라

32352-0-3 그 지메, 지미다가 더 너

32352-0-4 지므로

32352-0-5 짐도

32353-0-1 이비

32353-0-2 이블

32353-0-3 이베

32353-0-4 이비로

32353-0-5 입뚜 이뿌고

32354-0-1 나시

32354-0-2 나슬

32354-0-3 나시

32354-0-4 나스로, 나시로 할 때머

32354-0-5 날또 같고

32355-0-1 강이 읍써

32355-0-2 저 강을 바라바라

32355-0-3 강에

32355-0-4 강으로 왜 가, 빨래할라든 강이로 가고

32355-0-5 강도

32356-0-1 저시 아푸다

32356-0-2 저슬 먹찌

32356-0-3 저시

32356-0-4 저스로 애기를 메겨라

32356-0-5 저또 아프고

32357-0-1 꼬시

32357-0-2 꼬설 꺾찌 마라

32357-0-3 꼬시 나비가 안저따

32357-0-4 꼬스로

32357-0-5 봄 데 먼 끝 또 피고

32358-0-1 파시

32358-0-2 파설 쌀머라

32358-0-3 파시 벌레 생겨써

32358-0-4 파스로

32358-0-5 팔뚝 느코

32359-0-1 여피 조아

32359-0-2 여블, 여플

32359-0-3 여 폐

32359-0-4 여프로 와라

32359-0-5 압또 모뽀고 엽또 모뽀고

32360-0-1 품싸기 즉따

32360-0-2 품싸글 올려달라고

32360-0-3 품싸게

32360-0-4 품싸그로

32360-0-5 품삭또

32361-0-1 저 다기 와따가따한다고

32361-0-2 다클

32361-0-3 다게 너

32361-0-4 다그로

32361-0-5 닥또

32362-0-1 바깥가(+밖)만 홀로 쓰는 것은 어색하고  
'밖'으로 쓰임)

32362-0-2 바깥을 내다 바(+‘밖’만 홀로 쓰는 것은  
어색하고 ‘밖에’로 쓰임)

32362-0-3 바께

32362-0-4 바깥(‘밖’)만 홀로 쓰는 것은 어색하고  
(‘밖에’로 쓰임)

32362-0-5 바끼도(+밖)만 홀로 쓰는 것은 어색하고  
'밖에'로 쓰임)

$$= 3 \text{ ㄱ ㅍ } (+ \text{ ㄱ ㅍ })$$

=3 글거서(+굽어서)



## 제4편 문 법

### 4.1. 대명사

####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40101 나
40101-0-1 내-가	40101-0-1 내가
40101-0-2 내	40101-0-2 내
40101-0-3 나-를	40101-0-3 나를
40101-0-4 나-에게	40101-0-4 나를, 나한테, 나한테
40101-0-5 나-와	40101-0-5 나랑, 나하고
40101-0-6 나-는	40101-0-6 나는
40101-0-7 나-도	40101-0-7 나도
40102 저/제-가	40102 제가
40102-0-1 저-가	40102-0-1 제가
40102-0-2 저-의	40102-0-2 제
40102-0-3 저-을/를	40102-0-3 저를
40102-0-4 저-에게	40102-0-4 저에게
40102-0-5 저-와/과	40102-0-5 저하고, 저랑
40102-0-6 저-는	40102-0-6 저는
40102-0-7 저-도	40102-0-7 저도
40103 우리	40103 우리
40104 저희	40104 저에(+저혜)
40105 너	40105 너
40105-0-1 -가	40105-0-1 니가
40105-0-2 -의	40105-0-2 네
40105-0-3 -을/를	40105-0-3 너를
40105-0-4 -에게	40105-0-4 너한테
40105-0-5 -와/과	40105-0-5 너랑
40105-0-6 -는	40105-0-6 너는
40105-0-7 -도	40105-0-7 너도
40106 자네	40106 자네

40107 당신  
40108 너희  
40109 개  
40109-1 애  
40109-2 재  
40110 자기  
40111 당신

40107 당시니  
40108 느이, 느  
40109 가가, 가  
40109-1 야  
40109-2 자랑  
40110 제  
40111 당신

####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의  
40112-0-3 누구-를  
40112-0-4 누구-에게  
40112-0-5 누구-와  
40113 무엇-이냐/입니까  
40113-0-1 무엇-이  
40113-0-2 무슨  
40113-0-3 무엇-을  
40113-0-4 무엇-과

40112 누구세요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  
40112-0-3 누구를  
40112-0-4 누구완티(+한테)  
40112-0-5 누구랑  
40113 뭐냐, 무예요  
40113-0-1 머가  
40113-0-2 뭐, 뭘, 무슨  
40113-0-3 뭐를, 뭘, 뭐  
40113-0-4 뭐하고

#### 4.1.3. 그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40115 언제  
40116 어느  
40117 왜  
40118 얼마나  
40119 어떻게

40114 어디를, 오딜  
40115 언제  
40116 어느  
40117 왜  
40118 얼마나  
40119 어트게

####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40121 그것

40120 이거, 이건(+‘이것’의 비음화)  
40121 그거

40122 저것  
40123 여기  
40124 거기  
40125 저기  
40126 이리  
40127 그리  
40128 저리

40122 저거  
40123 여기  
40124 거기  
40125 저기  
40126 이루, 일루  
40127 글루  
40128 저리

## 4.2. 조사

### 4.2.1. 격조사

40201 -이/가  
40202 -이/가  
40203 -을/를  
40204 -을/를  
40205 -에 게/게  
40206 -보고/더러  
40207 -보고/더러  
40208 -에  
40209 -에  
40210 -에서  
40211 -에서  
40212 -에서  
40213 -으로  
40214 -으로  
40215 -으로  
40216 -으로  
40217 -와/과  
40218 -와/과  
40219 -보다  
40220 -처럼  
40221 -만큼

40201 감씨가, 빵이  
40202 코가  
40203 코뎡이를, 코를  
40204 무를  
40205 아줌마한테  
40206 누구더러  
40207 누구한테  
40208 지비  
40209 나중이  
40210 큰지비서  
40211 서울서, 시장이서  
40212 여그서  
40213 참쌀로, 참쌀루  
40214 지비루  
40215 산내끼루, 새끼루  
40216 어디루  
40217 \*  
40218 나랑, 나아구  
40219 정보덤  
40220 돼지가치  
40221 너치름

40222 -만큼  
 40223 -아/야  
 40224 -아/야  
 40225 -아/야  
 40226 -아/야  
 40226-1 -예  
 40227 -아/야  
 40227-1 -요  
 40228 -이랑  
 40229 -커녕

40222 그만큼만, 머글만치만, 이마만큼만  
 40223 봉나마  
 40224 봉남씨  
 40225 영수야  
 40226 누나, 눈님  
 40226-1 누님  
 40227 하라부지  
 40227-1 \*  
 40228 수리랑 고기랑, 술 고기(+생략)  
 40229 점신커녕, 마녀는구만두구(+‘은 그만두고’),  
 즈시니구저녀기구(+‘~이고~이고’)

#### 4.2.2. 보조사

40230 -은/는  
 40231 -만  
 40232 -도  
 40233 -마다  
 40234 -부터  
 40235 -까지  
 40236 -조차  
 40236-1 -할라  
 40237 -이야/야  
 40238 -을랑  
 40239 -이라도  
 40240 -밖에  
 40241 -가지고

40230 수른 머거도 담배는  
 40231 가만, 가만  
 40232 키도크고얼굴도  
 40233 날마두, 일쭉일래  
 40234 오늘부터  
 40235 오늘까장  
 40236 물두  
 40236-1 비할라  
 40237 도니야  
 40238 당체, 소릴랑  
 40239 부자래두  
 40240 너빼끼  
 40241 싸가꾸

#### 4.2.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40243 알았어-요  
 40244 했지-요?

40242 오라고, 오란다, 오라  
 40243 아러써요  
 40244 해써요



## 4.3. 종결어미

### 4.3.1. 명령법

40301 -아라

40302 -게

40303 -으오

40304 -으십시오

40305 -세요

40301 안저라

40302 안저, 양께

40303 안저유, 안지세요

40304 안지세요

40305 안지세요

### 4.3.2. 청유법

40306 -자

40307 -세

40308 -으오

40309 -십시오

40310 -세요

40306 가자

40307 가세

40308 감싸다

40309 가시조

40310 가시조

### 4.3.3. 의문법

40311 -니

40312 -나

40313 -오

40314 -습니까

40315 -나요

40316 -니

40317 -나

40318 -시오

40319 -십니까

40320 -세요

40311 오냐

40312 오나

40313 와요

40314 음니까, 와요

40315 와요

40316 가니

40317 가능가

40318 가요

40319 가세요, 가시조

40320 가세요

### 4.3.4. 서술법

40321 -는다

40321 명능구나

40322 -네  
40323 -오  
40324 -습니다  
40325 -네요  
40326 -다  
40327 -네  
40328 -소  
40329 -으십니다  
40330 -으세요

40322 머꾸인네  
40323 멩네요  
40324 머꾸인네요  
40325 머꾸인네요  
40326 쪽따  
40327 쫑네  
40328 즈거요  
40329 자거요, 장네요  
40330 장네요

#### 4.3.5. 반말

40331 -아  
40332 -지

40331 아퍼, 아프냐, 아풍가  
40332 갈꺼여앙갈꺼여

#### 4.3.6. ‘이다’의 종결어미

40333 -이다  
40334 -이니  
40335 -이네  
40336 -인가  
40337 -이오  
40338 -이요  
40339 -입니다.  
40340 -입니까  
40341 -이시지요  
40342 -이시지요  
40343 -이냐?  
40344 -인가?  
40345 -이오?  
40346 -입니까?  
40347 -인가요?  
40348 -이야?  
40349 -이어요?

40333 생이려, 생이리다  
40334 생이리냐  
40335 생이리네야, 생이리다  
40336 생이링가, 생일여  
40337 생이리네요, 생이리요  
40338 생이리예요, 생이리요  
40339 생신이네요, 생이리예요  
40340 생시니여요, 생이리여요, 생이리예요  
40341 생시니네요, 생이리네요  
40342 생시니여요  
40343 뭐냐  
40344 뭇가  
40345 뭇에요  
40346 뭇에요  
40347 뭇여요  
40348 뭇여, 뭇가  
40349 뭇요

###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40351 -습디다

40352 -는구나/구나

40353 -는구먼/구먼

40354 -일세

40355 -으마

40356 -음세

40357 -올라

40350 마나네요, 인네요

40351 마나테요

40352 명냐, 명는다, 명능구나

40353 \*(+꼭취하지 못했으나 '명능구만/구먼'으로  
사용되며 발화장면은 '40352'와 유사함)

40354 오랜마니 만난네

40355 가퍼주께

40356 가퍼주께야(+친한 친구), 가퍼주매(+친하지  
않은 친구), 가푸매(+친하지 않은 친구)

40357 다칠라

##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40402 -으면서

40403 -어/-어서

40404 -으니 /-으니까

40405 -관데

40406 -다가

40407 -거든

40408 -더라도

40409 -으려고

40410 -도록

40411 -을수록

40412 -듯이

40413 -지

40401 밥머꼬

40402 보머서

40403 추어서

40404 따따다잉게, 따수니까, 이췌게

40405 이깁디

40406 오다, 오다가

40407 만나면

40408 떼췌다구, 처두

40409 머글라구

40410 부서지더락

40411 안저췌쓰락, 안질쓰락, 이글췌럭

40412 물쓰드끼, 물쓰든

40413 먹찌, 보고

## 4.5. 주체 존대

40501 -셔

40502 -췌소

40501 오세요, 오셔(+약간 존대), 와, 와요

40502 하셔췌

## 4.6. 시제

40601 웃는다	40601 운는다
40602 기어간다	40602 겨간다
40603 크다	40603 크다
40604 생일이다	40604 생이리다
40605 오고 있다	40605 온다, 하고이씨
40606 먹었니?/잠수셨습니까?	40606 드셔썬요, 밤머건냐, 안잠썬면
40607 왔었다	40607 와썬는다
40608 먹더라	40608 먹떠라, 먹떼요
40609 먹더냐	40609 먹떼
40610 만나는 친구	40610 만나는
40611 만난 친구	40611 만난
40612 만났던 친구	40612 머거똥건테
40613 만날 친구	40613 만날
40614 큰 아이	40614 큰
40615 크던 아이	40615 크던
40616 컸던 아이	40616 와편
40617 마시지 않겠다	40617 안는다
40618 비가 오겠다	40618 비오거썬, 쏘다질꺼가트네

##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40701 암머거썬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40702 안조네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40703 깨까다지 아냐, 앙깨까타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40704 장개안즉 안가썬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40705 암만나바따구, 암만나썬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40706 암머꾸
40706-1 먹도 않고	40706-1 *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40707 몸마셔
40708 맞잖소?/안 맞소?	40708 아냐(+안햐)

## 4.8. 피동과 사동

### 4.8.1. 사동

40801 살리다	40801 살려나따
40802 늘리다	40802 늘려라
40803 말리다1	40803 말려라
40804 말리다2	40804 말겨
40805 열리다	40805 열려
40806 녹이다	40806 노켜라
40807 신기다	40807 싱겨
40808 보이다	40808 보여줘
40809 알리다	40809 알켜줘라
40810 입히다	40810 이퍼줘
40811 얹히다	40811 안쳐나라
40812 벗기다	40812 베겨
40813 웃기다	40813 우겨라
40814 씹히다	40814 씹퀴
40815 숨기다	40815 숨켜나따
40816 굶기다	40816 궁겨
40817 깨우다	40817 깨워
40818 돌우다	40818 *(+대답 유도 못함)

### 4.8.2. 피동

40819 잡히다	40819 재퍼
40820 깎이다	40820 깨껴써
40821 끼이다	40821 깁겨써, 쩍겨
40822 떼이다	40822 띠여써
40823 채이다	40823 채여따
40824 달히다	40824 다쳐써
40825 들리다	40825 들려
40826 엮히다	40826 어퍼따
40827 바뀌다	40827 배껴써
40828 씹히다	40828 씹퍼

40829 얹히다  
40830 찍히다  
40831 놀리다  
40832 실리다  
40833 꿇기다  
40834 굽히다

40829 언칭거  
40830 찌켜  
40831 놀려서  
40832 실려  
40833 끈켜썬  
40834 글켜

##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40902 싶다  
40903 보다  
40904 버리다  
40905 대다  
40906 -나/는가 보다  
40907 -나/는가 보다  
40908 -나/는가 보다

40901 시풍계  
40902 중 아라떠니(+’~가 싶더니’는 안씀)  
40903 이버바라  
40904 머거버런네  
40905 우리대네  
40906 이라나보다  
40907 자능개비다  
40908 춤나보다

## 4.10. 부사

41001 실컷  
41002 많이  
41003 너무  
41004 조금  
41005 자주  
41006 빨리  
41007 얼른  
41008 기어코  
41009 가끔  
41010 먼저  
41011 나중에  
41012 가득

41001 실컷, 양곤  
41002 마니  
41003 너머  
41004 쪼금만, 췌금만  
41005 자주  
41006 빨리  
41007 얼렁  
41008 아글쓰고, 기어코(+잘 쓰지 않음)  
41009 가끔  
41010 먼저  
41011 나중에  
41012 가드키

41013 몽땅  
 41014 모조리  
 41015 혼자  
 41016 항상  
 41017 똑똑히  
 41018 겨우  
 41019 늘  
 41020 저절로  
 41021 자꾸  
 41022 설마  
 41023 하마터면  
 41024 함께  
 41025 걸핏하면  
 41026 공연히  
 41027 그냥  
 41028 매우  
 41029 곧장  
 41030 벌써  
 41031 가장  
 41032 가만히  
 41033 미리  
 41034 이따금

41013 몽땅  
 41014 모조리  
 41015 혼자(+ '혼차'라고 쓰기도 함)  
 41016 항상  
 41017 똑떼기  
 41018 간시니, 겐시니  
 41019 늘  
 41020 저절루, 지절로, 지절루  
 41021 자꾸, 다꾸(+다)  
 41022 설마  
 41023 하마트라면  
 41024 함께  
 41025 걸뜨타면, 걸빼타면  
 41026 꽤니, 고야니  
 41027 그냥  
 41028 매우(+잘 쓰지 않음)  
 41029 곧짱  
 41030 벌써, 벌써  
 41031 쥬, 최고(+ '가장'은 잘 쓰지 않음)  
 41032 가마니  
 41033 미리  
 41034 이따끔

## 4.11. 관용적 표현

### 4.11.1. 관용어구

41101 여보	41101 여보
41102 여보세요	41102 여보세요
41103 들어가세요	41103 안녕이보세요, 드러가세요(+젊은 층에서 사용)
41104 수고하세요	41104 수고드라, 더하구와, 찬차니와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41105 오래칸마니네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41106 안녕하셔썬요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41107 그동안 안녕하셔썬요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41108 여기 있습니다  
 41109 예  
 41110 아니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41112 내버려 둬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41108 돈 바드세요  
 41109 예  
 41110 나 아녀요  
 41111 나 아무시랑 아내요, 나 암시랑 아나다  
 41112 내비뒤라  
 41113 거리나개나

## 4.11.2. 속담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41116 아니 뎌 굴뚝에 연기 나랴

41114 미빠진 도 도게 물부끼나 향가지다  
 41115 바늘도도기 소도둑 도냐  
 41116 아니 뎌 굴뚜기 영지나냐

=4 가끔가끔  
 =4 그새  
 =4 깔려서  
 =4 날마도  
 =4 너머  
 =4 드문드문  
 =4 똑바로  
 =4 띠껴서  
 =4 뒤편  
 =4 빼껴써  
 =4 짹:  
 =4 짹:씨러  
 =4 어짜다  
 =4 언제든지  
 =4 찢려  
 =4 채워줘  
 =4 치여서  
 =4 하나





##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위원장 이기갑 (목 포 대 학 교)
- ◆ 위 원 강영봉 (제 주 대 학 교)
- ◆ 위 원 김무식 (경 성 대 학 교)
- ◆ 위 원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 ◆ 위 원 김정대 (경 남 대 학 교)
- ◆ 위 원 박경래 (세 명 대 학 교)
- ◆ 위 원 소강춘 (전 주 대 학 교)
- ◆ 위 원 한영목 (충 남 대 학 교)
- ◆ 위 원 최명옥 (서 울 대 학 교)
- ◆ 위 원 홍윤표 (연 세 대 학 교)

